조선어학전서 23

조선어음운론

사회과학출판사
주체94(2005)

조선어학전서 23

조선어음운론

사회과학출판사
주체94(2005)

차 례

머리말 ······························· (3)
제1장. 음운에 대한 일반적리해 ······························· (8)
제1절. 음운과 그 변종 ······························· (8)
1. 음운리론의 발생발전 ······························· (8)
2. 음운 ······························· (14)
3. 음운의 변종 ······························· (16)
4. 음운과 그 변종의 호상관계 ······························· (21)
제2절. 음운체계와 음운들의 상관관계 ······························· (24)
제3절. 음운의 변화발전 ······························· (31)
제2장. 조선어음운체계 ······························· (39)
제1절. 조선어모음과 자음의 구분 ······························· (39)
제2절. 조선어모음체계 ······························· (45)
1. 조선어홑모음의 소리값 ······························· (45)
2. 조선어홑모음의 음운론적표식 ······························· (56)
3. 조선어홑모음의 상관관계 ······························· (62)
4. 조선어겹모음체계와 상관관계 ······························· (66)
5. 조선어모음체계와 관련한 외국학자들의 견해에 대한 비판 ······························· (70)
제3절. 조선어자음체계 ······························· (76)
1. 조선어자음의 소리값 ······························· (76)

2. 조선어자음의 음운론적표식 ··························· (87)
3. 조선어자음의 상관관계 ··························· (91)
4. 조선어자음체계와 관련한 외국학자들의 견해에 대한 비판 ··························· (107)

제3장. 조선어음운의 실현 ··························· (111)

제1절. 조선어자음음운의 변종 ··························· (111)
제2절. 조선어음운의 실현 ··························· (121)
1. 조선어음운의 실현위치 ··························· (121)
2. 조선어음운의 실현형태 ··························· (123)
제3절. 조선어음운의 결합규칙 ··························· (152)
1. 한 소리마디안에서의 음운들의 결합규칙 ··························· (154)
2. 소리마디와 소리마디사이에서의 음운들의 결합규칙 ··························· (164)

제4장. 조선어음운의 결합단위로서의 소리마디 ··························· (173)

제1절. 소리마디의 개념과 소리마디에 대한 여러가지 견해 ··························· (173)
제2절. 조선어소리마디구성과 그 종류 ··························· (178)
1. 조선어소리마디의 구성 ··························· (178)
2. 조선어소리마디의 종류 ··························· (179)
제3절. 조선어에서의 소리마디구분 ··························· (181)

제5장. 조선어단어의 운률문제 ··························· (188)

제1절. 소리마루의 개념과 기능 ··························· (189)
1. 소리마루의 개념 ··························· (189)
2. 소리마루의 기능 ··························· (197)
3. 소리마디마루와 단어마루 ··························· (199)
제2절. 조선어단어마루의 특징 ··························· (201)

머 리 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말은 발음이 매우 풍부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말과 글로써는 동서양의 어떤 나라 말의 발음이든지 거의 마음대로 나타낼수 있습니다.》(《**김일성**전집》 32권, 355페지)

우리 나라 말소리는 자기 기능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는 우수한 특질을 원만히 갖추고있다. 발음에서 높고낮음과 길고짧음이 있어 말소리흐름을 조화롭고 류창하게 하며 말소리가 풍부하여 다른 나라 말의 발음을 거의 마음대로 나타낼수 있다.

이러한 우수한 특질을 가지고있는 조선어말소리를 깊이있게 연구하는것이 오늘 우리 어음론학자들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지난 기간 우리 나라에서는 조선어어음론에 대한 연구가 적지 않게 진행되였다. 어음론연구에서는 통시태적연구뿐만아니라 공시태적연구가 많이 진행되였다. 공시태적연구에서는 조음—음향학적 측면에서 심도있게 진행되였다. 즉 렌트겐촬영과 카이모그라프, 음성스펙트르그라프, 쏘나그라프에 의한 음성분석이 진행되여 매개 말소리의 특징을 보다 과학적으로 확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음운론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진행되였다.

지난 기간 우리 나라에서 음운론을 연구하는 경우 어음론과의 계선을 가르지 않고 그 테두리안에서 고찰하였다. 물론 음운론이 어음론과 밀접히 련계되여있는만큼 호상 련관속에서 고찰하여야 하는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음운론이라는 과학분과가 따로 존재하는만큼 그것을 어음론과 구분하기 위하여 연구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리하여 오늘날 어음론연구에서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조선어음운론을 깊이 연구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책에서는 지금까지 이룩한 선행학자들의 연구성과들을 받아들이면서 조선어음운론을 체계적으로 서술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음운론의 연구는 19세기 70년대 후반기 음운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면서 시작되였다. 그전까지는 어음론이라는 테두리안에서 통일적으로 연구되였다.

언어행위에서 발현되는 말소리는 유일한것이지만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현상이다. 그것은 말소리가 발음생리적인 측면, 물리음향학적인 측면, 언어학적인 측면을 가지고있는것과 관련된다.

말소리는 발음기관들의 운동에 의하여 발생한다. 말소리발생의 발음생리적인 측면에서는 발음기관들의 구조작용, 발음위치와 발음방식의 일반적합법칙성과 특성을 연구한다. 독자적인 과학분파로서 생리학이 있는 조건에서 발음생리적측면에서는 언어의 물질적수단이며 의미와 밀접히 련관된 말소리를 연구하게 된다. 이때 말소리와 하등의 관계도 없는 순수 자연상태에서의 소리의 연구는 아무런 의의도 없다. 개개의 말소리는 언어의 그 어떤 의미를 가지지 않지만 뜻단위인 단어나 형태부의 물질적외피를 이루어주고 구별시켜준다는 측면에서 언어의 뜻과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따라서 말소리의 발음생리적측면의 고찰은 철저히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진행되게 된다.

말소리에 대한 연구는 물리음향학적측면에서 진행된다. 그것은 말소리가 사람들의 발음기관의 작용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일정한 물리음향학적특성을 가지기때문이다. 말소리는 일정한 발음기관의 작용에 의하여 공기매질을 진동시켜 발생되며 그것이 듣는 사람에게 전달된다. 물리음향학적측면에서 보면 말소리는 일정한 높이, 세기, 길이, 음색을 가지게 된다. 언어에 대한 물리음향학적인 측면의 연구에서는 말소리의 물리음향학적인 특성량들이 언어의 뜻을 이루는데 작용하는 측면들을 고찰하게 된다.

발음생리적측면이나 물리음향학적인 측면은 어음론의 연구대상

이다.

음운론의 대상도 말소리이다. 말소리라는 대상은 하나인데 이것을 어느 측면에서 연구하는가에 따라 음운론과 어음론으로 갈라진다.

음운론에서는 매개 음운의 소리값과 음운의 구성, 음운체계의 변화와 발전 및 음운들의 호상관계와 결합의 합법칙성을 연구한다.

이것은 음운론이 어음론과 완전히 동떨어진 과학이라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반대로 음운론과 어음론은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있으며 어음은 음운론의 물질적기초로 된다. 어음을 떠난 추상적인 음운론이란 생각할수 없다. 여기에 바로 음운론이 물질을 떠난 추상적과학이 아니라 언어의 물질적외피로서의 자기기능을 수행하는 현실적과학으로 되는 중요한 근거가 있다.

음운론은 현실세계와 동떨어진 추상적인 과학이 아니라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에 직접 이바지하는 현실적이며 실천적인 과학이다. 따라서 해당 언어의 음운론을 깊이 연구함으로써만 언어실천과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해나갈수 있다.

음운론을 깊이 연구하여야 해당 나라 말의 발음규범을 옳게 제정할수 있다.

발음규범이라 할 때 일정한 언어에서 통일적인 발음을 규정하는 규칙의 총체이다. 발음은 음운을 실현시키는 과정이다. 음운이 실현될 때 그것이 이러저러한 변종으로 나타나며 그 과정에 일정한 발음규칙이 생겨난다. 이 규칙을 규범화한것이 발음규범이다. 발음규범을 옳게 정하기 위하여서는 발음규칙을 잘 알아야 한다. 발음규칙은 음운론적인 과정에서 나타나기때문에 음운론을 깊이 연구하여야만 정확하고 통일적인 발음규범을 정할수 있다. 음운론적과정도 세월이 흐름에 따라 부단히 변하는바 이 변화된 현상들을 규범으로 옳게 정하기 위해서도 음운론을 깊이 연구하여야 한다.

음운론을 깊이 연구하는것은 또한 글자를 새로 만들거나 개정하는데도 큰 의의가 있다.

음운은 각이한 변종으로 나타나는 어음의 대표자이며 음운론적

인 최소단위이기때문에 글자가 여기에 대응되여 만들어져야만 언어의 표기기호로서의 자기 사명을 다할수 있다.

물론 해당 언어의 음운수와 글자수가 같은것은 아니다. 음운수보다 글자수가 많을수도 있고 적을수도 있다.

례컨대 영어의 글자수는 26개이지만 음운수는 46개이며 로어의 경우에는 글자수가 33개이지만 음운수는 42개나 된다. 뜻글자인 한자의 경우에는 음운수와 글자수의 비례가 엄청난 차이를 가진다. 중국어의 음운수는 40여개이지만 글자수는 수만개나 된다. 이것은 뜻글자인 경우는 더 말할것도 없고 자모글자인 경우에도 음운수와 글자수가 항상 같은것이 아니라는것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글자를 만드는 경우에 될수록 하나의 음운에 하나의 글자를 대응시키려고 한다. 음운과 글자가 이렇게 1대 1로 대응된다면 이것이야말로 리상적인 글자이다. 이러한 대응관계에 기초해서 글자들을 만들고있으나 음운과 글자의 변화가 일치성을 띠지 않기때문에 대응관계에서는 차이가 나게 된다. 그 대표적실례의 하나가 영어이다. 고대영어에서는 어느 정도 음운과 글자의 대응원칙에서 글자를 만들었으나 그후 음운의 변화에 글자를 대응시키지 않았기때문에 오늘에 와서는 음운과 글자의 대응관계에서는 심한 차이를 보여주고있다.

음운의 변화에 따라 글자수의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들이 자주 있다.

조선어의 경우에도 훈민정음창제당시에는 《·, △》와 같은 음운이 있었기때문에 그에 대응되는 글자가 있었다. 그후 이 음운들이 자연히 소멸되였기때문에 그에 대응되던 글자도 없어지게 되였다.

※ 《△》를 자립적인 음운으로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음운의 변종 또는 표기변종으로 인정하는 사람도 있다.

이처럼 글자는 음운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때문에 글자를 새로 만들거나 개정하기 위하여서는 음운론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어야 한다.

끝으로 음운론을 깊이 연구하는것은 외국어교육과 자기 말의 발음교육을 위해서도 의의가 있다. 다른 나라 말을 배워줄 때에 그 나라 글자의 발음부터 시작하여 단어를 익히게 된다. 매개 글자와 소리구성은 음운과 직접 련계되여있기때문에 음운구성과 그 체계, 음운의 실현과정을 모르고서는 외국어교육을 잘할수 없다.

외국어를 배우는 측면에서 볼 때 글자에 대응되여있는 매개 음운의 소리값과 음운의 실현으로서의 단어의 발음을 똑똑히 알아야만 외국어를 원만히 습득할수 있다.

또한 모국어의 발음교육은 단어에서의 음운의 실현과정을 정확히 알고 발음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음운에는 자기의 본질적속성이 있지만 그것이 단어에서 실현될 때에는 다양한 양상을 띠게 된다. 이것은 다 음운이 실현되는 과정에 나타나는 우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필연적인 과정이다. 음운이 실현되는 합법칙성을 잘 알아야만 모국어의 발음교육도 잘할수 있다.

이처럼 음운론에 대한 깊은 연구는 글자만들기, 정확한 발음규범제정, 발음교육을 비롯한 언어실천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제1장. 음운에 대한 일반적리해

제1절. 음운과 그 변종

1. 음운리론의 발생발전

음운이 어음과 어떻게 다른가, 그것이 어떤 체계를 가지고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 하는 문제가 어음론학자들의 큰 관심사로 되여왔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기간 많은 론쟁들이 있었으나 완전한 해결을 보지 못한 문제의 하나이다.

유럽학계에서는 19세기 70년대 후반기로부터 음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론의되였다.

1862년 로씨야의 어음론학자 우슬라르가 깝까즈산간지대 언어의 민족글자를 만들면서 인간의 어음이 의미를 식별해주는 역할을 논다고 지적하였을뿐 그는 아직 어음과 음운을 구분하지 않았고 음운의 개념에 대하여서는 언급조차 하지 못하였다.

1860년대말에 로씨야언어학자(뽈스까태생) 보두엔 데 꾸르떼네가 《14세기이전의 고대뽈스까어》에서 어음의 물리적속성이 인간의 감각에 미치는 영향과 언어구조에서 그 역할이 같지 않을수 있을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으면서 음운의 개념에 대하여 처음으로 언급하였다. 물론 그가 제기한 음운에 관한 리해는 아직 완전히 과학적인 것은 되지 못하였다. 그는 음운을 《형태부의 가동적인 요소》, 《형태부구성에서만 언어학적의미를 가지는 언어학적가치》 또는 《어음의 심리적등가물》이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음운을 사람의 심리속에서의 한 어음에 대한 표상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존재하는것은 개인의 언어뿐이라고 하였다.

그가 음운을 언어의 의미적단위인 형태부의 구성속에서 보면서 언어의 뜻단위와 결부시킨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할수 있으나 음운을 어음의 심리적등가물로 규정한것은 음운에 대한 심리주의적립장 즉 주관관념론의 립장에 머물러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음운은 사람들의 심리속에 존재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언어의 의미적단위인 단어나 형태부의 물질적측면을 이루어주는 현실적인 어음이다.

따라서 꾸르떼네가 주관적관념론에 기초하여 음운을 개인심리에로 끌어간것은 과학적이라고 볼수 없다.

그후 꾸르떼네의 제자인 엘.베.쉐르바가 1912년 《질량관계에서의 로씨야어모음》에서 음운은 《우리의 심리적활동의 산물》이라고 하면서 음운의 본질규정에서 심리주의에 머물러있었으나 그후 처음으로 음운의 구별적기능에 대하여 주의를 돌리면서 음운은 더는 가를수 없는 최소의 어음론적단위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음운과 그 변종문제를 제기하고 그의 의미구별적기능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단어의 의미를 다르게 할수 있는 어음은 서로 다른 음운이며 단어의 의미를 구별해주지 않는 어음은 동일한 어음의 변종이라고 하면서 음운과 그 변종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언어행위에서 발음되는 어음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여러가지 어음의 수보다 훨씬 많다. 이 어음들은 매개 해당 언어에 있어서 단어와 그 형태 등을 능히 구별해줄수 있는 비교적 많지 않은 수의 어음적류형으로 통합된다. 우리는 이 어음적류형을 음운이라고 한다. 현실적으로 발음되는 여러가지 어음 즉 일반적인것(음운)을 실현할수 있는 개별적인것들은 음운의 변종이라고 부른다.》

그는 단어나 형태부 등을 구별할수 있는 어음적류형을 음운이라고 하면서 음운은 일반적인것이고 변종은 개별적인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엘.베.쉐르바가 초기단계에서는 음운의 정의에서 주관적관념론에 빠져있었으나 그후 음운의 의미구별적기능을 해명하고 음운과 변종문제를 제기한것은 일정하게 긍정적인 면이라고 볼수 있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음운은 현실적인 어음속에 존재하지만 어음과 음운은 결코 같은것이 아니며 음운은 구체적인 어음속에 그 기초를 두고있는 일반적인것이라는것이다. 언어행위과정에 어음은 다양한 양상을 띠지만 거기에서 일반적인것은 변하지 않으며 그것이 바로 음운이며 음운이 일반적인것이라면 어음은 개별적인것이다. 일반적인것은 개별적인것속에 있으며 개별적인것을 통하여 나타난다고 하였다.

1920년대말에 발생한 쁘라하언어학파의 학자들은 음운에 대한 주관적관념론의 립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각도에서 음운을 해석하였다.

엔.에쓰.뚜르베쯔꼬이는 주관적관념론의 립장에서 음운을 해석하던 종래 학자들의 약점을 극복하고 어음과 음운의 계선을 명백히 하였으며 음운리론을 보다 과학적인 토대우에 올려세웠다.

그는 음운과 어음은 완전히 서로 다른 분야에 속하기때문에 그것들을 동일시할수 없으며 그 연구도 서로 다른 각도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어음은 생리—음향학적인 요소로, 음운은 언어의 뜻을 나타낼수 있는 추상적인 요소로 보았다. 그리하여 음운의 의미적측면에 대한 연구와 어음의 물질적성질에 대한 연구를 갈라 서로 다른 분과로서 연구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즉 구체적인 물리적현상과 관련되는 언어행위의 어음에 대한 연구는 자연과학적인 방법을 적용해야 하고 언어의 어음에 대한 연구는 언어학적인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어음과 음운사이의 계선이 그어지고 음운에 대한 개념이 완성되여갔지만 어음과 음운을 전혀 다른 별개의것으로 취급하면서 그 연구방법도 갈라놓은것은 옳은것이라고 보기 힘들다.

쁘라하언어학파의 학자들에 의하여 어음과 음운의 계선이 그어지고 음운에 대한 개념이 서갔지만 모든 학자들이 그들과 견해를 같이한것은 아니였다.

다니엘 죤스는 해당한 언어에서의 하나의 어음친족을 음운이라고 주장하였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말을 할 때 이 어음친족의 매 요소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실현되며 이때 이 어음친족의 어느

한 요소가 있는 위치에서 친족의 다른 요소는 볼수 없다는것이다. 그는 음운은 추상적의미요소가 아니라 생리—음향학적으로 가까운 소리들의 친족이며 한 친족에서 개별적요소들의 차이는 말에서 실현되는 그들의 위치에 관계된다고 하였다.

오늘의 견지에서 볼 때 어느 한 음운과 그 변종의 총체를 어음친족이라고 본것이다. 음운의 변종은 위치적조건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타날수 있다.

례컨대 조선어에서 《보다》에서의 [ㅂ]는 무성음, 《가보다》에서의 [ㅂ]는 유성음, 《십》에서의 [ㅂ]는 막힘소리(속터침소리), 《각본》에서의 [ㅂ]는 《된소리》로 된다. 여기에서 음운 [ㅂ]가 각이한 위치적조건에 따라 여러 변종으로 나타났다. 말머리에서는 무성음, 모음과 모음사이에서는 유성음, 끝소리에서는 속터침소리, 막힘소리뒤에서는 《된소리》로 나타났다. 다니엘 죤스의 견해에 의하면 이 모든 어음들이 어음친족이라는것이다.

지난 기간 세계어음론학계에서 신중히 론의된것이 음운의 기능에 대한 문제이다. 음운의 기능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문제는 음운의 본질규정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그가운데서 하나가 음운이 단어의 의미구별적기능을 수행한다는것이다. 매개 음운 그자체가 그 어떤 의미도 가지고있지 않지만 단어의 의미를 구별시킨다는것이다.

례컨대 조선어의 《가울》에서 음운 《ㄱ》를 《ㅁ》로 바꾸면 《마을》이라는 다른 의미의 단어가 되고 음운 《ㅏ》를 《ㅗ》로 바꾸면 《고을》이라는 다른 의미의 단어가 된다.

로어단어 《порт(항구)》에서 음운 《п》를 《т》로 바꾸면 《торт(과자의 한가지)》라는 다른 의미의 단어가 된다.

우에서와 같이 음운 《ㄱ》, 《ㅁ》, 《ㅏ》, 《ㅗ》, 《п》, 《т》가 직접 단어의 의미를 구별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음운이 비록 뜻은 가지고있지 않지만 단어의 의미를 구별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이 견해의 부족점은 음운을 직접 단어의 의미구별과 결부시킨것이다. 음운이 단어의 의미를 구별시킬수도 있고 구별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소리가 같고 뜻이 다른 단어가 아닌 경우에는 음운이 단어의 뜻을 구별시키는 기능을 수행할수 있지만 소리가 같고 뜻이 다른 단어인 경우에는 음운이 단어의 뜻을 구별시키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례컨대 조선어에서 《밤》과 《밤》, 로어에서 《замóк(성새)》와 《зáмок(자물쇠)》는 소리가 같고 뜻이 다른 단어로서 음운구성과 결합관계는 같지만 뜻은 다르다. 여기서 단어의 뜻을 구별시키는것은 음운이 아니라 운률적요소이다. 운률적요소는 음운이 아니다. 따라서 음운이 직접 단어의 의미를 구별시킨다고 하는것은 과학적타당성이 없다.

음운의 기능에서 다른 하나는 음운이 형태부나 단어의 물질적외피를 이루어주고 구별시켜주는 음운론적기능을 수행한다는것이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음운이 직접 단어의 의미를 구별시켜주는것이 아니라 단어나 형태부의 물질적외피를 이루어주고 구별시켜준다는것이다. 첫째 견해에서는 음운이 직접 단어의 의미를 구별시켜준다고 하였고 둘째 견해에서는 음운이 의미를 구별시켜주는것이 아니라 단어의 물질적외피(어음)를 구별시켜준다고 하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개별적음운이 단어의 의미를 구별시켜주는듯한 인상을 준다. 그것은 개별적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교체됨으로써 단어의 뜻이 달라지기때문이다. 단어의 뜻은 일정한 음운들의 순차적인 질서에 의하여 결합되여 련계되고있다. 음운들의 결합과 뜻의 련계는 필연적인것이 아니고 자의적이다. 이 음운결합체에는 반드시 이런 뜻이 담겨져야 한다는것은 없다. 매개 단어의 뜻은 그 단어를 이루고있는 음운결합체에 의하여 유지되며 개개의 음운들은 음운결합체의 하나하나의 성원일따름이다. 단어에서 어느 한 음운이 교체되면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거나 파괴된다.

례컨대 《보리》에서 자음 《ㅂ》를 《ㄱ》로 교체하면 《고리》라는 다른 뜻의 단어가 되며 《ㅗ》를 《ㅜ》로 교체하면 《부리》라는 다른 뜻의 단어가 된다. 만약 《보리》에서 모음 《ㅗ》를 《ㅟ》로 교체하면 《뷔리》로 되여 단어의 의미는 상실되고 아무 뜻도 없는 어음결

합체로 되고만다. 얼핏 보기에는 《보리》에서 《ㅂ》나 《ㅗ》가 단어의 의미를 구별하는것 같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그 음운들이 단어의 물질적외피를 이루어주고 구별시켜줌으로써 뜻구별에 이바지하는것이다. 개개의 음운에는 아무런 뜻도 없다. 음운은 물질적인 존재로서 단어의 뜻을 직접적으로 구별시켜주는것이 아니라 단어를 이루어주고 구별시켜주는것을 통하여 의미구별에 이바지한다.

인디아—유럽학계에서보다 몇백년이나 앞서 우리 나라 학자들은 음운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있었다. 《훈민정음》을 만든 학자들은 이미 15세기에 조선민족글자를 만들면서 《終聲復用初聲》이라고 하여 끝소리의 글자를 첫소리에도 쓴다고 하였다. 첫소리를 끝소리에도 쓴다고 한것은 첫소리와 끝소리에 쓰인것이 같은 어음 즉 구체적으로 말하여 같은 음운이라는것을 증시하는것이다.

조음적으로나 음향학적으로 보면 조선어의 첫소리와 끝소리는 현저한 차이를 가지고있다.

례컨대 막소리로서의 첫소리 《ㄱ, ㄷ, ㅂ》는 발음과정이 막음→지속→터침의 단계를 거치나 이 소리들이 끝소리로 될 때 막음과 지속만 있고 터침단계는 없다. 울림자음 《ㅁ, ㄴ, ㄹ》 경우에도 첫소리에서 발음될 때에는 막음, 지속, 터침으로 끝나지만 끝소리로 발음될 때에는 조음부위의 막음으로 끝난다.

끝소리와 첫소리가 조음—음향학적으로 서로 다른 소리이지만 이것들을 같은 소리로 인정하고 같은 글자로 표기하도록 한것은 음운에 대한 깊은 파악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비록 인디아—유럽학계에서는 19세기 70년대로부터 20세기에 들어와서야 음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론의하여왔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지금으로부터 500여년전인 15세기 중엽에 벌써 음운의 본질과 그 구별적표식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 나라 고유글자인 《훈민정음》의 글자를 만들어냈다. 《훈민정음》창제자들은 아, 설, 순, 치, 후에 따라서 발음부위를 정하고 발성방식을 본따서 글자를 만들었으며 조음방법에 따라 개개의 어음을 갈라 글자를 만든것은 놀라울 정도의 과학적탐구결과라고 말할수 있다.

비록 《훈민정음》창제자들이 당시 음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단어를 이루는 최소의 어음적단위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깊이있게 파악하고있었기때문에 훌륭한 글자를 만들어내여 쓸수 있었다.

2. 음 운

음운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음운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언어학자들의 론쟁거리의 하나로 되여왔다.

19세기말부터 20세기초까지 주관적관념론의 립장에서부터 음운을 《어음의 심리적등가물》, 《심리적활동의 산물》이라고 규정하여왔다. 음운 그자체가 어음의 형식을 띠고 언어의 유의미적단위의 물질적외피를 분별시켜주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의 일반화이다. 이것을 순수 인간심리와만 결부시킨다는것은 음운의 물질성을 인정하지 않는것으로 된다. 비록 음운이 구체적어음의 일반화의 형태로 존재하지만 그의 물질성을 거부한다면 그것이 단어나 형태부의 물질적외피로 될수 없다. 어음이 개별적인것이고 음운이 일반적이라 하는것은 어음의 물질적기초를 떠난 완전히 추상적인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음운은 어음이라는 물질성에 기초를 두고있다. 세상에 물질성을 떠난 순수 심리적인 음운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어음은 개별적이며 구체적인것이다. 이 개별적인것속에 일반적인 요소가 포함되여있으며 그것이 음운을 이루는 속성으로 된다. 어음이 가지고있는 본질적속성의 일반화가 곧 음운이다. 이렇게 음운은 어음과 항상 밀접히 련관되여있으며 어음은 음운의 구체적인 실현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어음의 일반화가 음운인것만큼 음운이 《인간심리의 등가물》이 아니다. 음운은 인간이 인식하고 리해하는 언어의 어음과 관련되여있는것이지 인간심리의 등가물이라는 추상화된 개념이 아니라는 립장에 서는것이 중요하다.

1920년대에 쁘라하언어학파의 언어학자들은 음운은 《보다 단순하고 보다 작은 음운론적단위로 갈라지지 않는 음운론적단위》, 《언어의 최소음운론적단위》라고 하면서 음운론의 본질을 《음운론

적으로 본질적표상의 총체》*라고 규정하였다. 이들은 어음에서 본질적표식과 비본질적표식을 가르면서 본질적표식의 총체가 음운이라는것이다. 이들이 말하는 본질적표식이란 구별적표식을 의미한다.

* 《Основы фонологии》-1960년판, 45페지

음운이 언어의 뜻가진단위와 관련되여있는만큼 그것이 대상을 구별시키는것만이 기능이 아니다. 대상은 어음들의 유의미적결합으로서의 실체이기때문에 그 실체를 형성해주는 기능도 음운이 한다. 이처럼 음운은 언어의 뜻가진단위를 형성해주고 구별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쁘라하언어학파 학자들은 대상들을 호상 차이의 관계속에서만 보았기때문에 음운의 본질을 구별적표식의 총체로 본것이다.

이것은 사물의 본질을 한 측면(구별적측면)만 보고 다른 측면(조성의 측면)을 도외시한것으로서 과학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할수 없다.

또한 어떤 학자들은 음운이 변종속에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엘.베.쉐르바는 일반적인것과 개별적인것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변종은 개별적인것이고 음운은 일반적인것인데 음운은 변종속에 있고 변종을 통하여 음운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변종가운데 전형적인(기본적인) 변종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음운이라는것이다.

간단히 말하여 음운도 하나의 변종이라는것이다. 이 리론이 과학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변종은 어음적인 물질로 나타나는 하나의 실체이다. 변종은 실체가 놓인 위치와 환경에 따라 나타나는것인데 음운은 항상 변종으로 나타난다.

또한 어떤 학자들은 음운은 실지 다른것이 아니라 어음이라고 주장하고있다.*

* 《Вопросы фонетики》 П.Р.Зиндер. 레닌그라드, 1948년, 7페지

이들의 견해에 의하면 《음운》이라는 용어는 어음의 의미적측면, 그의 언어적의미, 음향—생리적측면에 대한 우위성, 말소리를 자연계의 모든 소리와는 달리 어음으로 만드는 측면을 강조하여 부른것이라는것이다.

만약 이들의 주장대로 음운을 어음이라고 한다면 음운과 어음의 차이는 없고 이 두 단어는 뜻같은말에 지나지 않을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음운과 어음의 차이, 음운과 변종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지 않을것이다.

음운은 어음과 다른 개념이며 그 내용과 포괄범위도 다르다. 때문에 과학분과로서 음운론과 어음론이 갈라져있는것이며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있으면서도 연구방향이 다른것이다.

그러면 음운의 본질은 무엇인가?

음운이란 언어적단위인 단어나 형태부의 어음적외피를 이루어주고 의미를 구별시켜주는 어음의 최소단위이다.

음운은 개별적인 어음속에 존재하는 물질이다. 음운이 개별적인 어음속에 있고 개별적인 어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일반적인것이라고 하여 어음이라는 물질과 동떨어진 추상화된것이 아니며 음운도 어디까지나 어음을 통하여서만 실현되는 물질이다. 음운이 물질인것으로 하여 언어의 의미적단위의 물질적외피로 되는것이며 다른 음운과 구별하여 단어의 뜻을 분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것이다.

따라서 음운을 추상화된 개념으로가 아니라 구체적인 의미와 관련된 현실적인 실체로 리해하여야 한다.

3. 음운의 변종

음운은 그자체가 고립적으로가 아니라 항상 변종으로 존재한다.

음운의 변종문제는 세계언어학계에서 오래전부터 론쟁거리의 하나로 되여있다.

첫째로, 변종을 일반적인것(음운)이 실현되여 현실적으로 발음되는 각이한 어음이라는것이다. 어음은 음운변종의 실현체이며 하

나의 음운에는 하나 혹은 몇개의 변종이 있는데 이 변종들이 다 같은 지위에 있는것이 아니라는것이다. 변종에는 가장 전형적이며 기본적인 변종과 비전형적이며 부차적인 변종이 있는데 기본적인 변종이 음운을 대표한다고 하였다.

로씨야의 언어학자 엘.베.쉐르바는 음운의 변종가운데는 언어행위의 요소로서 인식되는 소어음운에 있어서 가장 전형적인 하나가 갈라진다고 하였다. 이 《하나의 전형적인것》이 음운이라는것이다.

인식의 견지에서 볼 때에도 전형적인 변종 하나만을 사람들이 지각하며 나머지 변종들은 전형적인 변종과 차이나는것이여서 그것을 가려 듣기 위한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례컨대 로어의 [a]는 그것이 어떤 자음과 결합되는가에 따라 다양하게 발음된다. [a]가 혀앞소리자음사이에서는 앞모음(례: на́до), 두 초점의 자음사이에서는 뒤모음(례: ша́шка), 연자음뒤 [и]요소가 시작되는데서는 겹모음(례: м′ата), 연자음사이에서는 열린모음 [e]에 가깝게 발음된다.(례: мя́ть)

모음 [a]와 관련된 이 모든 변종들은 음운 [a]에 통합된다.

그러나 이 모든 변종들은 언어의 음운체계밖에 있는 어음이 아니며 그 매개 변종들은 이 음운의 다른 변종에 대립되지 않는 이러저러한 외적조건에 제약된 음운 [a]의 대표자이다. 여기서 전형적인 변종은 뒤모음 [a]일것이다.

둘째로, 변종 하나만을 인정하는것이 아니라 변종과 변이를 가르고있는것이다.

언어음의 기능을 지각적기능과 의미적기능으로 가르면서 각각 강한자리와 약한자리를 설정하여 지각적기능으로 보아 약한자리의 어음은 한 음운의 변이라고 하며 의미적기능으로 보아 약한자리의 어음은 그 음운의 변종이라고 하고있다.

동일한 형태부를 구성하며 다른 형태부와 구별하는 최소의 어음단위가 그 위치적조건에 따라 생리음향학적으로 서로 차이나는것을 지각적기능에 소속시키고있다. 음운이 위치결합적조건의 제약을 받지 않을 때의 어음은 지각적으로 강한것이며 제약을 받는것은 지각적으로 약한것이다.

이것은 음운이 놓이는 자리의 개념과 밀접히 련관시키고있다는 것을 말하여준다. 음운은 두개의 위치 즉 강한자리와 약한자리에 놓이는데 강한자리에 놓이는 음운은 다른 음운의 영향을 최대한 적게 받는다.

례컨대 로어에서 력점있는 모음은 자기의 질을 그대로 보존하기때문에 강한자리에 놓이는 음운이다. 음운의 변종과 변이를 가르고있는 모스크바언어학파에서는 소여음운 하나의 말소리에 그 어떤 다른것과 일치하지 않는 음운의 기본형의 변화를 변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례컨대 로어에서 음운 [к], [г], [х] 기본형의 변이로는 모음 [и], [э](кино, гиря, хек)앞에 있는 [к′], [г′], [х′]이다.

로어에서 경자음과 연자음은 다른 음운이며 이때 연자음을 변이라고 하여 따로 개념을 설정하는것은 과학적타당성이 없다.

음운의 변종은 위치적변종과 결합적변종으로 갈라진다. 음운들사이의 관계에서 위치적조건과 결합적조건에 의하여 변종이 생긴다. 음운은 그 실현에서 간혹 고립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다른 음운과의 관계속에서 실현된다. 음운의 실현과정이 변종이 생기게 되는 기본조건으로 된다.

언어가 민족적특성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변종도 나타나는 현상이 언어마다 각이하다.

음운의 결합적변종을 보기로 하자.

조선어에서 음운의 결합적변종으로는 무성음의 유성화, 자음의 입천장소리되기와 입술둥근소리되기현상을 들수 있다.

조선어자음은 막소리와 울림자음으로 구성되여있는데 막소리에는 음운으로서의 무성음이 존재하고 유성음은 없다. 막소리가운데서 《ㄱ, ㄷ, ㅂ, ㅈ》는 모음과 모음사이, 울림자음과 모음사이에서 유성화된다.

또한 조선어의 《ㄴ, ㄹ》가 모음 《ㅣ》나 짧은 《ㅣ》앞에서 입천장소리로 되며 《ㄱ, ㅋ, ㄲ》가 둥근모음앞에서 입술둥근소리로 된다. 이때 나타나는 유성음, 입천장소리, 입술둥근소리는 모두 음운의 변

종들이다.

로어에서는 결합적변종으로서 유성자음앞에 있는 무성자음은 유성음으로 되며(례: сдать[здат′]) 《ш, ж》앞에 《с, з》가 나타나지 않고 그것이 《ш, ж》로 된다.

○ Расшевалить[Рашшевалит′]

Изжарить[ижжарит′]

도이취어에서는 로어와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유성자음앞에 무성자음이 오면 유성음은 무성음으로 발음된다.

○ Selbst['zelpst]

Sagst['zakst]

이러한 변종들은 다른 음운과의 일정한 결합속에서만 나타난다.

다음으로 음운의 위치적변종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이것은 음운이 실현될 때에 일정한 위치에 제약되여 나타나는 변종이다. 이 변종도 민족어에 따라 자기의 특성을 나타낸다.

조선어에서는 끝소리에 나타나는 막소리의 중성화현상을 들수가 있다.

중성화현상이란 음운이 자기의 본질적인 표식을 잃고 단어나 형태부의 물질적외피의 구별적능력을 수행하지 못하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음운이 약한자리에서 본래의 구별적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중성적인 형식으로 남아있다가 강한자리에 와서야 구별적기능을 수행하는것을 말한다.

조선어의 막소리는 단어의 첫 자리나 모음과 모음사이, 울림자음과 모음사이에서는 자기의 구별적기능을 수행하지만 단어의 끝이나 막소리앞에서는 중성화되고만다. 이때 막힘소리로 나타나는 소리는 《자립적인 음운》도 아니며 여러 음운이 합해진 《혼합음운》도 아니다. 이것이 자립적인 음운이 아니라는것은 음운으로서의 표식을 다 갖추지 못한것과 관련되여있다. 이때 바로 음운부류에 따라 조음위치 즉 입술, 혀앞, 혀뒤라는 표식만 가지고서는 다른 음운과 상관적대립을 이룰수 없다.

례컨대 중성화된 《ㅂ》는 입술소리며 막힘소리인데 같은 위치에

서 발음되는 터침소리나 터스침소리가 없으며 《ㄷ》는 혀앞소리, 막힘소리이고 《ㄱ》는 혀뒤소리이며 막힘소리인데 같은 위치에서 발음되는 터침소리나 스침소리, 터스침소리가 없기때문에 대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조선어에서 단어의 첫소리로서는 [ㆁ]를 내놓고는 모든 자음이 다 나타나서 다른 자음과 구별되나 막소리들이 받침으로 쓰일 때는《ㄱ, ㄷ, ㅂ》로 중성화되고만다. 《ㅋ, ㄲ》는 혀뒤막힘소리로 중성화되고 《ㅍ》는 입술막힘소리로 중성화되며(《ㅃ》는 끝소리로 나타나지 않는다.) 《ㅅ, ㅆ, ㅌ, ㅈ, ㅊ》(《ㄸ, ㅉ》는 끝소리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혀앞막힘소리로 중성화된다.

중성화된 소리들은 모두 음운의 변종들이다. 끝소리로 나타나는 막소리를 《ㄱ, ㄷ, ㅂ》로 표기하고있지만 이자체도 변종이다. 첫소리에 나타나는 《ㄱ, ㄷ, ㅂ》에 비해 끝소리에 오는 《ㄱ, ㄷ, ㅂ》는 발음의 셋째 단계인 터침이 없는 소리이다. 이것이 바로 조선어에서만 나타나는 변종의 특성이다.

인디아—유럽어에서의 위치적변종은 단어끝에 오는 유성음의 무성화현상(례: 로어단어 труд[трут], раз[рас])도 있고 소리마디끝에 있는 유성음이 무성음으로 변하는 현상(례: 도이취어 mög l i c h[mφ: i kliㅇ])도 있다.

학자들속에서는 이것을 변종이 아니라 다른 음운으로 변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혼합음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만약 세상에 《혼합음운》이 존재한다면 그 음운이 무성음의 기능과 유성음의 기능을 다 수행하여야 할것이다.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음운은 있을수 없다. 음운은 자기의 본질적속성을 가지고있다. 매개 음운은 그에 고유한 구별적표식에 의하여 구별된다. 그 구별적표식이 유성음에도 해당되고 무성음에도 해당되는 《공통적》표식으로 되는 경우란 있을수 없다. 음운의 구별적표식은 그 한 음운에만 고유하며 그 속성으로 하여 다른 음운과 상관관계를 가진다. 《혼합음운》을 인정한다면 음운들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음운체계의 정연성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따라서 단어끝이나 소리마디끝에서의 유성음의 무성화현상은 《혼합음운》이 아니며 한 음운의 변종이다. 개개의 음운은 자기의 정연한 구별적표식에 의하여 그 질이 규정되며 다른 음운과 상관관계를 가지는만큼 두개가 합치여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음운이란 있을수 없다.

우리가 변종을 론할 때 발음에서 나타나는 개인적특성을 변종으로 리해하지 말아야 한다. 같은 어음을 한사람이 여러번 반복할 때 음향학적으로 보면 같은 소리가 나지 않으며 그것을 여러 사람이 발음하면 그 차이는 더 커진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같은 어음으로 리해한다. 일정한 어음론적조건에서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어음적현상을 변종으로 리해하여야 한다.

례컨대 조선어에서 순한소리 《ㄱ, ㄷ, ㅂ, ㅈ》가 모음과 모음, 울림자음과 모음사이에서 유성음으로 발음된다든가 막소리앞이나 단어끝, 소리마디끝에서 막힘소리로 중성화되는것은 조선어발음에서의 필수적현상이다. 인디아—유럽어에서 단어끝이나 소리마디끝에서 유성자음이 무성화되는것도 발음에서 나타나는 합법칙적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을 정상적인 발음상태에서 아무리 다르게 발음하려고 하여도 되지 않는다. 변종이라 해서 아무런 법칙성도 없는 어음현상인것이 아니라 그런 어음론적조건에서는 필수적으로 그렇게만 나타나지 않을수 없는 어음현상이다.

이와 같은 음운의 변종은 음운실현의 개별적이며 음운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는 어음으로서 그 실현에서의 일정한 합법칙성을 띤다.

4. 음운과 그 변종의 호상관계

음운과 변종은 뗄래야 뗄수 없는 밀접한 련관관계에 있다. 음운이 없는 변종을 생각할수 없듯이 변종이 없는 음운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음운의 실현으로서의 현실적으로 발음되는 다양한 어음

은 음운의 변종이다. 음운이 고립적으로 실현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모두 다른 음운과 일정한 관계속에서 실현된다.

따라서 음운은 모두가 구체적인 어음속에 변종으로 나타난다. 음운과 변종과의 관계를 일반과 개별과의 관계로 본다면 음운이 일반적이며 본질적인것이고 변종은 개별적이며 구체적인것이다. 일반적인것(음운)은 개별적인것(어음)속에 있으며 일반적인것은 개별적인것을 통하여 나타난다.

음운은 항상 어음으로 다양하게 실현되는 변종들의 일반화인것이다. 일반적인것 이것이 바로 음운의 본질적속성이다.

한 음운이 실현될 때에는 보통 그 음운에만 고유한 기본적이며 가장 전형적인 하나의 변종이 있다. 이 변종이 음운을 대표한다. 이런것으로 하여 이것을 보통 《대표음》이라고 부른다.

그렇다고 하여 음운의 변종은 소여 음운체계밖에 있는것인가?

그렇지 않다. 모든 변종들은 언어의 음운체계밖에 존재하는 어음이 아니라 음운이 다른 변종들과 대립되지 않으면서 이러저러한 외적조건에 의하여 제약되여있는 음운의 대표자이다. 이리하여 음운의 변종들은 조음적으로나 음향학적으로 때때로 심한 차이를 나타내지만 하나의 음운안에서 서로 대립되지 않는다.

례컨대 조선어에서 《각, 닫다, 밥》에서 첫소리에 있는 《ㄱ, ㄷ, ㅂ》와 끝소리에 있는 《ㄱ, ㄷ, ㅂ》는 조음적으로뿐아니라 음향학적으로 심한 차이를 가지고있다. 첫소리에서는 막음, 지속, 터침의 세 단계에 의하여 음운이 실현되지만 끝소리에서는 막음과 지속으로 끝난다. 여기에서 음운 [ㄱ], [ㄷ], [ㅂ]의 변종으로서 첫소리와 끝소리의 《ㄱ, ㄷ, ㅂ》는 같은 음운안에서 서로 대립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다른 나라 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로어의 경우에 《ша́шка》, 《мять》, 《мята》에서 첫째 《а》는 두 초점자음사이, 둘째 《а》는 두 경자음사이, 셋째 《а》는 연자음과 경자음사이에서 실현되는 음운 [а]의 변종들이다. 이 변종들이 조음—음향학적으로 심한 차이를 나타내고있지만 그들사이에 서로 대립되지 않으며 음운 [а]의 실현으로 될뿐이다.

이와 같이 한 음운의 변종들은 서로 대립되지 않고 공존하면서

음운의 속성을 보존한다.

음운과 변종이 한 측면으로는 일반과 개별과의 관계라면 다른 측면으로는 의미구별적 및 단어구별적능력의 관계이다.

음운은 단어와 형태부의 어음적외피를 구별시켜준다. 물질적외피로서의 언어의 의미적단위를 이루어주고 구별시켜주는것이 음운의 본질적속성이다. 한 음운은 항상 다른 음운과의 대응관계에 놓이면서 단어의 물질적외피를 구별시켜준다. 《밤》, 《감》, 《남》이 서로 다른 의미의 단어로 되는것은 음운 [ㅂ], [ㄱ], [ㄴ]의 물질적외피의 차이때문이다. 다른 두개의 음운 [ㅏ], [ㅁ]는 같아도 첫소리에 오는 음운의 차이로 하여 세 단어는 다른 뜻을 가진 단어로 된다.

그러나 음운의 변종은 단어의 뜻을 구별시켜주지 못한다. 다만 한 음운에 존재하는 여러 변종들이 서로 대립되지 않고 병존하고있을뿐 그것들이 단어의 뜻을 구별시키는 능력을 가지지 못한다. 하나의 음운에는 여러개의 변종이 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다른 음운의 변종과 대립되는것이 아니며 변종의 일반적속성의 집합체로서의 음운만이 다른 음운과 대립의 관계를 가진다. 변종은 음운의 실현현상일뿐이며 그 표현형태는 구체적인 어음으로 나타난다.

만일 음운의 변종이 의미구별적능력을 가진다면 한 음운안에 있는 변종들은 서로 대립될것이며 음운의 속성을 보존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음운만이 의미구별적기능을 수행하고 변종은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단어의 의미구별적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제2절. 음운체계와 음운들의 상관관계

음운체계는 일정한 언어안에서만 고유하며 상관관계에 기초한 음운들의 짜임의 체계이다.

우선 음운체계는 일정한 언어안에서만 작용하는 음운들의 체계이다. 음운체계는 그 언어의 상관적대립관계에 기초하고있기때문에 언어들사이의 공통적인 음운체계란 존재하지 않는다. 민족어마다 어음적인 특성이 다르고 음운들사이에 련관되는 공통성과 차이가 다른만큼 모든 언어에 공통적인 음운체계란 있을수 없다.

례컨대 조선어자음에서 흐름소리 [ㄹ]만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첫소리로 나타날 때에는 튀김소리(혀끝아 굳은입천장에 한번 닿았다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로 되고 끝소리로 나타날 때에는 혀옆소리로 된다. 혀옆소리뒤에 모음이 놓이는 경우에는 혀옆소리가 튀김소리로 변한다. 이러한 관계로 하여 혀옆소리는 튀김소리의 변종으로 되며 조선어에는 [ㄹ] 하나의 음운이 존재할뿐이다. [ㄹ]는 튀김소리로서 혀앞터침소리 [ㄴ]와 상관관계를 맺으면서 음운체계에 들어간다.

그러나 영어나 로어 등 적지 않은 나라 말에서는 혀끝떨음소리 [r]와 혀옆소리 [l]가 자립적인 음운으로 존재하면서 음운체계를 구성한다. 도이취어에서는 [r]음운이 혀끝소리 [r]와 목젖소리 [R]의 변종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민족어마다 음운의 특성과 체계가 다르다.

다음으로 음운체계는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라 력사발전과정에 음운의 발생과 소멸로 하여 그것이 재구성된다. 음운체계는 어휘체계나 문법체계보다 공고한것으로서 그 변화는 매우 서서히 진행된다. 음운체계의 변화는 새로운 음운의 발생과 기존음운의 사멸로 하여 생긴다. 음운의 발생과 사멸은 음운의 변종이 자립적인 음운으로 되거나 기존음운의 통합과 분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조선어의 경우만 놓고보아도 모음 [·]는 모음 [ㅏ]와 [ㅓ] 사이에 있던 모음으로서 17세기말에 다른 모음에 용해되여 없어졌으며 10~12세기이전에는 모음 [ㅏ], [ㅓ], [ㅗ], [ㅜ]만이 따로

존재하였으나 그후 여기에 [ㅣ]가 이어져 [ㅏ⁀ㅣ], [ㅓ⁀ㅣ], [ㅗ⁀ㅣ], [ㅜ⁀ㅣ]와 같이 겹모음으로 쓰이다가 나중에는 홑모음으로 변하고 말았다. 결과 모음 [ㅏ, ㅓ, ㅗ, ㅜ]의 단순한 체계로부터 변모음화된 [ㅐ, ㅔ, ㅚ, ㅟ]가 생김으로써 모음체계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자음체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0세기이전에는 조선어자음이 울림소리와 순한소리만이 존재하여 단순한 음운체계를 이루었으나 10~14세기 기간에 거센소리가 발생하여 2류음체계가 생기고 17세기 이후에 된소리([ㅆ]는 제외)가 발생하여 3류음체계가 정연히 세워졌다.

이와 같이 력사발전과정에 새로운 음운의 발생과 기존음운의 소멸로 하여 음운체계가 변화된다.

음운체계는 음운들의 상관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음운의 상관관계란 공통적인 구별적표식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며 하나의 구별적표식에 의하여 쌍으로 대립되는 두개의 음운계렬의 관계를 말한다. 즉 공통적인 상관적표식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 음운론적대립의 관계이다.

음운론적대립은 대립의 요소들이 서로 차이나는 표식뿐만아니라 대립되는 두 요소의 공통적인 표식들도 전제로 한다. 이러한 표식들이 음운들사이의 비교의 기초로 되며 이런 기초가 없는, 다시 말하여 하나의 공통적인 표식도 없는 두 물체는 결코 서로 대립관계가 이루어질수 없다. ″

음운들사이의 상관관계를 론하는것도 그것들사이에 공통적인 표식이 있기때문이다. 만약 차이만이 있고 하나의 공통적인 표식이 없다면 대립의 기초가 없어지며 도대체 음운의 대립에 대하여 론할수 없게 된다.

례컨대 《돌》과 《토끼》를 대비해보자. 돌은 무생물체이고 토끼는 생물체로서 이 둘사이에는 공통적인 표식이 아무것도 없다. 토끼는 자체로 활동하는 생물, 신진대사를 하는 생물이라는 표식을 가지고있지만 돌에는 무생물체로서 이런 표식이 없다.

결과 여기서는 비교의 기초가 전혀 없기때문에 대립이 성립되

지 않는다.

음운에서도·부류에 따라 그 특성이 다르기때문에 음운론적대립이 성립되지 않는것들도 있다.

모음과 자음의 부류가 바로 그러하다. 모음과 자음은 발음생리적조건과 물리음향학적특성이 다르기때문에 음운론적대립의 기초가 다르며 따라서 모음은 모음끼리, 자음은 자음끼리 대립이 이루어지게 된다.

만약 어느 한 모음을 어느 한 자음과 대립관계를 설정하려 한다면 구별적표식의 기준이 서로 다르기때문에 음운론적대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같은 언어에서의 음운들의 상관관계라고 할 때에 음운부류에 따르는 대립의 관계이다.

한 언어안에 있는 모든 음운들은 부류에 따르는 상관관계를 가지고있으며 이 관계를 떠난 음운은 존재하지 않는다.

음운들의 상관관계는 공통적인 표식에 의하여 련결되고 구별적표식에 의하여 대립된다. 두개 음운사이에서 하나의 표식만이 차이나고 나머지표식들이 공통적일 때만이 상관적인 관계로 되며 이 관계가 음운체계에서 가장 기본적이며 공고한 관계이다. 쌍으로 된 음운계렬에서는 더 말할것도 없고 3류음으로 된 음운계렬에서도 우선 두 계렬의 음운들이 상관관계를 이루고 그것들이 각각 다른 계렬의 음운과 상관관계를 가지는것으로써 체계가 형성된다.

례컨대 조선어에서 자음 [ㅂ]는 [ㅃ]나 [ㅍ]와 먼저 상관관계를 가지고 [ㅃ]와 [ㅍ]가 상관관계를 가지게 된다.

영어에서 자음 [t]와 [d]는 혀앞소리, 터침소리라는 표식에서는 같고 오직 [t]는 무성음이고 [d]는 유성음이라는 차이로 하여 상관관계를 가진다.

전자에서는 기식음의 표식이 있는가 없는가(ㄱ—ㅋ, ㄷ—ㅌ, ㅂ—ㅍ, ㅈ—ㅊ), 울대터침이 있는가 없는가(ㄱ—ㄲ, ㄷ—ㄸ, ㅂ—ㅃ, ㅈ—ㅉ, ㅋ—ㄲ, ㅌ—ㄸ, ㅍ—ㅃ, ㅊ—ㅉ)에 따라 상관렬을 형성한다면 후자에서는 유성의 표식이 있는가 없는가(t—d, p—b, k—g)에 따라 상관렬을 이룬다.

음운들의 상관관계는 음운체계의 언어적특성을 반영한다. 세상에 같은 생김새의 얼굴모양을 가진 사람이 없듯이 서로 다른 언어에서 같은 음운체계를 가진 언어도 없다. 그것은 언어마다 음운수가 다르고 음운들사이에 구별적표식이 다르기때문이다.

어떤 언어에서는 무성과 유성이 구별적표식으로 되는가 하면 기식성과 울대터침이 구별적표식으로 되며 연자음과 경자음의 구별적표식으로 하여 대립되는 언어도 있다.

례컨대 조선어에서는 순한소리, 거센소리, 된소리의 3류음체계에서 기식성과 울대터침이 음운론적표식으로 되며 상관관계를 이룬다면 영어나 로어를 비롯한 인디아—유럽언어에서는 무성음과 유성음이 상관관계를 이루고있다.

조선어에서는 유성음은 음운의 변종으로만 나타날뿐 자립적인 음운으로 되지 못하기때문에 무성음과 유성음의 상관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로어에서는 앞천장소리되기의 표식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T—T′, Д—Д′, C—C′, 3—3′ 등) 상관렬이 이루어진다. 다시말하여 로어에서는 경자음과 연자음이 상관관계를 이루고있다.

물론 언어에 따라 이렇게 쌍으로 상관대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개별적인(고립적인) 대립도 있을수 있다.

례컨대 조선어에서 자음 [ㅎ]를 들수 있다. 15세기이전에는 [ㅎ]에 대응한 된소리 [ㆅ]가 있어 순한소리와 된소리 (ㅎ—ㆅ)의 상관관계가 이루어져있었으나 그후 [ㆅ]가 소멸됨으로써 지금은 [ㅎ]밖에 남지 않았다. 결국 자음 [ㅎ]에 대응되는 된소리와 거센소리가 없이 고립적인 상태에서 다른 렬의 자음 [ㅅ]와 상관관계를 맺고있다.

로어의 터스침소리 [ц], [ч′]도 고립적인 대립의 류형이다. 첫째로, 이 두 자음들은 대응되는 유성자음이 없기때문에 유성과 무성의 상관렬에 들어가지 않으며 둘째로, [ц]에는 연자음계렬이 없고 [ч′]에는 경자음계렬이 없다.

이렇게 음운들의 상관관계는 아주 복잡한 양상을 띤다. 직접적대립과 간접적대립, 일면대립과 다면대립, 동종대립과 이종대립,

단계적대립과 고리식대립 등 다양한 대립이 있다.

우선 음운대립에는 직접적대립과 간접적대립이 있다. 직접적대립은 상관대립이고 간접대립은 비상관대립이다. 상관대립은 두 음운들사이에 하나의 표식의 차이와 나머지표식의 공통성에 의한 대립이다.

조선어에서 [ㅂ]—[ㅍ], [ㄷ]—[ㅌ], [ㄱ]—[ㅋ]는 기식음의 유무에서의 차이와 터침소리라는 공통성에 기초한 상관대립이고 로어에서 [т]—[т′], [д]—[д′], [п]—[п′], [б]—[б′]는 경자음과 연자음이라는 차이와 혀앞소리, 입술소리, 터침소리라는 공통성에 기초한 상관대립이다.

영어나 로어에서 무성음과 유성음(t—d, p—b, k—g)도 유성의 유무에 의해서 상관대립을 이루고있다.

상관대립은 음운체계안에서 가장 명백하고 공고한 대립이다.

간접적대립 즉 비상관대립은 하나의 공통적표식과 여러개의 구별적표식으로 된 음운들사이의 대립이다.

인디아—유럽어에서 [b]와 [t]를 들수가 있다. [b]와 [t]는 터침소리라는 표식에서 공통적이고 입술소리—혀앞소리, 유성음—무성음의 표식에서 차이가 난다. 이것은 직접적대립의 표식으로 관계를 맺지 못하고 다른 음운과의 련계를 통하여 관계가 맺어진다. 여기에서 [b](입술소리, 터침소리, 유성음)는 [d](혀앞소리, 터침소리, 무성음)를 통하여 [t](혀앞소리, 터침소리, 유성음)와 관계를 맺는다. [b]—[d]사이에는 입술소리—혀앞소리, [d]—[t]사이에는 유성음—무성음의 차이에 의해서 상관대립이 성립된다.

간접적대립도 구별적표식의 공통성과 차이성을 전제로 한다. 이런 공통성과 차이성이 없이는 간접적대립도 성립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음운대립에는 일면대립과 다면대립이 있다.

일면대립은 상관되는 두 음운사이의 대립으로서 다른 음운과는 직접적으로 대립을 이루지 못하는 대립이며 다면대립은 한 음운과만이 아니라 여러 음운과의 상관대립이다.

례컨대 조선어에서 자음 [ㄹ]를 들어 말할수 있다. 자음 [ㄹ]는 [ㄴ]와만 상관관계를 가질뿐 다른 음운과는 직접적상관대립을

이루지 못한다. [ㄹ]는 울림소리, 혀앞소리, 튀김소리이고 [ㄴ]는 울림소리, 혀앞소리, 터침소리로서 튀김—터침에 의하여 이 두 음운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이루어진다. 여기서 [ㄴ]는 혀앞소리—혀뒤소리의 차이에 의해서 [ㆁ]과 대립이 이루어지고 울림소리(코소리)—울림없는소리의 차이에 의하여 [ㄷ]와 대립이 이루어진다. [ㄹ]—[ㄴ]는 일면대립이고 [ㄹ]—[ㄴ], [ㄴ]—[ㅇ], [ㄴ]—[ㄷ]는 다면대립이다.

또한 음운대립에는 동종대립과 이종대립이 있다.

동종대립은 성질이 같은 부류의 음운들사이의 대립이고 이종대립은 성질이 다른 음운들사이의 대립이다.

모음에서 크게 둥근모음과 갈죽모음으로 가를수 있는데 동종대립에서는 둥근모음은 둥근모음끼리, 길죽모음은 길죽모음끼리의 대립이 이루어지고 이종대립에서는 둥근모음과 길죽모음과의 대립이 이루어진다.

자음을 크게 울림자음(쏘난트)과 막소리로 가를수 있는데 울림자음끼리의 대립은 동종대립이고 막소리끼리의 대립은 이종대립이다. 막소리라고 하여 다 같은 성질의것이 아니기때문에 이것을 언어에 따라 여러가지로 세분할수 있다.

인디아—유럽의 많은 언어들에서는 유성과 무성, 연자음과 경자음이 있는데 유성과 유성, 무성과 무성, 연자음과 연자음, 경자음과 경자음의 대립은 일면대립이고 유성음과 무성음의 대립, 경자음과 연자음의 대립은 다면대립이다. 이때 유성음과 무성음, 경자음과 연자음의 대립이 다면대립으로 되는것은 유성음은 유성음, 무성음과의 대립이 이루어지고 경자음은 경자음, 연자음과의 대립이 이루어지기때문이다.

끝으로 음운대립에는 단계적대립과 고리식대립이 있다. 단계적대립은 같은 부류의 음운들사이의 상관대립을 통한 다른 부류의 음운과의 대립이다. 여기서는 대립이 시작되는 음운과 끝에 놓인 음운사이에 구별적표식이 하나 있을수도 있고 전혀 없을수도 있다.

례컨대 도이취어에서 [b]와 [k]와의 대립은 터침소리라는 표

식만 같고 나머지표식은 다 다르기때문에 [b]—[g], [g]—[k]에 의해서만 대립관계가 형성되며 [v]와 [n]과의 대립은 [v]—[f], [f]—[s], [s]—[n]에 의해서만 대립관계가 이루어진다.

또한 도이취어 [v]와 [x]사이의 대립에서와 같이 하나의 구별적표식도 없는 경우에도 단계적대립이 이루어질수 있다. 이 대립은 [v]—[f], [f]—[s], [s]—[x]의 단계를 거쳐서만 이루어진다.

한 음운안에 구별적표식에서 공통성이 있는 음운과 차이성만이 있는 음운이 있지만 매개 음운은 하나의 체계안에 들어있기때문에 대립으로 련결되여있다.

고리식대립은 같은 성질을 가진 음운렬들이 이어진 대립이다. 같은 성질을 가진 음운렬이라 할 때 무성음은 무성음끼리, 유성음은 유성음끼리, 스침소리는 스침소리끼리 체계적으로 이어진 대립이다.

례컨대 영어에서 모음 [i]—[e], [e]—[ε]를 들수 있는데 [i]는 혀앞소리로서 높은모음이며 [ε]는 혀앞소리로서 반낮은모음이다. 여기서 높은모음과 반높은모음이 있는 조건에서 반낮은모음과 직접적인 대립을 이룰수 없기때문에 고리식으로 [i]—[e]—[ε]의 대립만이 허용된다. 물론 [i]가 높은모음이기때문에 낮은모음 [æ]가 있는 조건에서 높은모음—낮은모음([i]—[æ])의 상관관계가 이루어질수 있다.

음운들사이의 대립관계에서 직접적상관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사이에 다른 음운을 거쳐서만 간접적으로 대립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고리식대립의 특성이다.

이상에서 음운대립을 여러 부류로 갈라 고찰하였는데 이것만이 음운대립의 전부가 아니다. 음운체계와 음운들의 상관관계가 매개 언어의 특성에 따라 각이한것만큼 그 부류도 매우 다양할수 있다. 지금 세계언어가 약 2,000여개로 추정되여있는 조건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우에서 언급한 대립의 부류들은 거의 모든 언어에 적용될수 있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부류라고 말할수 있을것이다.

제3절. 음운의 변화발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현상은 부단히 운동하며 변화발전한다. 운동과정에 낡은것은 사멸하고 새것이 발생발전하는것은 물질세계의 존재방식이다.

따라서 세상에 항상 고정되여있으며 변하지 않는 사물현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비록 그것이 사람의 눈에 띄우지 않을 정도로 그 변화가 아주 미미한 사물현상도 항상 운동상태에 있으며 부단히 변화발전한다.

언어에서의 음운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언어가 력사발전의 산물이듯이 언어의 중요구성요소인 음운도 오랜 력사발전과정에 부단히 풍부화되고 갱신되여왔다. 이 과정에 낡은것은 사멸하고 새것은 발생발전하여 음운구성을 풍부히 하고 음운체계가 보다 째인 체계로 발전한다.

음운의 변화발전은 우선 일부 음운들이 없어지거나 늘어나면서 음운체계가 보다 째인것으로 나타난다.

음운은 항상 체계성을 유지하면서 존재한다. 이 체계가운데서 어느 한 음운이 빠져나가든가 새로 생기면 그 음운체계는 재구성된다. 이 과정에 음운체계는 더욱 공고화되고 체계정연한것으로 발전한다. 음운들의 발생과 소멸이 일정한 계렬로 동시성을 띨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수도 있다.

조선어변모음화과정은 일정한 계렬로 거의 동시성을 띠였다고 볼수 있다. 조선어변모음화가 10세기를 전후하여 진행되였다고 볼수 있는데 이 과정은 오랜 기간을 거쳤을것이다. 변모음화가 진행되기전에는 홑모음 [ㅏ, ㅓ, ㅗ, ㅜ, ㅣ]가 존재하다가 그것이 [ㅏ+ㅣ], [ㅓ+ㅣ], [ㅗ+ㅣ], [ㅜ+ㅣ]로 합해지면서 겹모음으로 발음되였다. 즉 [ㅏ⁀ㅣ], [ㅓ⁀ㅣ], [ㅗ⁀ㅣ], [ㅜ⁀ㅣ] 등.

오늘날까지도 《개》를 《가이》, 《새》를 《사이》, 《게》를 《거이》, 《외》를 《오이》라고 하고있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해준다. 이 겹모음의 결합이 강해지면서 그것이 홑모음으로 넘어갔다. 변모음화가 진행되기 전에는 조선어모음체계는 정연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당시 조선어모음은 [ㅏ, ㅓ, ㅗ, ㅜ, ㅡ, ㅣ, ㆍ]가 있었을것으로 보인다. 아마 그때에는 높은모음과 낮은모음, 둥근모음과 길죽모음간의 상관관계가 형성되였을것이고 앞모음과 뒤모음의 상관관계가 체계성을 띠지 못했을것이다. 그후 변모음화현상이 일어남으로써 높은모음과 낮은모음의 상관관계뿐만아니라 앞모음과 뒤모음의 상관관계가 이루어지고 모음체계는 보다 공고하고 체계정연한것으로 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조선어자음체계의 변화발전에서도 찾아 볼수 있다.

조선어의 거센소리가 생겨나기 전에는 [ㄱ, ㄷ, ㅂ, ㅈ, ㅎ]가 있었을것이다. 이 자음들의 결합과정에 거센소리가 생겨났는데 당시 자음 [ㅎ]가 없었으면 거센소리의 발생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었을것이다. 모음축약에 의한 자음의 결합 [ㅎ—ㄱ], [ㅎ—ㄷ], [ㅎ—ㅂ], [ㅎ—ㅈ]에 의하여 거센소리 [ㅋ, ㅌ, ㅍ, ㅊ]가 생겨났다. 오늘도 모음축약현상에 의하여 생겨난 《많다←만ᄒᆞ다》, 《좋다←됴ᄒᆞ다》 같은 단어를 놓고도 말할수 있다. 옛날에는 《—ᄒᆞ다》에서 [ㅎ]와 [ㄷ]가 따로 발음되였으나 그후 모음 [ㆍ]가 줄어들고 [ㅎ—ㄷ]가 되면서 [ㅌ]가 생겨나게 되였다. 이런 과정을 거처 조선어에 거센소리가 생겨나게 되였는데 음운발생의 초기에는 순한소리만이 있다가 거센소리가 생겨 순한소리와 거센소리의 2류음체계가 형성되였다. 거센소리발생이전에는 자음들사이에 단순대립관계가 지배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ㄱ—ㅋ], [ㄷ—ㅌ], [ㅂ—ㅍ], [ㅈ—ㅊ]의 상관관계가 형성되여 음운체계는 보다 정연한 체계로 되였다.

조선에서 15~16세기이후에 된소리부류가 발생하여 조선어자음체계는 3류음체계로 발전하였다.

※ 《ㆅ》, 《ㅆ》는 이미 15세기이전에 생겨났고 나머지 《ㄲ, ㄸ, ㅃ, ㅉ》는 17세기이후에야 된소리로 되였다.

조선어에서 된소리가 생겨남으로써 자음체계는 순한소리—거센소리—된소리의 정연한 체계로 형성되고 음운들사이의 상관관계는 보다 공고화되였다.

이와는 반대로 력사발전과정에 기존음운이 사라지는 현상도 있다.

조선어에서 모음 [·]의 사멸현상을 들어 말할수 있다. 15세기 《훈민정음》창제시기에도 쓰이면 [·]가 17세기에 와서 소멸되였다.

※ 17세기에 음운으로서는 없어졌으나 관습상 20세기초까지도 그냥 표기되여왔다.

높낮이관계에서 높은모음 [ㅡ]에 대응되는 낮은모음 [·]가 소멸됨으로써 두 음운사이의 상관관계는 파괴되고 모음 [ㅡ]는 높낮이관계에서 직접적대립을 이루는 모음이 없어졌다. 따라서 높낮이관계에서는 직접적대립이 아니라 간접적대립관계만이 이루어지게 되였다.

※ 중세조선어에 있던 《ㅸ》와 《△》가 16세기에 없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ㅸ》는 《ㅂ》의 유성음이였고 《△》는 《ㅅ》의 유성음이였다는 견해와 이 글자들은 《ㅂ》, 《ㅅ》의 표기변종일뿐 실제적인 음을 나타낸것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 이 두 글자가 15세기에 표기되다가 16세기에 없어진것만은 사실이다.

첫째 견해와 같이 만일 《ㅸ》, 《△》가 《ㅂ》, 《ㅅ》에 대응되는 유성음이라면 왜 《ㄱ》, 《ㄷ》, 《ㅈ》에 대응되는 유성음이 없는가, 음운이란 체계속에 존재하는데 《ㅸ》, 《△》만이 유성으로 존재하다가 100여년사이에 없어질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두 측면에서 생각해볼수 있다.

하나는 15세기이전에 무성음과 유성음체계가 존재하다가 다른 유성음은 이미 소멸되고 16세기까지 《ㅸ》, 《△》만이 남아있다가 없어졌다고 볼수 있고 《ㅸ》, 《△》는 자립적인 음운으로서의 유성음이 아니라 《ㅂ》, 《ㅅ》의 변종이라고 볼수도 있다. 만약 조선어에 유성음체계가 정연히 있었다면 음운체계가 매우 견고한것인데 그렇게 쉽게 없어지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필자의 견해에 의하면 《ㅸ》, 《△》는 자립적인 음운이 아니라 《ㅂ》, 《ㅅ》의 변종이였다고 생각된다. 변종으로서의 《ㅸ》, 《△》가 유성음이였을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자립적인 음운이였으리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력사발전과정에 음운수가 줄어든 현상은 다른 나라 언어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례컨대 고대그리스어의 홑모음은 15개였으나 현재는 5개로 줄어들었다.

고대		현대
[a, a:]	→	[a]
[u:]	→	[u]
[o, o:]	→	[o]
[e], [a i]	→	[ε]

고대		현대
[e:], [ε:], [i, i:], [o^{t}], [y, y:], [y^{t}]	→	[i]

이와 같은 현상은 언어에 따라 각이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음운의 변화발전은 또한 음운의 질이 변하는데서도 나타난다.

력사발전과정에 사람의 발음양식이 변하는것과 동시에 음운들의 결합조건도 변한다. 이 과정에 음운의 질적변화를 가져온다. 언어의 다른 변화와 마찬가지로 이 변화도 매우 장구한 기간 진행된다. 수세기, 지어 수십세기에 걸쳐 진행되는것도 있다. 이 변화는 생물체에서와 같이 돌연변화가 아니라 오랜 진화과정에 량적축적에 의한 점차적인 방법으로의 질적변화이다. 따라서 새것이 생겨난 후에도 얼마간 새것과 낡은것이 병존하다가 낡은것이 새것에 점차 자리를 내여준다.

게르만어의 경우에 B.C. 2세기로부터 A.D. 500년사이에 게르만어전반에 걸쳐 발생한 규칙적인 음운변화현상을 들수가 있다.

인디아—유럽어의 유성터침소리 [b, d, g, g^{u}]는 게르만어에서 무성터침소리 [p, t, k, k^{u}]로 변하였다.

인디아—유럽어	라틴어	영어
b→p	b	p
d→t	d	t
g →k	g	k

인디아—유럽어의 무성터침소리 [p, t, k, k^{u}]와 기식음이 섞

인 터침소리 [ph, th, kh, g^{uh}]은 게르만어에서 무기음으로 되여 다갈이 무성스침소리 [f, p, x(h), x^{u}]로 변하였다.

인디아—유럽어	라틴어	도이취어
p^h, p → f	p	v : [f]
t^h, t → d	t	t^h: [d](영어)
k^h, k → x	c	h

모음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생기였다.

인디아—유럽의 [o, a]는 게르만어에서 [a]로, 겹모음 [o :, ou]는 [a :, au]로 변하였다.

o, a → a	o (라틴어)	a (도이취어)
ö, a → ö	ö (라틴어)	ö (고트어)
oi, ou → ai, au	o (고대라틴어)	a (고트어)

음운의 변화발전은 다음으로 음운이 결합되여 새로운 음운이 생기거나 음운의 변종으로 존재하던것이 자립적인 음운으로 발전하는데서도 나타난다.

음운이 결합되여 새로운 음운이 생길 때에 결합에 참가하는 매개 음운이 그대로 존재하면서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경우와 변종으로 존재하던 두개 음운이 합해지면서 거기에서 주도적인 음운을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음운이 출현하는 경우가 있다.

15세기이전에 발생한 겹모음 《ㅢ》는 홑모음 《ㅡ》와 《ㅣ》가 거의 대등한 관계에서 합해진 음운이고 그후에 생겨난 겹모음 《ㅘ, ㅝ, ㅙ, ㅞ》는 《ㅗ+ㅏ》, 《ㅜ+ㅓ》, 《ㅗ+ㅐ(ㅏ+ㅣ)》, 《ㅜ+ㅔ(ㅓ+ㅣ)》는 주도적인 음운을 중심으로 하여 새로 생긴 겹모음이다.

※ 15세기 《훈민정음》창제당시에 기본글자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겹모음 《ㅢ》가 쓰이였고 1527년 《훈몽자회 범례》의 글자순서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ㅘ, ㅝ, ㅙ, ㅞ》가 쓰이였다.

《ㅘ, ㅝ, ㅙ, ㅞ》에서 주도적인 음운은 《ㅏ, ㅓ, ㅐ, ㅔ》이며 《ㅗ, ㅜ》는 겹모음을 조성하는데 덧붙은 어음요소이다. 음운 《ㅘ》가 초기에는 《o̩a》로 발음되다가 《u̯a》로 변하고 음운 《ㅝ》는 《u̯ə》

로 발음되였다고 보는것이 타당할것이다. 그것은 현재도 《보았다》, 《주었다》를 《봤다》, 《줬다》로 발음하고있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있다.

주도적인 음운을 중심으로 두개 음운이 합해져 하나의 음운으로 된것은 다른 나라 말에도 있다.

례컨대 로어에서 18세기초까지 서로 구별되는 특수한 음운 [ѣ]와 [e]가 있었으나 그후 그것들이 그의 각이한 변종과 함께 합해져 [e] 하나의 음운으로 되였다. [ѣ]와 [e]에서 주도적인 음운은 [e]였다.

또한 음운의 변종이 음운의 맹아로 존재하다가 그것이 자립적인 음운으로 변하기도 한다.

조선어의 된소리를 들어 말할수 있다. [ㅆ]를 제외한 조선어된소리는 15~16세기에는 순한소리음운의 변종으로 존재하였다. 이전에는 열린소리마디였던것이 닫긴소리마디로 되면서 뒤에 이어지는 첫소리자음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였으며 그후 그것이 된소리로 발음되게 되였다. 처음에는 소리마디와 소리마디사이에서 된소리가 났는데 이것은 순한소리의 변종에 지나지 않았다. 소리마디사이에만 나던 순한소리변종인 《된소리》가 17세기에 들어와 점차 말머리에서까지 발음되게 되여 된소리음운으로서의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였다.

물론 언어에 따라 음운의 변종이 자립적인 음운으로 발전하는 현상은 다양할수 있다.

그러면 음운들의 변화발전의 요인은 어디에 있는가?

물론 이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의 하나이다. 여기서는 그 요인을 두 측면에서 이야기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첫째로, 발음의 변화에 따르는 음운들의 결합조건의 변화이다. 시대가 흐름에 따라 어조, 억양뿐만아니라 단어 및 문장발음에서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것은 시대에 따르는 사람들의 사상감정과 정신세계, 지향 및 요구의 변화로부터 생긴다.

우리 나라에서의 발음의 변화만을 보더라도 중세에는 아주 규칙적이던 모음조화의 파괴, 단어발음에서의 닮기현상의 부분적인 변화 등을 들수 있다. 이것은 말소리구조에서 변동으로 인한 변화

가 아니라 순수 발음에서 나타나는 변화이다.

음운들의 변화는 그 결합조건의 변화와 중요하게 관련된다. 력사발전과정에 일부 기존음운이 사라지고 새로운 음운이 생겨나면서 음운체계전반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동시에 음운들의 실현에서 그 결합조건의 변화를 초래한다.

음운들의 결합조건에 의한 음운의 발생은 우리 말의 거센소리는 물론 된소리발생과정을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옛날 우리 말에 울림자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자음이 끝소리로 발음되지 않았다. 다시말하여 거의 모두 열린소리마디로 발음되였다. 그후 소리마디줄임현상이 일어나면서 소리마디끝에 받침이 와 발음에서의 막힘소리현상이 일어났다. 이 막힘소리현상은 된소리가 발생할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되였다. 왜냐하면 터침은 입안긴장이 이루어졌다가 뒤소리에 이어지면서 강한 충격을 주어 뒤에 있던 순한소리는 된소리로 발음되기때문이다. 그러한 발음현상으로 처음에는 음운의 변종으로 되였으나 그 과정을 거쳐 자립적인 음운으로서 된소리가 생겨나게 되였다.

다른 나라 말에서 유성음의 무성음으로의 변화, 모음의 질이 변하는것도 모두 음운들사이의 결합조건의 변화와 관련된다고 볼수 있다.

그것은 둘째로, 음운체계에서 일부 음운들의 약화현상과 관련된다. 음운체계는 매개 음운들이 상관관계에 의하여 얽혀지고 째여진 체계로서 일정한 기간 매우 공고하고 정연한 체계로 남아있다. 이 체계안에서 일부 음운들이 약화되여 자기 존재를 끝마치면 체계전반이 흔들리여 음운들의 상관관계가 재구성된다. 이 과정에 일부 음운들은 소멸되거나 서로 결합되여 새로운 음운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어느 한 시기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매우 소극적인 형태로나마 력사발전과정에 부단히 진행된다.

우리 말의 거센소리발생과정도 그렇다. 옛날에 《ㅎ》와 《ㄷ》가 따로따로 발음되다가 모음 [·]의 소멸로 [ㅎ]와 [ㄷ]가 합해져 새로운 음운 [ㅌ]가 생겨나게 되였다. 조선어의 거센소리, 된소리발생도 이러한 원리에 의하여 발생발전하였다.

지난 기간 세계언어학계에서 음운변화에 대하여 이러저러한

리론이 나왔다.

그 몇가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세대론》이다. 《세대론》에 의하면 음운변화의 원인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부모들의 발음을 불완전하게 재현시키는데 있다는것이다. 어린이들이 작은 입으로 어른들의 말을 그대로 모방하지 못하여 차이가 생기게 되며 이 차이가 대를 이어 전달됨으로써 어음이 변한다는것이다.

이 리론은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다. 아이들의 입의 크기문제가 음운을 습득하는데 지장이 되지 않으며 어린이들은 자라면서 주위 사람들과 어울리여 말을 배우고 익히게 된다. 이 과정에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표준발음에 접근하게 되는것이다.

만약 이런식으로 어음(음운)변화문제를 해석한다면 모든 언어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변화가 진행되게 될것이다.

그러나 음운변화가 언어의 민족적특징에 따라 각이한 방향으로, 각이한 양상을 띠고 진행되고있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둘째로, 《잔충론》이다. 《잔충론》은 게르만언어에서 자음파동설의 원인을 해명하기 위하여 그것을 리용한 게르만언어학자들가운데 많은 지지자들을 얻었다. 그 대표자가 메이예였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사람들은 지배주의자들의 언어 혹은 특수하게 위신을 차리려고 보다 문명화된 사람들의 언어를 받아들일 때 사람들이 새 언어를 정확하게 습득하지 못한다는것이다. 이 리론에서 그는 각이한 인디아—유럽언어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설명하였다.

언어가 서로 다른 지배자와 피지배자사이의 언어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써 음운변화에 영향을 주는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음운변화의 전부가 아니다.

셋째로, 현대언어학에서 주장하는 《내재론》이다. 이 리론에서는 어음(음운)변화의 원인을 《체계의 자연적인 변화》로 보고있다. 음운체계의 균형의 파괴와 재생과정을 거쳐 음운이 변한다는것이다.

이 모든 《리론》들은 음운의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정확히 해명하지 못하였다고 볼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언어학계에서 더 깊이 연구해야 할것이다.

제2장. 조선어음운체계

우리의 말소리가 아름답고 발음이 류창하며 듣기에 유순한것은 우리 말의 말소리가 풍부하고 그 체계가 잘 째여있기때문이다.

세계에 언어가 수천개를 헤아리지만 우리 말과 같이 말소리가 풍부하고 그 체계가 째여져있는 언어는 그리 많지 않다. 지난 기간 조선어음운체계에 대한 연구가 적지 않게 진행되였지만 아직 과학적으로 해명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다. 우리 말의 음운체계를 더 깊이 연구하는것은 우리 말을 보다 아름답게 발전시키고 조선어음성학을 보다 높은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우는데 의의가 있다.

제1절. 조선어모음과 자음의 구분

오랜 옛날부터 어음을 모음과 자음으로 구분하였다. 어음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모음과 자음을 가르겠는가 하는 문제는 세계언어학계에서 론쟁거리의 하나로 되여왔다.

우선 소리마디구성에서 어느것이 기본을 이루는가에 따라 모음과 자음을 갈라야 한다는것이다. 모음은 소리마디구성에서 기본요소로 되고 자음은 보조적인 요소로 된다는것이다.

물론 이것이 세계 모든 언어에 적용되는 공통적인 표식으로 볼수 있으나 구체적인 언어에 다 적용되는것은 아니다. 일부 언어에서는 자음이 소리마디의 기본요소로 되는 경우도 있기때문이다.

례컨대 체스꼬사람의 성 《тpнкa》에서 《p》가 첫소리마디에

서 기본요소로 되기때문에 소리마디의 중심으로 되며 이 단어는 두 개 소리마디로 구성된 단어로 되는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도이취어를 비롯한 다른 나라 언어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이런 언어들에서는 자음이 소리마디구성에서 중심에 놓일수 있다는것을 말하여 준다.

그러나 이런 례외적인 현상을 내놓고는 세계 모든 언어들의 소리마디구성에서 모음이 기본요소로 되고 자음은 모음에 붙어 소리마디를 이루는 보조적인 요소로 된다. 자음이 때로 소리마디구성의 기본요소로 되는 언어에서조차도 대부분 모음이 소리마디의 기본요소로 된다.

또한 조음—음향학적특성에 따라 모음과 자음을 갈라야 한다는 것이다.

음향학적으로 모음은 가락소리로서 울림도가 높은 소리이며 말소리파의 주기가 고르로운 소리이다. 모음은 목청울림에서부터 시작된 소리인것으로 하여 기음의 주파수와 포르만트구조가 명백히 나타난다.

이와는 반대로 자음은 막소리가 기본으로 되여있고 울림도가 낮으며 말소리파의 주기가 고르롭지 못한 소리이다. 자음가운데서도 가락소리의 성분이 우세한 울림자음이 있는가 하면 막소리와 가락소리가 거의 대등하게 엉켜있는 유성음, 막소리만이 있는 무성음이 있다. 울림자음이 음향학적으로 보면 가락소리가 더 강하여 모음성분이 더 많지만 모음에는 없는 터침과 스침이 가락소리와 어울려있기때문에 자음으로 되는것이다.

무성음은 파형에서 주기성이 없고 오씰로그라프에서 백색소음으로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주파수대역이 넓다.(750~9,000Hz)

음향학적으로 모음과 유성음, 무성음의 한계는 명확히 그어지나 모음과 울림자음의 한계를 가르는것은 그리 쉽지 않다.

조음적으로는 모음은 발음통로에서 장애가 없이 발음되나 이와 반대로 자음은 발음통로에서 발음기관에 의하여 이러저러한 장애를 받으며 발음된다. 모음은 목청울림소리가 목안울림통과 입안을 통해 나오면서 공명되여 이루어지기때문에 날숨이 발음기관의 직접적인

장애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자음이 발음될 때에는 날숨이 발음기관의 이러저러한 장애에 부딪친다.

발음기관들이 날숨을 막았다 터치면 터침소리, 발음기관들사이의 짬이 좁아진 상태에서 날숨을 내보내면 스침소리, 발음기관을 막았다가 서서히 터치면서 스치면 터스침소리가 난다. 울림자음이나 유성음은 목청진동소리를 겸하면서 발음기관들의 장애를 받기때문에 조음적으로 모음과는 완전히 구별된다.

조음적측면에서 모음과 자음을 가를 때 발음기관의 긴장성과 비긴장성을 표식으로 하여 가르기도 한다.

모음을 발음할 때에는 발음기관의 근육들이 골고루 긴장되나 자음을 발음할 때에는 발음이 진행되는 발음부위들만이 긴장된다. 입술소리는 아래우입술, 혀앞소리는 혀앞등과 굳은입천장, 혀뒤소리는 혀뒤등과 무른입천장이 긴장된다.

여기서 긴장성을 론할 때 다른 근육들이 전혀 긴장되지 않는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발음부위와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나머지 발음기관도 어느 정도 긴장성을 띤다.

같은 발음부위에서 발음되는 자음과 모음을 비교하여보면 입술스침소리는 아래우입술을 좁혀서 스쳐내기때문에 두 입술부위에 기본긴장이 이루어지나 모음 [ㅜ]를 발음할 때에는 두 입술만이 아니라 입안근육전체가 골고루 긴장된다.

지난날 턱의 오르내림에 의한 입의 벌림과 닫김에 의해 자음과 모음을 가르는 학자(보고로디쯔끼)도 있었다. 이 표식은 과학적인것이 되지 못한다. 모음 [a]를 발음할 때에는 타당하나 기타 다른 모음을 발음할 때에는 맞지 않는다. 모음이나 자음을 발음하는 경우에 턱이 아래우로 움직임이 없이 혀에 의한 입안울림통의 변화와 발음부위의 이러저러한 작용에 의하여 어음들이 생겨나기때문이다.

이와 같이 지난날 세계언어학계에서는 모음과 자음을 가르는 여러가지 기준과 표식 등을 제기하였다.

조선어에서도 모음과 자음을 가른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다.

15세기 《훈민정음》창제자들은 독특한 방법으로 자음과 모음을 구분하였다. 당시 자음, 모음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소리마디를 단위로 하여 《첫소리》, 《가운데소리》, 《끝소리》를 갈랐다. 오늘의 견지에서 보면 《첫소리》, 《끝소리》는 자음이고 《가운데소리》는 모음이다. 《훈민정음》창제자들은 하나의 발음단위(소리마디)는 반드시 세 요소 즉 첫소리, 가운데소리, 끝소리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 소리마디에서 첫소리와 끝소리에 소리가 나지 않는 경우에조차 《ㅇ》를 적었다. 즉 《世宗御製訓民音》을 《솅종엉졩훈민정음》이라고 적었는데 여기서 《솅》과 《졩》의 끝소리, 《엉》의 첫소리와 끝소리는 실지 소리가 없는 글자이다.

※ 일부 어사전문가들속에서는 첫소리 《ㅇ》가 소리가 없는 글자가 아니라 목구멍소리 자음을 나타내는 글자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부족점이 있지만 하나의 발음단위(소리마디)를 세 요소로 가르고 그것을 음성학적으로 구분한것은 당시 시대적환경에서 자랑할만 한 성과라고 말할수 있다.

더우기나 그들이 첫소리와 끝소리를 같은 질의 소리로 간주한 것은 큰 과학적성과의 하나이다. 비록 하나의 소리마디를 세 요소로 갈랐지만 첫소리와 끝소리를 같은 질의 소리로 간주하였기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가운데소리(모음)와 첫끝소리(자음)로 가른것이라고 볼수 있다. 이것은 모음과 자음을 우리 식으로 구분한 독특한 방식이다.

19세기말~20세기초 주시경을 비롯한 국문운동참가자들에 의해 어음을 자음과 모음이라는 이름으로 가르기 시작했다.

주시경은 국문연구소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썼다.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 다 母音이니 모도 直畫이요 ㄱ, ㅋ, ㆁ, ㄷ, ㅌ, ㄴ, ㅂ, ㅍ, ㅁ, ㅈ, ㅊ, ㅅ, ㆆ, ㅎ, ㅇ, ㄹ, △ 다 子音이니 모도 曲畫이라. 然則 直畫은 母音의 類요 曲畫는 子音의 類라.》 계속하여 그는 《母音은 自發ᄒᆞ는 音이요,

子音은 그 区別의 性質이 自在진되 母音에 依附ᄒᆞᆫ 後에야 發ᄒᆞ는 音이라.》고 하였다.

주시경은 모음은 획을 곧게 긋고 자음은 획을 구부려 그으며 발음에서는 모음은 자립적으로 내는 소리요, 자음은 모음에 붙어서만 내는 소리라고 하였다.

자음과 모음을 가르는데서 글자의 획을 긋는 측면에서뿐아니라 자립적으로 소리를 낼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다. 이 측면은 조선어 자음과 모음을 가르는데서 중요한 표식으로 된다. 우리 말에서 자음은 자립적으로 발음되지 못하고 모음에 붙어서만 발음된다. 중세에 있었던 우리 말의 말머리겹자음을 그대로 발음할수 없었다는것도 자음발음의 이러한 특성과 관련된다.

주시경이 1920년대에 쓴 《국어문법》에서는 모음을 《웃듬소리》, 자음을 《붙음소리》라고 명명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웃듬소리는 《自發하는 音》 즉 독자적으로 낼수 있는 어음이라고 하고 붙음소리는 《웃듬소리에 附發하는 音》 즉 모음에 붙어서만 낼수 있는 어음이라고 하고있다.

이것은 모음과 자음의 발음원리해석은 우와 같되 그 용어를 우리 말로 《웃듬소리》, 《붙음소리》로 부른것이 특징이다.

모음을 부류별로 가를 때에도 홑모음은 《홋소리》, 겹모음은 《겹소리》라 하고 자음은 부류별로 가를 때에도 순한소리와 울림자음을 《홑소리》라 하고 거센소리를 《섞임소리》라 하였다.

그후 우리 나라 일부 학자들속에서 모음을 《홋소리》, 자음을 《닿소리》로 갈랐는데 이것은 주시경이 부른 《홋소리》, 《붙음소리》와 그 내용과 뜻이 같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훈민정음》창제자들은 소리마디에서 어음이 놓이는 위치에 따라 《첫소리》, 《가운데소리》, 《끝소리》로 가르면서도 가운데소리를 한편으로 하고 첫소리, 끝소리를 다른편으로 하여 두가지 어음부류로 갈랐고 19세기말~20세기초부터는 어음이 독자적으로 발음되는가 아니면 다른 어음에 붙어서 발음되는가에 따라서 모음(《홋소리》, 《홀소리》)과 자음(《붙음소리》, 《닿소리》)

을 갈랐다.

이러한 구분은 일반어음론적견지에서 보나 조선말어음의 특성으로 보나 아주 과학적인 분류라고 말할수 있다.

우선 조음적견지에서 보면 세계 모든 언어에서 모음은 독자적으로 발음되여 소리마디구성에서 핵으로 되며 자음은 소리마디구성에서 모음에 덧붙어서만 발음단위인 소리마디를 이룬다.

인디아—유럽어를 비롯한 적지 않은 언어들에서 자음들이 이어져 겹자음형식으로 되여 자음만을 발음할수도 있으나 발음단위인 소리마디를 구성할 때에는 자음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일부 자음이 소리마디의 기둥으로 나타나는 언어에서조차도 거의 모두의 소리마디는 모음을 기둥으로 하여 이루어지고있다. 비록 일부 자음(거의 모든 울림자음)들이 소리마디구성에서 기둥으로 나타난다 해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비전형적인 현상이다.

조선말의 경우에 더 명확히 나타난다. 조선어의 모든 소리마디는 모음만으로 이루어지거나 모음을 기둥으로 하여 자음이 모음의 앞이나 뒤 또는 앞뒤에 하나씩 덧붙어 이루어진다. 조선어에서 자음만으로 발음단위를 이룰수 없을뿐만아니라 자음만으로는 발음되지 않는다. 현대조선말에 말머리겹자음이 없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조선어소리마디발음에서는 모음의 앞뒤에 하나씩의 자음만이 이어져 발음될뿐 두개 자음이 겹치여 발음되는 경우란 있을수 없다. 형태상으로 소리마디끝에 두개 자음이 오는 경우(례: 《넋》, 《맑다》, 《없다》, 《밟다》 등)들이 있으나 발음은 하나의 자음만이 될뿐이다.

이것은 조선어에서의 모음은 독자적으로 발음될수 있는 소리이고 자음은 모음에 붙어서만 발음될수 있는 소리라는것을 보여준다.

지난 기간 우리 나라 학자들이 그 어음이 독자적으로 발음되는가 안되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모음과 자음을 구분한것은 어음발음의 일반어음론적원리와 우리 말 어음의 특성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리해로부터 출발한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제2절. 조선어모음체계

조선어모음은 홑모음과 겹모음으로 갈라지며 그 체계도 두 체계로 갈라져있다.

1. 조선어홑모음의 소리값

모음의 소리값을 바로 규정하는것은 모음의 음운론적표식과 음운들의 상관관계를 설정하는데서 관건적문제로 나선다. 음운의 소리값은 그 음운이 지니고있는 속성이다. 즉 음운은 그것이 지니고있는 본질적속성에 의하여 다른 음운과 구별된다. 이 속성을 옳게 밝히지 못하면 음운의 구별적표식과 상관관계를 바로 설정할수 없으며 그 언어의 음운체계를 세울수 없다. 음운이 음운체계의 구성요소인것으로 하여 그 속성을 정확히 밝혀야만 체계정연한 음운체계의 특성을 잘 알수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하여 음운의 구별적표식과 상관관계에 앞서 그 소리값을 먼저 보기로 한다.

조선어의 홑모음은 다른 나라 말의 홑모음과 다른 일련의 특성을 가지고있다.

첫째로, 단어에서의 소리마루의 위치에 따라 모음의 질적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것이다. 여러 소리마디로 된 단어에서 소리마루가 어느 소리마디에 있건 관계없이 모음의 소리값은 변하지 않는다.

례컨대 《백두산》에서 소리마루의 위치는 단어가운데 즉 《두》에 있다. 이때 모음 《ㅜ》가 자기 소리값을 보존하는것은 물론 그 앞뒤에 있는 모음 《ㅏ》, 《ㅐ》도 고유한 자기 소리값을 그대로 보존한다.

그러나 로어 같은 언어에서는 단어의 어느 소리마디에 력점이 오는가에 따라 비력점소리마디에서는 모음의 소리값이 심하게 변한다. 형태단어 《в котóром》에서 력점소리마디 《о》는 그대로 《о》로 발음되지만 그앞에 있는 《о》는 [ʌ]로, 그뒤에 있는 《о》는 [ъ]로 발음된다. 즉 [ф кʌторъм]으로 변한다.

조선어모음에는 이런 현상이 없다. 소리마루가 단어의 어느 소

리마디에 있는가에는 관계없이 모음은 항상 자기 소리값을 그대로 보존한다.

둘째로, 조선어모음은 자음과의 결합속에서 량적변화가 있을뿐 질적변화는 가져오지 않는다. 여기에서 말하는 량적변화란 모음의 세기와 길이의 변화이다.

조선어자음은 모음과 결합될 때에 그 특성에 따라 모음의 량적변화에 영향을 많이 주는것과 적게 주는것이 있다. 조선어의 순한소리와 된소리는 모음의 량적변화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거센소리나 스침소리는 모음의 길이에 큰 영향을 미친다. 더우기나 거센소리와 스침소리가 높은모음 [ㅣ]나 [ㅡ]와 결합될 때에 모음은 무성화되여 그 세기가 약화되고 길이가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다.

○ 마스다, 스며 들다, 트다, 슬프다,

마치다, 마시다, 피다, 티눈

이런 단어들을 음성분석기로 실험한데 의하면 이때 [ㅡ]나 [ㅣ]의 파형은 자음의 파형보다 작고 짧다. 이것은 모음 [ㅡ], [ㅣ]가 거센소리, 스침소리의 영향을 받아 무성화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낮은모음 즉 열린모음과 거센소리, 스침소리가 결합되였을 때에도 무성화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때의 무성화는 완전무성화가 아니라 불완전무성화 즉 모음의 길이가 짧아지는것으로 나타난다.

조선어소리마디에서 모음이 무성화되여도 소리마디는 자기 기능을 수행한다. 본래 조선어에서 말머리겹자음이 허용되지 않기때문에 소리마디에서 모음이 무성화되면 겹자음발음이 생길수 있는 우려가 있으나 결코 그렇지 않다. 비록 소리마디에서 모음이 무성화되여 음향학적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소리마디로서의 자기 기능을 수행한다.

이것은 자모음결합에서 모음의 량적변화는 있어도 질적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셋째로, 조선어모음은 단어에서의 위치적제한성을 받지 않는다.

조선어모음은 단어의 시작, 가운데, 끝에 자유로이 나타날수 있다. 이것은 모음이 단어에서의 위치뿐만아니라 자음과의 결합조건에 관계없이 나타날수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지난 기간에는 일반적으로 소리값을 규정할 때에 조음적인 측면에서만 고찰하였다. 그러나 어음에 대한 조음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음향학적인 측면의 연구가 심화된 조건에서 소리값규정을 조음—음향학적인 통일속에서 하여야 할것이다.

모음의 특성을 규정하는데서 또한 전통적인 측면도 있는만큼 이 측면도 고려하여야 할것이다.

조선어홑모음의 소리값은 다음과 같다.

△ 모음 [l]

가) 조음적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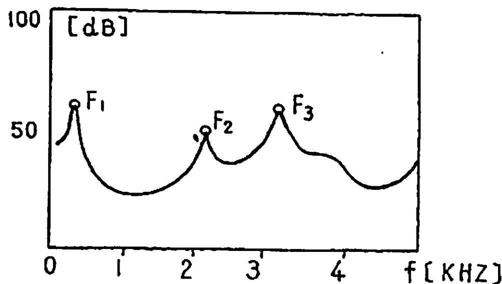
모음 [l]를 발음할 때에 아래턱은 웃턱에 가까이 접근하고 혀끝은 아래이에, 혀의 량가장자리는 웃어금이에 닿으며 입안앞부분에 작은 울림통이 생기는 반면에 혀살이 전반적으로 앞으로 쏠리기때문에 목안울림통의 용적이 다른 모음을 발음할 때보다 최대로 커진다. 발음할 때의 입술은 량옆으로 길게 벌어진다. 따라서 모음 [l]는 조음적으로 높은모음, 앞모음, 길죽모음이다.

나) 음향학적특징

음향학적으로 확산된 소리인것으로 하여 F_1과 F_2의 주파수차이가 심하다.

F_1은 278Hz, F_2는 2,234Hz이다.

모음 [l]의 최대길이는 140ms, 최소길이는 40ms, 평균길이는 80ms이다.



[l]

청각적느낌으로는 긴장된 소리이다.

※ 포르만트값은 남자 20명의 발음을 측정한 평균값이다.

다) 음양관계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중성적인 모음이다.

△ 모음 [ㅟ]

가) 조음적특징

입안에서의 혀의 운동은 모음 [ㅣ]를 발음할 때와 비슷하나 일정한 차이가 있다. 혀의 량옆가장자리가 웃어금이에 닿는것은 모음 [ㅣ]를 발음할 때와 같으나 혀끝이 아래이가 아니라 아래이몸에 닿으며 모음 [ㅣ]를 발음할 때보다 혀앞등이 약간 뒤로 들어가 입천장에 접근한다. 이때 입술은 둥그래져 앞으로 나온다. 따라서 조음적으로 모음 [ㅟ]는 높은모음, 앞모음, 둥근모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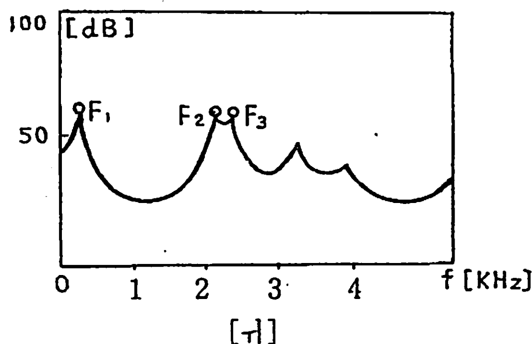
나) 음향학적특징

음향학적으로는 확산된 소리이며 궁근소리로서 F_1과 F_2의 주파수차이가 심하다.

F_1은 272Hz, F_2는 2,237Hz이다.

모음 [ㅟ]의 최대길이는 120ms, 최소길이는 40ms, 평균길이는 90ms이다.

청각적으로는 긴장된 소리이다.



[ㅟ]

다) 음양관계

밝은모음 [ㅚ]에 대응되는 어두운모음이다.

△ 모음 [ㅡ]

가) 조음적특징

모음 [ㅡ]를 발음할 때에 혀의 옆가장자리가 웃어금이에 닿고 혀가운데등이 뒤천장 가까이에 접근한다. 모음 [ㅣ]나 [ㅟ]를 발음할 때보다 입안 앞부분의 울림통용적은 커지고 목안울림통의 용적은 좀 작아진다. 두 입술은 옆으로 벌어져 길죽해진다.

따라서 조음적으로 모음 [ㅡ]는 높은모음, 뒤모음, 길죽모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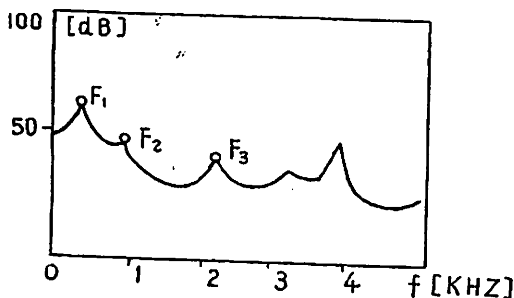
나) 음향학적특징

음향학적으로 확산된 소리이며 궁글지 않은 소리이다. F_1 과 F_2의 주파수차이는 모음 [ㅣ]나 [ㅟ]보다 심하지 않다.

F_1은 350Hz, F_2는 1,075Hz이다.

모음 [ㅡ]의 최대길이는 100ms, 최소길이는 20ms, 평균길이는 60ms이다.

청각적느낌으로는 긴장된 소리이다.



[ㅡ]

다) 음양관계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중성적인 모음이다.

△ 모음 [ㅜ]

가) 조음적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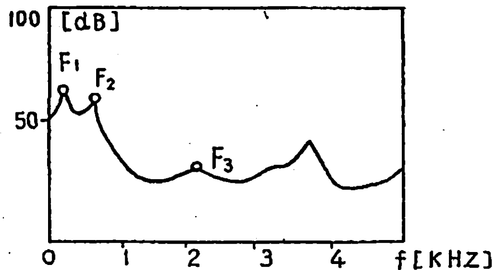
모음 [ㅜ]를 발음할 때 아래턱은 웃턱 가까이로 올라가고 혀뒤등은 뒤천장쪽으로 접근한다. 모음 [ㅡ]를 발음할 때보다 입안울림통의 용적이 커지고 목안울림통용적은 작아진다. 두 입술은 둥그래져 앞으로 약간 나온다.

따라서 조음적으로 모음 [ㅜ]는 높은모음, 뒤모음, 둥근모음이다.

나) 음향학적특징

음향학적으로 집중된 소리이며 궁근소리이다. F_1과 F_2의 주파수차이가 심하지 않다.

F_1은 319Hz, F_2는 659Hz이다.



[ㅜ]

모음 [ㅜ]의 최대길이는 120ms, 최소길이는 50ms, 평균길이는 60ms이다.

청각적느낌으로는 긴장되지 않는 소리이다.

다) 음양관계

밝은모음 [ㅗ]에 상대되는 어두운모음이다.

△ 모음 [ㅔ]

가) 조음적특징

모음 [ㅔ]를 발음할 때에 혀의 량가장자리는 웃어금이에 닿고 혀끝은 아래이안쪽면에 닿는다. 혀는 모음 [ㅣ]나 [ㅟ]를 발음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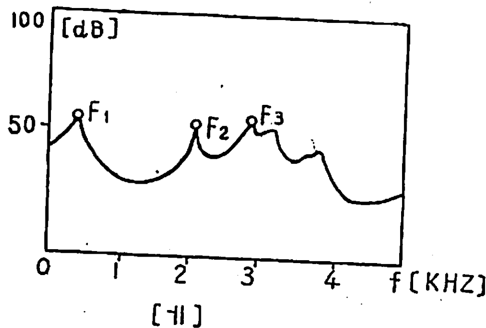
때보다 낮고 [ㅚ]를 발음할 때보다 높다. 입안울림통은 [ㅣ]의 경우보다 커진다. 입술의 량쪽귀가 약간 오무라진듯 하나 입술은 거의 피동적이다.

따라서 조음적으로 모음 [ㅔ]는 반높은모음, 앞모음, 길죽모음이다.

나) 음향학적특징

음향학적으로 확산된 소리이며 궁글지 않은 소리이다. F_1과 F_2의 주파수차이는 비교적 심한 편이다.

F_1은 391Hz, F_2는 2,147Hz이다.



[ㅔ]

모음 [ㅔ]의 최대길이는 150ms, 최소길이는 60ms, 평균길이는 80ms이다.

청각적느낌으로는 얼마간 긴장된 소리이다.

다) 음양관계

밝은모음 [ㅐ]에 대응되는 어두운모음이다.

△ 모음 [ㅓ]

가) 조음적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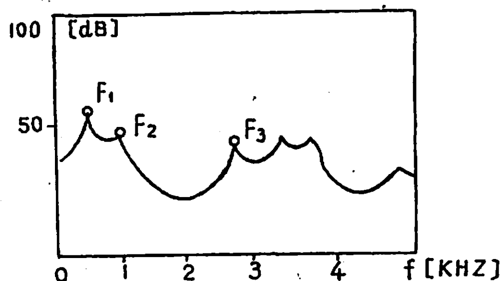
모음 [ㅓ]를 발음할 때에 아래턱은 모음 [ㅜ]를 발음할 때보다 얼마간 밑으로 처지고 혀살은 뒤로 밀려들어가 입안 앞울림통과 뒤울림통의 크기가 비슷하다. 혀의 높이는 모음 [ㅜ]의 경우보다 낮고 모음 [ㅗ]보다 약간 높다. 모음 [ㅗ]와 혼동을 일으키는 때가 일부 있다. 두 입술은 우아래로 벌어져 피동적자세를 취한다.

따라서 조음적으로 모음 [ㅓ]는 뒤모음, 반높은모음, 길쭉모음이다.

나) 음향학적특징

음향학적으로 집중된 소리이며 궁글지 않은 소리이다. F_1과 F_2의 주파수차이가 심하지 않다.

F_1은 457Hz이고 F_2는 830Hz이다.



[ㅓ]

모음 [ㅓ]의 최대길이는 150ms, 최소길이는 40ms, 평균길이는 70ms이다.

청각적느낌으로는 긴장되지 않는 소리이다.

다) 음양관계

밝은모음 [ㅏ]에 대응되는 어두운모음이다.

△ 모음 [ㅚ]

가) 조음적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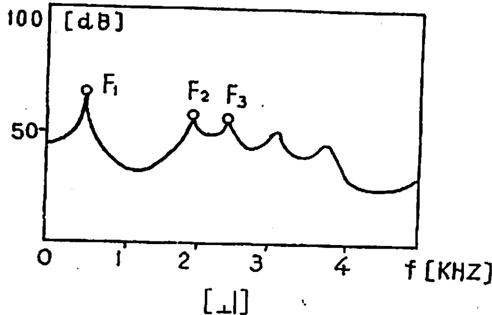
모음 [ㅚ]를 발음할 때에 아래턱은 모음 [ㅔ]를 발음할 때보다 약간 밑으로 처진다. 혀는 모음 [ㅔ]를 발음할 때와 같은 상태에 놓여있으나 두 입술은 나오면서 량볼이 가운데로 오무라지기때문에 입안울림통의 크기는 더 작아진다. 모음 [ㅚ]를 발음할 때에 종종 [ㅙ]로 발음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아직 겹모음 [ㅗ⁀ㅣ]의 홑모음화가 불완전하게 된것과 관련된다. 그러나 현재 문화어 발음에서 홑모음 [ö]로 발음되는것만큼 홑모음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조음적으로 모음 [ㅚ]는 앞모음, 반낮은모음, 둥근모음이다.

나) 음향학적특징

음향학적으로 확산된 소리이며 궁근소리이다.

F_1 과 F_2의 주파수차이가 심하다.



F_1은 431Hz이고 F_2는 1,925Fz이다.

모음 [ㅚ]의 최대길이는 90ms, 최소길이는 70ms, 평균길이는 80ms이다.

청각적느낌으로는 긴장된 소리이다.

다) 음양관계

어두운모음 [ㅟ]에 대응되는 밝은모음이다.

△ 모음 [ㅗ]

가) 조음적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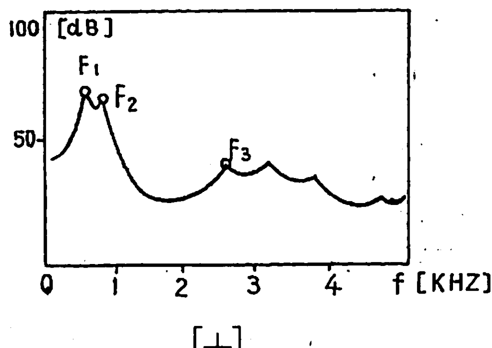
모음 [ㅗ]를 발음할 때에 아래턱과 웃턱사이의 간격은 모음 [ㅓ]를 발음할 때보다 좀더 벌어지고 입안울림통은 더 커진다. 혀는 긴장되면서 뒤쪽으로 향하여 혀뒤등이 뒤천장에 접근한다. 혀끝은 밑으로 처진다. 이때 두 입술은 오무라들면서 앞으로 나온다. 아래턱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지만 발음에서는 어디까지나 피동적이다.

따라서 조음적으로 모음 [ㅗ]는 뒤모음, 반낮은모음, 둥근모음이다.

나) 음향학적특징

음향학적으로 집중된 소리이며 궁근소리이다. F_1과 F_2의 주파수차이는 심하지 않다.

F_1은 496Hz이고 F_2는 750Hz이다.



[ㅗ]

모음 [ㅗ]의 최대길이는 120ms, 최소길이는 40ms, 평균길이는 60ms이다.

청각적느낌으로는 긴장되지 않는 소리이다.

다) 음양관계

어두운모음 [ㅜ]에 대응되는 밝은모음이다.

△ 모음 [ㅐ]

가) 조음적특징

모음 [ㅐ]를 발음할 때에 모음 [ㅚ]를 발음할 때보다 아래턱은 더 벌어지고 입안울림통의 크기도 더 커진다. 혀는 [ㅚ]를 발음할 때와 같이 입안앞부분으로 나온다. 수평상태에서 보면 혀가운데등은 굳은입천장쪽으로 향해있다. 입술의 량쪽귀는 최대로 벌어져 입술모양은 길죽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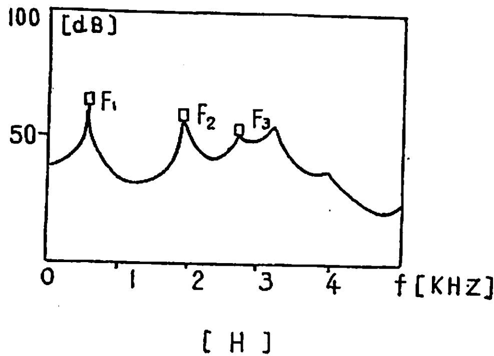
따라서 조음적으로 모음 [ㅐ]는 앞모음, 낮은모음, 길죽모음이다.

나) 음향학적특징

음향학적으로 확산된 소리이며 궁글지 않은 소리이다. F_1과

F_2의 주파수차이가 심하다.

F_1은 508Hz이고 F_2는 2,072Hz이다.



[H]

모음 [ㅐ]의 최대길이는 100ms, 최소길이는 40ms, 평균길이는 70ms이다.

청각적느낌으로는 긴장되지 않는 소리이다.

다) 음양관계

어두운모음 [ㅔ]에 대응되는 밝은모음이다.

△ 모음 [ㅏ]

가) 조음적특징

모음 [ㅏ]를 발음할 때에 혀끝은 아래이에 닿고 아래턱은 다른 모음을 발음할 때보다 제일 크게 벌어진다. 혀는 밑으로 처져 중립 상태에 있다. 입안울림통이 커지고 목안울림통이 최대로 작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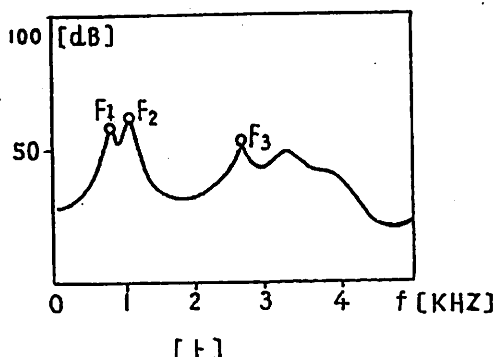
부분적인 연구자들이 모음 [ㅏ]를 가운데모음으로 처리하고있으나 이것은 앞모음 [ㅐ]와 상관관계를 가지고있는 뒤모음이다.

따라서 조음적으로 모음 [ㅏ]는 낮은모음, 뒤모음, 길죽모음이다.

나) 음향학적특징

음향학적으로 집중된 소리이며 궁글지 않은 소리이다. F_1과 F_2의 주파수차이는 심하지 않다.

F_1은 750Hz이고 F_2는 1,100Hz이다.



[ㅏ]

모음의 최대길이는 110ms, 최소길이는 60ms, 평균길이는 80ms 이다.

다) 음양관계

어두운모음 [ㅓ]와 대응되는 밝은모음이다.

지금까지 조선어홑모음의 소리값을 조음—음향학적특징, 청각적느낌, 음양관계의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조선어겹모음의 소리값에 대하여서는 따로 서술하지 않기로 한다. 겹모음은 앞요소가 짧은 [i̯], [u̯]로 된것과 [ɯ]로 된것이 있다. [i̯], [u̯]는 짧은모음으로서 겹모음의 앞요소로서만 자기 기능을 수행하며 자립적요소로 분리되지 않는 음운적요소이다. [ɯi]에서의 [ɯ]는 [i̯], [u̯]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i̯], [u̯]는 짧은모음으로서 반모음의 성질을 띠고있지만 [ɯi]에서의 [ɯ]는 반모음이 아니라 거의 옹근모음이나 다름 없다.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 겹모음의 뒤요소는 홑모음인것으로 하여 이 소리값이 이미 서술된만큼 겹모음의 소리값을 따로 고찰할 필요가 없을것이다.

2. 조선어홑모음의 음운론적표식

조선어홑모음은 《ㅏ, ㅓ, ㅗ, ㅜ, ㅡ, ㅣ, ㅐ, ㅔ, ㅚ, ㅟ》의 10개이다. 이 모음들을 어떤 음운론적표식에 의하여 가르는가 하는 문제는 모음체계의 특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10개의 홑모음이 자기의 속성에 따라 일정한 음운론적표식을 가지

고 모음체계를 이루며 음운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조선어홑모음의 음운론적표식은 혀의 높낮이상태, 혀의 앞뒤상태, 입술의 모양에 따라 갈라진다.

첫째로, 조선어 홑모음은 혀의 높낮이상태에 따라 높은모음(《ㅣ, ㅟ, ㅡ, ㅜ》), 반높은모음(《ㅓ, ㅔ》), 반낮은모음(《ㅗ, ㅚ》), 낮은모음(《ㅏ, ㅐ》)으로 구분된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을 높은모음, 중간모음, 낮은모음으로 가르기도 한다.

만약 혀의 높낮이에 따라 모음을 세 부류로 가른다면 중간모음들인 《ㅗ, ㅚ, ㅓ, ㅔ》는 높낮이에 따르는 음운론적표식이 모호해진다. 《ㅗ》와 《ㅓ》, 《ㅚ》와 《ㅔ》는 엄연히 혀의 높낮이에 의하여 차이가 있고 그것이 표식으로 되여 이 모음들이 구별되는것이다. 이 차이를 무시하고 같은 부류로 처리한다면 높은모음과 낮은모음과의 상관관계에서 중간모음들은 같은 모음부류로 처리될것이다. 이러한 분류는 론리상 부당하다.

※ 《조선어문법(1)》(과학원출판사, 1960년)에서는 혀의 높낮이관계에 따라 《닫힘》, 《가운데》, 《열림》의 세 부류로 가르고 그안에서 《가운데닫힌모음》, 《가운데열린모음》으로 구분하였다. 원칙적으로 네 부류로 가른셈이다.

《현대조선어(1)》(고등교육도서출판사, 1961년)에서는 입안의 열림과 닫힘에 따라 《닫힌모음(《ㅣ, ㅟ, ㅡ, ㅜ》)》, 《반닫힌모음(《ㅔ, ㅚ, ㅗ》)》, 《반열린모음(《ㅐ, ㅓ》)》, 《열린모음(《ㅏ》)》으로 갈랐다.

이러한 구분은 원칙상으로 옳은것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조선어문법 (1)》과 《현대조선어(1)》에서 혀의 높낮이(입안의 열림과 닫힘)에 따라 네 부류로 갈라 음운론적표식을 나타낸것은 옳으나 매개 부류에 속하는 모음들에 대하여서는 과학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할 점들이 있다.

《조선어문법 (1)》에서 가운데닫힌모음은 《ㅗ, ㅔ, ㅚ》, 가운데열린모음은 《ㅓ, ㅐ》로 되여있다. 즉 《ㅓ》와 《ㅐ》가 같은 계렬을 이

루면서 《ㅗ》나 《ㅚ》보다 열린모음에 속하는것으로 되여있다.

현대적음성실험기구에 의한 실험결과는 《ㅗ》와 《ㅚ》가 《ㅓ》, 《ㅔ》보다 열린모음쪽에 가깝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만약 《ㅗ》나 《ㅚ》를 닫힌모음에 가깝게 처리한다면 높낮이관계에서 불합리가 조성되게 된다. 뒤모음에서 《ㅜ, ㅓ, ㅗ, ㅏ》, 앞모음에서 《ㅟ, ㅔ, ㅚ, ㅐ》의 순차로 닫힘과 열림의 상관관계가 이루어져야 모음체계가 수미일관하게 될것이다.

《현대조선어(1)》에서의 모음의 구분도 합리적이 되지 못하다. 여기서 반닫힌모음은 《ㅔ, ㅚ, ㅗ》라고 하고 반열린모음은 《ㅐ, ㅓ》라고 하였다. 이렇게 되면 《ㅜ》와 《ㅗ》, 《ㅓ》와 《ㅏ》, 《ㅟ》와 《ㅚ》, 《ㅔ》와 《ㅐ》의 상관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ㅓ》와 《ㅔ》의 대립관계도 성립되지 않는다.

우리 말의 모음체계는 높낮이관계에서 둥근모음은 둥근모음끼리, 길죽모음은 길죽모음끼리 상관대립이 이루어질수 있게 체계정연하다.

물론 혀의 높낮이관계에 따라 모음들이 몇개 부류로 갈라지는가 하는것은 언어의 특성에 따라 각이하다.

례컨대 타갈로그어에는 모음이 《i, u, a》 등 3개인데 높은모음(i, u)과 낮은모음(a)이 있을뿐이며 에스빠냐어나 로어에는 모음이 《i, u, e, o, a》 등 5개인데 높은모음(i, u), 중간모음(e, o), 낮은모음(a)으로 체계가 구성되여있다. 뛰르끼예어에는 높은모음(i, y, ï, u)과 낮은모음(e, ф, a, o)의 두 부류로 되여있는데 높낮이관계에 따라 [i]—[e], [y]—[ф], [ï]—[a], [u]—[o]의 상관대립이 이루어지고있다.

매개 언어에서 혀의 높낮이에 따라 몇개의 부류로 갈라지는가 하는것은 모음의 수량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음이 해당 부류에 속하여 다른 음운과의 구별적기능을 수행하는가 하는데 관계된다. 이 분류는 순수 기계적인 분류가 아니라 음운론적상관대립에 따르는 분류이다. 혀의 높낮이에 따라 그 차이가 클수도 있고 작을수도 있다. 모음부류들사이의 조음적인 차이가 비록 작지만 모음들사이의 음운론적대립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자립적인 음운으로서의 자기

기능을 수행한다.

례컨대 조선어모음 [ㅓ]와 [ㅗ]의 높낮이차이는 상대적으로 작다. 그러나 혀의 높낮이관계에서 음운론적으로 구별되며 두 음운사이의 혼동이 없이 자기 기능을 수행한다.

물론 개개의 모음이 혀의 높낮이표식에 의해서만 구별되는것은 아니다. 혀의 앞뒤운동관계, 입술의 모양 등 음운론적표식의 총체에 의해서 다른 음운과 구별된다.

둘째로, 조선어 홑모음은 혀의 앞뒤운동상태에 따라 앞모음(《ㅣ, ㅟ, ㅔ, ㅚ, ㅐ》)과 뒤모음(《ㅡ, ㅜ, ㅓ, ㅗ, ㅏ》)이 갈라진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와는 다르게 앞모음, 가운데모음, 뒤모음으로 가르면서 가운데모음에 《ㅡ》만을 포함시키기도 하고 《ㅡ》와 《ㅏ》를 다 포함시키기도 한다.

조음적으로 볼 때 모음 《ㅡ》가 《ㅏ》보다 얼마간 혀가운데쪽에서 조음되는것만은 사실이다. 그렇기때문에 모음삼각도나 모음사각도를 그릴 때 《ㅡ》의 위치를 항상 《ㅜ》의 앞에 놓는다.

이와 같은 현상은 모음 《ㅏ》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모음삼각도도형상에서 높은모음 《ㅡ》와 직선상에서 《ㅏ》를 낮은모음으로 배렬하고있다.

또한 극히 부분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모음 《ㅓ》를 《ㅡ》와 《ㅏ》사이에 놓이는 가운데모음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이나 저것이나 과학적견지에서 볼 때 음운체계상 모순점들이 적지 않다.

그것은 우선 《ㅡ》를 가운데모음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음운론적인 상관관계에서 모순이 생긴다. 높은모음으로 앞모음과 뒤모음의 상관관계는 《ㅟ》와 《ㅜ》, 《ㅣ》와 《ㅡ》의 대립관계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ㅡ》를 가운데모음으로 인정한다면 앞뒤의 어떤 모음과도 음운론적대립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와 같은 현상은 《ㅏ》나 《ㅓ》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ㅏ》를 가운데모음으로 처리하면 앞에 있는 《ㅐ》와 상관관계를 가질수 있어도 《ㅏ》뒤에 놓이는 모음이 없으므로 가운데모음과 뒤모음과는 상관적대립이 없는것으로 된다. 《ㅓ》에서도 이것이 만약 가운데모음이라면 앞모음 《ㅔ》와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뒤모음이 없는것으로 하여 가운데모음—뒤모음

의 상관관계는 없는것으로 된다.

소여 언어에서 매개 음운은 일정한 구별적표식을 가지고 정연한 체계속에 존재한다. 어느 한 음운도 음운체계밖에 존재하는 고립된 음운이란 있을수 없다. 모든 음운은 구별적표식의 공통성과 차이성에 의하여 서로 련결되고 제약되면서 공고한 체계를 이루고있다.

조선어의 모음 《ㅡ》는 가운데모음이 아니라 뒤모음이며 그것은 앞모음 《ㅣ》와 상관관계를 맺고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ㅓ》와 《ㅏ》도 앞모음 《ㅔ》, 《ㅐ》와 상관관계를 가지는 뒤모음이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조선어모음 《ㅡ》, 《ㅏ》, 《ㅓ》를 가운데모음으로 처리하는것은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다.

또한 앞모음 《ㅚ》, 《ㅟ》를 홑모음으로가 아니라 겹모음으로 처리함으로써 음운체계상 모순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일부 외국의 언어학자들이 조선어의 《ㅚ, ㅟ》를 겹모음으로 취급하였다.

만약 그들의 견해와 같이 조선어의 《ㅚ, ㅟ》를 홑모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뒤모음 《ㅗ, ㅜ》는 앞모음—뒤모음의 상관관계가 성립되지 않을것이다.

엘.에르.진데르는 서울발음에서는 조선어의 홑모음 《ㅚ, ㅟ》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ㅟ》를 겹모음의 부류에 포함시켰다.

모음체계에서 《ㅏ, ㅓ, ㅡ》만이 《ㅐ, ㅔ, ㅣ》와 상관적대립이 있고 《ㅜ, ㅗ》는 상관적대립관계가 없다는것은 음운체계상 모순이다.

엘.에르.진데르가 서울발음에서 《ㅚ, ㅟ》가 없다고 한것은 발음에서의 지방적특성이며 조선어모음체계에서의 《ㅚ, ㅟ》가 없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물론 조선어의 《ㅚ, ㅟ》가 앞모음이면서 둥근모음이기때문에 발음에서 불안정한감은 있지만 엄연히 그것이 조선어의 자립적인 음운으로 존재한다. 15세기이전에는 조선어에 변모음화된 《ㅐ, ㅔ, ㅚ, ㅟ》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16세기이후에 겹모음으로부터 홑모음으로 전환되여 《ㅏ, ㅓ, ㅗ, ㅜ》에 맞는 《ㅐ, ㅔ, ㅚ, ㅟ》가 체계정연하게 형성되였다. 그리하여 오늘날 《ㅏ》—《ㅐ》, 《ㅓ》—《ㅔ》, 《ㅗ》—《ㅚ》, 《ㅜ》—《ㅟ》, 《ㅡ》—《ㅣ》의 뒤모음—앞모음과 같은 상관

관계가 존재한다.

모든 언어에서 다 앞모음—뒤모음의 상관대립이 이루어지는것은 아니다.

례컨대 로어에서 모음의 대립관계는 높은모음—낮은모음, 둥근모음—길죽모음으로 대립관계가 형성될뿐 앞모음—뒤모음의 대립관계는 없다. 다만 모음의 앞뒤에 어떤 자음이 오는가에 따라 모음이 관계될뿐이다.

셋째로, 조선어홑모음은 발음할 때의 입술의 모양에 따라 둥근모음(ㅜ, ㅗ, ㅟ, ㅚ)과 길죽모음(ㅓ, ㅏ, ㅡ, ㅔ, ㅐ, ㅣ)으로 갈라진다. 여기에서 길죽모음 《ㅣ》는 둥근모음 [ㅟ], 길죽모음 《ㅡ》는 둥근모음 [ㅜ]와 상관관계를 이룬다.

일부 연구자들은 조선어에 둥근모음으로서 《ㅗ, ㅚ, ㅟ》만을 인정하고 《ㅜ》는 인정하지 않고있다. 그 중요한 근거가 모음 《ㅜ》를 발음할 때에 입술의 모양이 《ㅗ》를 발음할 때보다 둥글해져 앞으로 나오지 않는다는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례컨대 《우리》, 《둥글다》, 《주다》 등의 단어들을 발음할 때 둥근모음으로서의 특징을 뚜렷이 나타낸다. 따라서 우리 말에는 둥근모음 《ㅜ》가 자립적인 음운으로 존재한다.

※ ① 아래턱의 오르내림에 의하여 닫긴모음, 반닫긴모음, 반열린모음, 열린모음으로 가르는것도 있다. 이 표식을 따로 잡게되는것은 혀의 오르내림운동과 아래턱의 오르내림운동이 꼭 일치한다는것은 아니라는데 그 근거를 두고있다. 그 차이를 렌트겐으로 실험하여 측정하지 못하였기때문에 여기서는 아래턱의 오르내림에 의한 표식을 따로 설정하지 않는다.

② 조선어에서 코소리모음과 비코소리모음의 대립도 설정하지 않는다. 조선어에서의 모음의 코소리음색은 코소리자음의 영향에 의하여 부여될뿐 그자체가 코소리음색을 가지고있는것은 아니기때문이다. 프랑스어 같은데서는 코소리자음의 영향에 관계없이 코소리모음(ã, ɛ̃, õ, œ̃)이 존재하기때문에 코소리모

음과 비코소리모음의 상관관계가 설정되나 조선어에는 이런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③ 일부 경우에 조선어모음을 밝은모음과 어두운모음으로 상관관계를 설정하나 그것은 과학적으로 투명성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조선어의 10개 모음가운데 4개만이 밝은모음(ㅏ, ㅗ, ㅐ, ㅚ)이고 6개는 어두운모음(ㅓ, ㅜ, ㅔ, ㅟ)이며 중성모음(ㅣ, ㅡ)인것으로 하여 밝은-어두움의 표식에 따라 전체 모음의 대립관계를 설정하기 힘들기때문이다. 조선어에서의 밝은모음과 어두운모음의 구분은 입안울림성정도 및 울림도와 관련된것으로 밝음-어두움의 표식에 의하여 상관관계를 설정하기 힘들다.

물론 일부 사람들은(엔.에쓰.뚜르베쯔꼬이 등) 모음구분에서 울림과 안울림을 구별적표식으로 설정한것이 있기는 하나 과학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점이 적지 않다.

3. 조선어홑모음의 상관관계

음운은 음운론적표식의 공통성과 차이성에 의하여 서로 련결되고 구별된다. 음운들이 서로 구별되는것은 음운론적표식의 차이이지만 그것들을 련결시키고 관계를 가지게 하는것은 그들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성이다. 음운들사이에 차이성만이 존재한다면 상관관계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나아가서 음운체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모음은 모음끼리 표식의 공통성이 있기때문에 련결되는것이며 차이성으로 하여 서로 다른 모음으로 인정되는것이다. 같은 부류의 음운들사이의 차이를 가져오는것은 상관적표식의 차이때문이다.

상관적표식은 일련의 상관쌍들이 음운론적표식이 있는가 없는가를 특징짓는 표식이다. 음운은 구별적표식에 따라 쌍을 이루는것과 쌍을 이루지 않는것이 있다. 상관쌍에 참가하는 음운을 쌍음운이라고 하고 어느 한 상관쌍에도 참가하지 않는 음운을 쌍을 이루

지 않는 음운이라고 한다.

조선어모음은 상관쌍에 의해 련결되고 대립된다.

조선어모음의 상관쌍은 우선 높음과 낮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ㅜ	높음
ㅓ	반높음
ㅗ	반낮음
ㅏ	낮음

낮음과 높음에 의한 상관쌍은 [ㅏ]—[ㅗ], [ㅗ]—[ㅓ], [ㅓ]—[ㅜ]이다. 즉 낮은모음(ㅏ)—반낮은모음(ㅗ), 반낮은모음(ㅗ)—반높은모음(ㅓ), 반높은모음(ㅓ)—높은모음(ㅜ)이다.

이 쌍은 어디까지나 높낮이에 의한 기계적인 쌍이다.

조선어에서의 높낮이에 의한 쌍은 길죽모음은 길죽모음끼리, 둥근모음은 둥근모음끼리의 쌍이다. 따라서 뒤모음에서 [ㅏ]—[ㅓ], [ㅗ]—[ㅜ]의 대립이 이루어진다.

앞모음에서도 높낮이에 따라 [ㅐ]—[ㅔ], [ㅚ]—[ㅟ]의 대립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직접적대립 즉 상관대립이다.

높낮이에 의한 상관쌍은 [ㅏ]—[ㅗ], [ㅐ]—[ㅚ]의 형식이 아니라 [ㅏ]—[ㅓ], [ㅗ]—[ㅜ], [ㅐ]—[ㅔ], [ㅚ]—[ㅟ]의 형식을 띤다.

조선어모음의 상관쌍은 다음으로 앞모음과 뒤모음이다.

조선어에서는 앞모음 [ㅐ], [ㅔ], [ㅚ], [ㅟ]와 뒤모음 [ㅏ], [ㅓ], [ㅗ], [ㅜ]사이에서의 상관쌍으로써 대립이 형성된다. 여기서도 둥근모음은 둥근모음끼리, 길죽모음은 길죽모음끼리의 쌍이다. [ㅟ]-[ㅜ], [ㅚ]-[ㅗ]는 앞뒤상관쌍에 의한 둥근모음들사이의 대립이고 [ㅔ]-[ㅓ], [ㅐ]-[ㅏ]는 앞뒤상관쌍에 의한 길죽모음들사이의 대립이다.

조선어모음의 상관쌍은 끝으로 둥근모음들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이 쌍은 뒤모음—뒤모음, 앞모음—앞모음, 뒤모음—앞모음사이에서 형성된다. [ㅗ]—[ㅜ]는 뒤모음끼리의 상관쌍이고 [ㅚ]—[ㅟ]는 앞모음끼리의 상관쌍이며 [ㅗ]—[ㅚ], [ㅜ]—[ㅟ]는 뒤모음—앞모음의 상관쌍이다.

이 상관쌍에서의 대립관계는 다음과 같다.

[ㅗ]: 뒤모음, 반낮은모음, 둥근모음

[ㅜ]: 뒤모음, 높은모음, 둥근모음

여기서 구별적표식은 반낮은모음과 높은모음이다. 이것은 두 모음사이의 직접적대립 즉 상관적대립이다.

[ㅚ]: 앞모음, 반낮은모음, 둥근모음

[ㅟ]: 앞모음, 반높은모음, 둥근모음

구별적표식은 반낮은모음—반높은모음이다.

[ㅗ]: 뒤모음, 반낮은모음, 둥근모음

[ㅚ]: 앞모음, 반낮은모음, 둥근모음

구별적표식은 뒤모음—앞모음이다.

[ㅜ]: 뒤모음, 높은모음, 둥근모음

[ㅟ]: 앞모음, 높은모음, 둥근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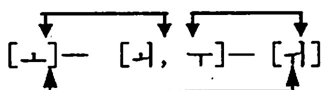
구별적표식은 뒤모음—앞모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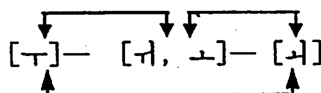
이것들은 둥근모음사이에서의 직접적대립, 상관대립이다.

둥근모음들사이에는 간접적대립도 존재한다.

[ㅗ]와 [ㅟ], [ㅜ]와 [ㅚ]는 간접적대립관계를 가진다. [ㅗ]는 [ㅚ] 또는 [ㅜ]를 거쳐서만 [ㅟ]와 대립관계를 형성하지 직접적으로 대립관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정한 음운아 다른 음운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다른 음운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관계를 가진다고 하여 단계적대립이라고도 한다.





높은모음과 낮은모음의 관계에서도 이와 같은 관계가 나타난다.

조선어의 낮은모음 [ㅏ]는 반높은모음 [ㅓ]와 상관관계를 이루지만 [ㅏ]가 직접적으로 [ㅔ]와 상관관계를 이루지 못하며 이들사이에는 간접적인 관계 즉 단계적대립만이 존재한다. 반높은모음 [ㅓ]도 낮은모음 [ㅐ]와 관계를 가지려면 [ㅏ]나 [ㅔ]의 단계를 거쳐서만 련결된다.

[ㅓ]—[ㅏ]　　　　또는 [ㅓ]—[ㅔ]

　　[ㅏ]—[ㅐ]　　　　　　[ㅔ]—[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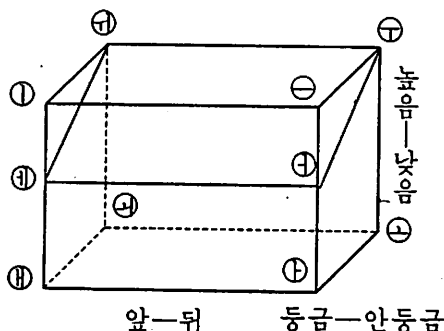
여기에서 [ㅓ]—[ㅏ], [ㅏ]—[ㅐ], [ㅓ]—[ㅔ], [ㅔ]—[ㅐ]는 상관쌍을 이루는 상관적대립이지만 [ㅓ]—[ㅐ]는 간접적대립 즉 단계적대립이다.

이와 같이 조선어모음《ㅏ, ㅗ, ㅓ, ㅜ, ㅐ, ㅚ, ㅔ, ㅟ》는 상관쌍을 이루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서로 련결되면서 하나의 공고한 체계를 이룬다.

그러면 모음 [ㅣ], [ㅡ]는 다른 모음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이 모음들도 조선어모음체계에 있는만큼 다른 모음과 련계가 없이 고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홑모음체계의 한 성원으로 된다. 앞뒤관계에서는 [ㅣ], [ㅡ]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높낮이관계에서는 [ㅣ]—[ㅔ]—[ㅐ], [ㅡ]—[ㅓ]—[ㅏ], 입술모양에서는 [ㅣ]—[ㅟ], [ㅡ]—[ㅜ]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조선어홑모음체계를 도형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어홑모음의 음운체계

	앞모음	뒤모음	높음	반높음	반낮음	낮음	둥금	길죽
ㅏ		○				○		○
ㅓ		○		○				○
ㅗ		○			○		○	
ㅜ		○	○				○	
ㅡ		○	○					○
ㅣ	○		○					○
ㅐ	○					○		○
ㅔ	○			○				○
ㅚ	○				○		○	
ㅟ	○		○				○	

지금까지 조선어홑모음체계에 대하여 보았다.

4. 조선어겹모음체계와 상관관계

조선어에서는 홑모음체계와 함께 정연한 겹모음체계가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조선어겹모음은 음소론적으로 보면 두개의 음소로 이루어져있다. 즉 앞의 음소가 [i̯], [u̯], [ɯ̯]로 되여있고 뒤의 음소가 [ㅏ], [ㅐ], [ㅓ], [ㅔ], [ㅗ], [ㅜ], [ㅣ]로 되여있다. [i̯]의 뒤음소로는 《ㅏ, ㅓ, ㅗ, ㅜ, ㅐ, ㅔ》만이 되고 [u̯]의 뒤음소로는 《ㅏ, ㅐ, ㅓ, ㅔ》, [ɯ]의 뒤음소로는 《ㅣ》만이 된다.

일부 연구자들이 겹모음의 앞요소로 [o̯]가 있다고 하고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u̯]의 변종에 지나지 않는다. 알레나 스깔리치꼬바도 [o̯]는 [u̯]와 매우 류사하다고 하였다.

[i̯]를 첫 요소로 하는 겹모음과 [u̯]를 첫 요소로 하는 겹모음을 편의상 두 체계로 갈라서 고찰할수도 있고 한 체계로 합하여 고찰할수도 있다.

[i̯]를 첫 요소로 하는 겹모음체계

		ㅠ	높음
	ㅖ	ㅕ	반높음
앞			뒤
		ㅛ	반낮음
	ㅒ	ㅑ	낮음

※ 점선을 기준으로 하여 평행선아래는 낮은겹모음(반낮은겹모음), 우는 높은겹모음(반높은겹모음)이며 우아래직선 우측은 뒤겹모음, 좌측은 앞겹모음이다.

음성학적견지에서 보면 겹모음의 첫 요소 [i̯]의 발음시작점은 홑모음 [ㅣ]의 조음점보다 입천장쪽으로 좀더 올라가며 [i̯]로부터 겹모음 뒤부분발음위치로 조음점이 급격히 이동한다.

겹모음의 상관쌍은 높낮이에 따라 [ㅑ]—[ㅕ], [ㅛ]—[ㅠ], [ㅒ]—[ㅖ] 묶음이 이루어진다. [ㅛ]—[ㅠ]는 둥근모음끼리의 상관쌍이며 [ㅑ]—[ㅕ], [ㅒ]—[ㅖ]는 길죽모음끼리의 상관쌍이다.

이와 같이 겹모음에서도 둥근모음은 둥근모음끼리, 길죽모음은 길죽모음끼리 상관쌍을 이룬다. 앞뒤에 따라서는 [ㅒ]—[ㅑ], [ㅖ]—[ㅕ]의 상관쌍이 존재할뿐 앞모음에는 둥근모음이 없기때문에 앞뒤둥근모음의 상관쌍은 없다.

여기에서도 음운들사이에 직접적대립과 간접적대립이 존재한다. 높낮이관계에 따라 [ㅑ]—[ㅛ], [ㅛ]—[ㅕ], [ㅕ]—[ㅠ], [ㅒ]—[ㅖ]의 대립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직접적대립이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길죽모음과 둥근모음을 따로 취급할 때에는 [ㅑ]—[ㅕ], [ㅛ]—[ㅠ]의 직접적대립이 이루어진다.

또한 [ㅑ]와 [ㅠ]의 대립도 낮은겹모음과 높은겹모음의 대립으로 이루어지지만 그사이에 [ㅕ], [ㅛ]가 있는만큼 단계적인 대립이라 말할수 있다. 겹모음체계에서 [ㅑ]—[ㅕ], [ㅛ]—[ㅠ], [ㅒ]—[ㅖ]의 상관쌍이 형성되여 대립관계가 이루어지지만 [ㅑ]—[ㅖ], [ㅛ]—[ㅖ], [ㅠ]—[ㅖ], [ㅒ]—[ㅛ], [ㅒ]—[ㅕ],

[ㅒ]—[ㅠ]는 상관쌍을 이루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사이의 대립도 간접적대립, 단계적대립이다.

[ㅑ]:[ㅖ]는

[ㅑ]—[ㅛ] 또는 [ㅑ]—[ㅒ]
[ㅛ]—[ㅕ] [ㅒ]—[ㅖ]
[ㅕ]—[ㅖ]

[ㅠ]:[ㅒ]는

[ㅠ]—[ㅕ] 또는 [ㅠ]— [ㅕ]
[ㅕ]—[ㅛ] [ㅕ]—[ㅖ]
[ㅛ]—[ㅑ] [ㅖ]—[ㅒ]
[ㅑ]—[ㅒ]

[i̯]로 시작된 겹모음도 직접적대립과 간접적대립으로 서로 련결되면서 정연한 체계를 이루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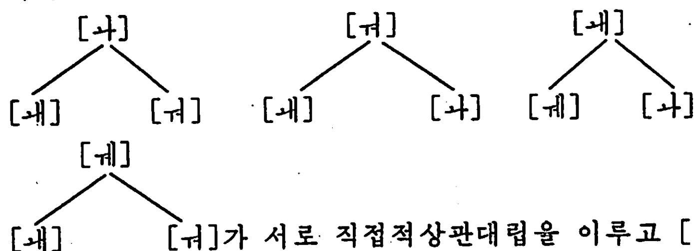
조선어에 [u̯]로 시작된 겹모음은 [ㅘ], [ㅙ], [ㅝ], [ㅞ] 등 4개가 있다.

[u̯]를 첫 요소로 하는 겹모음체계

ㅞ ㅝ
ㅙ ㅘ

높낮이관계에서는 [ㅘ]—[ㅝ], [ㅞ]—[ㅙ]가 상관쌍을 이루고 앞뒤관계에서는 [ㅞ]—[ㅝ], [ㅙ]—[ㅘ]가 상관쌍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서



가 서로 직접적상관대립을 이루고 [ㅘ]와 [ㅞ], [ㅙ]와 [ㅝ]는 간접적상관대립을 이룬다.

즉 [ㅘ]—[ㅝ] 또는 [ㅘ]—[ㅙ]
[ㅝ]—[ㅞ] [ㅙ]—[ㅞ]

[ㅙ]—[ㅘ]　　　또는 [ㅙ]—[ㅞ]

[ㅘ]—[ㅝ]　　　[ㅞ]—[ㅝ]와 같이 된다.

[ㅘ]와 [ㅞ]를 이어주는 단계의 음운은 [ㅝ] 또는 [ㅙ]이다.

그러면 [i̯]로 시작되는 겹모음과 [u̯]로 시작되는 겹모음과의 체계상 호상관계는 어떠한가? 이 두 부류의 겹모음이 별개의 체계를 이루는가 아니면 하나의 체계의 두 부류인가? 이것은 단순한것 같지만 복잡한 문제의 하나이다.

한 언어의 음운체계에는 자음체계, 모음체계가 있다. 모음체계 안에서도 홑모음, 겹모음이 갈라져있기는 하나 이것을 갈라서 고찰할수는 없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 모음체계라 함은 홑모음체계를 론하는것이 하나의 관례로 되여있었다. 그렇기때문에 겹모음에 대하여 론하는 경우에는 앞요소가 [i̯]인가, [u̯] 또는 [o̯]인가 하는것만 이야기되였지 겹모음체계를 어떻게 세울것인가에 대하여서는 거의 관심밖에 있었다.

물론 조선어겹모음의 특징이 앞요소가 어떤 성격의 말소리인가 하는데 주의가 집중되였기때문에 그의 성격을 밝히는데 많은 관심이 돌려지는 한편 앞요소의 성격이 밝혀지면 뒤요소는 홑모음과 같기때문에 주의를 돌리지 않은것과 많이 관련되였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겹모음도 음운들 호상간 서로 대립되여있으면서 하나의 정연한 체계를 이루고있는만큼 모든 겹모음은 하나의 통일속에서 고찰하여야 할것이다.

조선어겹모음체계

ㅢ	ㅠ
(ㅞ) ㅖ	ㅕ (ㅝ)
	ㅛ
(ㅙ) ㅒ	ㅑ (ㅘ)

[i̯]로 시작된 겹모음은 그것들대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u̯]로 시작된 겹모음들도 그것들대로 상관관계를 가진다. 여기서 [ㅑ]—[ㅘ], [ㅕ]—[ㅝ], [ㅞ]—[ㅖ], [ㅙ]—[ㅑ]의 대립은 앞요소 [i̯]와 [u̯]에 따르는 대립이다.

[궤]—[ㅕ], [ㅙ]—[ㅑ], [궤]—[ㅖ], [ㅘ]—[ㅕ], [ㅑ]—[ㅝ] 같은것들은 그 구성요소들이 다 다르기때문에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ㅢ]는 겹모음체계에서 그 위치를 앞모음우에다 놓았지만 겹모음 호상간의 대립관계는 아직 불명확하다.

이와 같이 조선어겹모음체계에서의 음운들의 호상련관과 대립관계는 투명하지 못한 점이 있다.

※ 일부 학자들은 조선어에서의 겹모음을 인정하지 않고있다. 그들의 견해에 의하면 《ㅑ, ㅕ, ㅛ, ㅠ, ㅒ, ㅖ》, 《ㅘ, ㅙ, ㅝ, ㅞ》는 짧은모음 [i̯], [u̯]와 홑모음 《ㅏ, ㅓ, ㅗ, ㅜ, ㅐ, ㅔ》가 결합되여 이루어진것이라고 하면서 짧은모음 [i̯], [u̯]를 자립적인 음운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조선어 모음음운은 21개가 아니라 12개라는것이다.([ㅢ]도 [ㅡ]와 [ㅣ]를 따로따로 분리하고있다.) 짧은모음을 자립적인 음운으로 인정하는 론거는 《ㅑ, ㅕ, ㅛ…》가 하나의 글자로 되였지만 음운구성으로서는 《짧은모음+모음》으로 이루어져있으며 《ㅘ, ㅙ…》도 본래는 《ㅗ+ㅏ》, 《ㅗ+ㅐ》의 결합이였다는것이다. 그 실례로 단어 《보았다》, 《주었다》가 줄어들어 《봤다》, 《줬다》로 된것을 들고있다. 자립적인 음운이 짧은모음과 모음이 결합되여 하나의 글자로 표기되였을뿐이지 음운수에 있어서는 엄연히 두개의 음운이라는것이다. 이들의 주장에도 일정한 타당성이 있으나 짧은모음이 반드시 모음앞에 붙어서만 쓰이고 자립성이 없으면 짧은모음과 모음사이로 형태적분계선이 지나지 않는다는 제약성이 있다.

5. 조선어모음체계와 관련한 외국학자들의 견해에 대한 비판

지난 기간 이전 쏘련과 체스꼬, 도이칠란드를 비롯한 외국학계에서도 조선어에 대한 연구가 적지 않게 진행되였다. 외국의 조선어연구자들은 모음의 수와 겹모음에 대한 여러가지 견해를 내놓았다.

그 대표적인 견해의 몇가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전 쏘련의 언어학자 아.아.홀로도비치는 주체43(1954)년에 간행된 《조선어문법개요》에서 조선어에는 《ㅏ, ㅓ, ㅗ, ㅜ, ㅡ, ㅐ, ㅔ, ㅣ》 등 8개의 홑모음과 《ㅑ, ㅕ, ㅛ, ㅠ, ㅖ, ㅒ, ㅘ, ㅝ, ㅙ, ㅞ, ㅚ(올림겹모음), ㅢ(내림겹모음)》 등 12개의 겹모음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 《Очерк граммати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А. А. Холодович. г, 1954, 9페지

여기서 필자는 조선어의 《ㅟ, ㅚ》를 겹모음에 포함시키고있다. 《ㅟ, ㅚ》가 앞모음이며 높은(반높은)모음이기때문에 둥근모음으로서 발음하기가 힘든것만은 사실이다.

일부 사람들이 《외국》, 《외세》, 《위대하다》, 《위치》를 [왜국(웨국)], [왜세(웨세)], [우이대하다], [우이치]라고 발음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것은 전형적인 발음현상이 아니다.

그러면서 아.아.홀로도비치는 준겹모음 《ㅚ》는 불완전한 언어행위에서 홑모음 《ö》(도이취어; höreh)에 융합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ㅚ》가 겹모음이지만 홑모음으로 된다고 한것과 같다.

아.아.홀로도비치는 조선어의 《ㅚ》를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홑모음으로 보고 준겹모음이라는 립장을 견지하고있었다.

조선어의 홑모음 《ㅚ, ㅟ》를 겹모음부류에 포함시켜 고찰한것은 조선어모음에 대한 정확한 리해로부터 출발하였다고 보기 힘들다. 조선어모음 《ㅚ, ㅟ》는 비록 발음에서 불철저한 점이 있지만 이것은 엄연히 겹모음이 아니라 홑모음이다. 이 모음의 발생이 그리 오래지 않고 앞모음이며 둥근모음이기때문에 다른 모음에 비해 발음하기 힘들어하는 측면은 있다. 그렇다고 하여 이 모음들을 겹모음으로까지 취급할 성격의것이 아니다.

만약 모음 《ㅚ》를 [ㅙ]나 [ㅞ]로 발음한다면 현재 겹모음으로서 [ㅙ], [ㅞ]가 있는 조건에서 [ㅚ]라는 모음은 음운체계에서 없어져야 할것이다.

모음 [ㅟ]도 홑모음이 아니라 [ㅜ⁀ㅣ]라고 인정한다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ㅟ]를 홑모음으로 발음하고있는 조건에서 발음의 유일적인 규범을 정하기 힘들것이다.

아.아.홀로도비치가 조선어홑모음 [ㅚ], [ㅟ]를 겹모음으로 처리한것은 과학적으로 타당하지 못하다.

우와 같은 견해는 이전 쏘련언어학자 엘.에르.진데르에게서도 나타나고있었다. 그는 《Советское востоковедение》 1957년 3호에 게재한 론문 《조선어모음》에서 조선어홑모음에 대한 견해는 아.아.홀로도비치의 견해와 같고 겹모음에서 조선어의 《ㅢ》만이 진짜 겹모음이고 《ㅟ, ㅚ》를 포함한 나머지겹모음들은 준겹모음이라고 하였다. 그는 조선어의 《ㅢ》는 《완전한 의미》에서의 모음 《ㅡ》와 《ㅣ》가 결합된것이고 앞에 짧은 [ㅣ]와 짧은 [ㅜ]가 붙은 겹모음들은 겹모음의 첫 요소가 불완전하다는 뜻에서 준겹모음(Дифтонгоиды)이라고 하였다.

과학리론적으로 볼 때 《ㅟ, ㅚ》를 겹모음으로 본것밖에 다른것들은 일정한 타당성이 있다.

그것은 짧은 [i̯], 짧은 [u̯]로 시작되는 겹모음의 첫 요소는 짧은모음으로서 자음은 아니고 모음적성격이 강하기때문이다. 다른 나라 말의 《j》나 《w》에 비해볼 때 혀등이 입천장에 가까이 가지만 스침의 성격이 거의 없고 모음의 특성이 강하다. 따라서 이 앞요소를 우리 나라에서는 반자음이라고 하지 않고 모음적성격이 짙다는 뜻에서 반모음 또는 짧은모음이라고 하고있다.

더우기나 우리 말에서 이것이 모음의 부류에 들어가게 되는것은 소리마디결합에서 말머리겹자음이 오지 않는다는것과도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체스꼬의 언어학자 알레나 스깔리치꼬바는 조선어모음 [ㅚ], [ㅟ]를 홑모음체계에 포함시키고 발음과정에 발음위치가 변한다고 하면서 《Gliding vowel》이라고 명명하였다.

필자가 발음과정에 발음위치가 변한다고 하면서도 홑모음에 포함시킨것을 보면 그것이 겹모음으로 볼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것을 보여준다.

조선어겹모음 《ㅢ》는 모음 《ㅡ》와 《ㅣ》가 거의 대등한 소리값

을 가지고 서로 밀착되여 하나의 음운론적단위로 된것이고 짧은 [i̯]나 짧은 [u̯]와 결합된 겹모음들은 두개의 어음이 대등한 질에서의 결합이 아니라 앞에 있는 순간모음과 뒤에 이어진 홑모음과의 결합이다. 완전한 의미에서는 겹모음이 아닌것만큼 후자의것을 준겹모음이라고 볼수 있는 근거가 있다.

이전 쏘련학자들가운데는 조선어모음에 대하여 우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내놓은 사람들도 있었다. 그가 바로 조선어전문가 유.엔.마주르이다.

그는 《현대조선어문법 간략개요》에서 조선어홑모음 《ㅣ, ㅔ, ㅗ, ㅏ, ㅓ, ㅜ, ㅡ, ㅟ, ㅚ, ㅐ》, 겹모음 《ㅘ, ㅙ, ㅝ, ㅞ(올림겹모음)》, 《ㅢ(내림겹모음)》를 들고 나머지 겹모음은 겹모음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가 조선어의 《ㅑ, ㅕ, ㅛ, ㅠ, ㅒ, ㅖ》를 겹모음으로 인정하지 않은것은 이 어음의 앞요소가 모음이 아니라 자음이라고 인정한데 있다. 여기에는 두개 말소리가 결합되여있는데 앞요소는 울림자음(쏘난트) 《j》이고 뒤요소만이 모음이라는것이다. 결과 《ㅑ, ㅕ, ㅛ, ㅠ, ㅒ, ㅖ》는 [ja], [jə], [jo], [ju], [jæ], [je]로 되여 울림자음 [j]와 모음이 결합된것으로 된다.

※ 아.아.홀로도비치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올림겹모음의 첫요소는 단어와 소리마디시작에서 울림자음으로 발음된다.》고 하였다. 그는 울림자음으로 발음된다고만 하였지 이것을 자립적인 음운으로서 울림자음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짧은 [i̯]로 시작된것을 모두 올림겹모음으로 취급한것만을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유.엔.마주르가 올림겹모음의 앞요소를 울림자음 [j]로 인정하면서 조선어에도 로어에서와 같이 연자음이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조선어 음운결합에 대한 리해의 부족으로부터 출발하였다고 볼수 있다.

만약 그의 주장대로 조선어겹모음의 앞요소가 울림자음 [j]라면 조선어 음운결합에 겹자음이 있는것으로 될것이다.

례컨대 《냠냠》이라는 단어에서 《ㅑ》가 [ja]라면 [njamnjam]으로 결합되여 《냠》은 《울림자음 [n]+울림자음 [j]—a—m》으로 되게 된다.

조선어에서는 모음앞에 겹자음이 나타나 발음되는 경우란 있을수 없다. 더우기나 이것은 조선어의 음운결합규칙에 어긋난다. 조선어 음운결합에서는 모음의 앞뒤에 하나의 자음만이 결합될수 있으며 모음뒤에 두개의 자음이 놓여도 오직 하나의 자음만이 발음된다.

유.엔.마주르의 주장은 조선어 음운결합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로어의 음운결합상 특성을 조선어에 들어맞추려는데로부터 출발한것이다.

로어 같은 언어에서는 여러개 겹자음이 발음되며 모음앞에 [j]가 놓여 연자음으로 되여 경자음과 대립관계가 형성된다. 그러나 조선어에서는 말머리에 자음거듭현상이 없으며 있을수도 없다.

체스꼬의 어음론학자 알레나 스깔리치꼬바는 《조선어모음》(《The korean vowels》 동양문고, 1955년 쁘라하)에서 조선어의 겹모음은 《ㅑ(i̯a), ㅕ(i̯ə), ㅛ(i̯o), ㅠ(i̯u), ㅖ(i̯e), ㅒ(i̯ä), ㅘ(o̯a), ㅙ(o̯ä), ㅞ(u̯e), ㅝ(u̯ɔ)》라고 지적하면서 겹모음의 첫 요소는 짧은모음(semi—vowel) [i̯—], [o̯—] 혹은 [u̯—]로 표현되고 둘째 요소는 홑모음으로 구성되여있다고 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o̯]와 [u̯]는 매우 류사하다고 하면서 [o̯]는 [ㅏ] 혹은 [ㅐ]와의 결합속에서 쓰이는 한편 [u̯]는 [ㅓ] 혹은 [ㅔ]와 함께 음운의 첫 요소를 이룬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열린모음이 더 열린모음과 결합되는 반면에 닫긴모음은 더 닫긴모음에 뒤따른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그의 견해에 의하면 조선어 《ㅘ》, 《ㅙ》의 앞요소는 《o̯》에 가깝고 《ㅝ》, 《ㅞ》의 앞요소는 《u̯》에 가깝다는것이다.

이것은 당시 그가 실험음성학적인 방법으로 도출해낸 결과이기는 하나 현재의 관점에서 볼 때 과학적으로 타당치 못한 점들이 없지 않다.

알레나 스깔리치꼬바는 조선어겹모음의 앞요소를 그저 semi—vowel 즉 짧은모음이라고만 하였지 그것이 반모음인가 아

닌가에 대하여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겹모음의 앞요소를 반모음으로만 간주한다면 다른 측면에서 이것은 반자음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반자음은 모음적특성과 함께 자음적성격을 동반하는데 《o̯》의 조음점은 《ㅗ》에 가까운 위치에 놓이고 《u̯》는 홑모음 《ㅜ》에 가까운 위치에 놓이게 된다. 반모음 《u̯》는 홑모음 《ㅜ》보다 조음점이 우에 놓이기때문에 스침의 특성을 약간 띨수 있으나 반모음 《o̯》는 홑모음 《ㅗ》우에 조음점이 있다 하여도 자음적성격은 전혀 띨수가 없다.

따라서 그가 겹모음의 앞요소가 순수 짧은모음이라는것만 념두에 두고있다면 리론적으로 타당할수 있으나 이것을 반모음이라고 고찰하는 경우에는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다.

조선어모음은 홑모음 [ㅏ, ㅓ, ㅗ, ㅜ, ㅡ, ㅣ, ㅐ, ㅔ, ㅚ, ㅟ]와 겹모음 [ㅑ, ㅕ, ㅛ, ㅠ, ㅒ, ㅖ, ㅢ, ㅘ, ㅝ, ㅙ, ㅞ]로 구성되여있다. [ㅚ], [ㅟ]는 엄연히 홑모음이고 [ㅑ, ㅕ, ㅛ, ㅠ, ㅒ, ㅖ]의 앞요소 [i̯]는 울림자음이 아니라 반모음이며 [ㅘ], [ㅙ]의 앞요소는 [o̯]가 아니라 반모음 [u̯]이다.

일부 다른 나라 학자들속에서는 조선어모음의 조음위치에 대하여 부정확하게 규정하는 현상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조선어모음 [ㅏ], [ㅓ]를 가운데모음이라고 규정하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ㅚ], [ㅔ]까지도 가운데모음이라고 규정하고있다. 국제음성학회 (IPA)가 규정한 국제음성기호모음도표에는[ə], [ė], [ʉ, ɨ]만이 가운데모음으로 되여있다". 실험한데 의하면 조선어모음 [ㅓ]나 [ㅏ]는 가운데모음이 아니라 뒤모음이며 [ㅔ], [ㅚ]는 앞모음이다.

그런데 알레나 스깔리치꼬바는 《조선어모음》에서 [ㅔ], [ㅚ]를 가운데모음으로 인정하였는데 이것은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다. 실험결과로 보면 [ㅔ]는 완전한 앞모음이며 [ㅚ]는 [ㅔ]보다 가운데쪽으로 들어와있으나 그것은 가운데모음으로 볼 정도에까지 이르지 못하고있다.

제3절. 조선어자음체계

1. 조선어자음의 소리값

조선어자음음운의 음운론적표식과 상관관계를 정확히 알고 그 체계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자음음운의 소리값을 정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계로 하여 여기에서도 음운의 표식과 상관관계의 서술에 앞서 조선어자음의 소리값부터 기술하기로 한다.

지금까지 자음의 소리값을 규정할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조음적측면만을 고려하였다. 음성자체가 조음적측면과 함께 음향학적측면, 청각적측면을 가진다는것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이 세 측면에서 자음의 소리값을 규정하였다.

△ 자음 [ㅂ], [ㅃ], [ㅍ]

1) 조음적특징

자음 [ㅂ], [ㅍ], [ㅃ]는 두 입술이 완전히 막혔다가 날숨의 힘에 의하여 터지면서 나오는 소리이다. 이때 목젖은 우로 올라가서 코길을 막아버려 날숨은 코울림통을 지나지 못한다. 목청은 진동하지 않으며 울대가 터치거나 스친다. [ㅂ]를 발음할 때에는 입술만이 막혔다 터치며 [ㅍ]를 발음할 때에는 두 입술의 터침과 동시에 울대스침을 동반하며 [ㅃ]를 발음할 때에는 막혔던 두입술과 울대가 동시에 터친다.

따라서 자음 [ㅂ], [ㅃ], [ㅍ]는 무성음이다. 이가운데서 [ㅃ]는 입술소리이면서 울대터침을 겸한 소리이고 [ㅍ]는 입술소리이면서 울대스침을 겸한 소리이다.

자음 [ㅂ], [ㅃ], [ㅍ]가 말머리에서 걸터침무성음으로 발음되고 [ㅂ], [ㅍ]는 말끝과 무성자음앞에서 막힘소리(《속터침소리》라고도 한다.) [ㅂ]로 발음된다. 자음 [ㅂ]는 모음과 모음사이, 울림자음과 모음사이에서 유성화되며 모음과 울림자음사이에서는 막힘소리 [ㅁ]로 발음된다.

[ㅃ], [ㅍ]는 위치에 따라 유성화되는 일이 없으며 [ㅍ]는 오히려 모음을 무성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조음적으로 [ㅂ]는 입술홑터침소리이고 [ㅃ]는 울대터침을 겸한 입술터침소리이다.

2) 음향학적특징

[ㅂ], [ㅃ]는 순간음인것으로 하여 길이가 매우 짧고 [ㅍ]는 지속음으로서 상대적으로 길이가 길다.

[ㅂ]: 15.46ms, [ㅃ]: 8.43ms

[ㅍ]: 140~168ms

[ㅂ], [ㅃ], [ㅍ]는 막소리인것으로 하여 스펙트르선상에서 포르만트로 갈라지지 않고 일정한 구간에 에네르기의 집중으로 나타난다. 스침소리에 비해 세기는 약하다.

	스펙트르분포구간,	세기가 강한 스펙트르집중구간,	중심주파수
[ㅂ]:	1,100~9,000Hz		
[ㅃ]:	1,000~8,000Hz		
[ㅍ]:	1,000~10,000Hz,	2,500~10,000Hz,	4,000Hz

3) 청각적특징

자음 [ㅍ]는 지속음으로서 그자체만으로도 자기 소리가 들리나 [ㅂ], [ㅃ]는 순간음인것으로 하여 35~40ms의 이행구간을 지나야 제 소리가 들린다.

△ 자음 [ㄷ], [ㄸ], [ㅌ]

1) 조음적특징

자음 [ㄷ], [ㄸ], [ㅌ]는 혀끝과 혀앞바닥이 웃이와 이몸사이에 올라붙었다가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이다. 이 자음들을 발음할 때에 목젖이 우로 올라가 코길을 막기때문에 날숨은 코울림통을 통하지 못하고 입안울림통만을 지난다. 목청은 진동하지 않으며 울대가 터치거나 스친다.

[ㄷ]를 발음할 때에는 혀끝이 웃이와 웃이몸에 닿았다 떨어지고 [ㄸ]는 [ㄷ]를 발음할 때와 같되 울대터침을 겸하며 [ㅌ]는 [ㄷ]를 발음할 때와 같되 울대스침을 겸한다.

자음 [ㄷ], [ㄸ], [ㅌ]가 말머리에서 걸터침무성음으로 발음되고

[ㄷ], [ㄹ]는 말끝과 막소리앞에서 막힘소리 [ㄷ]로 발음된다.

자음 [ㄷ]는 모음과 모음사이, 울림자음과 모음사이에서 유성화되며 모음과 울림자음사이에서는 밀페통과음 [ㄴ]로 발음된다. 그리고 막소리와 모음사이에서 [ㄸ]로, 말끝이나 막소리앞에서는 막힘소리 [ㄷ]로, 모음 [ㅣ]앞에서는 [ㅈ]로 발음된다.

[ㄸ], [ㄹ]는 위치에 따라 유성화되는 일이 없으며 자음 [ㄹ]는 오히려 모음을 무성화시킨다. [ㄹ]는 말끝이나 모음과 무성자음앞에서 막힘소리 [ㄷ]로 발음된다. [ㅎ]의 뒤나 앞에서 [ㄹ]로 발음된다.

조음적으로 [ㄷ]는 혀앞훌터침소리이고 [ㄸ]는 울대터침을 겸한 혀앞터침소리이며 [ㄹ]는 울대스침을 겸한 혀앞터침소리이다.

2) **음향학적특징**

자음 [ㄷ]와 [ㄸ]는 순간음인것으로 하여 길이가 매우 짧고 [ㄹ]는 지속음으로서 상대적으로 길이가 길다.

[ㄷ]: 15ms, [ㄸ]: 8.43ms, [ㄹ]: 170~200ms

[ㄷ], [ㄸ], [ㄹ]도 막소리인것으로 하여 스펙트르선상에서 포르만트로 갈라지지 않고 일정한 구간에 에네르기의 집중으로 나타난다. 세기는 매우 약하다.

스펙트르분포구간, 세기가 강한 스펙트르집중구간, 중심주파수

[ㄷ]: 1,500~8,00Hz

[ㄸ]: 1,100~8,000Hz

[ㄹ]: 1,100~10,000Hz, 2,500~10,000Hz, 6,000Hz

3) **청각적특징**

자음 [ㄹ]는 지속음으로서 그자체만으로도 제 소리가 들리나 [ㄷ], [ㄸ]는 순간음인것으로 하여 30~45ms의 이행구간을 지나야 제 소리가 들린다.

△ 자음 [ㄱ], [ㄲ], [ㅋ]

1) **조음적특징**

자음 [ㄱ], [ㄲ], [ㅋ]는 혀뒤부분이 뒤천장에 올라붙었다가 날숨에 의하여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이다. 이때 목젖은 우로 올라가서 코길을 막아 날숨이 코울림통을 통하지 못하고 입안울림통만을

지난다. 목청은 진동하지 않으며 울대가 터치거나 스친다.

[ㄱ]를 발음할 때에는 혀뒤등이 뒤천장에 닿았다 떨어지며 [ㄲ]를 발음할 때에는 혀뒤터침과 울대터침이 동반되며 [ㅋ]를 발음할 때에는 혀뒤터침과 울대스침이 동반된다.

자음 [ㄱ], [ㄲ], [ㅋ]가 말머리에서 걸터침무성음으로 발음되고 말끝과 막소리앞에서 막힘소리 [ㄱ]로 발음된다.(《막다[막따]》, 《밖[박]》, 《부엌[부억]》)

자음 [ㄱ]는 모음과 모음사이, 울림자음과 모음사이에서 유성화되며 모음과 울림자음사이에서는 [ㅇ]으로 발음된다.(《국물[궁물]》) 그리고 막소리와 모음사이에서 [ㄲ]로(《삿갓[삳깓]》), 말끝이나 막소리앞에서는 막힘소리 [ㄱ]로(《음식》, 《목숨[목쑴]》) 발음된다. 자음 [ㅎ]의 앞이나 뒤에서 [ㅋ]로 발음된다.

[ㄲ]와 [ㅋ]는 위치에 따라 유성화되지 않으며 [ㅋ]는 오히려 모음을 무성화시킨다.

조음적으로 자음 [ㄱ]는 혀뒤홑터침소리이고 [ㄲ]는 울대터침을 겸한 혀뒤터침소리이며 [ㅋ]는 울대스침을 겸한 혀뒤터침소리이다.

2) 음향학적특징

자음 [ㄱ], [ㄲ]는 순간음인것으로 하여 길이가 짧고 [ㅋ]는 지속음으로서 길이가 비교적 길다.

[ㄱ]: 35.15ms, [ㄲ]: 21.56ms

[ㅋ]: 180~250ms

※ [ㄱ], [ㄲ], [ㅋ]를 발음할 때에 혀뒤터침현상이 화면영상에 나타나 실지 말소리의 음향학적길이보다 3ms 길어진다.

[ㄱ], [ㄲ], [ㅋ]는 막소리인것으로 하여 스펙트르선상에서 포르만트가 갈라지지 않고 일정한 구간에 에네르기의 집중으로 나타난다. 세기는 비교적 약하다.

스펙트르분포구간, 세기가 강한 스펙트르집중구간, 중심주파수

[ㄱ]: 1,000~1,500Hz

[ㄲ]: 1,700~8,000Hz

[ㅋ]: 1,300~10,000Hz, 2,500~10,000Hz, 4,000Hz

3) 청각적특징

자음 [ㅋ]는 지속음이기때문에 그자체로서도 제 소리가 들리나 [ㄱ], [ㄲ]는 순간음인것으로 하여 30~35ms의 이행구간을 지나서야 제 소리가 들린다.

△ 자음 [ㅈ], [ㅉ], [ㅊ]

1) 조음적특징

자음 [ㅈ], [ㅉ], [ㅊ]는 혀끝이 아래이에 닿고 혀앞면이 입천장에 닿았다가 터치면서 스쳐나는 소리이다. 조선어의 터스침소리(파찰음)가 다른 나라 말의 터스침소리와 다른점은 입안에서 두 초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 능동적발음기관과 피동적발음기관의 접촉면이 넓은데 있다.

[ㅈ], [ㅉ], [ㅊ]를 발음할 때에 목젖이 올라가서 코길을 막아 날숨이 입안울림통을 지나나오며 목청이 떨지 않는다. [ㅈ]는 혀앞한부위에서만 터스침이 진행되며 [ㅉ]는 혀앞터스침과 동시에 울대스침이 일어나고 [ㅊ]는 혀앞터스침과 동시에 울대스침이 진행된다.

[ㅈ]는 말머리에서 무성터스침소리로 발음되며 모음과 모음사이, 울림자음과 모음사이에서 유성음으로, 모음과 울림자음사이에서는 [ㄴ](《맞는다[만는다]》)로, 막소리와 모음사이에서는[ㅉ](《못질[몯찔]》)로, 말끝 또는 막소리앞에서는 막힘소리 [ㄷ](《낮[낟]》, 《맞다[맏따]》)로 발음된다. [ㅎ]의 앞과 뒤에서는 [ㅊ]로 발음된다.

[ㅊ]는 모음과 울림자음사이에서는 [ㄴ](《쫓는다[쫀는다]》)로, 말끝 또는 막소리앞에서는 [ㄷ](《꽃[꼳]》, 《쫓다[쫃따]》)로 발음된다. [ㅊ]는 위치에 따라 유성화되는 일이 없으며 오히려 뒤에 오는 모음을 무성화시킨다.

[ㅉ]는 언제나 모음앞에서만 발음되며 말끝이나 막소리앞에는 오지 않는다. [ㅊ]와 마찬가지로 [ㅉ]도 위치에 따라 유성화되는 현상이 없다.

조음적으로 [ㅈ]는 혀앞홑터침소리이고 [ㅉ]는 울대터침을 겸한 터스침소리이며 [ㅊ]는 울대스침을 겸한 터스침소리이다.

2) 음향학적특징

자음 [ㅈ], [ㅉ], [ㅊ]는 지속음인것으로 하여 비교적 길이가 길다.

[ㅈ]: 70~150ms, [ㅉ]: 70~100ms, [ㅊ]: 120~190ms

[ㅈ], [ㅉ], [ㅊ]가 막소리인것으로 하여 스펙트르선상에서 포르만트로 갈라지지 않고 일정한 구간에 에네르기의 집중으로 나타난다. 순간소리보다 세기가 강하나 스침소리보다는 약하다.

스펙트르분포구간,	세기가 강한 스펙트르집중구간,	중심주파수
[ㅈ]: 1,300~9,000Hz	5,000~9,000Hz	8,000Hz
[ㅉ]: 4,000~10,000Hz	5,000~9,000Hz	7,000Hz
[ㅊ]: 1,000~10,000Hz	4,000~10,000Hz	6,000Hz

3) 청각적특징

자음 [ㅊ]는 그자체만으로도 제 소리가 들리고 [ㅈ], [ㅉ]는 20~25ms의 이행구간을 지나야 제 소리가 들린다. [ㅈ], [ㅉ]는 순간음이 아니기때문에 이행구간이 짧아도 제 소리는 들린다.

△ 자음 [ㅅ], [ㅆ]

1) 조음적특징

자음 [ㅅ], [ㅆ]는 혀끝을 아래이에 의지하고 혀앞바닥이 앞천장 앞부분에 접근한 짬으로 스침이 진행되여나오는 소리이다.

[ㅅ]를 발음할 때에는 혀앞바닥과 뒤천장사이에서만 스침이 진행되고 [ㅆ]를 발음할 때에는 울대터침과 동시에 혀앞스침이 진행된다. [ㅆ]는 [ㅅ]를 발음할 때보다 발음부위가 더 긴장해지고 혀바닥과 입천장사이의 틈이 더 좁아진다. [ㅅ], [ㅆ]를 발음할 때에 목청은 떨지 않고 목젖은 우로 올라가서 코길을 막는다. [ㅅ]는 혀앞바닥과 입천장사이에서만 스침이 진행되지만 [ㅆ]는 울대터침과 동시에 혀앞스침이 진행된다.

[ㅅ], [ㅆ]는 위치에 따라 유성화되는 일이 없으며 오히려 그 뒤에 있는 모음을 무성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자음 [ㅅ]는 막소리와 모음사이에서는 [ㅆ](《꽃신[꼳씬]》)로 (《솟는다[손는다]》), 말끝에서는 [ㄷ](《못[몯]》, 《옷[옫]》)로 발음

된다.

자음 [ㅆ]는 모음과 울림자음사이에서는 [ㄴ](《갔느냐[간느냐]》)로 발음되고 모음과 막소리사이에서는 [ㄷ](《있다[읻따]》, 《갔지[갇찌]》)로 변하든가 아니면 뒤에 있는 자음과 같은 자리의 막힘소리로 변한다.

조음적으로 자음 [ㅅ]는 혀바닥스침소리이며 [ㅆ]는 울대터침을 겸한 혀바닥스침소리이다.

2) 음향학적특징

자음 [ㅅ], [ㅆ]는 지속음으로서 자음가운데서 가장 길다.

[ㅅ]: 270~300ms, [ㅆ]: 300~350ms

[ㅅ], [ㅆ]는 막소리인것으로 하여 스펙트르선상에서 포르만트로 갈라지지 않고 일정한 구간에서 에네르기의 집중으로 나타난다.

스펙트르분포구간	중심주파수
[ㅅ]: 3,100~9,000Hz	8,000Hz
[ㅆ]: 2,700~9,500Hz	8,000Hz

스침소리는 일반적으로 스펙트르분포구간에서 주파수가 높을뿐아니라 세기도 강하다. 자음 [ㅆ]는 [ㅅ]보다 스펙트르분포구간이 넓고 세기가 더 강하다는데 그 차이가 있다.

3) 청각적특징

자음 [ㅅ], [ㅆ]는 모두 긴 지속음인것으로 하여 그자체만으로도 제 소리가 들린다.

△ 자음 [ㅎ]

1) 조음적특징

자음 [ㅎ]는 날숨이 좁아진 울대사이로 지나면서 스침을 일으켜 생긴 말소리이다. [ㅎ]가 울대스침소리이기때문에 목청이 떨어 소리를 내는 유성음앞에서는 자기 소리값을 유지하지 못한다. 자음 [ㅎ]는 그앞이나 뒤에 [ㄱ], [ㄷ], [ㅂ]가 이어지면 대기음으로 변하는것이 특징이다.

○ 막히다[마키다], 좋기도[조키도], 놓다[노타], 입학[이팍]

조음적으로 자음 [ㅎ]는 울대스침소리이다.

※ 일부 학자들은 조선어의 [ㅎ]를 목안소리라고 주장하고있다. 즉 [ㅎ]가 울대스침소리가 아니라 목안스침소리라는것이다. (《현대조선어(1)》, 224페지)

2) 음향학적특징

자음 [ㅎ]가 지속음인것으로 하여 비교적 길이가 길다.

[ㅎ]: 100~280ms

[ㅎ]의 스펙트르분포구간은 750~10,000Hz이고 에네르기집중구간은 2,500~10,000Hz이다. [ㅎ]가 혀앞스침소리 [ㅅ]와 다른점은 낮은 주파수구간으로부터 높은 주파수구간까지 스펙트르가 분포되여있을뿐아니라 에네르기분포의 분산성이 나타나는것이다. 세기는 비교적 약하다.

3) 청각적특징

자음 [ㅎ]는 지속음인것으로 하여 그자체만으로도 제 소리가 들린다.

△ 자음 [ㄴ]

1) 조음적특징

자음 [ㄴ]는 혀끝과 혀앞바닥이 웃이와 이몸사이에 올라붙었다 떨어지면서 내는 소리이다. [ㄴ]를 발음할 때에 목젖이 밑으로 처지면서 코길이 열려져 날숨이 코울림통을 통하여 나간다. 이때 목청은 긴장하여 진동한다. 목청의 떨림을 일으킨 날숨은 코울림통과 입안울림통을 통하여 나가는 까닭에 매우 약하다.

따라서 자음 [ㄴ]는 혀앞터침소리이며 울림자음, 코소리이다.

자음 [ㄴ]가 혀옆소리 [ㄹ]와 모음사이에 놓이면 튀김소리 [ㄹ]로 발음된다. (《별나라[별라라]》, 《찰나[찰라]》)

2) 음향학적특징

자음 [ㄴ]가 울림자음인것으로 하여 길이가 길다. [ㄴ]가 첫소리에 놓일 때와 끝소리에 놓일 때의 길이가 약간 다르다.

[ㄴ]: 첫소리에 놓일 때 40~120ms
끝소리에 놓일 때 80~120ms

자음 [ㄴ]는 울림자음인것으로 하여 포르만트구조가 선명하게

나타난다.

[ㄴ]: $F_1=350Hz$, $F_2=1,750Hz$, $F_3=3,100Hz$

포르만트들사이에 약한 스펙트르띠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코소리의 파형이다.

[ㄴ]의 스펙트르분포가 막소리의 경우보다 낮은 주파수대역을 차지하는것이 특징으로 되고있다.

3) 청각적특징

자음 [ㄴ]는 코소리인것으로 하여 100~110ms의 이행구간을 지나서야 제 소리가 들린다.

△ 자음 [ㅁ]

1) 조음적특징

자음 [ㅁ]는 아래우입술이 맞닿아 완전히 막혔다가 날숨에 의하여 터쳐내는 소리이다. [ㅁ]를 발음할 때에는 두 입술의 닫김과 동시에 목젖이 밑으로 처지면서 코길이 열려져 날숨이 코길과 입안을 통하여 나간다. 자음 [ㄴ]를 발음할 때와 마찬가지로 [ㅁ]도 두 입술이 터지기전부터 목청이 떨어 소리가 코로 나간다. 날숨은 목청을 거쳐 코와 입으로 나가는 까닭에 몹시 약하다.

따라서 자음 [ㅁ]는 입술터침소리이며 울림자음, 코소리이다.

자음 [ㅁ]는 말끝이나 자음앞에 놓이면서 터침이 없는 막힘소리로 된다. 입안에서 막힌 날숨이 코울림통으로 흘러나간다고 하여 밀페통과음이라고 한다.》

2) 음향학적특징

자음 [ㅁ]도 울림자음인것으로 하여 길이가 길다. [ㅁ]가 첫소리에 놓일 때와 끝소리에 놓일 때의 길이가 달라진다.

[ㅁ]: 첫소리에 놓일 때 50~120ms

끝소리에 놓일 때 80~120ms

자음 [ㅁ]는 막소리와 달리 포르만트구조가 선명하게 나타난다.

[ㅁ]: $F_1=200Hz$, $F_2=1,200Hz$, $F_3=2,900Hz$

[ㄴ]의 스펙트르에서와 마찬가지로 포르만트사이에 약한 스펙트르가 있는데 그것은 코소리를 나타내는것이다. [ㅁ]가 울림자음

인것으로 하여 주파수대역이 낮다.

3) 청각적특징

자음 [ㅁ]는 코소리인데 25~30ms의 이행구간을 지나야 제소리가 들린다.

△ 자음 [ㅇ]

1) 조음적특징

자음 [ㅇ]은 혀뒤부분이 아래로 처진 목젖과 서로 맞닿았다가 떨어지면서 내는 목청떨음소리이다. 발음할 때에 날숨의 지속단계에서는 코울림통을 통하여 나가다가 터침단계에 이르러서는 코길과 입안울림통을 통하여 밖으로 나간다. 이때에 목청은 강하게 떤다. 날숨이 처음에는 목청에서 장애를 받은 다음 입안울림통과 코울림통을 통하기때문에 약해진다.

따라서 자음 [ㅇ]은 코소리, 터침소리, 혀뒤소리이다.

자음 [ㅇ]은 말끝과 자음앞에서 밀폐통과음으로 발음된다. 조선어자음 [ㅇ]은 언제나 끝소리로만 발음되며 첫소리에 놓이지는 못한다. [ㅇ]은 코소리인것으로 하여 그앞에 오는 모음에 영향을 주어 코소리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그렇다고 하여 음운론적으로 모음이 코소리로 되는것은 아니다. 이것은 음운들의 결합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변종에 불과하다.

2) 음향학적특징

자음 [ㅇ]은 울림자음인것으로 하여 길이가 비교적 길다.

[ㅇ]: 60~120ms

다른 울림자음과 마찬가지로 [ㅇ]도 전반적으로 주파수대역이 낮으며 일정한 구조의 포르만트가 나타난다.

F_1=250Hz, F_2=1,000Hz, F_3=2,800Hz

[ㅇ]가 코소리인것으로 하여 F_1과 F_2사이에 보충적인 스펙트르띠가 있으며 F_1과 F_2의 세기가 약하다.

3) 청각적특징

자음 [ㅇ]는 끝소리에만 나타나는 코소리로서 그자체만으로도 제 소리가 들린다.

△ 자음 [ㄹ]

1) 조음적특징

자음 [ㄹ]는 위치적조건에 따라 튀김소리로도 발음되고 혀옆소리로도 발음된다. [ㄹ]가 말머리나 모음과 모음사이에 놓일 때 튀김소리로 발음되고 말끝이나 자음앞(자음 [ㅎ]는 제외)에 놓이면 혀옆소리로 발음된다. 조선어의 튀김소리는 다른 나라 말의 떨음소리와 성격이 다르다.

례컨대 로어나 체스꼬어에서 [r]가 첫소리일 때 정상상태에서 혀끝이 2~3번 떨고 세게 발음할 때에는 4~5번 떤다.

그러나 조선어의 튀김소리는 혀끝이 한번 입천장을 튀기여줄뿐이다. 이런것으로 하여 조선어의 [ㄹ]를 튀김소리라고 하는것이다.

[ㄹ]가 말끝이나 자음앞에 놓일 때 혀옆소리로 발음되는데 이때에는 혀끝과 혀앞바닥이 입천장 앞쪽에 가닿고 혀의 량쪽기슭과 옆사이에 틈이 생겨 날숨이 그리로 빠져나가면서 소리를 낸다. 이때 목젖은 우로 올라가서 코길을 막으며 목청은 떤다.

조선어의 [ㅁ], [ㄴ], [ㅇ]은 날숨이 입안과 코안을 통하여 나가면서 발음되는 코소리이지만 울림자음으로서의 [ㄹ]만은 날숨이 입안울림통만을 통과하기때문에 코소리가 아니다.

자음 [ㄹ]가 말끝이나 자음앞에서 혀옆소리로 발음되다가도 [ㄹ]뒤에 모음이 오면 튀김소리로 발음된다. 다른 나라 말에서는 [r]와 [l]가 갈라져 자립적인 음운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조선어의 혀옆소리는 튀김소리의 변종으로 될뿐이다.

따라서 자음 [ㄹ]는 혀끝튀김소리이며 울림자음이다.

2) 음향학적특징

자음 [ㄹ]는 울림자음인것으로 하여 비교적 길이가 길다. 튀김소리로 될 때와 혀옆소리로 될 때에 길이에서 차이가 난다.

[ㄹ]: 튀김소리일 때 30~100ms

혀옆소리일 때 80~100ms

자음 [ㄹ]는 막소리에 비하여 낮은 주파수대역을 차지하며 포르만트구조가 정연하다.

$F_1=300Hz$, $F_2=1,500Hz$, $F_3=2,550Hz$

3) 청각적특징

자음 [ㄹ]는 튀김소리로서 15~20ms의 이행구간을 지나야 제 소리가 들린다. [ㄹ]가 혀옆소리로 날 때에는 그자체로서 제 소리가 들린다.

2. 조선어자음의 음운론적표식

음운체계의 기본요소는 개별적인 음운들이며 그 구성요소들을 련결시키고 대립시키는것은 그의 음운론적표식이다. 음운의 음운론적표식은 음운의 구성과 그 체계의 특성을 반영한다.

조선어의 자음체계가 다른 나라 말의 자음체계와 다른것은 매개 음운이 가지고있는 음운론적표식의 차이이며 음운들의 련결방식의 차이이다.

소여 언어의 음운체계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그 음운들의 음운론적표식과 련결방식을 잘 알아야 한다.

조선어자음들을 서로 구별시키는 음운론적표식으로는 다음과 같은것을 들수가 있다.

1) 터침의 표식

조선어에서 터침의 표식은 중요한 음운론적표식이다. 조선어에서의 터침에는 입술터침, 혀앞터침, 혀뒤터침, 울대터침이 있다.

터침에는 홑터침과 겹터침이 있다.

자음 [ㅂ]나 [ㄷ], [ㄱ]는 홑터침소리요, [ㅃ]나 [ㄸ], [ㄲ]는 겹터침소리이다. 입술터침소리에서는 입술스침소리가 없기때문에 (중세에는 입술스침소리 [ㅸ]가 있었다.) 홑터침소리 [ㅂ]와 겹터침소리 [ㅃ]가 음운론적대립을 이룬다. 혀앞터침소리 [ㄷ]는 겹터침소리 [ㄸ]와 음운론적대립관계를 이루는 동시에 혀앞스침소리 [ㅅ]와 대립관계를 이룬다. 혀뒤터침소리 [ㄱ]는 겹터침소리 [ㄲ]와 대립된다.

여기서 반드시 언급하여야 할 문제는 겹터침소리 [ㅃ], [ㄸ], [ㄲ]는 입술, 혀앞, 혀뒤터침과 동시에 울대터침이 진행되는데 울대터침이 중요한 음운론적표식으로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자립적인 음운을 이루지 못한다.

※ 15세기 《훈민정음》에서는 이것을 자립적인 소리로 인정하고 [ㆆ]라는 글자까지 만들어냈다.

조선어에서 울대터침은 기본터침(입술, 입안터침을 기본터침이라 한다면)과 겹치든가 혀앞터스침과 겹쳐야만 자립적인 음운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터침에 의한 음운들의 대립관계

[ㅂ]—[ㅃ], [ㄷ]—[ㄸ], [ㄱ]—[ㄲ](홑터침—겹터침)

2) 스침의 표식

조선어에서 스침은 입안스침과 울대스침으로 갈라진다. 입안에서의 스침은 혀앞과 입천장과의 짬으로 날숨이 지나면서 생기며 울대스침은 울대의 날숨길이 좁아진 사이로 날숨이 지나면서 생긴다. 혀앞스침소리는 혀앞터침소리와의 대립관계가 형성되고 울대스침소리는 울대터침소리와 대립관계가 형성된다.

혀앞스침소리와 혀앞터침소리의 대립관계

[ㅅ]—[ㄷ], [ㅆ]—[ㄸ]

혀앞스침소리는 혀앞터스침소리와의 대립관계도 형성될수 있다.

[ㅅ]—[ㅈ], [ㅆ]—[ㅉ]

스침은 발음통로의 짬으로 날숨이 스치는것으로 발음과정이 이루어지지만 터스침은 혀앞부위가 입천장에 붙었다 천천히 떨어지면서 스침이 형성된다. 발음현상을 보면 두 과정이지만 이것이 하나의 과정처럼 밀착되여 분리할수 없이 련결되여있다.

울대스침은 울대터침과 음운론적대립을 형성한다. 조선어의 울대스침소리는 [ㅎ]이고 울대터침소리는 [ㆆ]로서 [ㅎ]—[ㆆ]의 대립관계가 형성된다. 조선어에서 [ㆆ]만으로 자립적인 음운을 형성

하지는 못하지만 음운론적표식으로는 된다.

따라서 울대스침소리 [ㅎ]는 자립적인 음운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울대터침소리 [ㆆ]는 음운으로서의 자립적인 기능을 수행하지는 못한다.

또한 울대스침소리는 혀앞스침소리와 대립관계를 형성한다.

[ㅎ]—[ㅅ]

3) 터스침의 표식

터스침은 터침과 스침이 하나의 통일적인 과정으로 되여 음운론적표식으로 된다.

조선어의 터스침소리에는 [ㅈ], [ㅊ], [ㅉ]가 있다.

터스침소리는 스침소리와 음운론적대립관계를 가질뿐만아니라 터침소리와도 대립관계를 가진다.

이 음운들의 상관관계는 순한소리는 순한소리끼리, 거센소리는 거센소리끼리, 된소리는 된소리끼리 이루어진다.

[ㅈ]—[ㄷ], [ㅊ]—[ㅌ], [ㅉ]—[ㄸ]
 | |
[ㅅ]   [ㅆ]

터스침소리와 스침소리와의 상관관계는 스침소리에서 순한소리, 된소리밖에 없기때문에 [ㅈ]—[ㅅ], [ㅉ]—[ㅆ]만이 대립된다.

4) 유기의 표식

유기의 표식은 조선어자음에 기식음이 가담하는가 안하는가 하는 표식으로서 조선어자음의 중요한 음운론적표식이다.

유기음이라고 할 때 터침소리에 기식음이 섞인 소리인데 두개 종류의 소리가 기계적으로 떨어져있다가 합쳐질수 있는 성질의것이 아니다. 전사법에서는 라틴글자로 [ph], [th], [ch], [kh]로 적지만 여기에서 [p], [t], [c], [k]와 [h]가 기계적으로 합쳐진것이 결코 아니며 서로 다른 두개 소리가 분리할수 없이 하나로 융합된것이다.

조선어에서 기식음의 유무에 따라 [ㅍ]—[ㅂ], [ㅌ]—[ㄷ], [ㅋ]—[ㄱ], [ㅊ]—[ㅈ]가 대립된다.

5) 코소리의 표식

조선어울림자음에는 [ㄴ], [ㅁ], [ㅇ], [ㄹ]가 있는데 [ㄴ], [ㅁ], [ㅇ]만이 코소리표식을 가진다. 코소리자음을 발음할 때에 목젖이 밑으로 처지면서 코안울림통으로 통하는 길을 열어 놓아 목청음이 그곳으로 통과하면서 소리를 낸다. 코소리자음은 같은 위치에서 발음되는 코소리가 아닌 자음과 음운론적대립을 형성한다.

[ㅁ]—[ㅂ], [ㄴ]—[ㄷ], [ㅇ]—v[ㄱ]

6) 흐름소리의 표식

이 표식은 음운이 흐름소리인가 코소리인가에 따라 구별되는 음운론적표식이다.

적지 않은 언어들에서는 흐름소리가 [r]와 [l]의 두가지가 존재하지만 조선어에서는 [ㄹ]를 첫소리와 끝소리위치에서 [r]와 [l]에 대응시킬수 있다. 첫소리에서의 [r]는 튀김소리이고 끝소리에서의 [l]는 혀옆소리이다. 이것이 하나의 음운의 위치적인 차이일뿐 끝소리의 [l]가 첫소리로 바뀌면 [r]로 된다.

따라서 조선어에서의 [l]는 첫소리에 있는 [r]의 변종일따름이다.

흐름소리의 표식에 따라서는 같은 위치에서 발음되는 [ㄹ]—[ㄴ]가 음운론적으로 대립된다.

이상에서 지적한 음운론적인 대립은 대립의 두 성분만을 포괄한다.

<u>조선어자음음운의 음운론적표식</u>

표식 / 자음	터침		스침		터스침	유기	코소리	흐름소리	비고
	홑터침	겹터침	입안	울대					
ㄱ	○								
ㄴ	○						○		
ㄷ	○								
ㄹ	○							○	

자음 \ 표식	터침		스침		터스침	유기	코소리	흐름소리	비고
	홑터침	겹터침	입안	울대					
ㅁ	○						○		
ㅂ	○								
ㅅ			○						
ㅇ	○						○		
ㅈ					○				
ㅊ				○	○	○			
ㅋ	○			○		○			
ㅌ	○			○		○			
ㅍ	○			○		○			
ㅎ				○					
ㄲ		○							
ㄸ		○							
ㅃ		○							
ㅆ	○		○						
ㅉ					○				

3. 조선어자음의 상관관계

매개 음운은 다른 음운과의 음운론적표식의 공통성에 의하여 서로 련결되고 차이성에 의하여 구별된다. 표식의 공통성과 차이성은 음운들의 상관관계의 기본내용을 이룬다. 매개 음운들이 같은 부류의 다른 음운과 상관관계를 이루는데서 몇개 성분이 포함되는가 하는것은 그 언어 음운체계의 특성에 따른다.

음운들의 상관관계를 보기에 앞서 조선어자음의 갈래를 보기로 하자.

조선어자음음운은 첫째로, 조음위치에 따라 갈라진다. 조선어자음은 입술, 혀끝, 혀앞, 혀뒤, 울대 등의 조음운동에 의하여 생

긴다.

조선어자음에는 입술—이소리, 혀—이소리, 혀가운데소리, 목젖소리 같은것이 없다. 혀끝소리에도 다른 나라 말의 혀끝소리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다른 언어의 혀끝떨림소리 [r]는 발음할 때 혀끝이 아래우로 몇번 떨지만 조선어의 첫소리 [ㄹ]를 발음할 때에는 혀끝이 입천장을 한번 튀길뿐이다.

조선어자음은 발음위치에 따라 입술소리, 혀앞소리, 혀뒤소리, 울대소리로 갈라진다. 자음의 이름을 이렇게 가르는것은 능동적발음기관의 발음위치를 나타낸것이고 이것을 피동적발음기관까지 고려한다면 아래우입술소리, 혀앞—앞천장소리, 혀뒤——뒤천장소리, 울대소리로 될것이다.

조선어 혀앞소리를 더 구체적으로 분류한다면 이소리 [ㄷ, ㅌ, ㄸ]와 앞천장소리 [ㅈ, ㅊ, ㅉ, ㅅ, ㅆ]로 가를수 있지만 자음의 상관관계의 관점에서 이소리와 앞천장소리로 가르는것은 무의미하다. 조선어자음의 상관관계는 혀앞소리—혀뒤소리, 입술소리—혀앞소리, 입술소리—혀뒤소리로 이루어진다.

입술소리 [ㅁ, ㅂ, ㅍ, ㅃ]

혀앞소리 [ㄷ, ㅌ, ㄸ, ㅅ, ㅆ, ㅈ, ㅊ, ㅉ, ㄴ, ㄹ]

혀뒤소리 [ㄱ, ㅋ, ㄲ, ㅇ]

울대소리 [ㅎ]

조선어자음음운은„둘째로, 발음방식에 따라 터침소리, 터스침소리, 스침소리, 밀페통과음, 튀김소리로 갈라진다. 터침, 터스침, 스침에 의해 음운이 갈라질 때 홑터침([ㅂ, ㄷ, ㄱ])과 터스침([ㅈ])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겹터침의 동시성([ㅃ, ㄸ, ㄲ]), 터침과 스침의 동시성([ㅍ, ㅌ, ㅋ])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조선어에 밀페통과음으로서 [ㅁ, ㄴ, ㅇ]가 있는데 이 음운들을 발음할 때 입술, 혀앞, 혀뒤가 막힌 상태에서 미리 목청울림소리가 코길을 통하여 나간다. 이 음운들을 터침의 관점에서 보면 입술, 혀앞, 혀뒤터침소리라고 말할수도 있으나 단순히 코길을 통과하기때문이다.

조선어자음을 발음방식에 따라 가르면 다음과 같다.
터침소리 [ㅂ, ㄷ, ㄱ]
터스침소리 [ㅈ]
스침소리 [ㅅ, ㅎ]
겹터침소리 [ㅃ, ㄸ, ㄲ]
터침을 겸한 터스침소리 [ㅆ]
터침을 겸한 스침소리 [ㅆ]
스침을 겸한 터침소리 [ㅍ, ㅌ, ㅋ]
스침을 겸한 터스침소리 [ㅊ]
울림을 겸한 입술터침소리 [ㅁ]
울림을 겸한 혀앞터침소리 [ㄴ]
울림을 겸한 혀뒤터침소리 [ㅇ]
혀앞튀김소리 [ㄹ]

조선어자음음운은 셋째로, 울대작용방식에 따라 순한소리, 거센소리, 된소리, 울림소리로 갈라진다.

※ 발음방식에 포함시킬수도 있으나 음운을 가르는데 울대가 특별히 중요한 작용을 하기때문에 울대작용방식을 따로 설정하였다.

울대는 중요한 발음기관의 하나이다. 모음은 물론 자음도 울대가 중요한 작용을 한다. 조선어자음가운데서 울대의 작용이 없이 발음되는것은 홑터침소리 [ㅂ, ㄷ, ㄱ], 터스침소리 [ㅈ], 스침소리 [ㅅ]뿐이며 나머지자음들은 울대의 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거센소리를 낼 때에는 터침이나 터스침에 울대스침소리가 합하여 나오고 된소리는 입술이나 입안터침에 울대스침소리가 합하여 나오며 울림자음은 목청진동이 겸하여 나온다.

여기에서 순한소리 [ㅂ, ㄷ, ㄱ, ㅈ, ㅅ]는 울대작용이 없는 것으로 하여 울대스침을 겸한 소리 [ㅍ, ㅌ, ㅋ, ㅊ]와 울대터침을 겸한 소리 [ㅃ, ㄸ, ㄲ, ㅉ, ㅆ]와 상관관계를 가진다.

울림자음 [ㅁ, ㄴ, ㄹ, ㅇ]는 목청진동을 겸한 소리인것으로

하여 [ㅁ]—[ㅂ], [ㄴ]—[ㄷ], [ㅇ]—[ㄱ]가 상관관계를 가진다. 자음 [ㅎ]는 울대스침소리로서 입안스침소리 [ㅅ]와 상관관계를 가진다.

조선어의 [ㄹ]는 목청진동이 있는 소리로서 이에 대응되는 소리가 없다.

울대작용이 없는 소리 [ㅂ, ㄷ, ㄱ, ㅈ, ㅅ]

울대스침소리 [ㅎ]

울대스침이 겸한 소리 [ㅍ, ㅌ, ㅋ, ㅊ]

울대터침이 겸한 소리 [ㅃ, ㄸ, ㄲ, ㅆ, ㅉ]

목청진동이 겸한 소리 [ㅁ, ㄴ, ㅇ, ㄹ]

한 언어안의 모든 음운들은 서로 련관되여 하나의 공고한 체계를 구성하고있다. 음운들사이의 련관은 음운의 구별적표식의 공통성과 차이성에 의하여 제약된다. 음운을 구별하는데서 차이성도 중요하지만 공통성도 중요하다. 그것은 음운을 구별하는데는 음운론적표식의 차이이지만 공통적표식을 전제로 하기때문이다. 공통적표식이 없는 음운의 대립이란 생각할수 없다. 음운의 공통적표식과 구별적표식의 특성에 따라 음운대립의 류형이 규정된다.

첫째로, 조선어 자음음운은 상관대립을 이룬다. 이 대립은 하나의 표식만이 다르고 다른 표식들은 공통성을 이루는 대립으로서 음운대립에서 가장 공고한 대립이다. 상관대립에서는 음운의 두개 성원만이 포함된다.

례컨대 조선어자음 [ㄷ]—[ㅅ], [ㄸ]—[ㅆ]는 상관대립을 이룬다. 여기서 [ㄷ], [ㄸ]는 혀앞터침소리이고 [ㅅ], [ㅆ]는 혀앞스침소리이다. 음운 [ㄷ]와 [ㅅ]는 터침과 스침의 표식에 의하여 차이날뿐 이 자음들의 다른 표식에서는 같다. 또한 [ㄸ]와 [ㅆ]도 터침과 스침의 표식에서 차이가 나고 혀앞소리, 울대터침이라는 표식에서는 같다.

이와 같이 상관관계에서는 대립의 표식이 명백하다.

조선어 자음음운들은 상관쌍을 이루고있다.

① 순한소리와 된소리의 상관쌍이다.

조선어의 순한소리에는 [ㄱ, ㄷ, ㅂ, ㅅ, ㅈ]가 있고 된소리

에는 [ㄲ, ㄸ, ㅃ, ㅆ, ㅉ]가 있다. 이 두 자음계렬들은 상관쌍 [ㄱ]—[ㄲ], [ㄷ]—[ㄸ], [ㅂ]—[ㅃ], [ㅅ]—[ㅆ], [ㅈ]—[ㅉ]를 형성한다. 이 상관쌍은 다른 표식은 다 갈고 순한소리인가 된소리인가 하는 표식에 의하여 차이난다. 순한소리와 된소리의 기본 구별적표식은 울대터침의 표식이다. 순한소리는 울대터침이 없는 소리이고 된소리는 울대터침을 겸한 소리이다. 만약 된소리에서 울대터침의 표식만 없으면 순한소리와의 차이가 없어진다.

음원의 견지에서 보면 순한소리는 한 음원에서 이루어지고 된소리는 두 음원에서 이루어진다. 된소리가 두 음원에서 이루어지지만 터침의 동시성으로 하여 음소분리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② 순한소리와 거센소리의 상관쌍이다.

조선어의 거센소리는 [ㅋ, ㅌ, ㅍ, ㅊ]가 있는데 울대스침을 띠였다는것으로 하여 순한소리와 대립된다. 여기서 울대스침을 겸하지 않았다면 순한소리와 차이가 없게 된다.

순한소리와 거센소리의 상관쌍은 [ㄱ]—[ㅋ], [ㄷ]—[ㅌ], [ㅂ]—[ㅍ], [ㅈ]—[ㅊ]를 형성한다.

음원의 견지에서 보면 거센소리는 두 음원에서 이루어지며 음소적측면에서는 두 음소의 결합이다. 거센소리가 두 음소로 이루어졌기때문에 울대스침의 음소를 제거하여버리면 순한소리로 되고만다.

※ 조선어에 울대스침으로만 이루어진 음운 [ㅎ]가 있는데 이것은 거센소리에도, 된소리에도 속하지 않는 음운이다.

많은 경우 지금까지 학자들속에서는 [ㅎ]를 순한소리계렬에 포함시켰다. 조선어에서 순한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는 그 음운의 조성특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상관개념이다. [ㅎ]가 음운의 다른 구별적표식을 겸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순한소리라고 할수 있으나 [ㅎ]에 대응되는 거센소리, 된소리가 없는 조건에서 이것을 순한소리라고 하는것은 과학적으로 타당성이 부족하다.

지금까지 [ㅎ]를 조건적으로 순한소리에 포함시킨것으로 하

여 필자도 전례에 따른다. [ㅎ]와 [ㅅ]가 스침소리, 순한소리라는 공통적표식을 가지고 [ㅎ]는 울대소리, [ㅅ]는 혀앞소리라는 구별적표식을 가지는것으로 상관대립을 형성한다.

③ 된소리와 거센소리의 상관쌍이다.

순한소리와 된소리, 순한소리와 거센소리의 상관쌍에서는 다른 표식은 다 같고 하나의 표식이 더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상관쌍을 이루었다면 된소리와 거센소리의 상관쌍은 서로 다른 표식인 울대터침과 울대스침의 표식에 의한 상관쌍이다. 다시말하여 된소리는 울대터침을 겸한 소리이고 거센소리는 울대스침을 겸한 소리이다. 이 상관쌍에서는 울대터침인가 울대스침인가에 따라 서로 상관관계를 가진다. [ㄲ], [ㄸ], [ㅃ], [ㅉ]는 울대터침의 표식을 가진 음운이고 [ㅋ], [ㅌ], [ㅍ], [ㅊ]는 울대스침을 가지는 음운이다.

이 두 음운부류의 상관쌍은 [ㄲ]—[ㅋ], [ㄸ]—[ㅌ], [ㅃ]—[ㅍ], [ㅉ]—[ㅊ]로 이루어진다.

④ 울림없는 자음과 울림자음의 상관쌍이다.

조선어의 막소리에는 음운론적으로 무성음과 유성음의 쌍이 존재하지 않는다. 조선어에 음성적으로는 유성음이 존재하지만 음운론적견지에서 볼 때 그것은 음운의 변종일따름이다. 조선어에 결합적변종으로서 모음과 모음사이, 울림자음과 모음사이에서 [ㄱ], [ㄷ], [ㅂ], [ㅈ]가 유성화된다. 이것은 음운 [ㄱ], [ㄷ], [ㅂ], [ㅈ]의 변종일따름이며 자립적인 음운으로는 되지 못한다.

따라서 조선어의 막소리에서 유성음과 무성음의 상관쌍은 존재하지 않고 울림없는 자음과 울림자음의 상관쌍이 존재할뿐이다. 울림없는 자음 [ㅂ], [ㄷ], [ㄱ]와 울림자음 [ㅁ], [ㄴ], [ㅇ]의 상관쌍을 이룬다. 즉 [ㅂ]—[ㅁ], [ㄷ]—[ㄴ], [ㄱ]—[ㅇ]의 상관쌍이다. 이 상관쌍에서 터침의 표식은 서로 같고 울림자음인가 아닌가에 따르는 표식에 의하여 두 부류의 음운들이 대립관계를 가진다.

※ 여기서 울림자음 [ㄹ]만은 이에 대응되는 막소리가 없는것으로 하여 막소리와의 상관쌍은 형성되지 않는다.

⑤ 입술소리와 혀앞소리, 입술소리와 혀뒤소리, 혀앞소리와 혀뒤소리의 상관쌍이다.

이것은 음운의 조성위치에 따르는 상관쌍으로서 조선어에서 음운의 구별적표식으로 될수 있는 위치는 입술, 혀앞, 혀뒤, 울대이다.

조선어자음의 구별적표식으로서 입술—이소리([f], [v]), 이—혀끝소리([θ], [ð]), 입안 두 초점소리 ([ш], [ж]), 혀가운데소리([j]), 목젖떨림소리([r]) 같은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입술소리—혀앞소리의 상관쌍 [ㅂ]—[ㄷ], [ㅃ]—[ㄸ], [ㅍ]—[ㅌ], [ㅁ]—[ㄴ]

입술소리—혀뒤소리의 상관쌍 [ㅂ]—[ㄱ], [ㅃ]—[ㄲ], [ㅍ]—[ㅋ], [ㅁ]—[ㅇ]

혀앞소리—혀뒤소리의 상관쌍 [ㄷ]—[ㄱ], [ㄸ]—[ㄲ], [ㅌ]—[ㅋ], [ㄴ]—[ㅇ]

※ 조성위치에 따라 울대소리 [ㅎ]는 혀앞소리 [ㅅ]와만 상관쌍을 형성할수 있다.

상관쌍들을 구별적표식에 따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음운의 상관쌍	구별적표식
ㅂ—ㄱ, ㅃ—ㄲ, ㅍ—ㅋ, ㅂ—ㅇ	입술터침—혀뒤터침
ㅂ—ㄷ, ㅃ—ㄸ, ㅍ—ㅌ, ㅂ—ㄴ	입술터침—혀앞터침
ㄱ—ㄷ, ㄲ—ㄸ, ㅋ—ㅌ, ㅇ—ㄴ	혀뒤터침—혀앞터침
ㄷ—ㅈ, ㄸ—ㅉ, ㅌ—ㅊ	혀앞터침—혀앞터스침
ㄷ—ㅅ, ㄸ—ㅆ	혀앞터침—혀앞스침
ㅈ—ㅅ, ㅉ—ㅆ	혀앞터스침—혀앞스침
ㅅ—ㅎ	혀앞스침—울대스침
ㄱ—ㄲ, ㄷ—ㄸ, ㅂ—ㅃ, ㅅ—ㅆ, ㅈ—ㅉ	순함—됨

ㄱ—ㅋ, ㄷ—ㅌ, ㅂ—ㅍ, ㅈ—ㅊ　　순함—거셈
ㄲ—ㅋ, ㄸ—ㅌ, ㅃ—ㅍ, ㅉ—ㅊ　　된—거셈
ㅂ—ㅁ, ㄷ—ㄴ, ㄱ—ㅇ　　울림없음—울림

이 상관쌍들에서는 발음방식과 발음위치의 표식, 울대작용방식에 의하여 대립이 이루어진다.

— 발음위치와 발음방식에 의한 상관쌍

ㅂ—ㄱ, ㅃ—ㄲ, ㅍ—ㅋ, ㅂ—ㅇ, ㅂ—ㄷ, ㅃ—ㄸ, ㅍ—ㅌ, ㅂ—ㄴ, ㄱ—ㄷ, ㄲ—ㄸ, ㅋ—ㅌ, ㅇ—ㄴ, ㄷ—ㅈ, ㄸ—ㅉ, ㅌ—ㅊ, ㄷ—ㅅ, ㄸ—ㅆ, ㅈ—ㅅ, ㅉ—ㅆ, ㅅ—ㅎ

— 울대작용방식에 의한 상관쌍

ㄱ—ㄲ, ㄷ—ㄸ, ㅂ—ㅃ, ㅅ—ㅆ, ㅈ—ㅉ, ㄱ—ㅋ, ㄷ—ㅌ, ㅂ—ㅍ, ㅈ—ㅊ, ㄲ—ㅋ, ㄸ—ㅌ, ㅃ—ㅍ, ㅉ—ㅊ, ㅂ—ㅁ, ㄷ—ㄴ, ㄱ—ㅇ

조선어에서 입술소리와 혀앞소리([ㅈ], [ㅉ], [ㅊ], [ㅅ], [ㅆ])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아니라 비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즉 [ㅂ]—[ㅈ], [ㅃ]—[ㅉ], [ㅍ]—[ㅊ]사이에 울대작용방식에서만이 같고 발음위치와 발음방식에서는 서로 다르다. 세개의 구별적표식가운데서 하나의 표식만이 같고 두 표식은 다르다.

따라서 이들사이에는 비상관관계만이 존재한다.

이밖에 조선어에는 조건적인 상관관계도 있다.

우에서도 지적한바와 같이 음운 [ㅎ]는 조건적으로만 울대작용방식에서 순한소리에 속한다. 그것은 [ㅎ]에 대응되는 된소리나 거센소리가 없기때문이다. 따라서 [ㅎ]—[ㅅ]는 순한소리라는 표식에서는 같고 혀앞소리와 울대소리라는데서 차이가 난다.

둘째로, 조선어자음은 상관관계에 기초한 삼각관계를 가진다.

조선어에서는 순한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들이 서로 대립되여 삼각관계를 가진다. 이 대립은 철저히 상관관계에 기초하고 있다.

된소리는 울대터침의 표식에 의하여 순한소리와 상관관계를 가

진다.

례컨대 [ㅂ]—[ㅃ]는 입술소리, 터침소리라는데 공통성이 있고 [ㄷ]—[ㄸ]는 혀앞소리, 터침소리라는데 공통성이 있는데 [ㅃ], [ㄸ]가 울대터침이라는 음운론적표식에 의하여 순한소리와 구별된다. 이것은 상관관계이다.

또한 거센소리는 울대스침의 표식에 의하여 순한소리와 대립된다.

례컨대 [ㅂ]—[ㅍ]는 입술소리, 터침소리라는데 공통성이 있고 [ㄷ]—[ㅌ]는 혀앞소리, 터침소리라는데 공통성이 있는데 [ㅍ], [ㅌ]가 울대스침이라는 음운론적표식에 의하여 순한소리와 구별된다. 이것도 상관관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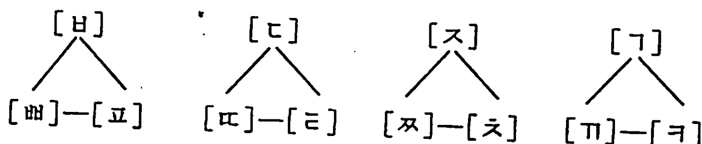
순한소리와 된소리, 순한소리와 거센소리의 상관관계는 어느한 음운론적표식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르는 관계이다.

이와는 반대로 된소리와 거센소리와의 상관관계는 음운의 두 성원가운데서 하나의 표식이 있는가 없는가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 매개 성원가운데서 서로 다른 음운론적표식의 쌍관계에 의한 대립관계이다. 된소리와 거센소리와의 관계에서 된소리는 울대터침이 구별적표식이고 거센소리는 울대스침이 구별적표식이다.

따라서 이 두 부류의 음운들사이에서는 울대터침과 울대스침이 구별적표식으로 된다.

례컨대 음운 [ㅃ]—[ㅍ]는 입술소리, 터침소리라는데 공통성이 있고 [ㅃ]는 울대스침이 없는것으로 하여 [ㅍ]와 구별되고[ㅍ]는 울대터침이 없는것으로 하여 [ㅃ]와 구별된다.

순한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는 이 세 부류의 음운들사이에 상관관계가 이루어지고 그것에 기초해서 음운들의 《묶음》이 형성된다.



※ 조선어에서 모든 막소리가 다 삼각관계와 《묶음》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다. [ㅅ]—[ㅆ]는 거센소리가 없이 순한소리와 된소리만이 존재하며 이 두 음운들사이에는 상관관계만이 있다. [ㅎ]도 같은 위치에서 발음되는 된소리, 거센소리가 없다. 15세기에는 [ㆅ]라는 된소리가 있어 [ㅎ]—[ㆅ]의 상관관계를 이루고있었다.

삼각관계는 같은 발음위치에서 나는 음운들사이에서만 대립관계를 이루는것이 아니라 순한소리는 순한소리끼리, 된소리는 된소리끼리, 거센소리는 거센소리끼리 련결되고 대립되면서 상관관계에서 립체모형을 형성한다. 이사이에 다른 음운이 끼여들어갈 자리와 공간은 없다.

따라서 조선어에서의 삼각관계도 체계정연할뿐만아니라 그 관계의 체계가 매우 견고하다.

조선어음운 《묶음》 호상간의 상관관계에서 혀앞소리 《묶음》 [ㄷ, ㄸ, ㅌ]와 [ㅈ, ㅉ, ㅊ]는 체계정연한 관계를 이룬다. 여기에서 [ㄷ]—[ㅈ], [ㄸ]—[ㅉ], [ㅌ]—[ㅊ]는 혀앞소리와 순한소리, 혀앞소리와 된소리, 혀앞소리와 거센소리라는 표식의 공통성과 터침소리—터스침소리라는 표식의 차이에 의하여 대립이 형성되나 터스침소리 [ㅈ, ㅉ, ㅊ]와 [ㅂ, ㅃ, ㅍ], [ㄱ, ㄲ, ㅋ]사이에서는 대립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례로서 [ㅈ]—[ㅂ], [ㅈ]—[ㄱ]의 호상관계를 들어보자.

[ㅈ]: 순한소리, 혀앞소리, 터스침소리

[ㅂ]: 순한소리, 입술소리, 터침소리

[ㄱ]: 순한소리, 혀뒤소리, 터침소리,

[ㅈ] — [ㅂ] 사이에는 두 음운이 다 순한소리라는 공통성만이 있고 [ㅈ] 는 혀앞소리, 터스침소리, [ㅂ] 는 입술소리, 터침소리라는 차이가 있다. [ㅈ] — [ㄱ] 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ㄱ]는 혀뒤소리, 터침소리라는 표식에 의하여 [ㅈ]와 구별된다. 따라서 [ㅈ] — [ㅂ], [ㅈ] — [ㄱ]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아니라 비상관관계가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호상관계는 [ㅉ]—[ㅃ], [ㅉ]—[ㄲ], [ㅊ]—[ㅍ], [ㅊ]—[ㅋ]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삼각관계의 《묶음》도 음운들사이에 일정한 체계에 의한 상관관계에 의해서 련결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셋째로, 조선어자음은 단계적대립을 이룬다.

한 언어안에 있는 매개 음운은 음운체계밖에서 존재할수 없다. 아무리 구별적표식이 단순한 음운이라도 홀로 존재하는것이 아니라 그 체계의 어느 한 음운과 상관관계를 맺는다. 음운들의 상관관계는 하나의 구별적표식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만 비상관관계는 음운체계안에서 공통적인 표식이 일부 있거나 전혀 없는 음운들사이에 이루어지는 관계다. 음운체계는 한 언어안에서 이루어지는 체계인것만큼 음운들사이에 직접적대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음운들은 간접적대립 즉 단계적대립을 이룬다.

례컨대 조선어음운 [ㅁ]—[ㅂ], [ㅁ]—[ㅃ], [ㅁ]—[ㅍ], [ㅁ]—[ㅇ], [ㅁ]—[ㄴ]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이루어지지만 [ㅁ]와 [ㄱ, ㄲ, ㅋ], [ㅁ]와 [ㄷ, ㄸ, ㅌ]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여기에서 [ㅁ]와 음운 《묶음》사이에는 터침소리라는 표식만이 같고 나머지표식들은 다 다르다. 이때의 음운들사이에는 간접적대립만이 가능하다. [ㅁ]—[ㄱ]의 대립은 [ㅁ]→[ㅇ]→[ㄱ] 또는 [ㅁ]→[ㅂ]→[ㄱ]와 같이 직접적으로 대립을 이루지 못하고 다른 음운을 거쳐서만 단계적으로 대립이 이루어진다.

하나의 표식만이 공통성을 띤 음운의 단계적대립의 쌍들

{[ㅁ]→[ㅂ]→[ㄱ]
 [ㅁ]→[ㅇ]→[ㄱ]

{[ㅁ]→[ㅃ]→[ㄲ]
 [ㅁ]→[ㅇ]→[ㄲ]

{[ㅁ]→[ㅍ]→[ㅋ]
 [ㅁ]→[ㅇ]→[ㅋ]

{[ㅁ]→[ㄴ]→[ㄷ]
 [ㅁ]→[ㅂ]→[ㄷ]

{[ㅁ]→[ㄴ]→[ㄸ]
 [ㅁ]→[ㅃ]→[ㄸ]

{[ㅁ]→[ㄴ]→[ㅌ]
 [ㅁ]→[ㅍ]→[ㅌ]

{[ㄴ]→[ㅇ]→[ㄱ]
 [ㄴ]→[ㄷ]→[ㄱ]

{[ㄴ]→[ㄸ]→[ㄲ]
 [ㄴ]→[ㅇ]→[ㄲ]

{[ㄴ]→[ㄹ]→[ㅋ]
[ㄴ]→[ㅇ]→[ㅋ]

{[ㄴ]→[ㅁ]→[ㅂ]
[ㄴ]→[ㄷ]→[ㅂ]

{[ㄴ]→[ㅁ]→[ㅃ]
[ㄴ]→[ㄸ]→[ㅃ]

{[ㄴ]→[ㄹ]→[ㅍ]
[ㄴ]→[ㅁ]→[ㅍ]

이밖에도 음운체계안에서 어느 음운과 어느 음운사이에 대립을 정하는가에 따라 단계적대립의 쌍들은 더 많이 설정된다.

이런 음운들의 단계적대립에서는 하나의 표식의 공통성이 존재한다. [ㄴ]—[ㅃ]의 경우만 놓고보아도 이 두 음운사이의 공통성은 터침소리라는데 있으며 혀앞소리, 울림소리, 입술소리, 울대터침소리의 표식에서는 공통성이 전혀 없다.

단계적대립은 음운론적표식의 공통성이 전혀 없는 음운들사이의 대립도 존재한다.

조선어에서 입술소리, 혀뒤소리와 터스침소리, 스침소리사이에는 음운론적표식의 공통성이 전혀 없다. 이 음운들이 하나의 체계속에 들어가 서로 련계되는것은 음운들사이에 단계적대립이 이루어진다는데 있다.

례컨대 음운 [ㅂ]와 [ㅊ], [ㄱ]와 [ㅆ], [ㅃ]와 [ㅎ]사이에는 음운론적표식의 공통성이 전혀 없다.

{[ㅂ]: 순한소리, 입술소리, 터침소리
[ㅊ]: 거센소리, 혀앞소리, 터스침소리

{[ㄱ]: 순한소리, 혀뒤소리, 터침소리
[ㅆ]: 된소리, 혀앞소리, 스침소리

{[ㅃ]: 된소리, 입술소리, 터침소리
[ㅎ]: 순한소리, 울대소리, 스침소리

이상과 같이 비록 공통적인 표식이 없지만 음운들이 한 체계안에 속한 성원인것만큼 상관관계를 맺는 음운을 매개로 하여 단계적대립이 형성된다. 그리하여 [ㅂ]—[ㅊ]의 대립은 [ㅂ]→[ㅍ]→[ㅌ]→[ㅊ] 또는 [ㅂ]→[ㄷ]→[ㅈ]→[ㅊ], [ㅂ]→[ㅃ]→[ㄸ]→[ㅉ]→[ㅊ], [ㅂ]→[ㄷ]→[ㅌ]→[ㅊ]와 같이 린접한 다른 음운들을 매개로 하여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ㄱ]—[ㅆ]: [ㅃ]—[ㅎ]도 마찬가지이다.
[ㄱ]—[ㅆ]: [ㄱ]→[ㄷ]→[ㅈ]→[ㅅ]→[ㅆ]
[ㄱ]→[ㄲ]→[ㄸ]→[ㅉ]→[ㅆ]
[ㅃ]—[ㅎ]: [ㅃ]→[ㄸ]→[ㅆ]→[ㅅ]→[ㅎ]
[ㅃ]→[ㅂ]→[ㄷ]→[ㅅ]→[ㅎ]

여기에서 [ㅃ]—[ㅋ]의 대립은 [ㅃ]→[ㅍ]→[ㅋ], [ㅃ]→[ㄲ]→[ㅋ]와 같이 한 단계([ㅍ] 또는 [ㄲ])를 거쳐 대립이 이루어지지만 [ㄱ]와 [ㅆ], [ㅃ]와 [ㅎ]는 세 단계를 거쳐야 대립이 이루어지게 된다.

단계적대립에서 몇단계를 거치는가 하는것은 린접음운(즉 단계로 되는 음운)과의 상관관계와 관련된다. 단계적대립에서는 해당 음운들사이의 상관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때문에 중간단계를 거치게 된다.

[ㅃ]와 [ㅋ]사이에 중간단계가 [ㅍ]나 [ㄲ]로 되는것은 [ㅃ]가 울대터침의 표식과 울대스침의 표식([ㅃ]—[ㅍ]), 입술소리표식과 혀뒤소리표식([ㅃ]—[ㄲ])에 의하여 상관관계를 이루고 입술소리와 혀뒤소리([ㅍ]—[ㅋ]), 울대터침과 울대스침([ㄲ]—[ㅋ])에 의하여 상관관계를 이루고있기때문이다.

단계적대립에서 중간단계가 둘 또는 그 이상으로 되는것은 린접음운들사이에 존재하는 구별적표식의 공통성과 차이성의 특성과 관련된다.

음운 [ㅃ]—[ㅋ]의 단계적대립에서는 중간에 [ㅍ]나 [ㄲ]의 한 단계를 거치지만 [ㅍ]—[ㅆ]의 대립에서는 세개의 중간단계를 거쳐야 한다. 즉 [ㅍ]→[ㅌ]→[ㅊ]→[ㅉ]→[ㅆ] 또는 [ㅍ]→[ㅃ]→[ㄸ]→[ㅉ]→[ㅆ]

[ㅍ]	입술소리,	터침소리,	거센소리
[ㅌ]	혀앞소리,	터침소리,	거센소리
[ㅊ]	혀앞소리,	터스침소리,	거센소리
[ㅉ]	혀앞소리,	터스침소리,	된소리
[ㅆ]	혀앞소리,	스침소리,	된소리

[ㅍ]와 [ㅌ]의 구별적표식은 입술소리—혀앞소리이며 [ㅌ]와 [ㅊ]의 구별적표식은 터침소리—터스침소리이며 [ㅊ]와 [ㅉ]의 구별적표식은 거센소리—된소리, [ㅉ]와 [ㅆ]의 구별적표식은 터스침소리—스침소리이다.

[ㅍ]	입술소리,	터침소리,	거센소리
[ㅃ]	입술소리,	터침소리,	된소리
[ㄸ]	혀앞소리,	터침소리,	된소리
[ㅉ]	혀앞소리,	터스침소리,	된소리
[ㅆ]	혀앞소리,	스침소리,	된소리

[ㅍ]와 [ㅃ]의 구별적표식은 거센소리—된소리이고 [ㅃ]와 [ㄸ]의 구별적표식은 입술소리—혀앞소리이며 [ㄸ]와 [ㅉ]의 구별적표식은 터침소리—터스침소리, [ㅉ]와 [ㅆ]의 구별적표식은 터스침소리—스침소리이다.

이와 같이 단계적대립에서는 린접음운과 구별적표식의 차이로 이어지면서 단계적대립으로 대립이 이루어진다.

※ 조선어자음체계에서 대립이 단순한것은 뛰김소리 [ㄹ]와 울대스침소리 [ㅎ]이다. 자음 [ㄹ]는 혀앞소리 [ㄴ]와만 상관관계를 가지는데 뛰김소리의 표식과 터침소리의 표식의 차이로 하여 대립이 이루어진다. 울림자음과 혀앞소리표식에서는 같다. [ㄴ]에 코소리표식도 있지만 [ㄹ]와의 상관관계에서는 그것이 본질적표식으로 되지 못한다. 만약 [ㄹ]—[ㄴ]관계에서 코소리표식을 두 음운의 구별적표식으로 잡는다면 이 두 음운은 상관관계를 이루지 못한다. 왜냐하면 [ㄹ]—[ㄴ]는 뛰김소리—터침소리라는 표식에 의하여 대립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또 코소리 아닌 소리—코소리의 표식을 더한다면 이 음운들은 비상관적관계를 이루기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ㄹ]와 [ㄴ]는 직접적대립이 없는것으로 될것이다. 조선어의 [ㅁ], [ㄴ], [ㅇ]가 코소리표식을 가지는것만은 사실인데 이 표식은 막소리와의 상관관계에서의 구별적표식으로 된다. 조선어막소리가운데서 [ㅎ]만이 같은 부류의 계렬을 이루지 못하고있다. 다른 자음들은 순

한소리—된소리—거센소리의 계렬을 이루고있으나 [ㅎ]만은 이런 계렬을 가지고있지 못하다. [ㅎ]를 순한소리라고 하는것은 하나의 발음기관부위에서만이 작용하여 이루어진 소리이기때문이다. 된소리나 거센소리는 두 발음부위에서 동시에 작용하여 이루어지나 [ㅎ]는 한 발음부위가 작용하여 이루어진 소리이다. [ㅎ]는 [ㅅ]와만 상관관계를 맺는다. 이 두 음운은 스침소리, 순한소리라는 공통성과 울대소리—혀앞소리라는 구별적표식에 의하여 차이나며 음운론적으로 대립된다

조선어자음의 음운체계

	울대작용방식				발음방식											발음위치				음원수
	순한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울림자음	홑진터침	홑진스침	홑진터스침	홑진울대스침	울대터침뗀터침	울대터침뗀스침	울대터침뗀터스침	울대스침뗀터침	울대스침뗀터스침	터침코소리	튀김	입술소리	혀앞소리	혀뒤소리	울대소리	
ㄱ	○				○													○		1
ㄴ				○										○			○		○	2
ㄷ	○				○												○			1
ㄹ				○											○		○			2
ㅁ				○										○		○			○	2
ㅂ	○				○											○				1
ㅅ	○					○											○			1
ㅇ				○										○				○	○	2
ㅈ	○						○										○			1
ㅊ			○										○				○		○	2
ㅋ			○									○						○	○	2
ㅌ			○									○					○		○	2
ㅍ			○									○				○			○	2
ㅎ	△					○		○											○	1
ㄲ		○							○									○	○	2
ㄸ		○							○								○		○	2
ㅃ		○							○							○			○	2
ㅆ		○								○							○		○	2
ㅉ		○									○						○		○	2

4. 조선어자음체계와 관련한 외국학자들의 견해에 대한 비판

조선언어학계에서는 중세기 음운구성에 대하여 론쟁적인 문제들이 제기되였지 현대조선어의 음운구성과 체계에 대하여서는 론쟁거리가 제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어를 연구하는 외국학자들속에서 조선어음운구성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들이 나왔다. 론점의 기초에는 조선어의 입천장소리가 된 자음과 입천장소리가 되지 않은 자음, 원순화적자음과 비원순화적자음에 관한 문제가 놓여있다. 이것은 단순히 자음의 음운구성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모음을 포함한 조선어음운구성 총체와 관련되는 문제이다.

1930년대에 조선어를 연구하는 로씨야의 학자 아.아.홀로도비치와 엔.에쓰.뚜르베쯔꼬이에 의하여 조선어의 입천장소리되기문제가 제기되였다.

아.아.홀로도비치는 《라틴문자에 의한 조선어문자의 전사법》(1935년), 《조선어의 구조》(1938년)에서 조선어의 소음적자음들은 순한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스침소리는 순한소리와 된소리)로 이루어져있다고 하면서 입천장소리가 되지 않은 자음들은 입천장소리로 된 자음에 대립되여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대립은 혀앞소음적자음들은 입천장소리로 되지 않기때문에 혀앞자음과 혀중간자음에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혀중간자음들은 대립이 없이 오직 입천장소리로 된것뿐이라는것이다.

조선어의 입천장소리로 된 자음과 입천장소리가 아닌 자음의 대립문제에 대하여서는 엔.에쓰.뚜르베쯔꼬이와 유.엔.마주르를 비롯한 일련의 언어학자들이 제기하였다.

만일 이들의 주장대로 조선어에서 입천장소리로 된 자음과 입천장소리로 되지 않은 자음의 대립을 인정한다면 조선어자음체계에서는 연자음과 경자음의 대립이 이루어지기때문에 이것은 조선어자음음운구성뿐만아니라 모음음운구성과도 련관되는 문제로 된다.

조선어에서 입천장소리로 된 자음을 인정한다는것은 모음음운구성에 짧은 [i̯]로 시작되는 겹모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것을 의미한다. 즉 조선어의 《ㅑ, ㅕ, ㅛ, ㅠ, ㅒ, ㅖ》는 [ja, jə, jo, ju, jæ, je]로 되며 혀중간울림자음ㅁ모음의 결합으로 인정되게 된다. 준겹모음가운데서 입천장소리로 된 자음과 입천장소리로 되지 않은 자음의 대립만을 인정하고 원순화적자음과 비원순화적자음은 인정하지 않고있다. 《ㅘ, ㅙ, ㅝ, ㅞ》는 《wa, wæ, wə, we》가 아니라 《u̯a, u̯æ, u̯ə, u̯e》로 인정함으로써 문제분석에서 일면성에 치우치고있다.

아.아.홀로도비치가 1930년대에 입천장소리로 된 자음과 입천장소리로 되지 않은 자음을 인정하였다면 1954년에 발행된 《조선어문법개요》에서는 경자음과 연자음의 대립이 아니라 경음적변종과 연음적변종으로 보고있다.

그는 《ㅂ, ㅃ, ㅍ, ㄱ, ㄲ, ㅋ, ㅁ, ㄴ, ㅎ, ㄹ》와 같은 자음계렬은 경음적변종과 연음적변종을 가진다고 하였다. j화되지 않은 모음앞에서는 경음적변종을 가지며 j화된 모음앞에서는 연음적변종을 가진다고 하였다. (즉 i̯로 시작되는 준겹모음앞) (《Очерк граммати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7페지)

여기에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그가 이전에는 조선어의 소음적자음을 경자음과 연자음으로 갈랐다면 그후에는 이것을 변종으로 취급하였다. 그렇기때문에 겹모음에서도 [i̯]로 시작되는 준겹모음을 인정하였다.

1930년대에 로씨야학자들이 조선어자음을 연자음과 경자음으로 가른것은 조선어의 언어현실과 맞지 않는다. 조선어겹모음의 앞에 짧은 [ㅣ]가 옴으로써 그앞에 오는 자음에 연음적성격을 부여하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여 그 자음이 연자음으로 되는것은 결코 아니다. 만약 그렇게 되자면 조선어에는 《ㅘ, ㅙ, ㅝ, ㅞ》, 《ㅢ》만이 겹모음으로 되고 《ㅑ, ㅕ, ㅛ, ㅠ, ㅒ, ㅖ》는 《자음ㅁ모음》이라는 소리인데 이것은 로어음운체계에 대한 모방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것은 조선어음운체계에 대한 리해의 부족으로부터 온것이라고 보아진다. 엘.에르.진데르는 론문 《조선어모음》(《Совет

ское востоковедение》, 1956년 3호)에서 조선어의 입천장소리로 된 자음을 인정하지 않고있다.

그는 단어 《모》와 《묘》에 대하여 례를 들면서 이 단어들에는 두개의 자음 즉 입천장소리로 되지 않은 자음 《ㅁ》와 입천장소리로 된 자음 《ㅁ'》에 하나의 모음 《ㅗ》가 있는가, 반대로 하나의 자음 《ㅁ》에 두개의 모음 《ㅗ》와 《i̯ㅗ》가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때에 두개 자음 《ㅁ》와 《ㅁ'》가 존재하는것이 아니라 하나의 자음 《ㅁ̆》와 두개의 모음 《ㅗ》와 《i̯ㅗ》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있다.

그의 주장은 과학적으로 일정한 타당성이 있다고 말할수 있다. 왜냐하면 조선어에 입천장소리되기가 음운론적대립의 표식으로 된다면 이 대립이 음운체계 전반에 관통되여야 할것이다. 일련의 자음들 즉 [i̯]로 시작되는 겹모음과 [ㅣ]의 앞이 아닌 위치 및 말끝에서는 입천장소리로 되지 않은 음운만이 존재하며 울림자음 《ㅁ, ㄴ, ㄹ》의 경우에 입천장소리로 되지 않는것으로 하여 그것이 전체 음운체계에 관통되지 않고있다. 따라서 조선어에는 입천장소리로 된 자음과 입천장소리로 되지 않은 자음의 대립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그것이 음운론적표식으로 되지 않는다.

엘.에르.진데르는 조선어에 원순화적자음과 비원순화적자음이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음뒤에 원순모음과 원순화적요소인 [u̯]가 뒤따를 때 원순화현상이 나타나기때문에 음운론적대립을 이루지 않는다는 견해를 제기하였다.

그는 조선어에는 입천장소리로 된 자음과 원순화적자음이 음운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자음뒤에 [i], [i̯], [o], [u], [u̯]가 뒤따르는데 따라 자음의 변종으로 나타날뿐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러한 결론에 기초하여 엘.에르.진데르는 조선어에서는 《ㅑ, ㅕ, ㅛ, ㅠ, ㅖ, ㅒ, ㅘ, ㅙ, ㅝ, ㅞ, ㅟ》 및 《u_o*》이라는 준겹모음들이 단일한 음운을 이루고있으며 울림자음 [j], [w] 혹은 모음앞에 [i̯], [u̯]가 자립적인 음운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u_o》는 조선어에 없는 글자로서 무슨 글자를 표기했는지 알수 없다.

이와 같이 조선어의 자음음운 구성문제는 모음의 음운구성문제와 밀접히 련결되여있다.

다른 한편 조선어의 음운론을 연구하는 사람들가운데는 음운론을 음소론적으로 고찰하는 경향이 있다. 음운과 음소는 같은것이 아니다. 하나의 음운이 두개의 음소로 갈라질수도 있고 음운과 음소가 같을수도 있다. 음운은 형태부나 단어의 어음적외피를 구별할수 있는 어음의 최소단위이다. 비록 음운이 두개의 음소로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음운론적단위로는 하나일수가 있다.

례컨대 조선어자음 《ㅋ, ㅌ, ㅃ, ㅊ》는 《k^h, t^h, p^h, c^h》와 같이 두개 음소로 갈라지나 음운론적으로는 하나의 음운으로 기능을 수행한다. 음운론적으로는 [k]와 [h], [t]와 [h], [p]와 [h], [c]와 [h]로 갈라지지 않으며 그사이로 형태론적분계선이 지나지도 않는다.

이와 같은 현상은 모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조선어모음 《ㅑ(i̯a), ㅕ(i̯ə), ㅛ(i̯o), ㅠ(i̯u), ㅒ(i̯æ), ㅖ(i̯e)》, 《ㅘ(u̯a), ㅙ(u̯æ), ㅝ(u̯ə), ㅞ(u̯e)》는 《i̯》, 《u̯》와 홑모음으로 음소가 구분되여있으나 음운론적단위로서는 음소결합으로 자기 기능을 수행하며 여기에서도 음소사이로 형태론적분계선이 그어지지 않는다.

음운이 음운론적최소단위라면 음소는 어음의 최소분절(쎄그멘트)이다.

조선어의 거센소리나 겹모음들은 어음의 두개 분절로 이루어져있으며 순한소리, 된소리, 홑모음은 하나의 분절로 이루어져있다. 이러한 관계로 음운이 음소와 일치할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수도 있다.

따라서 음운론에서 음소론적측면에서 어음을 분류하여 음운을 고찰하는것은 과학적인 연구방법이 되지 못한다. 음운은 어디까지나 형태부나 단어의 의미구별적인 외피를 이루는 어음의 최소단위인만큼 음운이 보존되는 한계안에서 론의되여야 한다.

제3장. 조선어음운의 실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실 우리 조선말은 아주 좋은 말입니다. 우리 말은 류창하며 높고낮음과 길고짧음이 있고 억양도 좋으며 듣기에도 매우 아름답습니다.》(《김일성전집》 32권, 354페지)

우리 말소리가 아름답고 류창한것은 음운구성이 다양하고 그 체계가 정연하게 째여져있는데도 있지만 음운의 실현이 원활하게 진행되는것과도 관련되여있다.

음운은 고립적으로 존재하는것이 아니라 다른 음운과의 밀접한 련계속에서 일정한 체계성을 띠고 존재하며 그것이 인간의 의사소통에 복무할 때에 그 체계속에 있는 다양한 음운과 관계를 가진다. 이 과정에 음운들 호상간에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게 된다.

제1절. 조선어자음음운의 변종

언어행위는 말소리흐름의 련속과정인 동시에 음운의 실현과정이다. 언어행위는 말소리흐름을 통하여 실현된다. 이 말소리흐름은 일정한 의미를 가지며 의미단위로 분할된다. 언어행위에서의 말소리흐름이 의미와 밀접히 련관되여있기때문에 의미와 동떨어진 말소리흐름이란 생각할수 없다.

말소리흐름을 음운론적으로 분석하면 음운들의 련속적인 배렬이다. 말소리흐름속에 있는 음운이 하나하나의 고립적인 상태에서의 음운과 꼭 같은것은 아니다. 말소리흐름속에서의 음운은 앞뒤에 있는 이러저러한 음운의 영향을 받아 변종으로 나타날수도 있고 다

른 음운으로의 변화를 가져올수도 있다.

음운이 특수한 경우에 고립적상태에서 실현되는 경우도 있으나 거의 모두 다른 음운과의 호상련관속에서 실현된다. 이때에 음운이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는데 이 변화가 일정한 규칙성'을 띠고 일어난다.

음운은 다른 음운과의 호상련쇄속에서 실현되므로 결합적조건과 위치적조건에 따라 변화를 가져온다. 일반적인 개념인 음운은 구체적인 변종으로 실현된다. 음운이 일반적인것이라면 변종은 구체적인것이다. 모든 음운은 그 실체인 변종으로 나타난다.

변종은 우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음운의 필연적인 발현형태이다. 음운은 변종을 통하여 진면모가 나타나고 변종은 음운의 이러저러한 특징을 자체내에 체현하고있다. 따라서 변종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특징은 음운의 본질적속성의 발현형식이다.

조선어모음의 특징의 하나는 위치에 관계없이 자기의 소리값을 보존하는것이다.

일부 다른 나라 말에서는 단어마루의 위치에 따라 소리값의 변화를 가져와 변종으로 되는 경우가 있으나 우리 말에서는 단어소리마루가 어디에 오건 관계없이 모음은 자기 소리값을 그대로 보존한다.

조선어의 소리마루는 고저장단소리마루이다. 여기에서 높낮이가 기본이고 길이가 합리적으로 배합된다. 단어의 소리마루위치에 따라서 모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로어에서는 단어에서 소리마루가 놓이는 위치에 따라 앞뒤모음의 소리값에서의 변종이 생긴다. 로어에서 소리마루가 있는 소리마디의 모음은 강한자리에 놓여있기때문에 소리값에서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그 앞뒤에 오는 모음은 약한자리에 놓여있기때문에 변화를 일으킨다.

례컨대 단어 《молодо́й》에서 소리마루가 있는 [о]는 강한자리에 있기때문에 [о]로 발음되지만 [д]앞에 있는 모음 [о]는 [Λ]로 발음된다. 또한 《сме́ло》에서 소리마루뒤에 오는 모음 [о]는 [ъ]로 발음된다. 여기에서 [Λ], [ъ]는 모음 [о]의 변종

들이다.

이와 같이 로어에서는 소리마루가 있는 모음의 앞뒤위치에 따라 모음에서 변화를 가져오나 조선어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없다.

조선어에서 [ㅟ]나 [ㅚ]를 발음할 때 [ㅜ], [ㅣ], [ㅞ]로 발음되는 경향이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비표준적인 발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모음 [ㅟ], [ㅚ]의 변종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않니다.

또한 조선어의 겹모음 [ㅢ]의 발음에서 [ㅢ], [ㅔ], [ㅡ], [ㅣ] 등 여러가지로 나타난다. 《의학》, 《의사》라고 할 때에는 [ㅢ]로 발음되지만 《밀림의 봄》과 같이 그것이 속격토로 쓰일 때에는 [ㅔ]로 발음되며 《의의》라고 할 때에는 [ㅡ ㅣ]로 발음된다.

이것은 조선어의 겹모음 [ㅢ]에 한해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며 조선어모음 일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조선어음운의 변종은 기본적으로 자음에서 나타난다.

첫째로, 자음음운의 변종은 일부 자음의 유성화에서 나타난다.

조선어자음은 울림자음(쏘난트)을 제외하고는 모두 막소리로 이루어져있다. 막소리들은 유성음적인 성질이 전혀 없는 자음들이다.

조선어자음 [ㄱ], [ㄷ], [ㅂ], [ㅈ]가 모음과 모음, 울림소리와 모음사이에 놓일 때 유성화된다.

○ 가다[kada], 나가다[nagada],
전기[ʧəngi] [k→g]
도시[tosi], 미다지[midaʤi],
만두[mandu] [t→d]
보리 [pori], 보리밥[poribap],
실버들[silbədɯl] [p→b]
자다[ʧaba], 가지[kaʤi],
잠자리 [ʧamʤari] [ʧ→ʤ]

보는바와 같이 조선어의 막소리 [k], [t], [p], [ʧ]가 모음과 모음사이, 울림소리와 모음사이에 놓일 때 유성음 [g], [d], [b],

[ʤ]로 변한다.

음운으로서 무성음과 유성음의 상관적대립관계가 이루어지는 언어들이 있다.

영어: [p]—[b], [t]—[d], [k]—[g], [s]—[z], [f]—[v]

로어: [п]—[б], [т]—[д], [k]—[г], [ф]—[в], [с]—[з], [ш]—[ж]

※ 로어에서 우에 지적한것은 경자음에서의 무성음과 유성음의 대립이고 이와 마찬가지로 연자음에서도 무성음과 유성음의 대립이 이류어진다.

이런 언어들에서는 자립적인 음운으로서의 무성음과 유성음이 존재하며 이들사이의 상관적대립관계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조선어에서의 유성음은 해당한 음운의 변종으로만 존재하며 이것은 무성음과 대립관계를 이루지않는다. 물론 조선어의 무성음과 유성음의 쌍관계가 존재하지 않는것으로 하여 무성음도 음운론적표식으로 되지 않는다. 따라서 조선어에서의 무성음은 비음운론적표식이다.

※ 조선어음운체계의 특성으로 하여 조선사람들은 말소리흐름속에서 유성음을 무성음과 구별하지 못한다. 조선어의 유성음과 무성음의 음운론적대립이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유성음이건 무성음이건 다 하나의 같은 소리로 리해한다.

그러나 유성음과 무성음이 음운론적대립을 이루고있는 언어를 사용하고있는 사람들은 이 차이를 쉽게 지각한다.

둘째로, 조선어자음음운의 변종은 [ㄱ], [ㄷ], [ㅂ]의 막힘소리되기이다.

자음 [ㄱ], [ㄷ], [ㅂ]는 첫소리로도 발음되고 끝소리로도 발음된다. 이 자음들이 첫소리로 발음될 때에는 닫힘, 지속, 터침의 세 단계를 다 거치게 되나 단어의 끝이나 막소리앞에서 발음될 때에는 닫힘과 지속으로 발음과정이 끝나게 된다. 즉 발음과정이 마지막단계에서 터침이 아니라 막힘으로 끝난다.

○ [ㄱ]의 막힘

강성대국, 지역, 마지막, 국수, 자각, 민족, 조직, 곡절, 백두산, 육탄영웅, 락선, 작식대, 혁신

[ㄷ]의 막힘

곧, 굳다, 깁다, 닫다, 듣다, 묻다

[ㅂ]의 막힘

삽, 로동계급, 상급, 합심, 입수하다, 뵙다, 꼽다, 멉다, 돕다

비록 [ㄱ], [ㄷ], [ㅂ]가 첫소리에서의 발음은 터침으로 끝나고 막소리앞이나 단어의 끝에서 막힘으로 끝나지만 이 두 부류의 말소리는 같은 음운이며 후자의것은 [ㄱ], [ㄷ], [ㅂ]의 변종일따름이다.

따라서 막소리앞이나 단어끝에 오는 [ㄱ], [ㄷ], [ㅂ]는 첫소리에 오는 [ㄱ], [ㄷ], [ㅂ]와 음운론적으로 대립되지 않으며 같은 음운의 다양한 표현에 불과하다.

※ 지금까지 적지 않은 학자들이 조선어의 막힘소리를 《속터침소리》라고 명명하고있는데 이것은 다른 나라 말을 번역한것으로서 우리 말에는 맞지 않는다.

우리 말에서 받침소리를 발음할 때에는 발음부위가 급격히 폐쇄되여 날숨이 막히는것으로 끝날뿐 입안으로 터치는 과정은 없다. 따라서 조선어에서는 속터침소리라고 하는것보다 막힘소리라고 부르는것이 과학적으로 타당하다.

셋째로, 조선어자음음운의 변종은 순한소리의 《된소리되기》이다.

《된소리》변종은 한 단어안에서 자음과 자음이 겹쳐있을 때 앞에 놓인 자음의 발음상영향으로 뒤에 놓인 순한소리가 된소리 비슷하게 발음되는것이다.

조선어에서 받침으로 나타나는 소리는 [ㅂ], [ㄷ], [ㄱ], [ㅁ], [ㄴ], [ㄹ], [ㅇ] 등 7개뿐이다. 받침소리를 발음할 때 생겼던 근육의 긴장성과 막혔던 날숨이 터지면서 강한 세기가 뒤에 놓인 자음에 영향을 주어 순한소리가 된소리 비슷하게 발음되게 한다.

○ 좁다[좁따], 좁고[좁꼬], 좁지[좁찌]
닫다[닫따], 닫고[닫꼬], 닫지[닫찌]
먹다[먹따], 먹고[먹꼬], 먹지[먹찌]
학보[학뽀], 급보[급뽀]
다섯시[다섣씨], 혁신[혁씬]

순한소리변종으로 나타나는 《된소리》는 본래 의미의 된소리와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된소리의 본질적표식은 울대터침을 동반하는것인데 변종으로서의 《된소리》는 울대터침은 없고 다만 발음부위의 긴장성과 날숨의 압력이 강하여 그의 영향으로 된소리 비슷하게 발음된다는데 있다.

《된소리》변종은 받침소리 [ㅂ], [ㄷ], [ㄱ]뒤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또한 울림자음뒤에서도 나타난다. 받침소리 [ㅂ], [ㄷ], [ㄱ]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형태부와 형태부사이 또는 한 형태부안에서 나타나지만 울림자음뒤에서 생기는 변종은 반드시 형태부와 형태부사이에서 나타난다는데 그 차이가 있다. 앞에 있는 울림자음을 발음할 때에 생기는 긴장성이 뒤에 있는 순한소리에 영향을 주어 일어나는데 앞형태부의 끝소리마디를 발음할 때에 긴장성이 얼마나 큰가 하는것과 많이 련관된다. 앞의 소리마디에서 발음의 긴장성이 조성되면 뒤에 있는 순한소리에 영향을 미치여 《된소리》로 발음되나 긴장성이 없이 발음되는 소리마디뒤에서는 《된소리》로 발음되지 않는다.

따라서 울림자음뒤에 놓였다 하더라도 순한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것과 되지 않는것이 있다.

○ 순한소리변종으로서의 《된소리》로 되는것
갈가[갈까], 갈수록[갈쑤록], 갈지라도[갈찌라도]
심다[심따], 심고[심꼬], 심지[심찌], 봄보리[봄뽀리]
안다[안따], 안고[안꼬], 안지[안찌], 안기[안끼]
당적[당쩍], 창고[창꼬], 강가[강까]

한자어단어에서는 하나의 형태부안에서 《된소리되기》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 성과[성꽈]

그러나 고유어의 경우에는 《논두렁[논뚜렁]》, 《손가락[손까락]》, 《갈대[갈때]》, 《그믐달[그믐딸]》과 같이 형태부와 형태부사이에서 《된소리되기》현상이 나타난다.

이와 같이 《된소리되기》는 고유어에서 말뿌리와 토, 말뿌리와 말뿌리의 합성으로 이루어진 단어에서만 나타난다.

○ 순한소리변종으로서의 《된소리》로 되지 않는것

된벼락, 센바람, 인민반, 봄가을, 날바다, 별세계, 온세상, 갈다, 멀다

단어조성적으로는 《된소리》로 발음되는것과 발음되지 않는것이 같은 현상인데 왜 《된소리》로 되는것과 안되는것이 있는가?

이것은 조선어단어발음의 오랜 전통과 관련된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전통의 구체적내용은 단어발음의 소리마루이다. 단어의 소리마루가 해당 소리마디에 있는가 없는가에 의하여 《된소리》로 발음되는가 안되는가가 관련된다. 《된소리》로 발음되는 형태부의 첫 소리마디에 높이와 함께 세기마루가 있으면 그앞에 있는 소리마디에 미리 긴장성이 조성되면서 뒤형태부의 첫 소리마디가 되게 발음되게 된다.

례컨대 《봄바람》과 《봄가을》은 같은 형식의 합친말이다. 하나는 《봄+바람》이고 다른 하나는 《봄+가을》이다. 앞에 놓인 형태부는 다 같고 다만 뒤에 놓인 형태부인 《바람》과 《가을》이 다를뿐이다.

여기서 《가을》은 쓴대로 발음되고 《바람》은 [빠람]으로 발음되는것은 《바람》의 《바》에 높이와 함께 세기가 뒤따르는 소리마루가 있기때문이다.

《가을》에서 《가》가 《된소리》로 나지 않는것은 여기에 소리마루가 오지 않아 그앞의 소리마디에 미리 긴장성이 조성되지 않기때문에 그뒤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것으로 하여 뒤에 놓인 순한소리는 그대로 발음된다.

이와 같이 결합관계에서 나타나는 《된소리》는 완전한 의미에서의 된소리가 아니라 순한소리변종으로서의 조건적인 된소리이다.

넷째로, 혀옆소리변종이다.

다른 나라의 대부분의 언어에서는 흐름소리로서 [r]와 [l]가 존재한다.

이것은 다 자립적인 음운이다. [r]나 [l]가 소리마디의 첫소리로도 되고 끝소리로도 된다.

그러나 조선어의 흐름소리에서 기본음운은 튀김소리이며 혀옆소리는 그의 변종이다.

조선어의 혀옆소리는 항상 끝소리로서만 발음된다는 위치적제약성을 가진다.

따라서 혀옆소리가 첫소리로 발음되는 경우란 없다. 소리마디에서 혀옆소리뒤에 모음이 오면 그것이 튀김소리로 변한다. 조선어의 튀김소리는 소리마디끝소리로 발음될수 없고 혀옆소리는 소리마디 첫소리로 발음될수 없다. 이와 같이 위치적으로 제약되여있다는 그자체가 튀김소리와 혀옆소리가운데서 어느 한 소리가 기본음이고 다른것이 그의 변종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일반적으로 음운의 구별적표식이 잘 나타나고 자기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는 위치는 강한자리이다. 조선어의 강한자리는 단어의 첫머리이다. 조선어의 흐름소리에서 단어의 첫머리에 나타날수 있는 소리는 튀김소리뿐이며 혀옆소리는 단어의 첫머리에 나타날수 없다. 이러한 원인으로 하여 튀김소리가 기본음운으로 되고 혀옆소리가 그의 변종으로 되는것이다.

여기에 바로 조선어의 [ㄹ]와 다른 나라 말의 떨림소리 [r], 혀옆소리 [l]와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것이 조선어 [ㄹ]의 특징이다.

조선어의 튀김소리는 단어의 첫소리, 모음과 모음사이, 받침소리뒤에서 발음된다.

○ 단어의 첫소리

락원, 려행, 로동, 료리, 류수, 리발

○ 모음과 모음사이

나라, 마련, 자료, 그루, 소리, 고리, 결의, 따르다

○ 받침소리뒤

근로자, 널리, 벌리다, 승리, 속력, 국립, 법률

※ 지난날에는 말머리에 튀김소리 [ㄹ]가 나타나지 않았다. 고유어단어가운데 [ㄹ]를 첫소리로 하는 단어가 없는것을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조선어에 들어온 한자어에 말머리자음 [ㄹ]가 있었으나 력사적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말머리에서 [ㄹ]를 발음하지 않았기때문에 모음 [ㅣ]나 반모음 [i̯]앞에서는 [ㄹ]가 발음되지 않았다.

력사발전과정에 발음토대의 변화로 하여 말머리에서도 [ㄹ]를 발음할수 있게 되였으며 이것을 반영하여 광복후에는 말머리에서 [ㄹ]로 발음하는것을 규범화하였다.

조선어의 혀옆소리는 단어의 끝위치, 자음앞에서만 나타난다.

○ 단어의 끝위치

태양절, 자갈, 길, 말, 록화물, 개울

○ 자음앞

결코, 일자리, 살결, 물살, 열성, 갈다

자음 [ㄹ]가 단어의 끝위치나 자음앞에서만 혀옆소리로 되고 만약 그뒤에 모음이 오면 혀옆소리는 튀김소리로 되고만다.

이와 같이 혀옆소리는 위치적조건의 제약을 받으며 그것으로 하여 튀김소리의 변종으로 된다.

다섯째로, 자음 [ㄴ], [ㄹ]가 모음 [ㅣ]나 반모음 [i̯]와 결합할 때에 입천장소리로 되는 변종이다.

입천장소리되기라 할 때 모음 [ㅣ]나 반모음 [i̯]앞에 오는 자음이 울리따르기에 의하여 [ㅣ]의 경우와 근사하게 혀앞바닥이 앞천장을 향해 올라가는 보충적조음이 동반하는것을 말한다.

[ㄴ], [ㄹ]가 입천장소리로 되는것은 말가운데서 그뒤에 모음 [ㅣ, ㅑ, ㅕ, ㅛ, ㅠ, ㅒ, ㅖ] 등의 소리가 계속될 경우인바 그것은 모음 [ㅣ]와 반모음 [i̯]의 영향에 의한것이다. 본래 자음 [ㄴ], [ㄹ]는 혀앞소리이다. 자음 [ㄹ]는 혀끝이 웃이와 이몸에 닿았다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이고 자음 [ㄹ]는 혀끝이 입천장을 한번 튀겨내는 소리이다.

이 자음들이 모음 [ㅣ]나 반모음 [i̯]와 결합되여 발음될 때 혀

앞바닥이 입천장을 향해 올라가서 발음된다. 즉 [n]가 [ŋ]로, [r]가 [λ]로 발음된다.

이상과 같이 조선어음운의 변종을 다섯가지로 갈라 고찰하였다.

음운의 변종을 론함에 있어서 일부 학자들은 기본변종과 기본이 아닌 변종으로 가르고있다.

기본변종은 다른 말소리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나타나는 변종을 말하며 기본이 아닌 변종은 이웃에 있는 다른 말소리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비구별적표식을 가진것으로 특징지어지는 변종이라는것이다.

기본변종은 그 어떤 외적영향도 받지 않은 음운의 원실현체, 순수실현체이며 다른 모든 변종이 생겨나는 출발점으로 되고 기초로 되는 변종이다.

기본이 아닌 변종들은 외적영향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입어서 생기는 변종이며 따라서 음운의 원래 면모를 특징지을수도 없고 말소리발음의 토대를 이룰수도 없다는것이다.

※ 《어음 및 글자론》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주체65(1976)년, 145페지

여기서 이야기되는 기본변종과 기본이 아닌 변종은 물론 다른 말소리의 영향을 받아서 생기는 변종인가 그자체에 체현하고있는 변종인가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변종은 구별적표식을 바꾸지 않고 비구별적표식만을 바꾼다는 측면에서 고찰하여볼 때 그것을 두개 종류로 갈라야 할 타당성은 없다. 조선어에 음운으로서의 유성음이 없다는 측면에서 무성음은 막소리의 변종이며 이러한 현상은 조선어자음 어느 하나만이 아니라 순한소리 전반에 관통되고있다.

무성음이라는 변종은 결합적과정에서 나타나는 변종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다른 변종과 차이난다.

자음의 변종 유성음이나 《된소리》는 어디까지나 말소리들의 결합속에서만 나타난다. 즉 모음과 모음사이, 울림자음과 모음사

이에서만 유성음이 나타나며 막힘소리뒤에 있는 순한소리가 《된소리》로 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말소리들의 결합속에서만 나타난다.

그러나 무성음은 다른 말소리와의 결합과는 관계없이 표현된다. 막소리가 말머리에 나타난다든가 막힘소리뒤에 나타나면 그것은 무성음이다. 더우기 말머리에 나타난다는 그자체가 벌써 무성음이 결합적조건과는 관계없다는것을 보여준다.

필자는 여기서 기본변종과 기본이 아닌 변종을 가르지 않고 통털어 변종이라는 넓은 개념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제2절. 조선어음운의 실현

1. 조선어음운의 실현위치

음운은 단어와 형태부를 이루고 다른 음운과의 련계속에서 일정한 위치적조건에 놓이게 되는데 이때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음운이 그대로 실현되기도 하고 일부 구별적표식이 달라져 다른 음운으로 변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음운이 자기의 구별적표식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실현되는 위치를 강한자리라고 하고 놓인 환경과 조건에 의하여 음운이 그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위치를 약한자리라고 한다.

여기서 언급하여야 할것은 강한자리에 놓여있는 음운이라고 해서 아무 변종도 없이 그대로 실현되는것은 결코 아니라는것이다. 이때 나타나는 변종은 음운의 기본표식을 다치지 않을뿐 항상 동반된다.

조선어자음에서 강한자리는 말머리이다. 이 위치에서 조선어자음은 자기의 구별적표식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실현된다. 이때 비구별적표식인 무성음의 표식이 나타난다. 그러나 구별적표식이 변하지 않는 한 음운은 자기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한다.

※ 조선어모음은 그것이 놓이는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음운으로서의 소리값이 그대로 실현된다. 일부 경우에 모음의 무성화 현상이 있는 경우에조차도 그의 구별적표식은 그대로 보존되며 실현된다.

음운이 놓인 조건과 환경에 따라 일부 구별적표식이 변하여 그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위치를 약한자리라고 한다.

자음에 있어서는 다른 자음의 앞뒤, 단어의 끝이 약한자리이다.

○ 다른 자음의 앞

국물[궁물], 식료[싱료→싱뇨], 밥물[밤물], 천리마[철리마]

○ 다른 자음의 뒤

먹다[먹따], 곱다[곱따], 학교[학꾜], 강가[강까]

○ 단어의 끝

남녘[남녁], 낮[낟], 꽃[꼳], 버섯[버섣]

약한자리에서는 음운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여 다른 음운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말하여 음운이 자기의 구별적표식을 바꾸거나 발음되지 않게 된다.

조선어자음앞에 있는 자음은 다른 말소리로 바뀌거나 막힘소리로 되여 중성화되며 다른 자음뒤에 있는 자음은 된소리로 되거나 일부 구별적표식이 바뀌여진다.《곱다》,《학교》같은 단어에서의 막힘소리뒤에 [ㄷ], [ㄱ]는 [ㄸ], [ㄲ]로 변하고《별나라》,《달나라》에서의 [ㄴ]는 [ㄹ]로 변한다. 단어의 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형태적으로는 여러개의 받침이 놓이지만 자음에서는 [ㅂ], [ㄷ], [ㄱ], [ㅁ], [ㄴ], [ㅇ], [ㄹ]로 나타난다. 결과 단어의 형태와는 관계없이 단어의 끝에서는 이 7개의 음운으로 나타난다.

형태론적으로는 끝자음 [ㅈ], [ㅊ], [ㄷ], [ㅌ], [ㅅ], [ㅆ]로 나타나지만 음운론적으로는 하나의 자음 [ㄷ]로만 실현된다.

언어에서의 강한자리와 약한자리는 언어마다 다르며 자기의 일정한 특성을 가진다.

례컨대 로어자음에서도 말끝이나 유성음앞위치는 약한자리이고

나머지 위치는 강한자리이다.

《друг》, 《мог》에서의 [г]는 [k]로서 발음되며 《сдавать》, 《сдвиг》에서의 [с]는 유성음 [д]의 영향에 의하여 [з]로 발음된다.

어말에 있는 [г]가 [k]로 변하였을 때 이 [k]는 [г]와 [k]를 다 나타내는 《혼합음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k]는 [г]의 변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 최근 로씨야학자들은 강한자리에 있는 음운을 《강한음운》, 약한자리에 있는 음운을 《약한음운》이라고 명명하고있다.

조선어에서는 막소리인 경우에 어말끝소리가 막힘소리로 되여 음운의 중성화현상으로 나타나나 로어에서는 말끝에 있는 유성음이 무성음으로 된다.

이와 같이 음운이 자기의 본질적특성을 충분히 나타낼수 있는 위치와 그렇지 못한 위치는 언어마다 다르다.

강한자리가 음운의 구별적표식이 충분히 나타날수 있는 위치인것으로 하여 해당 언어의 음운의 수는 강한자리에 의하여 규정된다.

2. 조선어음운의 실현형태

음운은 구체적인 말소리로서 실현되는데 이때 음운의 질적인 변동을 가져오는것과 가져오지 않는것으로 갈라볼수 있다. 음운의 질적인 변동을 가져온다는것은 음운의 구별적표식의 변화를 가져와 다른 음운으로 바뀐다는것을 의미하며 질적인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는것은 음운의 실현에서 비구별적인 표식의 변화를 가져오지만 구별적인 표식에서는 변화가 없다는것을 의미한다. 음운의 변종은 음운의 실현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변종에서는 비구별적인 표식에서만 변화를 가져오며 구별적표식은 그대로 남아있다. 음운의 변종도 음운의 실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조선어음운의 변종문제를 앞에서 따로 언급하였기때문에 여기서는 음운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음운의 실현현상만을 취급하기로 한다.

1) 음운의 교체

음운의 교체는 음운이 실현되는 과정에 그의 구별적표식이 바뀌여져 다른 음운으로 변하는 현상이다.

음운교체현상에서는 닮기, 따르기, 중성화를 들수가 있다.

① 닮기

닮기란 같은 종류의 말소리 즉 모음과 모음, 자음과 자음의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영향을 주거나 혹은 서로 영향을 주어 서로 다른 두개의 음운이 완전히 닮거나 부분적으로 닮아지는 음운변화현상이다.

닮기는 모음들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자음들사이에서도 일어나는데 질이 서로 다른 즉 모음과 자음사이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모음과 자음사이에서 부분적인 닮기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닮기라고 하지 않고 따르기라고 한다.

— 모음에서의 닮기현상

모음의 닮기현상에서는

첫째로, 변모음화(앞모음화)현상을 들수 있다.

변모음화현상이란 뒤모음이 그 뒤마디에 있는 모음 [ㅣ]나 반모음 [i̯]의 영향을 받아 앞모음으로 되는 닮기현상이다. 즉 뒤모음 [ㅏ], [ㅓ], [ㅗ], [ㅜ]가 그뒤에 오는 모음 [ㅣ], [ㅑ], [ㅕ], [ㅛ], [ㅠ]의 영향으로 각각 [ㅐ], [ㅔ], [ㅚ], [ㅟ]로 된다.

례컨대 일반어에서 《구렁이》, 《엉덩이》가 《구렝이》, 《엉뎅이》와 같이 되며 고장이름에서 《소여울》, 《말여울》이 《쇠여울》, 《말여울→매루월》과 같이 되는 음운변화현상이다.

물론 모음 [ㅣ]와 반모음 [i̯]앞에 뒤모음이 있다고 하여 그것이 다 변모음화되는것은 결코 아니다. 자음에서 혀앞소리가 끼여있을 때에는 극히 제한된 단어에서만 변모음화현상이 일어나고 나머지단어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 변모음화되는것

보자기→보재기, 잠꾸러기→잠꾸레기, 갑자기→갑째기,
골짜기→골째기

○ 변모음화되지 않는것
마시다, 작식, 아직, 오직, 서리, 호리, 부리, 쌓이다, 후치질, 소리, 가지, 꾸짖다

모음과 모음사이에 두개의 자음이 끼여있을 때에는 변모음화현상이 극히 제한되여 일어난다.

즉 《앉히다→[앤치다]》, 《만지다→[맨지다]》, 《간막이→[간맥이]》와 같은 단어에서만 일어나고 대부분의 단어에서는 변모음화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변모음화는 뒤모음이 어떤 모음인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뒤모음 [ㅏ], [ㅓ]가 [ㅐ], [ㅔ]로 변하는 현상이 비교적 많은 반면에 [ㅗ], [ㅜ]는 변모음화되는 현상이 적다. 《고기→괴기》, 《주둥이→주뒹이》, 《누비다→뉘비다》 같은 단어들이 있으나 대다수의 단어에서는 [ㅗ], [ㅜ]가 [ㅚ], [ㅟ]로 되지 않는다.

조선어에서 모음 [ㅚ], [ㅟ]는 앞모음이면서 둥근모음인 까닭에 이 모음을 발음하기가 좀 힘든데도 있고 이 모음들의 변모음화의 력사가 짧은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아진다.

모음의 닮기현상에서는 둘째로, 한 단어안에서 어떤 모음이 다른 모음에 닮아 꼭 같은 모음으로 되는 현상을 들수가 있다.

여기서는 우선 모음 [ㅜ]가 [ㅡ]를 닮는다든가 [ㅡ]가 [ㅜ]를 닮아서 꼭같이 되는 현상이다.

[ㅜ]가 앞에 있는 모음 [ㅡ]를 닮아서 [ㅡㅡ]가 된다.

○ 그물→그믈, 느물느물→느믈느믈, 드문히→드믄히, 등불→등블

[ㅡ]가 앞에 있는 [ㅜ]를 닮아서 [ㅜ ㅜ]가 된다.

○ 구급과→구굽과, 구들→구둘, 구름→구룸, 구슬→구술, 국그릇→국구릇, 누르다→누루다, 수그리다→수구리다

다음으로 [ㅡ]가 앞에 있는 모음 [ㅗ] 또는 [ㅏ]를 닮는 현상이다.

○ 소금→소곰, 오금→오곰, 조금→조곰, 사흘→사할, 나흘→나할

모음닮기는 모음 [ㅡ]가 그 바로 앞에 모음 [ㅜ]를 가지고있을

때에만 [ㅜ]로 넘어간다.

그밖의 경우에는 닮을수도 있고 안 닮을수도 있다. 모음닮기는 [ㅜ]와 [ㅡ], [ㅗ]와 [ㅡ], [ㅏ]와 [ㅡ]사이에서 같은 모음으로 변하는 어음론적인 현상으로서 표준발음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 자음에서의 닮기현상

조선어는 자음에서의 닮기현상이 아주 발달된 언어의 하나이다.

특히 조선어자음에서는 울림자음이 그앞에 있는 막소리에 영향을 주어 그것이 울림자음으로 되게 하는것이 특징이다. 비록 조선어에 울림자음이 네개밖에 없지만 많은 막소리가 닮아 울림자음으로 됨으로써 단어발음이 류창하고 부드럽게 된다.

조선어의 울림자음닮기에서 닮기가 진행되는 방향, 정도, 거리에 따라 몇가지 종류로 갈라진다.

㉠ 닮기가 진행되는 방향에 따라서 내리닮기, 올리닮기, 서로닮기로 나누어볼수 있다.

내리닮기는 앞에 있는 말소리가 뒤에 있는 말소리에 영향을주어 그와 동일하게 되거나 비슷하게 되는 현상이다.

○ 달나라[→달라라], 승리[→승니], 음료수[→음뇨수],
별님[→별림]

올리닮기는 뒤에 있는 말소리가 앞에 있는 말소리에 영향을 주어 같아지거나 비슷한 소리로 되게 하는 현상이다. 조선어에는 올리닮기현상이 매우 발달되여있다.

○ 박는다[→방는다], 국물[→궁물], 혁명[→형명],
묶는다[→뭉는다], 십년[→심년], 싣는다[→신는다]

내리닮기에서는 같은 부류의 말소리들인 울림자음과 울림자음사이에서의 닮기현상이라면 올리닮기에서는 막소리와 울림자음사이에서 일어나는 닮기현상으로서 뒤에 있는 울림자음이 앞에 있는 막소리에 영향을 주어 울림자음으로 되게 한다는데 중요한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막힘소리로 나타나는 막소리를 터침소리인 울림자음으로 되게 함으로써 발음을 유순하고 아름답게 하여준다.

서로닮기는 린접하여있는 말소리가 서로 영향을 주어 같아지거나 비슷하게 되는 닮기이다.

서로닮기에서 닮기가 진행되는 순서에서는 먼저 뒤에 있는 말소리가 앞에 있는 말소리에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은 앞의 말소리는 다시 뒤에 있는 말소리에 영향을 주어 진행되는 닮기이다.

○ 속력[→송력→송녁], 십리[→심리→심니],
폭력[→퐁력→퐁녁], 법률[→범률→범뉼]

《폭력》에서 먼저 뒤에 있는 말소리 [ㄹ]의 영향을 입어 막힘소리 [ㄱ]가 같은 발음위치의 말소리인 [ㅇ]로 변하고 이어서 앞에 있는 [ㅇ]의 영향을 입어 뒤에 있는 [ㄹ]가 [ㄴ]로 변한다. 결과 단어 《폭력》은 《퐁녁》으로 닮게 된다.

이 모든 닮기현상들은 모두 음운의 구별적표식의 일부를 바꾸는 음운론적현상으로서 한 음운을 다른 음운으로 되게 한다.

㉡ 닮기가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 완전닮기와 부분닮기로 갈라진다.

닮기의 결과로써 린접해있는 두개 말소리가 완전히 같아질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같아질수도 있다.

완전닮기는 두개 말소리가 닮아 완전히 같아지는 닮기현상이다.

○ 첫눈[→천눈] (ㄴ—ㄴ)
밥물[→밤물], 밥먹다[→밤먹따] (ㅁ—ㅁ)
달나라[→달라라], 별님[→별림] (ㄹ—ㄹ)

보는바와 같이 앞에 있는 말소리 [ㄹ], [ㅅ], [ㅂ] 등이 뒤에 놓인 [ㄴ], [ㅁ], [ㄹ]의 영향을 받아서 그와 꼭 같은 말소리로 변하였다.

완전닮기에서는 울림자음과 울림자음, 막소리와 울림자음들의 접촉에서 생기는데 닮기의 결과는 같은 울림자음으로 변하게 된다.

부분닮기는 두개 말소리가 완전히 같아지는것이 아니라 한 음운의 일부 표식만이 변하여 서로 비슷해지는 닮기이다.

○ 학문[→항문], 젖먹이[→전머기], 승리[→승니]

여기에서는 앞에 있는 말소리가 뒤에 영향을 주어 부분적으로 변하게 할수도 있고 뒤에 있는 말소리가 앞에 있는 말소리에 영향

을 주어 부분적으로 변하게 할수도 있다.

《학문》에서는 뒤에 있는 [ㅁ]가 앞에 있는 [ㄱ]에 영향을 주어 《항문》으로 되게 함으로써 순한소리의 표식을 울림소리의 표식으로 바꾸게 하였으며 《승리》는 앞에 있는 말소리 [ㅇ]가 뒤에 있는 [ㄹ]에 영향을 주어 튀김소리의 표식을 혀앞터침소리표식으로 바꾸게 하였다.

자음에서의 닮기는 발음위치의 공통성에 기초한 닮기로서 자음에서는 울림소리와 울림소리, 막소리와 울림소리사이에 일어나는 닮기현상이다.

자음 《ㅂ》, 《ㅍ》는 같은 위치에서 발음되는 울림자음 [ㅁ]로 닮는다.

○ 갑문[→감문], 집마을[→짐마을], 사립문[→사림문],
 엎문[→염문], 덮는다[→덤는다]

[ㅂ]가 [ㅁ]로 바뀌여짐으로써 순한소리표식이 울림소리표식으로 변하였으며 [ㅍ]가 [ㅁ]로 바뀌여짐으로써 거센소리표식이 울림소리표식으로 변하였다.

자음《ㄷ, ㅌ, ㅅ, ㅆ, ㅈ, ㅊ》는 같은 발음위치에서 발음되는 울림자음 [ㄴ]로 닮는다.

○ 받는다[→반는다], 맏누이[→만누이], 묻는다[→문는다],
 끝맺다[→끈맫따], 붙는다[→분는다], 곁눈질[→견눈질],
 봇나무[→본나무], 첫물[→천물], 갓마흔[→간마흔],
 있느냐[→인느냐], 가겠니[→가겐니], 보았나[→보안나],
 젖는다[→전는다], 낮말[→난말], 빚물다[→빈물다],
 빛나다[→빈나다], 꽃망울[→꼰망울], 몇날[→면날]

여기서 전반적으로 보면 막소리의 표식이 없어지고 울림소리의 표식이 바뀌여진것이다.

없어진 표식	바뀌여진 표식
[ㄷ] 순한소리	울림소리
[ㅌ] 거센소리	울림소리
[ㅅ] 순한소리, 스침소리	울림소리, 터침소리
[ㅆ] 된소리, 스침소리	울림소리, 터침소리

[ㅈ]	순한소리, 터스침소리	울림소리, 터침소리
[ㅊ]	거센소리, 터스침소리	울림소리, 터침소리

자음 《ㄱ, ㄲ, ㅋ》는 같은 발음위치에서 발음되는 울림자음 [ㅇ]로 닮는다.

○ 작년[→장년], 국물[→궁물], 다락논[→다랑논],
깎는다[→깡는다], 닦는다[→당는다], 볶는다[→봉는다],
부엌문[→부엉문]

	없어진 표식	바뀌여진 표식
[ㄱ]	순한소리	울림소리
[ㄲ]	된소리	울림소리
[ㅋ]	거센소리	울림소리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ㅂ, ㅍ》는 [ㅁ]로, 《ㄷ, ㅌ, ㅅ, ㅆ, ㅈ, ㅊ》는 [ㄴ]로, 《ㄱ, ㄲ, ㅋ》는 [ㅇ]로 닮았는데 막힘소리가 모두 울림소리로 변한것이다.

조선어에는 막힘소리가 [ㅂ], [ㄷ], [ㄱ]뿐이다. 나머지 《ㅍ, ㅌ, ㅅ, ㅆ, ㅉ, ㅈ, ㅊ, ㄲ, ㅋ》는 막힘소리로 되였다가 그것이 울림소리로 닮은것이다.

즉 [ㅍ]→[ㅂ]→[ㅁ]
[ㅌ, ㅅ, ㅆ, ㅈ, ㅊ]→[ㄷ]→[ㄴ]
[ㄲ, ㅋ]→[ㄱ]→[ㅇ]로 변한것이다.

[ㅂ]→[ㅁ], [ㄷ]→[ㄴ], [ㄱ]→[ㅇ]의 닮기가 직접적인 닮기라면 [ㅍ]→[ㅁ], [ㅌ, ㅅ, ㅆ, ㅈ, ㅊ]→[ㄴ], [ㄲ, ㅋ]→[ㅇ]의 닮기는 삼자를 거쳐서 진행되는 닮기 즉 간접적인 닮기라고 말할수 있다.

이 닮기에서 특징적인것은 모두 올리닮기라는것이다. 뒤에 있는 울림자음이 앞에 있는 막힘소리에 영향을 주어 울림자음으로 되게 한다.

그러나 울림자음과 울림자음사이에서의 닮기는 내리닮기와 서로닮기가 다 진행되는 닮기이다.

○ 내리닮기

달님[→달림](ㄹ; ㄴ→ㄹ; ㄹ), 일년[→일련](ㄹ; ㄴ→ㄹ; ㄹ)

릉라도[→능나도](ㅇ;ㄹ→ㅇ;ㄴ), 음료수[→음뇨수](ㅁ;ㄹ→ㅁ;ㄴ)

올리닮기

천리마[→철리마](ㄴ;ㄹ→ㄹ;ㄹ)

난리[→날리](ㄴ;ㄹ→ㄹ;ㄹ)

서로닮기

곤난[→골란](ㄴ;ㄴ→ㄹ;ㄹ)

한나산[→할라산](ㄴ;ㄴ→ㄹ;ㄹ)

조선어자음의 닮기현상은 일련의 특징을 가진다.

첫째로, 뒤에 있는 말소리가 그앞에 있는 말소리에 영향을 주어 자기와 같은 말소리로 되게 하든가 비슷한 말소리로 되게 하는 것이 기본이다.

조선어에 내리닮기, 서로닮기현상도 있지만 압도적다수는 올리닮기이며 이것이 기본으로 되고있다.

언어에 따라 내리닮기가 기본일수도 있고 올리닮기가 기본일수도 있으나 조선어에서는 뒤에 있는 말소리의 시작이 앞에 있는 말소리의 끝에 영향을 미치여 닮기를 일으키게 한다는데 중요한 특징이 있다.

둘째로, 울림자음이 막소리에 영향을 주어 그것을 완전히 울림자음으로 되게 함으로써 단어발음의 류창성을 보장하여준다.

적지 않은 다른 나라의 말들에서 일어나는 닮기는 유성음이 무성음에 영향을 주어 그것을 유성음으로 되게 하거나 반대로 되게 하며 울림자음이 무성음에 영향을 주어 유성음으로 되게 한다.

이런 언어들에서는 울림자음이 무성음에 영향을 주어 울림자음으로 되게 하는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우리 말에서는 울림자음이 막소리에 영향을 주어 모두 울림자음으로 되게 하는것이 특징으로 되고있다.

② 따르기

닮기는 모음과 모음, 자음과 자음 등 같은 종류의 음운들사이에서 일어나는 닮기현상이지만 따르기는 모음과 자음사이에서 일어

나는 따르기현상이다. 따르기는 자음이 모음에 영향을 주거나 모음이 자음에 영향을 주어 그와 가까운 말소리로 되게 한다.

따르기에 의하여 서로 다른 종류의 말소리이지만 발음위치나 음향학적성질에서 서로 가까운 말소리로 된다.

다른 종류의 말소리들이 서로 가까워지기때문에 완전히 같은 말소리로 될수는 없다.

닮기에서는 같은 종류의 말소리들사이에서 영향을 주고받기때문에 두 음운사이에서의 상관적표식의 공통성과 차이성문제가 제기되지만 따르기에서는 성질이 다른 음운들사이에서의 류사성문제이기때문에 그런것이 전혀 제기되지 않으며 제기될수조차 없다. 여기서는 다만 물리음향학적으로나 조음생리적으로 그 어떤 특성에서 가까워지는 현상만이 나타난다. 자음과 모음은 서로 다른 류형의 말소리인것으로 하여 음운의 상관적표식이 전혀 다르며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르기는 모음이 자음에 따르기도 하고 자음이 모음에 따르기도 한다.

우선 모음이 자음에 따르는 경우를 보기로 하자.

모음이 자음에 따르는 경우에 조선어에서는 모음 [ㅡ]가 터스침소리나 스침소리에 따라 [ㅣ]로 넘어간다. 우리 말에서 터스침소리 [ㅈ, ㅉ, ㅊ]나 스침소리 [ㅅ, ㅆ]는 모두 혀앞소리이다. 모음 [ㅡ]가 혀앞소리자음과 결합되면서 그에 가까운 모음 [ㅣ]로 넘어가는것이다.

례컨대 《마즈막》에서 "모음 [ㅡ]는 혀앞터스침소리 [ㅈ]의 영향으로 [ㅣ]로 넘어가 [마지막]으로 되였다. 혀앞소리자음의 영향에 의한 모음 [ㅡ]의 [ㅣ]로의 전환은 일정한 력사적시기에 일어난 따르기현상으로서 오늘날에는 이러한 따르기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지난 기간 이런 따르기현상에 의하여 형태부까지 고정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즈음→이지음, 버즘→버짐, 부즈런히→부지런히, 즐다→질다,
마츰→마침, 아츰→아침, 츩→칡, 승겁다→싱겁다,
승갱이→싱갱이

이런 따르기현상이 우리 말의 어휘구성의 총량에서 볼 때 극히 적은 량이며 현재상태에서 더 늘어나지 않고있다.

자음과 모음의 결합상태에서 우와 같은 현상이지만 《사슴》, 《쓰다》, 《갈증》, 《충막》 같은 단어들에서는 [ㅡ]가 [ㅣ]로 바꾸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오늘날에 와서 이런 따르기가 더이상 생기지 않는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조선어에서 모음이 자음에 따르는 현상의 또 하나는 모음 [ㅡ]의 앞이나 뒤에 입술자음이 오는 경우에 [ㅡ]가 [ㅜ]로 발음되는것이다.

조선어에 입술자음으로는 [ㅁ], [ㅂ], [ㅃ], [ㅍ]가 있는데 이 자음들이 모음 [ㅡ]의 앞에 놓일수도 있고 뒤에 놓일수도 있으며 모음 [ㅡ]를 사이에 두고 앞뒤에 동시에 놓일수도 있다. 입술자음이 모음 [ㅡ]의 앞에 놓였을 때는 내리따르기가 진행된다.

○ 바쁘다→바뿌다, 기쁘다→기뿌다
헤프다→헤푸다, 고프다→고푸다

입술자음뒤에 [ㅡ]가 있을 때는 항상 올리따르기가 진행되며 이 따르기는 하나의 소리마디안에서 진행된다.

○ 음달→움달, 듬직하다→둠직하다
음악→움악, 급하다→굽하다

이때는 모음 [ㅡ]가 그뒤에 있는 입술자음의 올리작용에 의해 [ㅡ]가 [ㅜ]로 발음된다.

조선어따르기에는 내리따르기와 올리따르기밖에 내림과 올림이 합쳐 이루어지는 따르기가 있다.

○ 기쁨→기뿜, 슬픔→슬품, 가믐→가뭄

입술자음들사이에 놓인 모음 [ㅡ]는 앞뒤에 놓인 자음의 동시적인 영향으로 [ㅜ]로 발음되게 된다.

그러면 왜 모음 [ㅡ]를 중심으로 하여 [ㅣ]로 되거나 [ㅜ]로 되는 따르기현상이 일어나는가?

첫째로, 발음생리적으로 모음 [ㅣ, ㅜ]와 자음의 류사성에 있다.

혀앞소리 [ㅅ, ㅆ, ㅈ, ㅊ]는 발음에서의 [ㅣ]와 류사성을 가

지며 입술자음 [ㅁ, ㅂ, ㅃ, ㅍ]는 모음 [ㅜ]와 류사성을 가진다. 이러한 사정으로 하여 혀앞소리 [ㅅ, ㅆ, ㅈ, ㅊ]와 모음 [ㅡ]가 결합될 때에는 앞모음 [ㅣ]로 되고 입술자음 [ㅁ, ㅂ, ㅃ, ㅍ]와 모음 [ㅡ]가 결합될 때에는 뒤모음 [ㅜ]로 된다. 모음 [ㅡ]가 [ㅣ]로 되는것은 일정한 력사적시기에 일부 단어에 국한하여 진행된 따르기현상이였지만 모음 [ㅡ]가 [ㅜ]로 되는것은 오늘날에도 그러한 말소리결합적조건이 마련되면 따르기현상이 일어난다.

둘째로, 모음 [ㅡ]와 [ㅜ]의 조음점의 린접성과 관련된다.

모음 [ㅡ]와 [ㅜ]는 모두 뒤모음이면서 조음점이 매우 가까이 린접해있다.

※ 모음 [ㅡ]를 가운데모음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만약 [ㅡ]를 가운데모음이라고 한다면 [ㅡ]는 앞모음-뒤모음의 상관관계가 없는 고립된 모음으로 되고만다. 앞모음과 뒤모음의 상관관계를 고려한다면 응당히 모음 [ㅡ]는 [ㅣ]와 상관관계를 가지는 뒤모음으로 처리하여야 할것이다.

모음 [ㅣ]와 [ㅜ]의 조음점을 직선상에서 본다면 삼분의 일거리만큼 [ㅡ]가 [ㅜ]에 접근해있다. 그렇기때문에 모음 [ㅡ]는 쉽게 [ㅜ]로 넘어가게 된다. 더우기나 모음 [ㅡ]와 [ㅜ]가 높낮이관계가 아니라 수평관계에 놓여있기때문에 혀높이가 같은 상태에서 수월하게 발음이 진행된다.

이러한 원인으로 하여 [ㅡ]가 [ㅣ]로 또는 [ㅜ]로 넘어가게 된다.

오늘날 이러한 따르기현상으로 나타나는 발음을 표준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자음이 모음에 적응되는 경우를 보자.

자음이 모음에 적응되는 현상을 입천장소리되기현상이라고 한다.

입천장소리되기는 혀앞터침소리나 혀뒤터침소리가 그뒤에 있는 모음 [ㅣ]와 반모음 [i̯]의 영향으로 터스침소리 또는 스침소리로 넘어가는 음운변화현상이다. 입천장소리되기현상은 앞천장소리되기

와 뒤천장소리되기로 갈라볼수 있다.

앞천장소리되기는 혀앞터침소리 [ㄷ], [ㅌ]가 앞모음 [ㅣ]와 반모음 [i̯]의 영향에 의하여 혀앞소리인 터스침소리 [ㅈ], [ㅊ]로 되는 현상이다. 혀앞터침소리인 [ㄷ], [ㅌ]는 혀앞등이 이몸과 입천장에 가닿아서 나는 소리이지만 [ㅈ], [ㅊ] 등은 입천장에만 가닿아서 나는 소리이다.

앞천장소리되기에 의하여 혀앞터침소리 [ㄷ], [ㅌ]는 터스침소리 [ㅈ], [ㅊ]로 된다.

○ [ㄷ]→[ㅊ]

갈이 [가치], 발이[바치], 붙여라[부쳐라]

[ㄷㅁㅎ]→[ㅊ]

묻히다[무티다→무치다], 닫히다[다티다→다치다]

뒤천장소리되기로 될 때에 [ㄱ], [ㅋ]는 [ㅈ], [ㅊ]로 되고 [ㅎ]는 [ㅅ]로 된다.

○ 길[→질], 기름[→지름], 키[→치], 형님[→성님]

앞천장소리되기는 그 이상 더 늘어나지 않는 변화과정이며 이것은 일정한 시기에 일어나고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오늘 문화어표준발음으로 인정되고있다.

앞천장소리되기현상이 일정한 력사적시기에만 일어나고 더 일어나지 않는다는 증거로는 그 이후 생겨난 단어들이 앞천장소리가 되지 않는것을 보고도 잘 알수 있다.

례컨대 [ㄷ], [ㅌ]가 모음 [ㅣ]와 결합되더라도 《디디다》, 《버티다》, 《견디다》, 《티끌》, 《느티나무》와 같은 단어에서는 [ㅈ], [ㅊ]로 되지 않는다.

만일 오늘날도 앞천장소리되기가 계속 일어나는 음운변화현상이라면 응당히 《디디다》, 《버티다》도 [지지다], [버치다]로 되여야 할것이나 그렇게 되지 않고있다. 그것은 이 변화현상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는것을 실증하여주고있다.

그런데 서북방언에서는 앞천장소리되기가 진행되지 않고 옛 형태를 그냥 보존하고있는것을 볼수 있다.

례컨대 《천지》, 《가치》를 《텬디》, 《가티》라고 발음하는 현상을,

찾아볼수 있다.

그러나 뒤천장소리되기는 이와 사정이 다르다.

이 변화가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앞천장소리되기와 같으나 뒤천장소리되기현상은 일정한 지역 즉 우리 나라 동북지방에서만 일어나는 음운변화현상으로서 오늘날 이것은 문화어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입천장소리되기현상이 우리 나라 말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음운변화현상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③ 음운의 중성화

음운의 중성화란 위치적조건과 환경에 따라 음운이 자기의 의미구별적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음운이 약한 위치에 놓이여 자기의 구별적기능을 놀지 못하고 중성화되였다가 강한 위치에 와서야 자기의 음운론적기능을 수행하는것을 말한다.

조선어에서 끝소리로 나타나는 막소리는 [ㅂ], [ㄷ], [ㄱ]밖에 없다.

비록 조선어의 첫소리로는 막소리 18개가 있어서 자기의 의미구별적기능을 수행하지만 끝소리에서는 [ㅂ], [ㄷ], [ㄱ]로서 중성화되고만다.

례컨대 입술터침소리 [ㅂ], [ㅍ]는 막힘소리 [ㅂ]로서 중성화되며 혀앞소리 [ㅌ], [ㄷ], [ㅈ], [ㅊ], [ㅅ], [ㅆ]는 막힘소리 [ㄷ]로서 중성화되며 혀뒤소리 [ㄱ], [ㄲ], [ㅋ]는 막힘소리 [ㄱ]로서 중성화된다.

왜 음운 [ㅂ], [ㄷ], [ㄱ]로 나타난다고 하지 않고 중성화된다고 말하는가?

이것은 이때 나타나는 [ㅂ], [ㄷ], [ㄱ]가 자기의 음운론적표식을 다 갖추지 못했기때문이다. 즉 막힘소리 [ㅂ], [ㄷ], [ㄱ]는 음운론적표식으로서 입술소리, 혀앞소리, 혀뒤소리라는 구별적표식만 가지고있지 다른 표식은 없다.

본래 [ㅂ], [ㄷ], [ㄱ]가 자기의 구별적표식을 다 갖추자면 발음위치를 나타내는 표식뿐만아니라 순한소리표식, 터침소리표

식이 있어야 한다. 그런 표식이 없기때문에 같은 위치에서 발음되는 거센소리, 된소리와 상관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막힘소리 [ㄷ]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혀앞소리로서는 [ㄷ], [ㅌ]뿐만아니라 혀스침소리 [ㅈ], [ㅊ], 스침소리 [ㅅ], [ㅆ]를 막힘소리 [ㄷ]가 대표한다. 막힘소리 [ㄷ]는 음운론적표식에서 혀스침소리 [ㅈ], [ㅊ], 스침소리 [ㅅ], [ㅆ]와 완전히 차이난다. [ㅈ], [ㅊ]는 혀바닥이 입천장에 붙었다가 슬며시 떨어지면서 내는 소리이고 [ㅅ], [ㅆ]는 혀바닥이 입천장에 붙지 않은 상태에서 혀바닥과 입천장사이에서 날숨이 스쳐내는 소리이다. 그런데 막힘소리 [ㄷ]는 혀바닥이 입천장에 올라붙어 날숨이 막히고만다. 즉 발음의 시작과 지속단계만이 있고 마감단계는 없다.

발음의 3단계인 터침이 없기때문에 [ㄷ]는 혀스침소리, 스침소리와 음운론적인 상관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막힘소리 [ㄷ]가 [ㅌ]와는 일정한 공통성이 있지만 [ㅈ], [ㅊ], [ㅅ], [ㅆ]와는 공통성이 없다. 막힘소리 [ㄷ]가 [ㅅ], [ㅆ], [ㅈ], [ㅊ]를 대표한다고 할 때 그것은 조건적인 말이지 완전한 의미에서 대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시말하여 [ㄷ]가 [ㅅ], [ㅆ]의 대표음이 되지 못하며 [ㄷ]가 [ㅈ], [ㅊ]의 대표음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끝소리에서 막힘소리로 나타나는 [ㅂ], [ㄷ], [ㄱ]는 몇개의 음운을 대표하는 혼합음운도 아니고 그자체로서 독자적인 음운을 이루지도 않는다. 이것은 오직 중성화된 소리라고 부를수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 나라 음운실현에서만 나타나는 특수한 현상이다.

음운실현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현상을 조선어에서는 끝소리법칙이라고 명명하였다.

※ 조선어에서와는 차이가 있지만 중성화와 같은 현상은 다른 언어에도 존재한다.

라틴어에서 짧은 모음 [ä]와 긴모음 [à:]의 상관관계를 추상화한 [A], 로어에서의 유성음과 무성음의 관계를 들수가 있다. 로어의 어말에 나타나는 유성음은 항상 무성으로 발음된다.

례컨대 《друг》, 《луг》는 [друк], [лук]로 발음되는것으로 하여 어말에 나타나는 [г/к]의 규정문제가 제기된다.

이것을 《대음운(Архифонема)》 또는 《혼합음운(Смешанная фонем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k]를 [г]의 변종 또는 [k]와 [г] 두개 음운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것은 음운의 중성화현상이다.

조선어울림자음은 첫소리에도 오고([ㅇ]는 제외) 끝소리에도 오지만 음운실현에서 위치적제약을 받지 않는다. 물론 조선어의 흐름소리 [ㄹ]가 첫소리에 올 때 튀김소리로 나타나다가 끝소리에서는 혀옆소리로 되는 현상은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혀옆소리는 튀김소리의 변종일따름이지 음운의 질이 변화되거나 음운이 중성화된것은 아니다. 그밖의 울림소리인 코소리 [ㄴ], [ㅁ], [ㅇ]는 첫소리에서나 끝소리에서나 자기의 소리값을 그대로 보존하고있다. 울림자음 [ㄴ], [ㅁ]가 첫소리일 때 목청떨음소리가 혀앞이나 두 입술에서 장애를 받는다. [ㅁ]는 목청이 떨어낸 소리가 소리길로 나오다가 막힌 두 입술을 터침으로 하여 생긴 말소리이고 [ㄴ]는 같은 현상인데 혀의 앞부위가 입천장에 닿았다가 떨어지면서 내는 말소리이다.

울림자음 [ㄴ], [ㅁ]가 끝소리일 때의 발음은 첫소리에 놓일 때와 같으나 다만 혀앞이나 두 입술이 닫히여 입안의 발음통로가 막힐뿐이다.

그러나 막힘소리 [ㅂ], [ㄷ], [ㄱ]와는 달리 입안통로는 막히였으나 목청떨음소리가 코길을 통하여 나가기때문에 완전한 소리의 막힘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첫소리때의 소리의 본질은 그대로 보존하는것이 특징이다.

끝소리에만 나타나는 코소리 [ㅇ]도 마찬가지이다. 발음할 때 혀뒤부위가 뒤천장에 올라붙어 입안발음통로는 막히였으나 그 소리가 코길을 통하여 실현된다. 따라서 울림자음 [ㄴ], [ㅁ], [ㅇ], [ㄹ]는 발음에서 비록 입안통로가 막히였으나(끝소리에서 [ㄹ]는 혀옆으로 날숨이 빠져나간다.) 다른 통로에 의하여 날숨이 빠져나

가기때문에 이 소리를 밀페통과음이라고 하며 음운의 중성화현상이 생기지 않는다.

울림자음은 그것이 첫소리위치에 오건([ㅇ]는 제외) 끝소리위치에 오건 관계없이 자기의 소리값을 그대로 보존한다.

조선어에서의 중성화현상은 막소리가 단어끝에 오거나 막소리의 앞에 놓일 때 생긴다.

2) 음운의 첨가

음운의 첨가란 합친말에서 형태부와 형태부사이에 어떤 새로운 음운이 끼여들어가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어에서 반드시 두개 형태부로 이루어진 합친말에서만 일어나며 단순단어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합친말의 형태부들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어음론적현상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기간에 간행된 어음론책들에서는 《어음의 첨가》, 《소리끼우기》라고 하였는데 여기에는 일련의 문제점들이 있다.

그 하나가 바로 력사적으로 없어졌다가 본래형태로 되살아난것을 음운의 첨가라고 하는것이다.

※ 《조선어문법(1)》 과학원출판사, 주체49(1960)년, 63페지에서는 《어음의 첨가》라고 했고 《어음 및 문자론》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주체65(1976)년, 185페지에서는 《소리끼우기》라고 하였다.

엄밀히 말하여 이런 현상은 음운의 첨가가 아니다. 음운의 첨가에서는 형태부들사이에서 불가피하게 다른 음운이 끼여들어가는 것인데 지난날에 있던 음운이 력사발전과정에 사라졌다가 되살아나는 현상을 음운의 첨가라고 말할수는 없다. 되살아나는것도 형태부와 형태부사이에서 반드시 그렇게 되여야 할 법칙성도 없다.

례컨대 합친말 《앞이마》, 《낯익다》, 《홑이불》에서의 《이마》, 《익다》, 《이불》의 옛 형태는 《니마》, 《닉다》, 《니불》이다. 여기에서 [ㄴ]가 사라졌다가 다른 형태부와 결합되면서 그것이 되살아난 것이다.

음운론적견지에서 보면 단어의 음운구성에 없던것이 생겨났기 때문에 음운의 첨가라고 말할수 있으나 이것은 《해님》이 《핸님》으로 되여 [ㄴ]가 완전히 첨가된것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하나는 사라졌던 음운이 되날아난것이요, 다른 하나는 형태부의 결합과정에 새로운 음운이 첨가된것이다.

조선어에서의 음운첨가현상은 [ㄷ], [ㄴ]의 첨가로서 나타난다.

먼저 [ㄷ]의 첨가현상을 보기로 하자.

두 형태부가 합하여 하나의 합친말을 이룰적에 그사이에 음운 [ㄷ]가 첨가된다. 이런 현상은 모음과 순한소리, 모음과 울림자음사이에서 생긴다.

○ 해발[핻빨], 해살[핻쌀]
쇠돌[쇧똘], 나무군[나묻꾼]

※ 지난날 단어형태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형태부와 형태부사이에 [ㅅ]를 끼워넣거나 사이표 [']로 표시했다. 현재 [ㅅ]나 [']를 없애고 다른 방도를 세우지 않은것으로 하여 단어발음에서 일정한 혼란을 초래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때에 받침소리 [ㄷ]가 생기여 앞의 소리마디가 막힘소리로 끝나며 막혔던 날숨이 터지면서 뒤에 오는 순한소리에 영향을 미치여 순한소리가 된소리로 되게 한다. 하나의 단어안에서 고찰하면 하나의 음운이 첨가됨으로써 다른 음운의 변화를 산생시킨다. 즉 하나의 음운이 새로 첨가되고 다른 음운이 변화를 가져온다.

이때에 나타나는 음운변화현상에서 올리닮기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례컨대 《해발》, 《이마받이》에서 부분적인 경우이기는 하나 [햅빨], [이맙빠지]라고 발음하는 현상이 있다. 이것은 올리닮기현상으로서 문화어표준발음으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ㄴ]의 첨가현상을 들수가 있다.

이것은 앞형태부가 모음으로 끝나고 뒤형태부 시작이 울림자음이 놓이는 경우이다.

례컨대 《내내》, 《바다물》, 《시내물》을 들어 말할수 있다.

이때 결과에서는 자음 [ㄴ]가 끼우는것으로 볼수 있으나 그 과정이 단순한것은 아니다.

내내→낻내→낸내

바다물→바닫물→바단물

시내물→시낻물→시낸물

보는바와 같이 모음과 울림자음사이에 [ㄴ]가 끼울 때 첫 단계에는 자음 [ㄷ]가 끼우고 그뒤에 있는 울림자음과의 닮기작용에 의하여 [ㄷ]가 [ㄴ]로 변화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음운첨가에서 기본은 자음 [ㄷ]이며 자음 [ㄴ]는 [ㄷ]가 변화된 형태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밖에 자음 [ㅂ]가 끼여들어가는 현상이 있다.

례컨대 《이쌀》, 《조쌀》, 《메쌀》, 《해쌀》 같은 단어에서 자음 [ㅂ]가 끼여들어가 [입쌀], [좁쌀], [멥쌀], [햅쌀]로 발음된다.

음운첨가현상에서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는것이 있다.

첫째로, 첫 형태부가 자음으로 끝나고 두번째 형태부가 [ㅁ]로 시작되는 경우에 자음 [ㄴ]가 끼여들어간것이다.

그리하여 《능막염》을 [능막염→능망념], 《맹장염》을 [맹장념]으로 발음하였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능마겸], [맹장염]으로 발음하고있다.

둘째로, 합친말의 첫 형태부가 자음으로 끝나고 둘째 형태부가 [ㅣ, ㅑ, ㅕ, ㅛ, ㅠ]로 시작될 때 그사이에 [ㄴ]소리가 끼여 발음되였으나 이것도 상당한 정도로 동요상태에 있다.

례컨대 《꽃잎》, 《옛이야기》 같은 단어에서는 [꼰닙], [옌니야기]와 같이 발음되여 [ㄴ]가 끼여들어가나 《논일》, 《밤일》, 《낮일》, 《밭일》 같은 단어에서는 그사이에 [ㄴ]를 끼워서 발음하는 현상이 없어지고 이어내기 [노닐], [바밀]로 발음하든가 끊어내기 [나질], [바딜]로 발음하고있다.

이것은 시대가 지남에 따라 음운첨가현상이 변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형태부와 형태부사이에 음운첨가는 절대적인 말소리현상이 아니다.

같은 경우이지만 음운이 끼울 때도 있고 끼우지 않을 때도 있다.

첨가되는 경우	첨가되지 않는 경우
차길[찻낄]	차갈이
나무군[나뭇꾼]	나무길이
보리고개[보릳꼬개]	보리길금
갈비대[갈빋때]	갈비구이
구두방[구둗빵]	구두수리

물론 《이마~》, 《세수~》와 같이 앞에 놓인 형태부에 따라서 고정적으로 막힘소리 [ㄷ]가 끼여들어간것이 있다.

이마살[이맏쌀], 이마박[이맏빡], 세수비누[세숟삐누],
세수그릇[세숟끄릇]

이상과 같이 모음으로 끝나는 형태부와 [ㄱ], [ㄷ], [ㅂ], [ㅅ], [ㅈ]로 시작되는 형태부가 합하여 합친말을 이룰 때에 그사이에 휴식이 없이 발음하면 둘째 형태부의 첫소리 [ㄱ], [ㄷ], [ㅂ], [ㅈ]가 유성화되나 그렇지 않고 형태부사이에 휴식이 있으면 자음 [ㄷ]가 끼우면서 둘째 형태부 첫소리인 순한소리가 된소리로 된다.

3) 음운의 빠짐

단어나 형태부의 음운구성이 실현될 때 일부 음운이 빠져 발음되지 않는 현상을 음운의 빠짐이라고 한다. 많은 경우 조선어에서 음운의 빠짐현상은 력사적인 말소리과정으로 진행되여 현재는 거의 고착된것이 대부분이며 현재 존재하는 단어나 형태부의 음운이 빠져 음운의 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일부 있다.

(1) 자음의 빠짐

단어의 실현과정에 자음의 빠짐이 규칙적으로 일어나는것은 단어의 끝에 두개의 자음이 겹치거나 한 단어안에서 세개 자음이 겹치는 경우 또한 자음 [ㅎ]가 모음사이, 울림자음과 모음사이에 놓일 때이다. 그것은 발음단위로서의 조선어소리마디와 단어발음의 특성과 관련되여있다.

조선어소리마디에서 겹자음은 발음하지 못하게 되여있다.

례컨대 단어 《몫》, 《값》에서 [목], [갑]으로만 발음되며 [ㅅ]

는 발음되지 않는다.

그러면 발음되지 않는것을 왜 단어에 표기하였는가?

그것은 형태를 고정시키기 위한데 기본목적이 있다. 만약 《목》, 《몫》을 발음대로 《목》이라고 표기한다면 어느것이 사람이나 동물의 머리와 몸통사이에 있는 몸의 한 부분을 나타내며 어느것이 저마다 따로 차례지는 분량을 나타내는 단어인지 알수 없게 된다.

조선어에서 《몫》이라고 형태적으로 고정시킨것은 소리가 같고 뜻이 다른 단어들과 구별시키며 시각을 통한 단어의 뜻인식의 효과를 높이자는데도 목적이 있다.

《몫》의 음운수는 모음 하나, 자음 두개이다. 이때 《ㅅ》는 지난날 모음줄임현상에 의하여 앞소리마디에 붙었으나 자음이 겹침으로 하여 음운으로서의 자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 조선어에서의 둘받침은 형태론적인 형태이지 고유한 의미에서의 음운론적인것은 아니다. 조선어의 소리마디끝에 오는 자음음운은 하나밖에 없다. 이것이 조선어자음결합의 특성이다. 이런 조건에서 둘받침에서 음운의 빠짐문제가 론의될수 있겠는가 하는것이 제기된다. 소리마디들사이에 세개 자음이 오는것도 둘받침의 결과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모음뒤에는 하나의 자음음운만이 실현되며 형태상으로 모음과 모음사이에 세개 자음이 놓여도 음운론적으로는 두개 음운만이 존재하는것으로 된다. 그런데 둘받침뒤에 모음이 오면 하나의 받침은 앞에 있는 모음의 받침소리로 실현되고 다른 하나의 받침은 뒤에 오는 모음의 첫소리로 실현된다. 이때 뒤에 오는 모음소리마디의 첫소리로 나타나는 음운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만약 둘받침에서 음운의 빠짐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둘받침뒤 모음이 왔을 때 나타나는 자음은 음운의 첨가로 보아야 한다는 문제가 나선다. 이때 모음에 나타나는 첫소리인 자음음운은 음운의 첨가현상은 아니다. 이것은 음운이 잠재적상태에 있다가 강한자리에서의 발현현상으로 보아야 할것이다.

그리하여 둘받침의 경우에도 음운의 빠짐현상으로 처리하게

되는것이다. 이것은 둘받침 《ㄺ, ㄻ, ㄼ, ㄽ, ㄾ, ㄳ, ㅄ, ㄵ》에만 한한 문제이고 둘받침 《ㅀ, ㄶ》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많은 경우 《ㅀ, ㄶ》뒤에 모음이 오면 《ㅎ》는 빠지고 막소리가 오면 앞뒤 두 음이 합치여 하나의 음운 거센소리로 되고만다.

○ 많아[마나], 옳아[오라]
　많다[만타], 옳다[올타]

또한 둘받침가운데서 하나를 음운의 잠재적현상으로 보지 않으면 안되는것은 《맑다[막따]》, 《붉다[북따]》에서는 음운 [ㄱ]가 발음되다가도 《맑고[말꼬], 맑게[말께]》, 《붉고[불꼬], 붉게[불께]》에서는 [ㄹ]가 발음된다. 만약 여기서 [ㄹ]와 [ㄱ] 두 음운이 아니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수 없다.

조선어음운결합이 다른 나라 말의 음운결합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있는만큼 음운의 빠짐현상도 우리 말 음운결합특성에 맞게 처리해야 할것이다.

조선어의 둘받침은 《ㄺ, ㄻ, ㄼ, ㄽ, ㄾ, ㄿ, ㄳ, ㅄ, ㄵ, ㅀ, ㄶ》등 11개가 있다.

이 둘받침이 언어행위로서 실현될 때 그가운데서 어느 한 자음이 빠져 발음되지 않는데 첫째 자음이 빠지는 경우와 둘째자음이 빠지는 경우가 있다.

첫째 자음이 빠지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류형이 있다.

ㄺ: 맑다[막따], 닭[닥], 붉다[북따], 흙[흑]
ㄻ: 삶[삼], 닮다[담따], 젊다[점따], 삶다[삼따]
ㄿ: 읊다[읍따]
ㄼ: 넓다[넙따]

이 류형에는 혀옆소리와 혀뒤소리([ㄺ]), 혀옆소리와 입술소리([ㄻ], [ㄿ], [ㄼ])로 이루어져있다. 이가운데서 혀옆소리 [ㄹ]는 발음되지 않고 둘째 자음인 [ㄱ], [ㅁ], [ㅍ], [ㅂ]만이 발음된다. 만약 둘받침뒤에 모음이 놓이면 [ㄹ]는 그 소리마디의 받침소리로, [ㄱ, ㅁ, ㅍ, ㅂ]는 뒤소리마디의 첫소리로 실현된다.

○ 맑아[말가], 맑으니[말그니], 맑아서[말가서]
닮아[달마], 닮으니[달므니], 닮아서[달마서]
읊어[을퍼], 읊으니[을프니], 읊어서[을퍼서]
넓어[널버], 넓으니[널브니], 넓어서[널버서]

※ 둘받침 《ㄺ》은 《맑다》, 《붉다》에서와 같이 혀옆소리 [ㄹ]뒤에 혀앞소리 [ㄷ]가 놓일 때에는 혀뒤소리 [ㄱ]만이 발음되다가도 그뒤에 《ㄱ》로 시작되는 토나 뒤붙이가 올 때에는 [ㄹ]로 발음되게 된다.

즉 《맑고》, 《맑게》, 《붉고》, 《붉게》를 [막꼬], [막께], [북꼬], [북께]로 발음하지 않고 [말꼬], [말께], [불꼬], [불께]로 발음한다.

여기서 언급할 문제의 하나는 둘받침 《ㄺ》, 《ㄼ》실현에서 두가지 형태가 존재하는것이다.

우에서는 기본적으로 뒤에 놓인 자음 [ㄱ], [ㅂ]가 실현된다고 설명하였는데 사회의 언어생활에서는 《ㄺ》, 《ㄼ》가 자음앞에서 [ㄱ], [ㅂ]가 실현되기도 하고 앞에 있는 [ㄹ]가 실현되기도 한다.

즉 단어 《맑다》, 《넓다》를 [막따], [넙따]로도 발음하고 [말따], [널따]로도 발음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ㄺ》, 《ㄼ》의 실현에서는 일정한 동요가 일어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둘받침가운데서 뒤째 받침이 빠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것이 있다.

ㄳ: 몫[목], 넋[넉]
ㅄ: 값[갑], 없다[업따]
ㄾ: 훑다[훌따]
ㄵ: 앉다[안따], 얹다[언따]
ㄽ: 곬[골], 돐[돌]

비록 둘받침가운데서 끝받침이 빠지지만 뒤소리마디가 모음으로 시작된다면 끝받침도 음운으로서의 자기 기능을 수행한다.

례컨대 단어 《값》, 《곬》이 그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토나 형태

부가 와서 《값울》, 《곬이》로 된다면 발음은 [갑슬], [골시]로 되여 자음 [ㅅ]가 자기의 음운론적기능을 수행한다.

다음으로 자음이 세개가 겹치는 경우를 보기로 하자.

현대조선어에 하나의 소리마디에 세개의 자음이 겹치는 경우는 없다.

※ 15세기에는 말머리복합자음으로서 《ㅄㄷ》, 《ㅄㄱ》와 말끝복합자음으로서 《ㄺㅅ》가 있었다. 그때 당시 이 복합자음들이 발음되였겠는가 하는 문제는 아직 하나의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말머리복합자음이 그대로 발음되였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대로 발음되지 않고 된소리표기변종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오늘날에 와서 그때 당시의 발음현상을 그대로 재생시킬수 없는만큼 확정적인 결론을 하기는 힘들다.

지금 우리 말에서 세개의 자음이 겹치는 경우란 둡받침뒤에 자음이 잇달릴 때이다.

례컨대 《읇다》, 《앉다》 같은 경우에 첫째 단어에서는 자음 《ㄹㅂㄷ》가 겹쳤고 둘째 단어에서는 《ㄴㅈㄷ》가 겹쳤다. 이가운데서 발음되는것은 [ㄹㄷ], [ㄴㄷ]이며 [ㅂ]와 [ㅈ]는 빠지고만다.

이것은 우리말 소리마디구성에서 첫소리와 끝소리에 오직 하나의 자음밖에 올수 없는 음운구성상 특성과 관련된다. 모음과 모음사이에 세개 자음이 놓여도 하나는 끝소리에, 다른 하나는 첫소리에서밖에 발음될수 없다. 이러한 원인으로 하여 하나의 자음은 빠짐의 운명에서 벗어날수 없게 된다. 이때 뒤에 오는 첫소리도 음운그대로의 자기 소리값을 보존하면서 발음되는것이 아니라 음운의 속성이 변하면서 발음된다.

이 경우에 뒤소리마디에 놓인 첫소리의 소리값이 변화된것은 앞에 놓인 소리마디의 끝소리의 영향때문이며 빠지는 자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런데 단어안에서 모음과 모음사이에 세개의 자음이 온다고 하여 그가운데 하나의 자음이 반드시 빠지는것은 아니다.

우에서 본바와 같이 《앉다》에서는 자음 [ㅈ]가 완전히 빠지지마는 《많다》, 《옳다》와 같은 경우에는 [ㅎ]가 빠지게 된다고 볼수 없다.

왜냐하면 《많다》, 《옳다》의 경우에 자음 [ㅎ]는 빠지여 완전히 없어지는것이 아니라 뒤에 이어지는 자음 [ㄷ]와 합치여 제3의 음운인 [ㅌ]가 얻어지기때문이다.

이때에 [ㅎ]와 [ㄷ]가 합치여 [ㅌ]가 되였다고 하여 음운 [ht]가 생긴것이 아니라 터침에 잇달려 스침이 진행되기때문에 기식음 [th]가 발생한다. 물론 이때 생기는 음운은 [t]와 [h]의 기계적인 결합은 아니다. [t]와 [h]의 유기적인 결합으로써 기식음이 생기는데 발음은 혀앞터침으로 시작되며 스침의 지속으로 끝난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모음들사이에 세개 자음이 겹칠 때 그가운데서 하나의 자음이 빠지는것과 빠짐이 아니라 다른 자음과 결합되여 제3의 음운이 생기는것을 갈라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조선어자음빠짐에는 자음 [ㅎ]가 모음과 모음사이, 울림자음과 모음사이에 놓였을 때 빠지는것이 있다.

— 모음과 모음사이

마흔[마은], 아흔[아은], 좋으니[조으니], 쌓았다[싸앋따], 고요히[고요이]

— 울림자음과 모음사이

많이[마니], 대단히[대다니], 안해[아내], 옳아[오라], 부지런히[부지러니], 용감히[용가미]

이때 자음 [ㅎ]가 빠지는것은 자음 [ㅎ]와 모음의 음원의 공통성과 관련되여있다. 자음 [ㅎ]와 모음의 음원은 목청이다.

목청이 좁아져 스치면 자음 [ㅎ]가 생기고 목청이 떨면 모음이 생긴다. 그런데 자음 [ㅎ]의 앞뒤에 모음이 있으면 [ㅎ]의 발음이 약화된다.

즉 앞에 있는 모음이 발음되고 목청이 스친 다음 뒤에 놓인 모음이 발음되여야겠으나 발음이 련이어 진행되기때문에 목청을 스칠 사이없이 모음앞에 련이어 모음발음이 진행되는것으로 하여 [ㅎ]는 자연히 빠지고만다.

모음과 모음사이에 있는 [ㅎ]가 모두 빠지는것은 아니다.

한자어휘에서는 우와 같은 경우에 [ㅎ]가 빠지지 않는것이 보통이다.

— 모음과 모음사이

기후[기후], 보호[보호], 리해[리해], 계획[계획]

— 울림자음과 모음사이

혁명화[형명화], 평화[평화], 영화[영화], 만화[만화], 간호원[간호원], 면회[면회], 담화[담화], 금후[금후], 암행[암행], 실현[실현], 발휘[발휘], 열화[열화]

이와 같이 자음 [ㅎ]가 빠지게 되는가 안되는가 하는데서는 고유어휘와 한자어휘에서 차이가 있다.

끝으로 조선어에는 형태부와 형태부가 합치여 합친말을 이룰 때에 그사이에서 자음 [ㄹ]가 빠지는 현상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고유어휘에도 있고 한자어휘에도 있다.

고유어휘에서 [ㄹ]는 [ㄴ], [ㄷ], [ㅈ], [ㅅ], [ㄹ]앞에서 흔히 줄어든다.

○ [ㄹ—ㄴ]: 솔+나무[소나무], 버들+나무[버드나무], 딸+님[따님], 아들+님[아드님]

[ㄹ—ㅈ]: 불+절[부절], 바늘+질[바느질], 찰+조[차조]

[ㄹ—ㄹ]: 날+날이[나날이]

[ㄹ—ㄷ]: 달+달이[다달이], 찰+돌[차돌], 열+닫이[여닫이]

[ㄹ—ㅅ]: 불+삽[부삽], 활+살[화살], 말+소[마소]

한자어휘에서 [ㄹ]는 [ㄷ], [ㅈ]앞에서 흔히 줄어든다.

[ㄹ—ㄷ]: 불+득이[부득이], 불+당[부당], 불+단[부단]

[ㄷ—ㅈ]: 불+지중[부지중], 불+족[부족], 불+주의[부주의], 불+재[부재], 불+자유[부자유]

우에서 본바와 같이 한자어휘에서는 《불(不)》이 말머리에 붙은 단어에서 《불(不)》다음에 자음 [ㄷ], [ㅈ]로 시작되는 경우에 [ㄹ]가 빠지게 된다.

※ 여기서 력사적인 어음교체현상은 음운빠지기로 취급하지 않았다.

(2) 모음의 빠짐

모음빠짐은 형태부를 이루고있는 모음이 빠지거나 겹모음에서 어느 한 말소리가 빠지는 현상이다.

모음빠짐현상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것은 모음이 련이어 이어질 때 모음 [—]와 [ㅜ]의 빠지기이다.

○ 한마음→한맘, 처음→첨
미음→밈, 주으니→주니
향기로운→향기론, 슬기로운→슬기론
따사로운→따사론

여기서 특징적인것은 모음 [—]와 [ㅜ]가 빠지면서 그앞에 있던 소리가 길고 높아지는것이다.

모음의 빠짐은 또한 겹모음 [ㅢ]에서 앞요소 [—]가 빠지는것이다.

○ 의의[으이], 의젓하다[이저타다]
희망[히망], 대의원[대이원]

이때 겹모음은 홑모음처럼 발음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겹모음 [ㅖ]에서도 나타난다.

○ 혜택[헤택], 계속[게속]
관계[관게], 례의[레이]

여기서는 겹모음에서 앞에 놓인 짧은모음이 빠지고 뒤요소가 남아 발음된다.

이와 같이 음운빠짐현상은 력사적으로 진행된 말소리과정으로서 현재는 멈추어진 말소리과정이다.

※ 일부 경우에 력사적인 어음교체현상까지도 음운빠짐현상에 포함시켜 고찰하고있으나 이것은 질서가 다른 문제이다.
특히 변격용언문제는 력사적인 음운교체현상으로서 음운빠짐에서가 아니라 음운교체에서 취급되여야 할 내용이다.

4) 음운의 융합

음운의 융합란 한 단어안에서 두개 음운이 합치여 제3의 음운을 산생시키는것을 말한다.

음운빠짐에서는 하나의 음운이 빠지는것으로 그치지만 음운의 융합에서는 단어안에서 음운수가 줄어드는 측면은 음운빠짐과 비슷하나 음운수가 줄어들뿐만아니라 두개 음운이 합치여 본래 음운과 다른 제3의 음운이 생긴다는 측면에서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조선어의 음운융합에는 자음의 융합과 모음의 융합이 있다.

자음의 융합에는 거센소리되기가 여기에 속한다.

조선어에서의 거센소리되기는 순한소리 [ㄱ], [ㄷ], [ㅂ], [ㅈ]가 울대스침소리 [ㅎ]와 융합되여 [ㅋ], [ㅌ], [ㅍ], [ㅊ]가 된다.

○ ㄱ+ㅎ: 막히다[마키다], 독하다[도카다],
　　　　혹독하다[혹또카다]
　ㄷ+ㅎ: 굳히다[구티다→구치다], 맏형[마텽]
　ㅂ+ㅎ: 입학[이팍], 업히다[어피다], 합하기[하파기]
　ㅈ+ㅎ: 맞히다[마치다], 젖히다[저치다], 앉히다[안치다]

이것은 형태부와 형태부사이에 순한소리 [ㄱ], [ㄷ], [ㅂ], [ㅈ]와 울대스침소리 [ㅎ]가 융합되는 경우이지만 형태론적으로 이와 반대되게 [ㅎ]가 먼저 오고 순한소리 [ㄱ, ㄷ, ㅂ, ㅈ]가 뒤에 놓일 때도 융합되여 거센소리되기가 진행된다.

○ ㅎ+ㄱ: 많고[만코], 좋고[조코], 놓고[노코]
　ㅎ+ㄷ: 많다[만타], 좋다[조타], 놓다[노타]
　ㅎ+ㅈ: 많지[만치], 좋지[조치], 놓지[노치]

조선어에서 [ㅎ]와 순한소리 [ㄱ, ㄷ, ㅂ, ㅈ]가 융합되여 거센소리가 되는것은 조선어 거센소리의 음향학적구성상 특성과 관련된다.

조선어 거센소리는 두개 말소리 즉 [k], [t], [p], [ʧ]와 [h]가 융합되여 이루어진 말소리이다. 물론 이 음운의 융합은 기계적인 합침이 아니라 음향학적인 융합이다. 처음에 [ㄱ]가 오고 뒤에 [ㅎ]가 놓여 융합되였다고 하여 단순히 [kh]는 아니다. [ㄱ]를 발음할 때의 조음부위에서 터침이 진행된다. 그런데 이 터침순간부터 [ㅎ]의 음색이 섞여든다.

비록 우리가 발음기호로 [kh]라고 표기는 하지만 그것이 곧 말소리의 융합순서는 아니다.

또한 형태론적으로 [ㅎ]가 앞에 놓이고 [ㄱ, ㄷ, ㅂ, ㅈ]가 뒤에 놓여도 발음방식은 [ㅎ]가 뒤에 놓일 때와 마찬가지이다. [ㅎ]가 앞에 놓인다고 하여 그것이 먼저 발음되고 그뒤에 놓인 순한소리가 후에 발음되는것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조선어에서 형태부와 형태부사이에 [ㅎㄱ], [ㅎㄷ], [ㅎㅂ], [ㅎㅈ]가 오건 [ㄱㅎ], [ㄷㅎ], [ㅂㅎ], [ㅈㅎ]가 오건 관계없이 이 두개 음운이 융합되여 제3의 음운인 [ㅋ], [ㅌ], [ㅍ], [ㅊ]로 된다.

[ㄱ], [ㄷ], [ㅂ], [ㅈ]가 [ㅎ]와 합치여 다른 음운 [ㅋ], [ㅌ], [ㅍ], [ㅊ]가 생겼지만 이 두 부류의 음운들은 구별적표식에서 차이와 함께 공통성을 많이 가지고있다.

례컨대 음운 [ㄱ]와 [ㅋ]는 하나는 순한소리이고 다른 하나는 거센소리라는데 차이가 있지 조음위치나 조음방법은 비슷하다. 이 하나의 구별적표식에 의해서 두 음운이 차이를 가지며 공통성에 의해서 련결되는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ㄱ—ㅋ]뿐만아니라 [ㄷ—ㅌ], [ㅂ—ㅍ], [ㅈ—ㅊ]도 마찬가지이다.

그렇기때문에 제3의 음운이 생겼다고 하여 융합되기 전 음운과 완전히 다른 즉 표식에서 차이성만 있고 공통성이 전혀 없는 별개의 음운이 결코 아니다. 이 두 음운부류들사이에 있는 차이성과 공통성으로 하여 상관관계를 가지며 하나의 음운체계의 당당한 성원으로 된다.

※ [ㅎ]와 융합되는 [ㄱ], [ㄷ], [ㅂ]를 순수 받침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때 융합은 받침소리 [ㄱ], [ㄷ], [ㅂ]와 첫소리 [ㅎ]와의 융합이지 받침과의 결합은 아니다. 례컨대 《꽃향기》, 《못하다》, 《동녘하늘》에서 [ㅎ]와 결합되는것은 받침 《ㅊ》, 《ㅅ》, 《ㅋ》이지만 이 받침들의 소리는 [ㄷ], [ㄱ]이다. 따라서 이 단어들은 [곡향기→꼬균기], [몯하다→모타다], [동녁하늘→동녀카늘]로 된다.

음운의 융합에는 모음들의 융합도 있다. 이 융합에서도 음운축소에서와 같이 음운의 수가 줄어지는데서는 같지만 그 성격에서는 완전히 다르다. 음운축소에서는 단어에서의 순수 모음이 빠져나가

는것으로 끝나지만 음운융합에서는 두개 모음이 합치여 제3의 음운을 산생시키는것이 특징이다.

례컨대 단어 《아이》, 《오이》에서 두 모음이 합치여 [애], [외]라는 홑모음이 되고말았다. 력사적사실로서 《사이→새》, 《가이→개》, 《거이→게》도 음운의 융합현상의 결과이다.

모음의 융합에는 우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홑모음과 홑모음이 합치여 홑모음이 이루어지는것이 있는가 하면 홑모음들이 합치여 겹모음을 산생시키는것도 있다.

○ 보았다→봤다 (ㅗ+ㅏ→ㅘ)
주었다→줬다 (ㅜ+ㅓ→ㅝ)
가지었다→가졌다 (ㅣ+ㅓ→ㅕ)
먹이었다→먹였다 (ㅣ+ㅓ→ㅕ)

※ 《ㅗ+ㅏ》가 합치여 《ㅘ》가 되였지만 실지 발음은 [o̯ə]가 아니라 [u̯a]이다.

여기서는 홑모음 [o+a], [u+a], [i+ə]가 합치여 겹모음 [u̯a], [u̯ə], [i̯ə]로 되고있다.

모음융합에서 특징적인것은 모든 모음에서 다 진행되지 않고 모음 [ㅗ]와 [ㅏ], [ㅜ]와 [ㅓ], [ㅣ]와 [ㅓ]가 대응되였을 때 진행된다는데 있으며 또한 모음융합에서 겹모음화는 체언에서는 진행되지 않고 용언에서 진행된다는것이다.

※ 특수한 경우에 체언에서도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 무얼→뭘, 무엇→뭣

이와 같이 음운의 융합에서는 [ㅎ]와 순한소리 [ㄱ], [ㄷ], [ㅂ], [ㅈ]가 합치여 거센소리로 되는것과 모음과 모음이 합치여 홑모음되기, 겹모음되기가 있다.

제3절. 조선어음운의 결합규칙

매개 언어에는 그 언어에만 고유한 음운수가 있으며 그것들이 이어져 사용되는 일정한 규칙이 있다. 언어에 일정한 수의 음운이 있다고 하여 그것들이 아무렇게나 결합되여 언어활동에 리용되는것이 결코 아니다. 음운체계가 해당 언어에만 고유하듯이 음운들의 결합도 그 언어에만 고유한 규칙이 있다. 서로 다른 언어들사이에 음운수가 같거나 비슷하다고 하여 결합규칙도 같은것이 아니다. 음운의 결합규칙은 철저히 언어의 민족적특성과 관련된다.

다른 나라의 적지 않은 언어들에서는 한 소리마디를 이루는데서 겹자음의 결합이 가능하다.

※ 여기에서 말하는 자음의 결합은 글자상 결합이 아니라 발음상의 결합이다.

모음앞에 두개 자음만이 아니라 세개 자음의 결합도 가능하며 그 자음들이 충분한 음운론적기능을 수행한다.

례컨대 로어의 경우 《Страшно》, 《Кстати》에서 [стр], [кст]의 자음결합이 가능하여 음운으로서 실현된다. 즉 자음들사이에 모음이 없어도 자음의 련속발음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로어밖에 여러 언어들에서 흔히 찾아볼수 있다.

중세조선어에서는 말머리겹자음 《ㅆ, ㅄ, ㅴ, ㅵ》 같은것이 존재하였으나 현대조선어에는 말머리에 겹자음이 놓일수 없을뿐만아니라 소리마디와 소리마디사이에 두개 자음이나 세개 자음이 놓여도 뒤에 놓인 자음은 뒤소리마디의 첫소리로, 앞에 있는 두개 자음가운데서 어느 한 자음만이 앞소리마디의 끝소리로 발음된다.

이와 같이 매개 언어의 음운수가 다를뿐만아니라 그들이 결합되여 실현되는 규칙도 서로 각이하다.

조선어의 음운수는 모음 21개, 자음 19개, 모두 합하여 40개이다. 40개 음운을 조합하여 묶으면 11,172개의 소리마디가 된다. 계산상으로 이 많은 소리마디가 생기지만 실지 언어활동에 쓰이는 것은 보통 1,780개 소리마디, 벽자까지 합하여 최대로 쓰이는것이

약 4,100개 소리마디이다.

조선어의 40개 음운들 호상간에 서로 결합될수 있는것과 결합될수 없는것이 있다. 여기에서 결합될수 없다는것은 글자상 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소리마디단위가 발음될수 없다는것이 아니라 유의미적단위인 단어나 형태부를 이루는데 참가하지 않는다는것이다.

례컨대 단어 《사람》에서 음운 [ㅅ+ㅏ], [ㅏ+ㄹ], [ㄹ+ㅏ], [ㅏ+ㅁ]의 결합은 가능하며 이것은 언어현실에 실지 쓰이는 음운결합이다.

그러나 조선어의 단어나 형태부를 이루는 소리마디로서 《뫠》, 《햬》, 《뤠》 같은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때 음운 [ㅁ]와 [ㅙ], [ㅎ]와 [ㅒ], [ㄹ]와 [ㅞ]의 결합이 전혀 불가능하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합이 가능하다 해도 조선어의 음운결합에서는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이런 결합으로서 이루어지는 조선어의 단어나 형태부가 없기때문이다. 이런 결합이 글자상 조합을 이룰 때는 필요하겠지만 현실언어생활에 쓰이지 않는 소리마디이기때문에 음운의 결합규칙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음운의 결합규칙에는 철저히 조선어 단어나 형태부를 이룰 때의 음운들이 결합되는 규칙만이 포함된다.

음운결합규칙을 정하는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조선어 음운결합이라고 할 때 조선고유어와 한자어, 우리 나라에 들어와 널리 쓰이는 외래어에서의 음운결합이라는것이다. 다른 나라의 인명과 지명, 나라명을 표기할 때 쓰는 벼자들의 결합은 조선어 음운결합규칙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것들은 다른 나라의 인명과 지명, 나라명을 그 나라 발음에 따라 적고 발음하는 원칙을 세웠기때문에 그렇게 하는것이지 조선어의 음운결합규칙에 맞기때문에 그렇게 하는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조선어 단어나 형태부를 이루는데 참가하지 않는 다른 나라의 인명, 지명, 나라명을 나타내는 음운결합은 조선어 음운결합규칙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에 서술하는 음운결합규칙은 현대조선어의 단어와 형태부를 이루는데 작용하는 음운들의 결합방식과 규칙이다.

1. 한 소리마디안에서의 음운들의 결합규칙

1) 음운 [ㅇ]를 제외하고는 모든 자음이 소리마디의 첫소리로 쓰인다.

음운 [ŋ]이 끝소리로만 쓰이고 첫소리로 쓰이지 않는것이 일반적현상이다. 물론 적지 않은 언어들가운데 [ŋ]이 없는 언어들이 있다. [ŋ]이 음운으로 존재하는 언어들에서는 이 음운들이 모두 소리마디의 끝소리로 쓰인다.

우리 말 고유어에서 지난날 [ㄹ]가 첫소리로 쓰이지 않았고 음운 [ㄴ]도 한때는 말머리에서 쓰이다가 그후 모음 [ㅑ, ㅕ, ㅛ, ㅠ, ㅒ, ㅖ]앞에서 쓰이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음운 [ㄴ]가 [i̯]로 시작되는 겹모음앞에서 자유로이 발음되며 음운 [ㄹ]도 일부 겹모음과 결합될 때를 내놓고는 첫소리에서 발음된다. 유의미적단위를 이루는데서 발음할수 있다는것은 음운결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여준다.

2) 일부 홑모음만을 내놓고는 그것이 거의 모든 첫소리와 결합된다.

그러나 겹모음에서는 일부 겹모음만이 첫소리와 결합되고 대부분의 겹모음은 첫소리와 결합되지 않는다.

자음순서에 따라 첫소리와 가운데소리의 결합관계를 보기로 하자.

① 첫소리 [ㄱ]는 전체 홑모음과 겹모음 [ㅑ, ㅕ, ㅛ, ㅠ, ㅒ, ㅖ, ㅘ, ㅙ, ㅝ, ㅞ]와만 결합되고 겹모음 [ㅢ]와는 결합되지 않는다.

례컨대 《긔》는 19~20세기초에 《긔차》, 《여긔》, 《비행긔》, 《긔별》, 《공긔》라고 표기하고 발음하였으나 현대조선어 음운결합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② 첫소리 [ㄴ]는 전체 홑모음과 겹모음 [ㅑ, ㅕ, ㅛ, ㅠ, ㅖ, ㅢ, ㅘ, ㅝ]와만 결합되고 [ㅒ, ㅙ, ㅞ]와는 결합되지 않는다. 여기서 [ㄴ]와 [ㅖ]가 합치여 이루어진 《녜》는 감탄사로, 《녠장》, 《녯》 같이 일부 단어에서 소극적인것으로 쓰일뿐이다. 그리고

[ㄴ+ㅢ]의 결합으로 된 《늬붓질》, 《늬큼》에서만 쓰이며 [ㄴ]와 [ㅘ]가 합치여 된 《놔》는 입말에서 《놓았다》가 축약되서 《놨다》로, 《놓아주다》가 축약되여 《놔주다》 등 일부 단어에서 소극적으로 쓰인다.

③ 첫소리 [ㄷ]는 전체 홑모음과 겹모음 [ㅠ], [ㅙ]와만 결합되고 [ㅑ, ㅕ, ㅛ, ㅒ, ㅖ, ㅢ, ㅘ, ㅞ]와는 결합되지 않는다. 15세기 중엽~20세기 20년대까지 《댜, 뎌, 됴, 듀, 뎨》가 쓰이였고 당시 언어규범에서도 반영되여있었으나 그후 반모음 [i̯]앞에서 [ㄷ]가 입천장소리됨과 동시에 겹모음이 홑모음으로 변하여 《댜, 뎌, 됴, 듀, 뎨》가 《자, 저, 조, 주, 제》로 변하였다.

그리하여 당시에는 《중국》을 《듕귁》, 《조선》을 《됴션》이라고 하여 [ㄷ]와 반모음 [i̯]로 시작되는 겹모음과의 결합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1930년대에 들어오면서 입천장소리되기가 강하게 진행되여 첫소리 [ㄷ]와 겹모음 [ㅙ]의 결합을 내놓고는 모두 《자, 저, 주, 제》로 변하여 현재 [ㄷ]와 [i̯]로 시작되는 겹모음과의 결합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외래어에서 [ㄷ+ㅠ]가 일부 존재한다.

④ 첫소리 [ㄹ]는 대부분의 홑모음과 겹모음 [ㅑ, ㅕ, ㅛ, ㅠ, ㅖ]와만 결합되고 겹모음 [ㅒ, ㅢ, ㅘ, ㅙ, ㅝ, ㅞ, ㅣ], 홑모음 [ㅟ]와는 결합되지 않는다.

조선고유어에는 단어의 첫소리 [ㄹ]가 존재하지 않은것으로 하여 말머리소리로 발음되지 않았다. 우리 나라에 한자어가 들어와 그 음을 표기하면서 말머리소리 [ㄹ]를 적게 되였다. 표기될 당시 말머리소리 [ㄹ]가 그대로 발음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언어규범에서까지 말머리소리 [ㄹ]를 반영시킨것으로 보아 조선사람들이 말머리에서 [ㄹ]를 완전히 발음하지 못하였다고 볼수는 없다. 주체22(1933)년 《한글맞춤법통일안》에서는 《랴, 려, 료, 류, 리, 례》가 단어의 첫소리로 될적에는 《야, 여, 요, 유, 이, 예》로 적는다고 하여 [ㄹ]의 발음뿐만아니라 표기까지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광복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가르치심에 의

하여 공화국북반부에서는 단어의 첫소리에 [ㄹ]를 표기하였을뿐아니라 발음하도록 함으로써 그것이 음운결합에서 말머리소리의 위치를 확고히 차지하게 되였다.

⑤ 첫소리 [ㅁ]는 [ㅟ]를 제외한 홑모음과 겹모음 [ㅕ, ㅛ, ㅠ, ㅝ, ㅞ]와 결합되고 겹모음 [ㅑ, ㅒ, ㅖ, ㅢ, ㅘ, ㅙ]와는 결합되지 않는다. [ㅁ+ㅠ]의 결합은 일부 외래어에서만 허용된다. [ㅁ+ㅚ], [ㅁ+ㅝ]의 결합은 《뫼, 뫼뿌리, 뫼자리》, 《뭐, 뭘하다, 뭣하다》 등 일부 단어에서만 가능하며 [ㅁ+ㅞ]는 《무에》의 준말로서 《뭬》에서만 쓰인다.

⑥ 첫소리 [ㅂ]는 [ㅟ]를 제외한 홑모음 전체와 겹모음 [ㅑ, ㅕ, ㅠ, ㅘ, ㅝ]와 결합되고 [ㅛ, ㅒ, ㅖ, ㅢ, ㅙ, ㅞ, ㅟ]와는 결합되지 않는다. [ㅂ+ㅠ]의 결합은 《뷰로, 뷰레트》와 같이 일부 외래어 음운결합에서만 가능하다.

첫소리 [ㅂ]와 잘 결합되는것은 [ㅕ]이며 《봐, 붜》는 입말에서 흔히 쓰이는 음운결합이다.

례컨대 《보았다→봤다》, 《(물을)부었다→붰다》로 결합되는데 이것은 대개 입말에서 나타난다.

⑦ 첫소리 [ㅅ]는 전체 홑모음과 겹모음 [ㅑ, ㅛ, ㅠ, ㅘ, ㅙ, ㅞ]와만 결합되고 [ㅕ, ㅒ, ㅖ, ㅢ, ㅝ]와는 결합되지 않는다. 《샤》는 《미끼샤》, 《샤타》, 《샤베트》와 같은 외래어에서만 결합되여 쓰이고 《솨》는 《솩솩》과 같이 상징어에서 쓰인다. 《셔》는 《오셨다(ㅅ+ㅕ)》, 《쇄》는 《쇡소리(ㅅ+ㅙ)》와 같은 단어에서만 쓰인다. [ㅅ+ㅛ]의 결합은 《쇼비니즘, 쇼크, 쇼윈도》에서만 쓰이고 [ㅅ+ㅠ]의 결합은 토 《—슈》 밖에 《슈미즈, 슈바, 슈제트, 슈크링, 슈떼잉, 슛》 같은 외래어에서만 쓰이며 [ㅅ+ㅞ]의 결합은 《쉑쉑, 쉑쉑거리다, 쉑쉑대다》 밖에 일부 외래어에서만 쓰인다.

⑧ 첫소리 [ㅈ]는 전체 홑모음과 겹모음 [ㅑ, ㅕ, ㅛ, ㅠ, ㅘ, ㅙ, ㅝ, ㅞ]와 결합되고 겹모음 [ㅒ, ㅖ, ㅢ]와는 결합되지 않는다. [ㅈ+ㅑ]의 결합에서는 《쟘바, 쟝글, 쟝르》 같은 외래어에서 쓰인다. [ㅈ+ㅕ]의 결합에서는 《가지었다→가졌다》와 《져나르다》, 《져올리다》 등에서 쓰이며 [ㅈ+ㅝ]의 결합에서는 《주었다→줬다》 등에

서 쓰인다. 《좌지》, 《줴기밥》 같은데서 [ㅈ+ㅘ], [ㅈ+ㅞ]의 결합이 가능하다. [ㅈ+ㅛ]의 결합이 현대말에 쓰이는것은 없고 옛날말 《죠롱(조롱박)》, 《죠희(종이)》 같은 단어에서 쓰이며 《죠세트》, 《죠거》와 같은 외래어표기에서만 쓰인다. [ㅈ+ㅠ]의 결합은 《쥬브》, 《쥴》과 같은 외래어의 음운결합에서만 가능하다.

⑨ 첫소리 [ㅊ]는 전체 홑모음과 겹모음 [ㅑ, ㅕ, ㅛ, ㅠ, ㅘ, ㅝ, ㅞ]와 결합되고 겹모음 [ㅒ, ㅖ, ㅢ, ㅙ]와는 결합되지 않는다.

례컨대 《다쳤다(ㅊ+ㅕ)》, 《촬영(ㅊ+ㅘ)》, 《춰서다(ㅊ+ㅝ)》와 같은데서 찾아볼수 있다. [ㅊ+ㅛ]의 결합은 옛날말 《쵸매(치마)》와 같은 단어에서 쓰이였으나 현대조선어에서는 쓰이는것이 없다. 《쵸콜레트》와 같은 일부 외래어에서만 쓰인다. [ㅊ+ㅑ]의 결합은 《챠티스트문학》, 《챤스》에서, [ㅊ+ㅠ]의 결합은 《츄립》, 《츄코트마》 같은 외래어에서만 쓰인다.

⑩ 첫소리 [ㅋ]는 전체 홑모음과 겹모음 [ㅑ, ㅕ, ㅠ, ㅘ, ㅙ]와 결합되고 겹모음 [ㅛ, ㅒ, ㅖ, ㅢ, ㅝ, ㅞ]와는 결합되지 않는다. 이가운데서도 [ㅋ]와 [ㅕ, ㅘ, ㅙ]가 활발하게 결합되고 [ㅋ+ㅠ]의 결합은 《큐리점》, 《큐리움》, 《큐베트》와 같은 일부 외래어에서만 가능하며 [ㅋ+ㅑ]의 결합은 《캬캬》, 《캬득캬득》과 같은 본딴말에서와 《캬라멜》, 《캬바레》와 같은 일부 외래어에서만 가능하다.

⑪ 첫소리 [ㅌ]는 전체 홑모음과 겹모음 [ㅠ, ㅢ, ㅞ]와 결합되고 겹모음 [ㅑ, ㅕ, ㅛ, ㅒ, ㅖ, ㅘ, ㅙ, ㅝ]와는 결합되지 않는다.

[ㅌ+ㅢ]의 결합은 《트이다→틔다》에서 가능하며 [ㅌ+ㅞ]의 결합은 《퉤퉤》, 《퉤퉤거리다》 같은 단어에서 가능하다. [ㅌ+ㅢ, ㅞ]의 결합은 극히 적게 나타난다. 46만 3,010개 단어가운데서 《틔》의 빈도수는 16, 《퉤》의 빈도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ㅌ+ㅠ]의 결합은 《튜바》, 《튜브》와 같은 일부 외래어에서만 가능하다.

⑫ 첫소리 [ㅍ]는 [ㅚ, ㅟ]를 제외한 홑모음 전체와 겹모음 [ㅑ, ㅕ, ㅛ, ㅠ]와 결합되고 홑모음 [ㅚ, ㅟ], 겹모음 [ㅒ, ㅖ, ㅢ, ㅘ, ㅙ, ㅝ, ㅞ]와는 결합되지 않는다.

겹모음 [ㅑ, ㅕ, ㅛ, ㅠ]가운데서도 《평평하다》, 《편안히》, 《편지》, 《표범》, 《표본》, 《표시》, 《표적》과 같이 [ㅍ+ㅕ, ㅛ]의

결합이 활발하고 [ㅍ+ㅑ, ㅠ]의 결합은 《퍄퍄하다》, 《퓽퓽하다》와 같은 몇개 단어에 국한된다. 46만 3,010개 단어가운데서 [ㅍ+ㅠ]의 빈도가 17, [ㅍ+ㅑ] 같은것은 빈도수가 없는 형편이다.

⑬ 첫소리 [ㅎ]는 전체 홑모음과 겹모음 [ㅑ, ㅕ, ㅛ, ㅠ, ㅖ, ㅢ, ㅘ, ㅙ, ㅝ, ㅞ]와 결합되고 겹모음 [ㅒ]와는 결합되지 않는다. 조선어자음가운데서 [ㅎ]가 모음과의 결합능력이 제일 강한편이다.

○ 울림도성, 혁신, 효자, 휴가, 혜성, 환희, 홰불,
   훨씬, 휑뎅하다

⑭ 첫소리 [ㄲ]는 전체 홑모음과 겹모음 [ㅑ, ㅕ, ㅛ, ㅘ, ㅙ, ㅝ, ㅞ]와 결합되고 겹모음 [ㅠ, ㅒ, ㅖ, ㅢ]와는 결합되지 않는다.

[ㄲ+ㅑ]의 결합은 대개 《꺌꺌대다, 꺄우둥하다, 꺄울대다, 꺄웃하다, 꺌쭉하다》와 같이 본딴말단어들에서 가능하며 [ㄲ+ㅝ]의 결합은 《꿩》, 《꾸어주다→꿔주다》 같은 부분적단어에서만 가능하다. 겹모음 [ㅕ, ㅘ, ㅙ, ㅞ]는 [ㄲ]와의 결합능력이 강하지만 [ㅕ, ㅞ]는 상대적으로 약한편이다.

⑮ 첫소리 [ㄸ]는 전체 홑모음과 겹모음 [ㅢ, ㅘ, ㅙ]와 결합되고 겹모음 [ㅑ, ㅕ, ㅛ, ㅠ, ㅒ, ㅖ, ㅝ, ㅞ]와는 결합되지 않는다.

[ㄸ+ㅢ]의 결합은 《띄우개, 띄여쓰기, 띄워차기, 띄우다》 같은 단어에서 가능하며 [ㄸ+ㅘ]는 《똬리←(또아리)》, [ㄸ+ㅙ]는 《뙈기논, 뙈치다》 등 일부 단어에서만 가능하다.

⑯ 첫소리 [ㅃ]는 홑모음 [ㅚ, ㅟ] 밖의 전체 홑모음과 겹모음 [ㅑ, ㅕ, ㅛ, ㅠ]와만 결합되고 홑모음 [ㅚ, ㅟ], 겹모음 [ㅒ, ㅖ, ㅢ, ㅘ, ㅙ, ㅝ, ㅞ]와는 결합되지 않는다.

[ㅃ+ㅑ]의 결합은 《빠드득, 뺘뺘거리다, 뺨》 같은 단어에서 가능하며 [ㅃ+ㅕ]의 결합은 《뼈》와 관련된 합친말에서와 《뼘》과 같은 극히 일부 단어에서만 가능하다. [ㅃ+ㅛ]의 결합은 《뾰족하다, 뾰죽하다, 뾰쭉, 뾩뾩》 등 비교적 많은 단어에서 가능하며 [ㅃ+ㅠ]의 결합은 《쀼죽하다, 쀼죽쀼죽, 쀼쭉쀼쭉》 같은 극히 소극적인 형태에서만 가능하다.

⑰ 첫소리 [ㅆ]는 전체 홑모음과 겹모음 [ㅢ, ㅘ, ㅙ, ㅞ]와 결합되고 겹모음 [ㅑ, ㅕ, ㅛ, ㅠ, ㅒ, ㅖ, ㅝ]와는 결합되지 않는다.

[ㅆ+ㅢ]의 결합은 《씌우개, 씌우다》와 같은 일부 단어에서만 가능하며 [ㅆ+ㅘ]의 결합은 《쏴, 쏴락대다, 쏴대다, 쏴지르다》 같은 단어에서만 가능하다.

[ㅆ+ㅙ]의 결합은 《쐐》와 관련된 합친말에서만 가능하며 [ㅆ+ㅞ]는 《쒜리, 쒜쒜》 같은 극히 일부 단어에서만 가능하다.

⑱ 첫소리 [ㅉ]는 홑모음 [ㅟ]를 제외한 전체 모음과 겹모음 [ㅑ, ㅕ, ㅘ]와 결합되고 겹모음 [ㅛ, ㅠ, ㅒ, ㅖ, ㅢ, ㅙ, ㅝ, ㅞ], 홑모음 [ㅟ]와는 결합되지 않는다.

[ㅉ+ㅑ]의 결합은 외래어 《쨤》에서 쓰이고 고유어 음운결합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ㅉ+ㅕ]의 결합도 《찌다》와 관련된 《찌어서→쪄서》, 《쪄닭기》 같은 극히 일부 단어에서만 가능하다. [ㅉ+ㅘ]의 결합은 《쫙쫙, 쫘르륵, 쫘락쫘락, 쫠쫠》 등 물이 떨어지거나 흘러내리는것을 나타내는 본딴말에서만 가능하다.

이상에서 조선어소리마디의 첫소리와 가운데소리 결합능력을 고찰하였는데 그것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가운데소리 / 첫소리	결합되는 모음	결합능력이 적은 례	결합되지 않는 모음
ㄱ	홑모음 전체 ㅑ, ㅕ, ㅛ, ㅠ, ㅒ, ㅖ, ㅘ, ㅙ, ㅝ, ㅞ		ㅢ
ㄴ	홑모음 전체 ㅑ, ㅕ, ㅛ, ㅠ, ㅢ, ㅖ, ㅝ	녜, 녯, 녠장, 늼붓질, 늬큼, 놨다, 놔두다	ㅒ, ㅘ, ㅙ, ㅞ
ㄷ	홑모음 전체 ㅠ, ㅙ, ㅞ	듀공(바다짐승의 한가지), 듀랄루민, 듀테리움, 듀화병, 돼먹다, 돼지, 뒈지다, 뒝벌	ㅑ, ㅕ, ㅛ, ㅒ, ㅖ, ㅢ, ㅘ, ㅝ
ㄹ	홑모음 전체 ㅑ, ㅕ, ㅛ, ㅠ, ㅖ		ㅒ, ㅢ, ㅘ, ㅙ, ㅝ, ㅞ

가운데 소리 / 첫소리	결합되는 모음	결합능력이 적은 례	결합되지 않는 모음
ㅁ	ㅏ, ㅓ, ㅗ, ㅜ, ㅡ, ㅣ, ㅐ, ㅔ, ㅚ, ㅕ, ㅛ, ㅠ, ㅝ, ㅞ	뫼, 뫼부리, 뫼자리, 뭐, 뭘하다, 뭣하다, 뭬(←무에)	ㅟ, ㅑ, ㅒ, ㅖ, ㅢ, ㅘ, ㅙ
ㅂ	ㅏ, ㅓ, ㅗ, ㅜ, ㅡ, ㅣ, ㅐ, ㅔ, ㅚ, ㅑ, ㅕ, ㅠ, ㅘ, ㅝ	뷰로, 뷰레트, 봤다, 뵀다	ㅟ, ㅛ, ㅒ, ㅖ, ㅢ, ㅙ, ㅞ
ㅅ	홑모음 전체 ㅑ, ㅕ, ㅛ, ㅠ, ㅘ, ㅙ, ㅞ	샤타, 샤베트, 미끼샤, 섁섁, 섁소리, 쇼비니즘, 쇼크, 슈바, 섁섁	ㅒ, ㅖ, ㅢ, ㅝ
ㅈ	홑모음 전체 ㅑ, ㅕ, ㅛ, ㅠ, ㅘ, ㅙ, ㅝ, ㅞ	잠바, 장글, 가졌다, 저나르다, 줬다, 줴기밥, 좌지	ㅒ, ㅖ, ㅢ
ㅊ	홑모음 전체 ㅑ, ㅕ, ㅛ, ㅠ, ㅘ, ㅝ, ㅞ	다쳤다, 춰서다, 촬영, 쵸콜레트, 챤스, 츄립	ㅒ, ㅖ, ㅢ, ㅙ
ㅋ	홑모음 전체 ㅑ, ㅕ, ㅠ, ㅘ, ㅙ	큐리점, 캭캭, 캬라멜	ㅛ, ㅒ, ㅖ, ㅢ, ㅝ, ㅞ
ㅌ	홑모음 전체 ㅠ, ㅢ, ㅞ	틔다(←트이다), 튜바, 튜보	ㅑ, ㅕ, ㅛ, ㅒ, ㅖ, ㅘ, ㅙ, ㅝ
ㅍ	ㅏ, ㅓ, ㅗ, ㅜ, ㅡ, ㅣ, ㅐ, ㅔ, ㅑ, ㅕ, ㅛ, ㅠ	퍅퍅하다, 퓽퓽하다	ㅚ, ㅝ, ㅒ, ㅖ, ㅢ, ㅘ, ㅙ, ㅝ, ㅞ

가운데소리 / 첫소리	결합되는 모음	결합능력이 적은 례	결합되지 않는 모음
ㅎ	홀모음 전체 ㅑ, ㅕ, ㅛ, ㅠ, ㅖ, ㅢ, ㅘ, ㅙ, ㅝ, ㅞ		ㅒ
ㄲ	홀모음 전체 ㅑ, ㅕ, ㅛ, ㅘ, ㅙ, ㅝ, ㅞ	꺌꺌대다, 꺄울대다, 꿩, 꿔주다	ㅠ, ㅒ, ㅖ, ㅢ
ㄸ	홀모음 전체 ㅢ, ㅘ, ㅙ	띄우개, 띄여쓰기, 똬리, 뙈기논, 뙈치다	ㅑ, ㅕ, ㅛ, ㅠ, ㅒ, ㅖ, ㅝ, ㅞ
ㅃ	ㅏ, ㅓ, ㅗ, ㅜ, ㅡ, ㅣ, ㅐ, ㅔ, ㅑ, ㅕ, ㅛ, ㅠ	뺘드득, 뺨, 뼈, 뼘, 뾰족하다, 뾰쭉	ㅚ, ㅟ, ㅒ, ㅖ, ㅢ, ㅘ, ㅙ, ㅝ, ㅞ
ㅆ	홀모음 전체 ㅛ, ㅢ, ㅘ, ㅙ, ㅞ	씌우개, 씌우다, 쏴, 쏴락대다, 쏵대다, 쐐기, 쒜리, 쒜쒜	ㅑ, ㅕ, ㅠ, ㅒ, ㅖ, ㅝ
ㅉ	ㅏ, ㅓ, ㅗ, ㅜ, ㅡ, ㅣ, ㅐ, ㅔ, ㅚ, ㅑ, ㅕ, ㅘ	쨤, 쪄서(←찌어서), 쪄닭기, 쫙쫙, 쫘르륵, 쫠쫠	ㅟ, ㅛ, ㅠ, ㅒ, ㅖ, ㅢ, ㅙ, ㅝ, ㅞ

조선어소리마디의 첫소리와 가운데소리의 결합에서는 일련의 특징을 가진다.

첫째로, 첫소리로 나타나는 자음과 가운데소리인 모음과의결합에서 일반적으로 결합능력이 강한것은 홀모음이다. 거의 모든 홀모음이 첫소리자음과의 결합이 잘 이루어진다.

물론 일부 홑모음가운데서 자음과의 결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것이 있다.

례컨대 첫소리 [ㅁ], [ㅂ], [ㅉ]와 모음 [ㅟ], 첫소리 [ㅍ], [ㅃ]와 모음 [ㅚ], [ㅟ]의 결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기에서 보는바와 같이 자음에서는 [ㅉ]를 내놓고는 모두 입술소리 [ㅁ, ㅂ, ㅍ, ㅃ]이며 모음으로서는 [ㅚ, ㅟ]이다. 음성학적으로 보면 [ㅁ, ㅂ, ㅍ, ㅃ]는 입술터침소리이고 모음 [ㅚ, ㅟ]는 입술둥근소리이다. 자음과 모음이 다 입술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 소리들이다. 한 측면으로는 우리 말에서 입술터침소리와 입술둥근소리의 결합능력이 약하다는 특성이 있고 다른 측면으로는 모음 [ㅚ, ㅟ]의 홑모음화가 아직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것과 관련되여 있다.

둘째로, 첫소리자음이 거의 모든 겹모음과 결합능력이 매우 약한것이다. 제일 결합능력이 약한 자음을 보면 [ㄷ, ㄹ, ㅁ, ㅂ, ㅅ, ㅋ, ㅌ, ㅍ, ㄲ, ㄸ, ㅃ, ㅆ, ㅉ]이다. 여기에서 된소리와 거센소리가 압도적다수를 차지한다.

이것은 거센소리, 된소리, 겹모음이 순한소리나 홑모음보다 후기에 발생한것과 많이 관련되여있다.

자음가운데서 모음과의 결합능력이 강한것이 [ㄱ]와 [ㅎ]이다. 자음 [ㄱ]는 겹모음 [ㅢ]와, 자음 [ㅎ]는 겹모음 [ㅒ]와의 결합이 진행되지 않고 다른 모음들과는 활발히 진행된다. [ㄱ+ㅢ]의 결합은 19세기말~20세기초에 존재하였으나 그후 겹모음 [ㅢ]가 들어간 소리마디가 홑모음 [ㅣ]가 들어간 소리마디로 바뀜으로써 오늘날에 와서는 《긔차→기차》, 《비행긔→비행기》, 《전긔→전기》로 되고말았다.

3) 가운데소리와 끝소리의 결합이 가운데소리에 따라 각이하나 끝소리가 매우 제한적이다.

조선어자음 19개가 있으나 이것이 모두 받침소리나 받침으로 나타나는것이 아니다. 조선어의 받침소리는 [ㄱ, ㄷ, ㅂ, ㅁ, ㄴ, ㅇ, ㄹ] 등 7개이며 이밖에 받침으로 쓰이는것이 홑받침 《ㅅ, ㅈ, ㅊ, ㅋ, ㅌ, ㅍ, ㅎ, ㄲ, ㅆ》, 겹받침 《ㄳ, ㄵ, ㄶ, ㄺ, ㄻ, ㄼ, ㄽ, ㄾ,

ㄼ, ㅀ, ㅂㄹ》 등 20개이다. 조선어의 된소리 《ㄸ, ㅃ, ㅆ》는 받침으로도 쓰이지 않는다. 이런 글자들이 받침으로 쓰이지 않기때문에 이것이 받침으로 되는가 안되는가 하는것은 론의밖의 대상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가운데소리와 끝소리의 결합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기로 하자.

① 조선어홑모음은 비교적 받침과의 결합능력이 강하다.

모음: 결합되는 자음

ㅏ: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ㄲ, ㄳ, ㄵ, ㄶ, ㄺ, ㄻ, ㄼ, ㅀ, ㅄ.

ㅓ: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ㄲ, ㄳ, ㄵ, ㄺ, ㄻ, ㄼ, ㅄ.

ㅗ: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ㅌ, ㅍ, ㅎ, ㄳ, ㄻ, ㄼ, ㅀ, ㄽ.

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ㅌ, ㅍ, ㄲ, ㄺ, ㄻ, ㄾ, ㅀ.

ㅡ: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ㅌ, ㅍ, ㅎ, ㄶ, ㄺ, ㄾ, ㅀ

ㅣ: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ㅆ, ㄺ, ㄻ, ㅀ

ㅐ: ㄱ, ㄴ, ㄹ, ㅁ, ㅂ, ㅅ, ㅇ, ㅈ.

ㅔ: ㄱ, ㄴ, ㄹ, ㅁ, ㅅ, ㅇ.

ㅚ: ㄱ, ㄴ, ㄹ, ㅂ, ㅅ.

ㅟ: ㄴ, ㅁ, ㅂ, ㅇ.

우의 결합관계에서 보여주는바와 같이 홑모음 [ㅏ, ㅓ, ㅗ, ㅜ, ㅡ, ㅣ]는 받침과의 결합이 활발하게 진행되나 [ㅐ, ㅔ, ㅚ, ㅟ]는 받침과의 결합능력이 약하다. 특히 [ㅚ, ㅟ]가 제일 심하다.

② 겹모음과 받침의 결합능력은 약하다.

겹모음: 결합되는 자음

ㅑ: ㄱ, ㄴ, ㄹ, ㅁ, ㅅ, ㅇ, ㅌ, ㅎ, ㄼ.

ㅕ: ㄱ, ㄴ, ㄹ, ㅁ, ㅂ, ㅅ, ㅊ, ㅋ, ㅌ, ㅍ, ㅎ, ㄲ, ㅆ, ㄼ, ㅄ.

ㅛ: ㄱ, ㄴ, ㅇ.
ㅠ: ㄱ, ㄴ, ㄹ, ㅁ, ㅅ, ㅇ.
ㅒ: ㄴ, ㄹ, ㅇ.
ㅖ: ㅅ.
ㅢ:
ㅘ: ㄱ, ㄴ, ㅇ.
ㅝ: ㄱ, ㄴ, ㄹ, ㅁ, ㅅ, ㅇ.
ㅙ: ㄱ, ㅇ.
ㅞ: ㄴ, ㅇ.

겹모음과 받침의 결합에서는 [ㅑ, ㅕ]를 제외하고는 결합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 겹모음 [ㅢ]는 받침이 전혀 결합되지 않고 [ㅖ]는 오직 [ㅅ]와만, [ㅙ, ㅞ]는 [ㄴ, ㅇ]와만 결합된다.

2. 소리마디와 소리마디사이에서의 음운들의 결합규칙

조선어에서의 소리마디는 모음을 기둥으로 하여 이루어지기때문에 소리마디와 소리마디사이에서의 음운들의 결합이라고 할 때 소리마디의 기둥을 이루는 모음+모음의 결합, 모음+자음+모음의 결합, 모음+자음(자음)+자음+모음의 결합이 있을수 있다. 여기에서 모음과 모음사이에 자음이 하나 또는 두개가 놓일 때에는 자음들이 음운 혹은 변종으로서 실현되나 모음과 모음사이에 세개의 자음이 놓일 때 두개의 자음만이 실현되며 하나의 자음은 위치적제약을 받으면서 실현되지 못한다.

1) 모음과 모음의 결합

	결 합 되 는 것	결합되지 않는것
ㅏ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ㅐ, ㅚ, ㅟ, ㅖ, ㅢ, ㅘ, ㅝ	ㅒ, ㅔ, ㅙ, ㅞ
ㅓ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ㅐ, ㅚ, ㅖ, ㅢ, ㅝ	ㅔ, ㅒ, ㅘ, ㅙ, ㅞ

	결 합 되 는 것	결합되지 않는것
ㅗ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ㅐ, ㅚ, ㅟ, ㅒ, ㅖ, ㅢ, ㅘ, ㅝ	ㅔ, ㅙ, ㅞ
ㅜ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ㅐ, ㅔ, ㅚ, ㅟ, ㅖ, ㅢ, ㅘ, ㅝ, ㅞ	ㅒ, ㅙ
ㅡ	ㅏ, ㅑ, ㅓ, ㅕ, ㅡ, ㅟ, ㅘ, ㅞ	ㅗ, ㅛ, ㅜ, ㅠ, ㅣ, ㅐ, ㅒ, ㅔ, ㅖ, ㅚ, ㅢ, ㅙ, ㅝ
ㅣ	ㅏ, ㅑ, ㅓ, ㅕ, ㅗ, ㅛ, ㅡ, ㅣ, ㅐ, ㅔ, ㅖ, ㅚ, ㅟ, ㅢ, ㅘ, ㅝ	ㅜ, ㅠ, ㅒ, ㅙ, ㅞ
ㅐ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ㅐ, ㅔ, ㅖ, ㅚ, ㅟ, ㅢ, ㅘ, ㅝ	ㅒ, ㅙ, ㅞ
ㅔ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ㅐ, ㅖ, ㅚ, ㅟ, ㅢ, ㅘ, ㅝ	ㅒ, ㅔ, ㅙ, ㅞ
ㅚ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ㅐ, ㅔ, ㅚ, ㅘ, ㅝ	ㅢ, ㅒ, ㅙ, ㅞ, ㅟ, ㅖ
ㅟ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ㅐ, ㅔ, ㅢ, ㅘ, ㅝ	ㅒ, ㅖ, ㅚ, ㅟ, ㅙ, ㅞ
ㅑ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ㅐ, ㅚ, ㅟ, ㅝ, ㅞ	ㅒ, ㅔ, ㅖ, ㅢ, ㅘ, ㅙ
ㅒ	ㅟ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ㅐ, ㅒ, ㅔ, ㅖ, ㅚ, ㅢ, ㅘ, ㅝ, ㅙ, ㅞ
ㅕ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ㅐ, ㅖ, ㅟ, ㅢ, ㅘ, ㅝ	ㅒ, ㅔ, ㅚ, ㅙ, ㅞ
ㅖ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ㅟ, ㅢ, ㅘ, ㅝ	ㅐ, ㅒ, ㅔ, ㅖ, ㅚ, ㅙ, ㅞ
ㅛ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ㅖ, ㅚ, ㅟ, ㅢ, ㅘ, ㅝ	ㅐ, ㅒ, ㅔ, ㅙ, ㅞ

	결합되는것	결합되지 않는것
ㅠ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ㅒ, ㅔ, ㅖ, ㅟ, ㅢ, ㅘ, ㅝ	ㅐ, ㅚ, ㅙ, ㅞ
ㅢ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ㅚ, ㅟ, ㅢ, ㅝ	ㅐ, ㅒ, ㅔ, ㅖ, ㅘ, ㅙ, ㅞ
ㅘ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ㅒ, ㅖ, ㅢ, ㅘ, ㅝ	ㅐ, ㅚ, ㅟ, ㅙ, ㅞ
ㅝ		모음전부
ㅙ	ㅕ, ㅗ, ㅣ, ㅘ	ㅏ, ㅑ, ㅗ, ㅛ, ㅜ, ㅠ, ㅡ, ㅐ, ㅒ, ㅔ, ㅖ, ㅚ, ㅟ, ㅢ, ㅝ, ㅙ, ㅞ
ㅞ	ㅏ, ㅑ, ㅓ, ㅕ, ㅜ, ㅠ	ㅗ, ㅛ, ㅡ, ㅣ, ㅐ, ㅒ, ㅔ, ㅖ, ㅚ, ㅟ, ㅢ, ㅘ, ㅝ, ㅙ, ㅞ

모음과 모음결합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조선어의 모음+모음에서 대부분 결합능력이 강하다. 그러나 모음결합에서 앞에 놓인 모음이 [ㅝ]인 경우에는 다른 모음과의 결합능력이 전혀 없고 [ㅒ]인 경우에는 뒤에 이어지는 모음 [ㅟ]와만 결합된다.

② 일부 모음ㅁ모음결합은 외래어에서만 나타난다. 조선고유어나 한자말에서는 그런 결합이 없고 외래어 소리마디결합에서만 있다. 즉 [ㅡ+ㅟ], [ㅡ+ㅘ], [ㅡ+ㅞ], [ㅠ+ㅔ], [ㅔ+ㅞ], [ㅞ+ㅏ]의 결합 같은것들이다.

③ 모음+모음결합에서 뒤에 놓인 모음으로는 [ㅒ, ㅖ, ㅙ, ㅞ] 같은 겹모음이 앞에 놓인 모음과 잘 결합되지 않는다. 이 가운데서도 결합능력이 제일 약한 모음은 [ㅙ, ㅞ]이다.

2) 모음+자음+모음

두 소리마디사이 즉 모음과 모음사이에 자음이 있을 때에는 자음이 뒤소리마디의 첫소리로 된다. 여기에서는 뒤에 놓인 모음에는

관계하지 않고 앞에 놓인 모음의 종류에 따라 뒤소리마다 첫소리에 놓인 자음을 고찰하기로 한다.

모음	결합되는것	결합되지 않는것
ㅏ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ㅌ, ㅍ, ㅎ, ㄲ, ㄸ, ㅃ, ㅆ, ㅉ	
ㅓ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ㅌ, ㅍ, ㅎ, ㄲ, ㄸ, ㅃ, ㅆ, ㅉ	
ㅗ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ㅌ, ㅍ, ㅎ, ㄲ, ㄸ, ㅃ, ㅆ	ㅉ
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ㅌ, ㅍ, ㅎ, ㄲ, ㄸ, ㅃ, ㅆ, ㅉ	
ㅡ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ㅌ, ㅍ, ㅎ, ㄲ, ㄸ, ㅆ, ㅉ	ㅃ
ㅣ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ㅌ, ㅍ, ㅎ, ㄲ, ㄸ, ㅃ, ㅆ, ㅉ	
ㅐ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ㅌ, ㅍ, ㅎ, ㄲ, ㄸ, ㅉ	ㅃ, ㅆ
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ㅌ, ㅍ, ㅎ, ㄲ, ㄸ, ㅉ	ㅋ, ㅃ, ㅆ
ㅚ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ㅌ, ㅍ, ㅎ, ㄲ, ㅆ, ㅉ	ㅋ, ㄸ, ㅃ

모음	결 합 되 는 것	결 합 되 지 않 는 것
ㅟ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ㅌ, ㅎ, ㄸ, ㅃ	ㅋ, ㅍ, ㄲ, ㅆ, ㅉ
ㅑ	ㄱ, ㄷ, ㄹ, ㅁ, ㅂ, ㅅ, ㅈ, ㅎ, ㅉ	ㄴ, ㅊ, ㅋ, ㅌ, ㅍ, ㄲ, ㄸ, ㅃ, ㅆ
ㅕ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ㅌ, ㅍ, ㅎ, ㄸ, ㅃ, ㅆ, ㅉ	ㅋ, ㄲ
ㅛ	ㄱ,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ㅌ, ㅍ, ㅎ	ㄴ, ㅋ, ㄲ, ㄸ, ㅃ, ㅆ, ㅉ
ㅠ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ㅌ, ㅎ	ㅍ, ㄲ, ㄸ, ㅃ, ㅆ, ㅉ
ㅒ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ㅌ, ㅍ, ㅎ, ㄲ, ㄸ, ㅃ, ㅆ, ㅉ
ㅖ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ㅌ, ㅍ, ㅎ, ㅃ	ㅋ, ㄲ, ㄸ, ㅆ, ㅉ
ㅢ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ㅌ, ㅎ	ㅊ, ㅋ, ㅍ, ㄲ, ㄸ, ㅃ, ㅆ, ㅉ
ㅘ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ㅌ, ㅍ, ㅎ, ㄲ	ㅋ, ㄸ, ㅃ, ㅆ, ㅉ
ㅝ	ㄴ, ㅎ	ㄱ,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ㅌ, ㅍ, ㄲ, ㄸ, ㅃ, ㅆ, ㅉ
ㅙ	ㄱ, ㄴ, ㄹ, ㅁ, ㅂ, ㅈ, ㅎ	ㄷ, ㅅ, ㅊ, ㅋ, ㅌ, ㅍ, ㄲ, ㄸ, ㅃ, ㅆ, ㅉ
ㅞ	ㄷ, ㅂ, ㅊ, ㄸ	ㄱ, ㄴ, ㄹ, ㅁ, ㅅ, ㅈ, ㅋ, ㅌ, ㅍ, ㅎ, ㄲ, ㅃ, ㅆ, ㅉ

소리마디들사이의 음운결합에서 앞소리마디의 가운데소리와 뒤소리마디의 첫소리의 결합에서는 일련의 특징이 있다.

① 모음과 그뒤에 이어지는 첫소리와의 결합에서는 홑모음과 자음의 결합능력이 강하고 겹모음과 자음의 결합능력이 약하다.

홑모음과 자음의 결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것이 모두 거센소리와 된소리뿐이다. [ㅓ/ㅋ, ㅍ, ㄲ, ㅆ, ㅉ]의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밖에 홑모음과 뒤에 오는 소리마디 첫소리와의 결합은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된다.

② 겹모음과 뒤에 있는 소리마디 첫소리와의 결합이 홑모음+첫소리와의 결합보다 약하게 진행된다. 겹모음가운데서도 제일 결합능력이 약한것이 [ㅒ, ㅞ]이다. 겹모음 [ㅒ]는 [ㄱ]와만 결합되고 겹모음 [ㅞ]는 [ㄴ, ㅎ]와만 결합된다.

겹모음가운데서 결합능력이 제일 활발한것이 [ㅕ]이다. 겹모음 [ㅕ]는 뒤에 오는 [ㅋ, ㄲ]와만 결합하지 않을뿐 기타 모든 자음과는 잘 결합된다.

3) 모음+자음+자음+모음의 결합

앞에서 소리마디안에서 가운데소리+끝소리, 첫소리+가운데소리를 고찰하였기때문에 여기서는 모음과 모음사이에 두개 자음이 나타나는 경우만을 취급하기로 한다.

자음	결 합 되 는 것	결 합 되 지 않 는 것
ㄱ	ㅊ, ㅋ, ㅌ, ㅍ, ㄲ, ㄸ, ㅃ, ㅆ, ㅉ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ㅎ
ㄴ	ㄱ, ㄴ, ㄷ, ㅁ, ㅂ, ㅅ, ㅈ, ㅊ, ㅋ, ㅌ, ㅍ, ㅎ, ㄲ, ㄸ, ㅃ, ㅆ, ㅉ	ㄹ
ㄷ	ㅊ, ㄲ, ㄸ, ㅃ, ㅆ, ㅉ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ㅋ, ㅌ, ㅍ, ㅎ
ㄹ	ㄱ,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ㅌ, ㅍ, ㅎ, ㄲ, ㄸ, ㅃ, ㅆ, ㅉ	ㄴ

자음	결합되는것	결합되지 않는것
ㅁ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ㅌ, ㅍ, ㅎ, ㄲ, ㄸ, ㅃ, ㅆ, ㅉ	
ㅂ	ㅊ, ㅌ, ㅍ, ㄲ, ㄸ, ㅃ, ㅆ, ㅉ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ㅋ, ㅎ
ㅇ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ㅌ, ㅍ, ㅎ, ㄲ, ㄸ, ㅉ	ㅃ, ㅆ

조선어에서 모음과 모음사이에 하나의 자음이 놓일 때에 (자음 [ㅇ]는 제외) 그 자음은 뒤소리마디의 첫소리가 되고 두개 자음이 놓일 때에는 앞자음은 받침소리가 되며 뒤자음은 첫소리로 된다. 모음들사이에 두개 자음이 겹치는 경우 앞의 자음음운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글자수로는 여러개가 나타나지만 음운으로서는 7개만이 나타난다. 앞에 놓인 자음이 막힘소리인 경우에는 그뒤에 순한소리나 울림자음이 올수 없다. 막힘소리뒤에 놓인 막소리는 된소리로 발음되며 만일 뒤자음이 울림자음인 경우에는 앞에 놓인 자음에 닮기현상을 일으켜 울림자음으로 변화시킨다. 따라서 막힘소리뒤에 오는 자음으로는 거센소리나 된소리만이 오게 되고 순한소리, 울림자음은 오지 않는다.

※ 여기서 자음+자음결합은 형태상으로 나타난 글자결합이 아니라 음운으로서의 말소리결합이다. 그렇기때문에 앞에 놓이는 자음으로는 7개 자음밖에 오지 않는다.

막힘소리 [ㄱ, ㄷ, ㅂ]뒤에 [ㅎ]가 나타날 때는 음운으로서는 [ㅋ, ㅌ, ㅍ]이기때문에 [ㄱ, ㄷ, ㅂ]+[ㅎ]로 보지 않는다. 그것은 표기상 [ㄱ, ㄷ, ㅂ]와 [ㅎ]가 나타났을뿐이지 음운으로서는 [ㅋ, ㅌ, ㅍ]이다. 따라서 글자표기와 음운을 혼돈하지 말아야 한다는 문제가 나선다.

앞선 자음이 울림자음인 경우에 뒤의 자음과의 결합능력이 강하다. 도표에서 보다싶이 앞선 자음 [ㄴ]는 [ㄹ], [ㄹ]는 [ㄴ], [ㅇ]는 [ㅃ], [ㅆ]와 결합되지 않을뿐 다른 자음과는 음운결합이 잘 진행된다. 특히 앞선 자음 [ㅁ]는 모든 자음과 다 결합할수 있

는 능력을 가진다. 또한 자음 [ㅎ+ㄱ], [ㅎ+ㄷ], [ㅎ+ㅈ]에서는 [ㅎ]와 [ㄱ, ㄷ, ㅈ]가 서로 구별되여 발음되는것이 아니라 [ㅎ]와 [ㄱ, ㄷ, ㅈ]가 합치여 거센소리 [ㅋ, ㅌ, ㅊ]로 발음된다. 이것은 순한소리 [ㄱ, ㄷ, ㅈ]음운이 거센소리음운으로 변하였다는것을 말하여준다.

4) 모음+자음+자음+자음+모음의 결합

모음과 모음사이에 형태상으로 세개의 자음이 겹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음운론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음들사이에 있는 세개의 자음은 음운으로 다 실현되지 않기때문이다. 세개 자음가운데서 두개 자음만이 음운으로 실현되며 하나의 자음은 위치상 음운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음운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것을 음운이라고 말할수 없다.

모음들사이에 세개 자음이 있을 때 음운론적으로는 두개 류형이 있다. 하나는 세개 자음가운데서 하나의 자음이 음운으로서의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는것과 다른 하나는 뒤에 있는 음운과 합치여 다른 음운이 되는것이다.

△ 세개 자음가운데서 하나의 자음이 음운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것.

ㄵ+ㄷ→ㄴ+ㄷ[ㄸ]

ㄾ+ㄷ→ㄹ+ㄷ[ㄸ]

ㅄ+ㄷ→ㅂ+ㄷ[ㄸ]

ㅄ+ㄷ→ㅂ+ㅈ[ㅉ]

여기서는 가운데 있는 자음 [ㅈ, ㄹ, ㅅ]가 자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며 끝자음이 된소리로 나는것은 가운데자음과는 관계가 없고 첫 자음의 발음상영향때문이다.

△ 세개 자음가운데서 첫 자음이 음운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것.

ㄺ+ㄷ→ㄱ+ㄷ[ㄸ]

ㄺ+ㅁ→ㄱ+ㅁ

ㄺ+ㅅ→ㄱ+ㅅ[ㅆ]

ㄻ + ㄱ → ㅁ + ㄱ[ㄲ]

ㄻ + ㄷ → ㅁ + ㄷ[ㄸ]

ㄻ + ㅈ → ㅁ + ㅈ[ㅉ]

ㄼ + ㄷ → ㅂ + ㄷ[ㄸ]

첫 자음이 빠지면서 자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끝자음이 된 소리(ㄺ + ㅁ는 제외)로 발음된다.

△ 가운데자음과 끝자음이 합치여 제3의 음운이 되는것.

ㄵ + ㅎ → ㄴ + ㅊ

ㄶ + ㄷ → ㄴ + ㅌ

ㄼ + ㅎ → ㄹ + ㅍ

ㅀ + ㄱ → ㄹ + ㅋ

ㅀ + ㄷ → ㄹ + ㅌ

ㅀ + ㅂ → ㄹ + ㅍ

이 자음결합에서는 [ㅎ]와 관련되여 진행되는 음운의 변화이다. 여기서는 [ㅈ + ㅎ → ㅊ], [ㄷ + ㅎ → ㅌ], [ㅂ + ㅎ → ㅍ], [ㄱ + ㅎ → ㅋ]로 되는 현상들이다.

우에서 렬거한 첫째, 둘째 경우와는 달리 여기서는 자음의 빠짐현상이 진행되지 않고 두 자음이 합해져서 제3의 자음(음운)이 이루어지는것이 특징이다.

이상에서 고찰한바와 같이 음운들의 결합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우에서는 조선어에서 리용되는 소리마디와 단어에서의 음운들의 결합관계를 보았다.

제4장. 조선어음운의 결합단위로서의 소리마디

제1절. 소리마디의 개념과 소리마디에 대한 여러가지 견해

언어행위는 말소리의 련속적인 흐름으로 진행된다. 말소리흐름은 개별적인 말소리의 련속인 동시에 일정한 발음단위의 련속이다. 말소리흐름을 개개의 말소리로 또는 최소의 발음단위인 소리마디로 구분할수 있다.

말소리흐름을 개개의 말소리로 구분해낼수는 있어도 모음을 제외하고는 개별적말소리로 발음할수는 없다. 개별적말소리가 음운론적단위로 갈라질수는 있어도 발음단위로는 되지 못한다. 따라서 소리마디만이 언어행위에서 최소의 발음단위로 된다.

모음인 경우에 소리마디가 하나의 말소리로 이루어질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보통 자모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즉 CV, VC, CVC 와 같은 형식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언어에 따라서„한 소리마디에서 자음이 겹쳐 나타날수도 있다.

례컨대 로어의 경우에 《вражда》, 《спорт》에서는 모음앞에 《вр》, 《сп》와 같은 두개 자음이 겹쳐 나타나고 《включать》, 《стрелка》에서는 모음앞에 《вкл》, 《стр》같이 세개 자음이 겹쳐 나타났다. 이것은 언어의 민족적특성이다. 언어에 따라서 겹자음이 발음될수도 있고 발음되지 않을수도 있다. 현재 조선어나 일본어 같은 언어에서는 겹자음이 발음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현상은 언어발전의 일정한 단계와도 관련된다고 말할수 있다. 일부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오늘날에 와서 조선어에

서 겹자음의 발음이 허용되지 않지만 15세기 경우에는 겹자음의 발음이 허용되였다고 한다. 그후 음운의 변화발전과정에 몇개의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거나 모음의 첨가에 의하여 자음이 분리되는 등 이러저러한 원인에 의하여 현재는 소리마디구성에서 겹자음의 발음이 허용되지 않고있다.

또한 소리마디를 이루는데서 모음을 핵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나 부분적인 경우에 자음만으로 소리마디를 구성하는 현상도 있다.

례컨대 도이취어 및 쎄르비아어 등에서는 자음만으로 소리마디를 이루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울림자음이 반드시 포함되게 된다.

례컨대 도이취어에서는 소리마디의 핵은 기본적으로 모음이지만 일부 자음들이 소리마디의 핵으로 되는 경우가 있다. (brr, hm 등)

이와 같이 자음만으로 소리마디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부분적이다. 이런 언어들에서도 기본은 모음을 핵으로 하여 소리마디가 구성된다.

소리마디구성에서 자음과 모음의 결합관계와 소리마디구분문제가 언어에 따라 각이하였기때문에 말소리흐름속에서의 소리마디구분에 대한 여러가지 견해들이 나왔다.

그 견해의 하나가 《호기설(экспираторная теория)》이다.

이 리론은 19세기말 도이췰란드 언어학자들에 의하여 제기되였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언어행위에서 말소리흐름은 굴곡이 없이 평탄하게 진행되는것이 아니라 날숨의 충격에 의해서 굴곡이 생기게 되는데 날숨의 충격이 소리마디에 대응된다는것이다. 그리하여 소리마디의 계선은 가장 약한 날숨의 모멘트로 된다.

이 문제는 20세기 50년대초에도 다시 제기되였으나 많은 언어학자들의 배격을 받았다.

왜냐하면 소리마디의 수는 충격의 수와 필수적으로 일치하지 않기때문이다.

파형에서 진폭이 제일 작은것은 무성음이지만 모음과 울림자음은 진폭이 큰 소리들이다.

어떤 때는 모음보다 울림자음의 진폭이 더 큰 때가 있다. 이러한것으로 하여 《호기설》에서 충격의 정도에 따라 소리마디를 가르는것은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다.

또한 소리마디구분을 하는데서 다른 하나의 견해는 《울림도설(теория сонорности)》이다. 이 학설은 19세기말에 일부 언어학자들에 의하여 제기되였다.

이 견해는 호기의 원리와 《어음적》원리의 결합에 기초하고있다. 견해의 주장자들은 소리마디원리에서 날숨의 충격에 의하여 규정되나 소리마디의 마루는 일정한 울림도를 가진 어음만이 조성한다고 간주하였다. 만일 두개 어음이 같은 울림도를 가진다면 날숨의 세기가 결정적역할을 놀게 된다.

그후 단마르크 언어학자 예스페르센이 울림도설을 더 발전시켰다.

이 리론은 세계에 널리 보급되였다.

예스페르센은 가장 낮은 울림도를 가진 어음으로부터 시작하여 가장 높은 울림도를 가진 어음의 단계를 설정하였다. 이들사이는 일정한 순서로 놓여있다.

1) 무성막힘자음(터침자음) [p, t, k]
2) 무성스침자음 [f, s, x, c]
3) 유성막힘자음 [b, d, g]
4) 유성스침자음 [v, z; y]
5) 코소리 [m, n, ŋ]
6) 혀옆소리 [l]
7) 혀떨음소리 [r]
8) 높은모음 [i, y, u]
9) 중간높은모음 [e, ϕ, o]
10) 낮은모음 [a, ɔ, æ]

여기에서 보다싶이 울림도가 제일 낮은 어음이 무성막힘자음 [p, t, k]이고 울림도가 제일 높은 어음이 낮은모음 [a, ɔ, æ]이다.

그 나머지 자음들은 울림도가 제일 낮은 어음과 제일 높은 어음사이에 놓여있다.

말소리흐름속에서의 소리마디의 구분은 절대적인 울림도에가 아니라 린접어음과의 상대적인 울림도에 의존한다. 울림도의 마루만큼 소리마디가 갈라진다. 이렇게 되면 모음뿐만이 아니라 울림자음도 소리마디의 마루로 된다.

이 리론의 부족점은 무엇보다먼저 하나의 소리마디에 두개 마루가 있을수 있다는데 있다.

왜냐하면 모음과 울림자음이 다 울림도가 높기때문에 하나의 소리마디에 두개의 마루가 오게 된다.

이 리론은 겹자음의 존재로 소리마디구분문제가 복잡한 언어들에서 의의가 있는 문제이지 조선어와 같이 겹자음의 발음이 존재하지 않는 언어들에서는 큰 의의를 가지지 못한다.

물론 예스페르센이 제기한 소리마디구분에서 울림도설이 아무런 의의도 없는것은 아니다.

그가 제기한 리론과는 차이가 나지만 적지 않은 언어들에서 소리마디구분을 울림도에 따라 진행하고있다.

례컨대 로어의 경우에 막소리를 울림도 1, 울림자음(쏘난트)을 울림도 2, 모음을 울림도 3으로 정해놓고 소리마디를 구분하고 있다.

울림도 3을 중심으로 울림도 1, 2가 결합되며 울림자음과 막소리만으로는 소리마디를 형성하지 못한다.

그후 똠손이 호기설과 울림도설을 어울려 소리마디를 구분하려했다.

마지막으로 소리마디구분설의 하나가 《근육긴장설》이다. 이것은 처음으로 1929년에 프랑스의 언어학자 엘.그람몬이 내놓았고 그후 로씨야의 언어학자 엘.베.쉐르바가 그 리론을 발전시켰다.

여기서도 소리마디구분문제에 기본적인 주의가 돌려졌다.

이 리론에 의하면 말소리흐름은 어음계렬의 순차적인 강약에 따라서 발음된다. 강한것으로 시작되고 약한것으로 끝나는 말소리흐름의 부분을 소리마디라고 한다. 그의 마루(달리 말하여 중심)에

소리마디를 조성하는 어음이 있다.

소리마디구분에서 근육긴장성정도에 따라 자음의 각이한 발음을 고려하는것이 중요하다.

첫째 류형은 긴장하게 시작되는 자음들이다. 자음의 끝이 그의 시작보다 긴장이 강화되고 점차 약화된다. 즉 자음의 끝이 그의 시작보다 약하다.

○ ус, рад, боб

둘째 류형은 강하게 끝나는 자음들이다. 자음의 끝은 그의 시작보다 강하다. 즉 자음은 약한 긴장으로부터 시작되여 소리의 끝에로 점차 강화된다.

○ та, ссо—ра, ввоз

셋째 류형은 두개 마루로 된 자음들이다. 마치 그들사이에 긴장의 정도가 약화될 때에 강하게 시작되는 자음이 강하게 끝나는 자음과의 결합인듯 하다. 두개 마루로 된 자음들은 항상 모음들사이에 있으며 소리마디의 계선은 그안에서 가장 약화된 모멘트로 지나간다.

례컨대 로어에서 그앞에 력점이 있는 쌍자음(двойные согласные)을 들수가 있다.

ва́н—на, ви́л—ла, тру́п—па

이와 같은 현상은 단어의 접촉에서도 나타난다.

кот, тако́й, вку́с, со́ли

두개 마루의 자음은 로어에서 전형적이 아니며 이딸리아어에서 특징적이다.

임의의 언어행위는 조음적인 측면과 음향학적인 측면을 가지는것만큼 소리마디는 이 두 측면에서 고찰되여야 한다. 그러므로 조음—음향학적종합리론이 가장 옳은것이다. 조음기관의 근육긴장은 자연적으로 조음적측면에 속하고 그의 변종으로 고찰되여야 할것이다.

따라서 소리마디는 언어행위의 최소발음단위이며 그 요소들은 음향학적으로나 조음적으로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있다고 규정할수 있다.

제2절. 조선어소리마디구성과 그 종류

1. 조선어소리마디의 구성

조선어에서의 소리마디는 성절음을 기둥으로 해서만 이루어진다. 이때 성절음은 철저히 모음이다.

조선어에서 모음이 없는 성절음이란 생각할수 없다. 조선어에서는 성절음을 핵으로 해서만이 소리마디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비성절음인 자음이 결합된다.

모음은 독자적으로 발음할수 있는 말소리이며 길고 짧게도, 높고 낮게도 발음할수 있는 말소리이다. 소리마디란 언어의 최소의 발음단위이기때문에 비성절음인 자음만으로는 소리마디를 이루지 못하며 자립적으로 발음되는 모음이 기둥으로 되여야만 소리마디가 이루어진다.

조선어에서 울림자음 [ㅁ, ㄴ, ㅇ, ㄹ]는 말소리의 구성요소로 볼 때 모음에 매우 가까운 말소리들이다. 울림자음에서 음향학적으로 모음의 성질과 자음의 성질을 가른다면 모음에 더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어에서 울림자음은 성절음이 되지 못하며 소리마디의 기둥으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것은 울림자음이 음향학적성질로 볼 때 비록 모음에 가깝지만 그것이 자립적으로 발음되지 못하는것으로 하여 성절음이 되지 못한다.

일부 다른 나라 언어에서는 울림자음이 소리마디의 기둥으로서의 작용을 하기때문에 자음의 결합만으로도 소리마디를 이루지만 조선어에서는 그렇지 않다. 조선어에서 소리마디의 기둥은 철저히 모음이다.

물론 모음이라고 하여 다 성절음으로, 소리마디의 기둥으로 되는것이 아니다.

조선어의 반모음이 바로 그러하다. 조선어의 반모음 [i̯]와 [u̯]는 겹모음의 앞요소로서 모음부류에 속한다. 다른 나라 말에서는 [j]와 [w]가 모음에가 아니라 자음에 가깝기때문에 울림자음으로

취급되지만 조선어겹모음에서 앞요소로서의 [i̯], [u̯]는 자음의 성질보다 모음의 성질이 강한것으로 하여 모음부류에 들어가나 그것이 성절음적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것으로 하여 소리마디의 기둥, 핵으로 되지 못한다. 따라서 조선어의 반모음 [i̯], [u̯]는 비성절음이며 소리마디구성에서는 자음이 노는 기능과 차이가 없다.

2. 조선어소리마디의 종류

조선어의 소리마디의 종류는 그리 많지 않다.

첫째로, 조선어의 소리마디는 하나의 모음만으로도 이루어진다. 모음으로 소리마디가 이루어질 때 홑모음만으로도 이루어지고 겹모음만으로도 이루어진다.

○ 아, 어, 오, 우, 이, 으, 외, 위, 애, 에, 야, 여, 요, 유, 얘, 예, 와, 왜, 워, 웨, 의

둘째로, 조선어의 소리마디는 자음이 모음의 앞에 놓여 이루어진다.

○ 개, 귀, 나, 너, 다, 바다, 자기, 자주

셋째로, 조선어의 소리마디는 모음뒤에 자음이 놓여 이루어진다.

○ 안, 억, 옥

넷째로, 조선어의 소리마디는 모음의 앞뒤에 자음이 하나씩 결합되여 이루어진다.

○ 감, 길, 먹, 삽, 잠, 종

이와 같이 현대조선어의 소리마디는 항상 모음이 중심으로 되여있으며 한개 모음으로 되여있는것을 비롯하여 두개 또는 세개의 어음이 합하여 소리마디를 이루고있다.

따라서 현대조선어에서는 한개 소리마디안에 모음이나 자음이 두개이상 련속하여 나타날수 없다. 비록 철자상으로 《vcc》, 《cvcc》으로 구성되여있다 하더라도 실지 언어생활에서는 《vc》, 《cvc》으로 발음될뿐이다.

○ 닭[닥], 몫[목], 돐[돌]

그러면 현대조선어 소리마디구조가 어떻게 되여있는가 하는것을 보기로 하자.

단어	소리마디의 구조
아이, 아우	v+v
아주, 아기	v+cv
아욱	v+vc
오직	v+cvc
사위, 가위	cv+v
사과, 가시	cv+cv
마을, 노을	cv+vc
사람, 사슴	cv+cvc
오리	v+cv
올케, 얼레	vc+cv
안온	vc+vc(v□cvc)
욕심	vc+cvc
각오	cvc+v(cv□cv)
국수	cvc+cv
물욕	cvc+vc(cv□cvc)
갑작	cvc+cvc

조선어의 소리마디는"자음으로 끝났는가 모음으로 끝났는가에 따라 닫긴소리마디와 열린소리마디로 갈라진다.

닫긴소리마디: 감, 봉, 김, 숲, 먹, 속, 독, 벽, 끌

열린소리마디: 가지, 보리, 서리, 머리, 아프다, 뜨다, 따다

제3절. 조선어에서의 소리마디구분

소리마디는 표기단위가 아니라 발음단위이다. 발음단위로 여러 층계가 있지만 소리마디는 말소리흐름에서의 최소발음단위이다. 조선어에서의 소리마디구분은 우리 말의 표기를 소리마디단위로 갈라 표기하는 조건에서 단순한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표기를 소리마디단위로 묶어쓰지만 하나의 단위가 하나의 소리마디로 되는것도 있으나 대부분 여러개 소리마디로 이루어져있다. 여러개 소리마디로 된 단어를 소리마디별로 끊어 발음하는것이 아니라 련속하여 발음하기때문에 최소의 발음단위인 소리마디의 계선이 표기단위와 일치하지 않는다. 바로 여기에 소리마디분계선문제의 복잡성이 있다.

조선어의 소리마디구분문제에서는 고유어의 경우와 한자어의 경우가 다르며 형태론적조건에 따라 달리 처리되는 경우들이 있다.

고유어휘의 경우 《v+v》(아이, 오이, 아우), 《vc+cv》(엄마, 올케, 울다), 《v+cv》(우리, 어미, 오리)의 경우 이 두 말소리사이에 소리마디분계선이 오게 된다.

1) 두 모음사이에 하나의 자음이 있는 경우에 그 자음은 뒤소리마디의 첫 소리로 된다. 이때 형태표기상 두가지 경우가 있다.

즉 하나는 모음과 모음사이에 있는 자음이 앞소리마디의 끝소리로 놓여있는 경우(길이, 말이)와 그것이 뒤소리마디의 첫소리로 놓여있는 경우(무리, 서로)이다. 형태적으로 자음이 끝소리에 놓여있건 첫소리에 놓여있건 관계없이 소리마디분계선은 자음앞에 놓이게 된다.

길이[기:리], 말이[마:리]

무리[무:리], 서로[서:로]

《c+v》의 경우에 소리마디분계선이 달리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다.

cvc+v→cv+cv 감이[가:미], 살아[사:라]

vc+vc→v+cvc 옷을[오:슬], 옴을[오:믈]

cvc+v→cv+cv 물이[무:리], 놀이[노:리]

cvc+vc→cv+cvc 골안[고:란]

이것은 모음과 모음사이에 자음이 놓이는 경우에 그 자음은 뒤소리마디의 첫소리로 되는 원리에 기초하고있다.

이 원리를 모든 자음에 다 적용할수는 없다.

일부 사람들은 모음과 모음사이에 자음 《ㅇ》가 놓이는 경우에 그 자음이 뒤소리마디의 첫소리로 된다고 주장하고있다.

례컨대 《강아지》에서 끝소리 《ㅇ》가 뒤에 놓인 모음에 이어져 발음되기때문에 소리마디분계선이 《가앙지》로 된다고 주장하고있는데 이것은 과학적으로 납득성이 없다.

조선어에서 자음 《ㅇ》는 끝소리에서만 쓰이며 첫소리에 쓰이는 경우란 없다. 다만 자음 《ㅇ》가 뒤에 있는 모음에 영향을 주어 그 모음이 코소리음색을 가지게 할뿐 《ㅇ》가 모음앞에 놓이여 첫소리로 발음되는것은 결코 아니다.

○ 붕어, 벙어리, 망아지

이때 자음 《ㅇ》의 영향에 의하여 《ㅓ, ㅏ》가 코소리음색을 띠게 되며 끝소리로서의 《ㅇ》의 발음위치는 변함이 없다.

조선어에서 모음과 모음사이에 자음이 놓일 때 그 자음이 《ㅇ》를 내놓고는 모두 뒤에 놓인 모음의 첫소리로만 되는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더 복잡한 문제가 있다.

조선어자음에서는 막힘과 터침이 모두 강하여 중간에 날숨의 약화가 있으며 앞과 뒤에 두개 소리마디에 걸치는 경우가 있다.

조선어에서 《ㄲ, ㄸ, ㅃ, ㅆ, ㅉ, ㅊ, ㅋ, ㅌ, ㅍ》와 같은 된소리, 거센소리는 모음과 모음사이에서 보통 봉우리 둘 있는 형식을 띠는 긴자음 [k:], [p:], [T:], [S:], [ʧ^{h}:], [k^{h}:], [t^{h}:], [p^{h}:]로 나타나게 된다.

○ 가까이[kak:ai], 아침[at^{h}:im]

기쁘다[kip:uda], 바퀴[pak^{h}:y]

이따금[it:akum], 마타리[mat^{h}:ari]

개싸리[kæs: ari], 깊이[kip^{h}:i]

어찌[ə ʧ:i]

모음과 모음사이에 있는 된소리, 거센소리가 앞뒤모음에 다 관계하여 앞의 봉우리는 앞소리마디의 《끝소리》에, 뒤봉우리는 뒤소리마디의 《첫소리》에 속하여 소리마디분계선이 갈라지지만 음운론적견지에서 보면 이때 나타나는 된소리, 거센소리는 두개 음운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의 음운이다. 그렇기때문에 모음과 모음사이에서 된소리, 거센소리가 앞뒤모음에 관계하는것은 이 자음들의 발음상 특성과 관련된 문제이지 음운론적인 분할문제와는 관계가 없다.

만약 이 경우에 소리마디분계선과 음운을 일치시킨다면 된소리, 거센소리가 두개 음운으로 갈라지고말것이다. 단어발음에서 된소리와 거센소리의 길이가 길고 앞뒤모음에 봉우리가 갈라져 소리마디계선이 이루어지지만 된소리와 거센소리로서의 음운은 분할되지 않고 하나로 존재한다. 따라서 소리마디분계선과 음운단위의 계선은 별개의 문제이며 절대로 이 두 분야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소리마디분계선을 가르는데서 고유어휘와 한자어휘사이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고유어휘의 경우에는 모음과 모음사이에 자음이 있을 때 그것이 뒤소리마디의 첫소리로 되나 한자의 경우에 《C+V》사이에 소리마디분계선이 오게 된다.

고유어: 재털이[재터:리], 길이[기:리], 높이[노:피]

한자어: 작용[작:용], 각오[각:오], 원인[원:인]

이것은 한자어휘의 특성과 관련되여있다. 한자어휘의 매개 소리마디는 하나의 뜻가진단위이다. 뜻가진단위인 소리마디는 자기의미를 보존하려는 성질을 가지고있다. 따라서 한자어휘는 표기단위이자 발음단위가 일치한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고유어휘의 경우에는 이와 사정이 다르다. 《길이》나 《높이》의 경우에 《길—(길다)》, 《높—(높다)》과 같이 그것은 말뿌리적인 단어로서 그것만으로서는 완전한 의미를 가졌다고 말할수 없다. 또한 뒤붙이 《—이》도 자립적인 어휘적의미는 없고 단어조성적의미만이 있다.

어휘적으로 완전한 의미는 《높이》나 《길이》에 나타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자어휘는 고유어휘와 차이를 가진다.

또한 모음과 모음사이에 하나의 자음이 있어 소리가 끊어질 때에 소리마디구분에서 특이한 현상이 나타난다.

소리이음의 경우에는 앞소리마디의 끝소리가 뒤소리마디의 첫소리로 되지만 소리끊음의 경우에는 말뿌리와 말뿌리의 형태론적분계선이 곧 소리마디의 분계선으로 된다.

따라서 《c+v》의 경우에도 이 두 말소리사이에 소리마디의 분계선이 오게 된다.

○ 부엌안[부억:안], 숫음식[숟:음식]
　젖어미[젇:어미], 꽃아래[꼳:아래]
　무릎아래[무릅:아래]

이때에는 말뿌리+말뿌리임에도 불구하고 《부엌안[부억안]》이 [부어:간], 《젖어미[젇어미]》가 [저:더미]로 소리마디가 갈라지지 않는다.

2) 두 모음사이에 두개 자음이 올 때에 소리마디분계선은 두개 자음사이에 온다.

○ 날씨[날:씨], 말꺼리[말:꺼리], 간장[간:장]

우와 같은 경우에는 소리마디의 계선이 명백하지만 《기발》, 《내파》와 같은 경우에 《v+c》사이에 하나의 자음이 오는가 두개 자음이 오는가 하는데 따라 소리마디분계선이 달라진다.

《기발》은 [기빨]로, 《내파》는 [내파]로 발음되여 앞뒤모음이 [ㅃ], [ㅍ]에 다 관계되며 봉우리가 둘이 생겨 그사이에 소리마디분계선이 지나간다. 소리마디분계선이 [ㅃ], [ㅍ] 등 된소리사이로 그어진다고 하여 음운의 전일성이 파괴되는것이 결코 아니다.

음운의 전일성문제와 소리마디분계선문제는 같은것이 아니기때문에 음운은 어디까지나 하나이다.

※ 모음과 모음사이에 표기상 세개 자음이 있는데 발음에서는 두개 자음밖에 되지 않기때문에 소리마디분계선은 발음되는 두 자음사이로 지나간다.

○ 맑고[말:꼬], 밟다[밥:따]

3) 소리마디분계선이 형태적계선과 일치하는 경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소리마디분계선은 발음의 최소단위로서의 계선이고 형태적계선은 단어형태를 구별하기 위한 계선이다.

조선어에서의 단어표기는 형태주의적원칙에 기초하고있기때문에 형태를 밝혀서 적은 철자와 소리마디분계선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는 말뿌리가 결합하는 경우와 말뿌리 또는 말줄기가 토와 결합하는 경우가 있다.

— 앞붙이와 말뿌리가 결합하는 경우

《맏손녀[맏:쏜:녀]》, 《맏딸[맏:딸]》과 같은 경우에는 소리마디계선이 표기와 일치하지만 《맏아들[마:다:들]》의 경우에는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선잠[선:잠]》, 《선하품[선:하:품]》의 경우에는 형태적계선과 소리마디계선이 일치하지만《선웃음[서:누:슴]》 같은 경우에는 일치하지 않는다.

— 말뿌리 또는 말줄기가 토와 결합하는 경우

우와 같은 현상은 앞붙이와 말뿌리가 결합할 때뿐만아니라 말뿌리 또는 말줄기가 토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나타난다.

례컨대 《길고[길:고]》, 《산도[산:도]》에서는 형태적계선이 소리마디계선과 일치하지만《길어서[기러서]》, 《산으로[사느로]》에서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 원인은 앞붙이와 말뿌리사이, 말뿌리 및 말줄기와 토사이에서 결합관계의 특성에 있다. 앞형태부가 하나의 받침소리로 끝나고 뒤형태부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경우에는 형태적계선과 소리마디계선이 일치하지 않고 앞형태부의 끝소리와 뒤형태부의 첫소리가 자음일 경우에는 그 계선이 일치한다.

그러나 앞형태부의 끝소리가 둘받침으로 끝나고 뒤형태부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경우에는 비록 형태부들사이에 두개의 자음이 있다 하더라도 형태적계선과 소리마디계선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것은 조선어에서 둘받침뒤에 자음이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받침은 빠져 음운론적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나 둘받침뒤에 모음이 이어지는 경우 그 받침들이 갈라져 자기의 자립적인 음운론적기능을 수행하기때문이다.

례컨대 《밟다》, 《핥다》에서 받침 《ㄹ》, 《ㅌ》는 뒤에 자음 《ㄷ》가 있는것으로 하여 자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빠져 [밥따], [할따]로 실현되나 《밟으니》, 《핥으니》와 같이 둘받침뒤에 모음이 이어질 때에는 [발브니], [할트니]로 되여 둘받침이 자기의 음운론적기능을 수행한다.

이때 형태적계선과 소리마디분계선은 일치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문제는 우리 말 적기의 일련의 특성과 관련하여 제기된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 나라 글자가 자모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모를 렬거하는 식으로 하여 단어를 형태화하지 않고 소리마디단위로 묶어쓰는데 있다.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부터 우리 글은 첫소리, 가운데소리, 끝소리로 묶어쓰도록 정한것이 전통화되여 오늘까지 지속되여오고있다. 만약 지금과 같이 소리마디단위로 묶어쓰지 않고 풀어쓴다면 소리마디구분에서 복잡성은 제기되지 않는다. 실지 언어의 실현에서는 글자로 쓴 소리마디단위로만 발음되지 않는것으로 하여 형태적계선과 발음의 최소단위인 소리마디계선과 일치하지 않게 된다.

여기에는 또한 우리 글자체계에 첫 글자 《ㅇ》를 계속 쓰고있는것과도 관련된다.

오늘날 우리 나라 글자에서 소리마디의 첫 글자로 놓이는 《ㅇ》는 아무런 소리값도 없는 헛글자이다. 이것은 오직 모음앞에 놓이여 그 소리마디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소리마디라는것을 나타내줄뿐이다.

※ 일부 학자들은 소리마디의 첫 글자 《ㅇ》가 옛날에는 일정한 소리값을 가지고있었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ㅇ》가 아무런 소리값도 없다는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만약 처음부터 자모글자를 소리마디묶음식으로가 아니라 풀어 쓰며 《ㅇ》를 쓰지 않았더라면 소리마디분계선과 표기는 일치하였을 것이다.

더우기나 우리 말 소리마디구성에서 겹자음이 허용되지 않는 조건에서 소리마디분계선문제의 복잡성은 없을것이다.

그것은 둘째로, 적기를 소리마디묶음식으로 하면서 형태주의적으로 처리한데 있다.

자모글자를 가로 풀어쓰면서 단어를 형태적으로 고정시킨다면 현재와 같이 발음되지 않는 글자까지 써넣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지금은 소리마디묶음식으로 하면서 형태주의적으로 처리하였기때문에 불필요한 발음되지 않는 글자까지 들어가게 되였다. 소리마디로 단어를 고정시킨 현 상태로서는 불가피하다.

그것은 단어의 형태가 시각적으로 인차 안겨와 뜻이 명확하여지기때문이다.

이와 같이 조선어소리마디한계선문제는 다른 나라 언어에 비하여서는 그리 복잡한 문제는 아니지만 일부 경우에 소리마디계선을 어디에 그을것인가 하는 일련의 문제가 제기된다.

제5장. 조선어단어의 운률문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실 우리 나라 말은 높고낮음이 똑똑하고 말소리가 아름답습니다. 우리 나라 발음법을 배우면 아무 나라 말도 다 잘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전집》 36권, 508페지)

높고낮음이 똑똑하고 말소리가 아름다운것은 조선어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조선어에 고저장단이 있고 말소리가 아름다운것으로 하여 조선어로써 사람들의 사상감정을 잘 나타낼수 있다.

사람들사이의 생각과 의사를 교환하며 사상감정을 나타내는데서 단어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만 못지 않게 단어발음의 운률이 중요한 작용을 한다. 단어의 운률은 발음을 통한 사람들의 의사소통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운률이 없는 단어발음은 도대체 생각할수 없으며 사람들사이의 사상교환과 감정을 원만히 표현할수가 없다. 일정한 뜻을 가진 언어단위의 발음은 항상 운률이 동반되게 된다.

운률은 기음(기본음 즉 목청진동음), 길이, 세기(소리의 압력인바 진폭의 크기로 나타난다.)로 구성되여있다.

목청떨기의 속도에 의해서 말소리의 높낮이가 규정되는바 목청떨기속도가 빠를수록 말소리는 높은 소리로 되고 반대로 속도가 뜰수록 말소리는 낮은 소리로 된다. 기음이 문장발음에서는 선률을 나타내고 단어발음에서는 소리마루의 높낮이를 나타낸다. 단어발음에서 높낮이가 구별적표식으로 되여있는 언어에서는 기음의 높낮이가 단어마루의 기본표식으로 된다.

길이는 모음발음의 시간상 길고짧음으로 나타나며 이것이 단어

의 구별적표식으로 된다. 길이는 단어나 문장발음에서 기음의 높낮이와 어울려 나타날수도 있고 그자체로서 자립적인 기능을 수행할수도 있다.

세기는 음압으로서 단어에서의 세기마루의 기본표식으로 되며 문장안에서는 률동을 조성하는 기본요소로 된다.

운률적요소들인 기음, 길이, 세기는 단어나 문장발음에서 종합적으로 작용하는데 민족어의 특성에 따라 기음의 높낮이가 기본으로 될수도 있고 세기가 기본으로 될수도 있다.

여기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것은 말소리의 높이나 세기, 길이 고찰에서 절대적인 높이나 세기, 길이가 아니라 상대적인 값들을 념두에 둔다는것이다. 말소리의 운률적요소들의 작용에서 절대적인 값들은 무의미하다. 오직 상대적인 높이와 세기, 길이만이 필요하다. 그것은 모음에서의 높은소리와 낮은소리, 세기가 강한소리와 약한소리, 길이가 긴소리와 짧은소리의 상대적값만이 소용되기때문이다.

운률적요소들이 단어나 문장발음에 작용하는데 여기서는 단어발음에서 작용하는 운률적특성에 대하여 고찰해보기로 한다.

단어발음에서 운률적요소들이 소리마루를 이루는 작용을 하는데 소리마루는 언어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나타낸다.

제1절. 소리마루의 개념과 기능

1. 소리마루의 개념

소리마루(악센트)라는 말은 원래 라틴어 accentus에서 기원한 말로서 《크게 말하다》, 《두드러지게 발음하다》라는 뜻이다. 다시말하여 소리마루는 단어나 문장에서 일정한 어음론적단위를 두드러지게 발음함으로써 다른 어음론적단위와 어음—문법적으로 구별시킨다는 뜻을 담고있다.

소리마루는 의미적단위인 소리마디나 단어 및 문장에 덧붙는

운률적요소이다.

운률적요소는 언어의 뜻가진단위인 단어와 밀접히 련관되여있으며 그것은 단어의 의미 및 단어발음과 동떨어져서 그자체만으로는 존재할수 없다. 단어발음은 항상 운률적요소를 전제로 한다. 만약 운률적요소 없이 단어를 발음한다면 세기와 높이, 길이에서 아무런 차이도 없는 수평상태에서의 말소리흐름으로 되고말것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은 언어행위가 아니다. 사람들의 언어행위는 항상 구체적인 언어정황속에서 진행되면서 일정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발음한다. 이때에 하는 발음에는 사람들의 사상감정과 정서, 기분상태 등 여러가지가 포함된다. 그리하여 언어행위에서 실현되는 단어발음에는 불피코 운률적요소가 나타나기마련이다.

운률적요소들은 언어행위의 의미적내용을 형식화시키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시말하여 운률적요소들로 이루어지는 소리마루가 없이는 말의 의미적내용을 현실과 련결시킬수 없다. 왜냐하면 소리마루는 의미적내용을 현실에 실현시키는 수단이기때문이다.

소리마루는 언어의 민족적특성을 반영한다. 언어에 따라 세기가 소리마루의 기본표식으로 될수도 있고 기음의 높낮이와 모음의 길이가 기본표식으로 될수도 있다. 이것은 오랜 력사적과정에 형성된 그 언어들에만 고유한 특성이다.

현재 세계언어학계에서 소리마루의 류형을 세기마루, 높낮이마루(또는 높이마루라고도 한다.), 길이마루로 가르는데 이가운데서 기본은 세기마루, 높아마루이다. 지금 모음의 길이에 의해서만 소리마루가 이루어지는 언어는 극히 드물다.

또한 여기에서 반드시 언급하여야 할 문제의 하나는 세기마루라고 하여 소리마루의 구성요소에 세기만이 포함되는것이 아니라는것이다. 세기마루에 길이마루가 덧붙을수도 있고 높이마루가 덧붙을수도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높낮이마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높낮이마루라고 해서 그 언어에서 작용하는 소리마루의 구성요소가 다만 높낮이만이 아니다.

이와 같이 소리마루에서 구성요소의 기본이 무엇인가에 의해

차이가 있지만 세기, 높낮이, 길이가 서로 어울리면서 소리마루가 이루어진다.

(1) 높낮이마루(음악악센트)

높낮이마루를 일명 음악악센트라고 하는것은 음악이 기본 기음의 높낮이에 의한 선률의 흐름인데 높낮이마루에서도 음악의 선률에서처럼 기음의 높낮이가 소리마루의 기본요소라는데 있다.

발음생리적으로 보면 말소리의 높이는 단위시간동안의 목청떨기수에 의하여 규정된다. 단위시간동안에 목청이 빨리 떨면 말소리가 높아지고 천천히 떨면 낮아진다. 이와 같은 현상은 말소리에서뿐만아니라 일반소리떨기에서도 그 원리는 같다.

말소리에서 녀성의 목소리는 남성의 목소리에 비하여 약100Hz나 높다. 녀성은 남성보다 1초동안에 목청이 약 100번이나 더 떤다. 이것은 남자의 목소리에 비해 녀자의 목소리가 그만큼 더 높다는것을 의미한다.

음향학적으로 소리의 높낮이는 단위시간동안에 기음의 진동수의 많고적음에 의하여 규정된다. 높낮이마루에서는 단어에서 어느 한 모음의 기음주파수가 높은가 낮은가에 의하여 규정되기때문에 기음주파수의 변화가 음악의 선률과 비슷한 형식을 이룬다.

높낮이마루에서 기본요소는 기음의 높낮이이기때문에 높은소리와 낮은소리의 차이에 의해서 마루가 있는 소리마디와 마루가 없는 소리마디가 갈라진다.

높은소리와 낮은소리는 절대적높음과 절대적낮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소리마루에서의 높이는 어디까지나 상대적높이이며 절대적높이는 언어에서 무의미하다. 높은소리와 낮은소리에 의하여 소리마루가 있는 소리마디인가 아닌가를 가르기때문에 절대적높이의 수치는 하등의 필요가 없다. 단어에 따라 125Hz가 높은소리로 될수 있는가 하면 150Hz가 높은 소리로 될수 있다. 이것은 한 단어안에서 125Hz나 150Hz보다 낮은 소리마디와 대비되기때문이다.

따라서 소리마루에서 절대적높이는 하등의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

그런데 한 단어안에서 높은주파수와 낮은주파수사이에 여러 단계의 주파수차이가 있을수 있다. 단어에서 소리마루가 있는 소리마디인가를 가르는데서 중요한것은 기음주파수에 의하여 몇단계를 가르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것을 듣고 높낮이차이를 가를뿐만아니라 그 차이가 음운론적의의를 가지는가 하는데 있다.

사람은 모음사이의 주파수차이가 9Hz이상 되여야 가려 들을수 있다.

어느 한 연구집단에서 실험한데 의하면 모음들사이의 기음의 차이가 3Hz일 때에는 실험대상자의 어느 한 사람도 그 차이를 가려 듣지 못하였다면 6Hz의 차이를 두었을 때에는 38%가, 9Hz차이를 두었을 때에는 실험대상자의 98%가 그 차이를 가려 들었다 한다. 이것은 사람들이 기음의 차이가 9Hz이상 될 때에만이 소리의 높낮이차이를 지각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소리마루에서 모음들사이의 기음의 차이는 곧 모음들사이의 높낮이차이를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높낮이마루가 세기마루와 다른점이다. 세기마루에서는 모음의 세기가 기본이지만 높낮이마루에서는 기음의 높낮이가 기본이다.

사람들이 소리마디들사이의 기음의 높낮이를 가려 듣는다 해도 그것이 음운론적의의를 가지는가 하는것이 중요하다. 기음의 높낮이는 어음론적의의를 가질수도 있고 음운론적의의를 가질수도 있다. 음운론에서 중요한것은 소리마루가 음운론적의의를 가지는것이다.

조선어단어마루는 높고낮음과 길고짧음이 작용하지만 그것이 음운론적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일부 사람들은 단어에서의 어느 한 소리마디의 높이와 길이에 의하여 단어의 의미가 구별된다고 하고있으나 이것은 일부 지방에서 나타나는 특성이지 조선지역 전반에서 나타나는 보편타당한것은 아니다. 조선중부지방 사람들은 높이와 길이에 의하여 단어의 의미를 구별한다고 하나 그 나머지 지역에서는 의미를 구별하지 못

한다.

이것이 바로 조선어단어마루가 같은 높이마루이면서도 중어성조와 차이나는 점의 하나이다.

※ 경상도에서는 소리의 높낮이에 의하여 단어의 의미를 구별한다고 한다.

○ 말 (말과 소)—높게
말 (되는 말)—중간높이
말 (말과 글)—낮게

이와 같이 경상도에서는 높은소리, 중간소리, 낮은소리에 의하여 단어의 뜻이 구별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상도 지방의 방언적인 현상이지 전국적범위에서 보편타당성을 띠는것이 아니다.

또한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는 길고 짧음의 차이에 의하여 단어의 뜻이 갈라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은 조선어소리마루 류형은 높은소리[닭, 삼, 집], 보통소리[눈(目), 물, 칼, 옷], 긴소리[눈(雪), 말(言), 범], 높낮은소리[김(풀), 애(아이)], 낮높은소리[감(재료), 뻘, 말(마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차이에 의하여 단어의 뜻이 갈라진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높은소리, 보통소리, 긴소리, 높낮은소리, 낮높은소리에 의하여 단어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상 이것은 하등의 음운론적의의를 가지지 못한다고 말할수 있다.

(2) 길이마루

소리마루를 론할 때 단어에서 어느 한 소리마디의 길이를 말하는것인데 소리마디의 길이는 곧 모음의 길이를 념두에 둔다. 만약 소리마디를 이루는 자음까지를 념두에 둔다면 소리마루의 길이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왜냐하면 자음에도 길고 짧은소리가 있기때문이다. 순간음인 [p, t, k] 같은것은 짧고 스침소리 [s, ṡ], 터스침소리 [ʧ, ʧʰ] 같은것은 길다. 자음의 길이는 그 소리마디에

소리마루가 있다고 하여 길어지고 없다고 하여 짧아지는것이 아니다. 자음의 길이는 위치에 따라 약간 변하지만 거의 한정되여 있다.

그러나 모음은 그렇지 않다. 소리마디에 소리마루의 유무에 따라 모음의 길이가 길어도 지고 짧아도 진다.

여기에서 반드시 지적하게 되는것은 길이마루라고 하여 순수 모음의 길고짧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언어는 거의 없다는것이다. 모음의 길이는 세기나 높이에 덧붙어서 소리마루의 양상을 다양하게 해줄뿐이다.

어떤 언어에서는 마루가 있는 소리마디의 길이가 그 앞소리마디에 비하여 1.5배나 긴것도 있고 반대로 마루가 있는 소리마디가 마루 없는 소리마디보다 짧고 마루가 있는 소리마디앞이나 뒤소리마디가 긴것도 있다.

조선어단어에서는 높이가 오는 소리마디는 짧고 높이가 오지 않는 소리마디는 길어지는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물론 조선어에서도 례외적으로 높이가 오는데 길이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간혹 있다.

례컨대 《가무데데하다》, 《발가우리하다》에서 《—데—》와 《—리—》소리마디가 높아지면서 길어진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어음론적인 현상이지 음운론적인 현상은 아니다.

(3) 세기마루

세기마루는 단어를 발음할 때 날숨의 강약에 의하여 단어의 어느 한 소리마디가 다른 소리마디에 비하여 세기가 커지는것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소리마루이다. 세기마루가 날숨의 강약에 의하여 규정되기때문에 소리마루모음을 발음할 때에 발음기관이 매우 긴장되여 강하게 작용한다.

높이마루는 단어의 어느 한 소리마디에 기음이 높아져 기음이 낮은 다른 소리마디와 차이를 이루지만 세기마루에서는 어느 한 소리마디에 세기가 강해져 다른 소리마디와의 차이를 나타

낸다. 그리하여 세기마루를 《호기악센트》 또는 《힘악센트》라고도 한다.

그러면 세기마루와 높이마루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소리마루의 류형에 따라 세기가 기본인가 높이가 기본인가에 의하여 차이가 있지만 마루가 있는 소리마디에 세기와 높이가 다 있는것만은 사실이다. 세기마루에서 세기가 기본으로 되면서 마루가 있는 소리마디에 높이도 뒤따른다. 그러나 소리마루에서 세기가 지배적인것으로 하여 높이는 소리마루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높이마루에서도 높이가 오는 소리마디에 세기가 뒤따르지만 이때 세기가 지배적인것으로 되지 못하기때문에 소리마루로서의 역할을 못한다.

이와 같이 소리마루의 류형가운데 어느 요소가 지배적인가하는데 문제가 있지 높이와 세기가 있는가 없는가에 의하여 소리마루가 결정되지 않는다.

세기마루라고 하여 다 같은 특징을 나타내는것은 아니다. 어떤 언어에는 세기에 길이가 덧붙어 세기—길이마루가 이루어지는것이 있는가 하면 세기에 높이가 덧붙어 세기—음악악센트를 이루는것도 있다.

조선어소리마루는 비록 세기마루는 아니지만 높이가 오는 소리마디에 세기가 뒤따른다. 이때 세기는 세기마루에서처럼 강하지 못하고 매우 약하여 높이마루를 두드러지게 하는데 작용할뿐이다.

세기마루는 세기가 오는 소리마디와 오지 않는 소리마디와의 세기차이가 심하기때문에 합친말을 제외하고는 하나의 단어에 하나의 봉우리가 있는것이 특징이다. 언어에 따라 소리마루위치가 고정되여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특징지어지겠지만 봉우리는 하나이다.

(4) 고정마루와 이동마루

고정마루에서는 소리마루가 단어의 일정한 소리마디와 관련되여있다. 이 소리마루에서는 단어의 형태문법적변화에 관계없이 단

어의 일정한 위치에 고정되여있다. 일부 언어에서는 단어의 첫 소리마디나 단어의 끝으로부터 두번째 소리마디에 소리마루가 고정되여있는것이 있다.

이동마루는 소리마루가 단어의 어느 한 소리마디에 고정되여있지 않고 임의의 소리마디 즉 첫 소리마디, 가운데소리마디, 끝소리마디에 온다.

이와 같이 이동마루에서는 마루가 있는 소리마디가 위치상 일정하게 고정되여있지 않고 단어나 단어형태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조선어소리마루는 이동마루이다. 조선어단어마루의 소리마루는 높낮이마루인데 높이가 단어의 어느 한 소리마디에 고정되여있지 않고 단어의 첫 소리마디, 가운데소리마디, 끝소리마디에도 온다. 세 소리마디단어인 경우에 일반적으로 가운데소리마디가 높아지며 두 소리마디단어인 경우에 많이는(동사, 형용사는 제외) 끝소리마디가 높아진다. 이때 부분적으로 첫 소리마디가 높아지는 때도 있고 두 소리마디단어에서 어느 한 소리마디에도 높이의 차이가 없이 같은 때도 있다. 즉 두 소리마디단어에 소리마루가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고정마루와 이동마루를 언어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수 있는가?

그것은 언어의 민족적특성과 관련되여있다. 매개 언어는 어휘 문법적구조와 특성이 다를뿐만아니라 어휘(더 크게는 통합 또는 문장)에 덧붙은 요소와 운률적요소의 작용도 다르다. 운률적요소가 단어의 어느 한 위치에 고정되여 작용할수도 있고 자유로이 이동하면서 작용할수도 있다. 고정마루나 이동마루는 오랜 력사적과정에 그 언어에만 고착된 고유한 특성이다. 물론 이것이 언어발전과정에 일부 변할수도 있으나 기본특징은 여전히 보존된다.

소리마루가 기본이 자립적단어에 고유하며 보조적단어나 접속사, 조사 같은데서는 자립적단어에 의존되여있다. 그러나 때로 보조적단어와 이어질 때 자립적단어의 소리마루가 보조적단어에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다. (로어에서 《на́воду》, 《по́дгору》)

이때 보조적단어뒤에 있는 자립적단어에서의 세기의 차이가 전혀 없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소리마루가 이루어질 정도의 차이로는 되지 못한다.

(5) 주소리마루와 부소리마루

주소리마루와 부소리마루는 대개 세기마루의 언어에서 합친말에 나타나는 소리마루의 현상이며 단순단어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없다.

○ 로어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Самолётострое́ние

도이취어 ˈFederˌhalter(펜대)

ˈWunderˌschön(훌륭한)

언어에 따라 부소리마루가 앞에 놓이고 주소리마루가 뒤에 놓이거나(로어) 반대로 주소리마루가 앞에 놓이고 부소리마루가 뒤에 놓이기도 한다.(도이취어) 물론 이것이 그 언어에 절대적인 소리마루현상은 아니다.

조선어의 경우에는 이와는 완전히 다르다. 조선어소리마루는 음악적흐름인것으로 하여 소리마루곡선이 선률의 흐름식으로 되기때문에 비록 한 단어에 높이가 같은 소리마디가 여러개 나타나도 주소리마루, 부소리마루문제는 론하기 힘들다.

이에 대하여서는 뒤에 언급되는 조선어소리마루의 특징에서 론하기로 한다.

또한 문장에서 주소리마루와 부소리마루를 갈라 서술하는 경우들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단어소리마루만을 론하고 문장소리마루는 론하지 않기로 한다.

2. 소리마루의 기능

소리마루는 유의미적발음단위에 덧붙는 요소로서 음운론적기능과 어음론적기능을 수행한다.

음운론적기능은 일정한 단어나 단어형태에 대한 분별적기능

이다. 같은 음운구성과 형태로 되여있다 하더라도 소리마루가 다르면 다른 어휘문법적의미를 나타낸다.[로어 Горы́ (단수생격), Го́ры(복수주격)]

또한 어떤 언어에서는 마루가 있는 소리마디의 모음을 하강으로 발음하는가 상승으로 발음하는가에 따라 문법적의미가 달라지는 현상도 있다.(쎄르비아—호르바찌야어에서는 마루가 있는 소리마디를 하강으로 발음하면 여격을 나타내고 상승으로 발음하면 장소격을 나타낸다.)

단어가 같은 음운구성으로 이루어졌어도 같은 모음을 어떤 형식으로 발음하는가에 따라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언어도 있다.

이것은 단어마루가 어휘문법의 구별적기능 즉 음운론적기능을 수행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소리마루는 음운론적기능밖에 어음론적기능을 수행한다. 어음론적기능은 말소리흐름의 률동과 선률을 보장하여주는데 이바지한다. 사람들은 말을 할 때에 높낮이와 세고 약함, 길고짧음이 없이 수평상태로 발음하지는 못한다. 사람들은 날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생리적과정에 발음기관을 작용시켜 발음하기때문에 말소리흐름은 자연적으로 세고 약함과 높고낮음, 길고짧음이 생기기마련이다. 생리적인 과정으로서의 말소리발음이 사회적이며 민족적특성을 나타내면서 언어마다 다른 소리마루류형이 생긴다.

소리마루의 기능을 음운론적기능과 어음론적기능으로 가를 때 어떤 언어의 소리마루는 음운론적기능을 수행하고 어떤 언어의 소리마루는 어음론적기능을 수행한다고 말할수는 없다. 왜냐하면 소리마루가 음운론적기능을 수행하는 언어에서도 어음론적기능을 수행하는 현상도 있기때문이다.

일부 높이마루나 세기마루는 음운론적기능을 수행한다고 말한다. 같은 음운구성으로 되여있는 단어에서 소리마루의 위치의 차이로 하여 어휘문법적의미가 달라지기때문이다. 이런 언어에서조차도 소리마루가 순수 어음론적의의만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이때 소리마루는 어휘문법적의미를 구별시켜주지 못하고 말소리흐름의

선률, 률동, 길이를 조화시키는데 작용할뿐이다.

소리마루의 기능문제는 그 언어의 민족적특성에 따른다.

3. 소리마디마루와 단어마루

소리마디마루는 단어에서의 소리마디의 높이, 세기, 길이가 변하는데 따라 단어의 뜻이 달라지는 소리마루이며 단어마루는 소리마루소리마디와 비소리마루소리마디와의 상관관계속에서 나타나는 소리마루이다. 다시말하여 소리마디마루는 한 소리마디안에서의 소리마루의 구성요소들의 변화라면 단어마루는 단어와 단어(소리 같은 단어), 한 단어에서의 소리마디의 상관관계이다. 소리마디마루는 한 소리마디안에서의 음조의 변화형식에 따라 그 뜻이 구별된다고 하여 일명 성조라고 한다.

중세조선어의 소리마루는 전형적인 소리마디마루였다.

소리마디마루에서의 기본은 기음의 변화형식이다. 이때 말소리의 세기는 높이와 어울리면서 높낮이마루의 부차적인 구성요소로 될뿐 소리마루의 구성요소로 큰 작용을 하지 못한다. 기음의 변화형식에 따라 소리마루의 종류가 규정된다.

중세조선어의 성조는 상성, 평성, 거성, 입성 등 4개 종류가 있었다. 조선어로 번역한 《훈민정음》, 《룡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 《석보상절》 등 중세에 나온 책들에는 소리마디에 따라 성조표시를 하였는바 상성은 소리마디 왼쪽에 두점(:), 거성은 한점(·)을 찍어 표시했으며 평성, 입성은 아무런 표식도 하지 않았다. 표시하지 않는것 가운데서 평성은 받침이 없는것이고 입성은 막힘소리받침이 있는것이였다. 당시 상성은 낮—높은소리이고 거성은 높—짧은소리이며 평성은 앞뒤가 다 낮은소리였다. 입성은 막힘소리받침이 있는 소리마디를 나타내기때문에 성조로서의 큰 의의를 가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중세조선어의 성조에서 기본은 상성, 거성, 평성이였다고 말할수 있다.

당시 조선어성조는 음운론적으로 의미구별적기능을 놀지 못하였으며 어음론적인 현상에 머물러있었다. 높은소리인 거성에 상

대하여 낮은소리인 평성이 음운론적인 대립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높고낮음에 의하여 단어의 뜻가진 단위가 구별되지 못하였다.

중세조선어 성조에서 상성만이 얼마간의 유의미적의의를 가지였는데 그것도 소리 같은 말에서 음운론적인 대립이 이루어졌으며 음운구성이 다른 단어들사이에서는 다만 말소리흐름의 류창성을 이루는데 복종되였을뿐이다.

중세조선어에 존재하던 성조현상은 오늘에 와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지난날에는 거성, 상성, 평성에 의하여 소리마디의 성조가 갈라져있었으나 지금은 짧고 높은소리와 낮고 긴소리로 갈라져있다.

두 부류에 의하여 소리 같은 말들이 음운론적으로 구별되고 있다.

○ 말 (말과 소)　　말 (말을 하다.)
　배 (배와 사과)　　배(배가 부르다.)
　눈(눈과 코)　　눈 (눈이 내린다.)

오늘날에 와서는 이 구별적표식마저 점차 사라져가고있는 형편이다. 지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차이에 따라 단어들을 구별하여 발음하지 않고있으며 청각상으로도 그 차이를 가리지 못하고있다. 앞으로 이 표식에 따르는 단어의 구별은 점차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많다.

소리마디의 음운구성이 같다 하더라도 성조의 류형에 따라서 단어의 뜻이 구별되는 언어도 있다. 중어성조가 바로 그렇다.

이와 같이 소리마디마루에서도 음운론적기능을 수행하는것과 수행하지 못하고 순수 어음론적기능을 수행하는것이 있다.

소리마루에는 소리마디마루에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단어마루가 있다. 단어마루는 한 단어안에서 소리마루가 있는 소리마디와 소리마루가 없는 소리마디사이의 상관성에 기초하고있다. 소리마디마루에서는 같은 소리마디이지만 어떤 류형의 소리마루가 오는가에 따라 의미가 구별되지만 단어마루에서는 같은 음운구성을 가진 단어라도 어느 소리마디에 소리마루가 오는가에 따라 단어의 어휘문법

적의미가 구별된다. 다시말하여 단어의 어휘문법적의미구별이 소리마디마루에서는 소리마루의 류형(성조)에 따른다면 단어마루에서는 소리마루의 위치에 따른다.

따라서 단어마루는 단어와 단어, 소리마디와 소리마디사이에서 소리마루소리마디와 비소리마루소리마디의 상관성에 기초하고 있다.

제2절. 조선어단어마루의 특징

단어마루는 언어에 따라 자기의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있다. 조선어단어마루는 높이마루이다. 높이마루는 세기마루와 구별될뿐만 아니라 높이마루가운데서도 언어에 따라 그 양상은 각이하다. 세계에 높이마루에 속하는 언어들이 많지만 조선어에는 그에 고유한 특징이 있다.

조선어단어마루의 특징은 첫째로, 높이가 기본으로 되면서 길이가 조화롭게 어울리는 높이마루라는데 있다.

조선어단어마루에서는 높이와 길이의 두개의 운률적요소가 작용한다. 이 두 요소가운데서 기본은 높이이다. 그것은 조선어 단어발음에서 모든 단어를 지배하는것은 높고낮음이며 길고짧음은 거기에 어울리면서 단어발음을 순탄하고 부드럽게 하여주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조선어단어마루에서 높이와 길이를 동일한 평면에서 취급할수는 없다.

부분적인 경우에 음운구성이 같은 단어들에서 어느 한 소리마디에 길이가 오는가 안 오는가 하는데 따라서 단어가 구별되는 현상이 있다. 이것은 극히 부분적인 단어에 한한 문제이며 더구나 근래에 와서는 길이가 단어의 의미구별적기능을 놀지 못하는 때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길이의 차이에 의하여 단어의 의미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실자체가 그것을 증명하여주고있다.

그러나 높낮이는 모든 단어에 거의 다 나타나는 운률적현상이다. 두 소리마디로 된 단어의 경우에 높낮이차이가 없는 일부 단

어들이 있지만 그 나머지 단어들은 다 나타난다.

조선어단어에는 한 소리마디에 높이와 길이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란 없다. 길이가 있는 소리마디는 높아지지 않는다. 길이가 있는 소리마디의 모음은 보통의 높이를 가지거나 낮기때문에 높이가 겹칠수 없다. 조선어단어에는 높이와 길이가 따로따로 나타나며 보통 길이가 있는 단어에 높이마루가 오지 않는다.

례컨대 《길다》, 《많다》에서 첫 소리마디에 길이가 온다. 이때 《길―》과 《많―》의 기본주파수는 높지 않을뿐만아니라 그뒤에 있는 소리마디의 높이와 같거나 그보다 낮다.

길이가 오지 않는 단어에 높이마루가 있는것은 거의 합법칙적이다.

두개 소리마디로 된 동사나 형용사 같이 술어로 쓰이는 경우에는 앞소리마디가 높고 기타 품사의 경우에는 뒤소리마디에 높이마루가 있는것이 많다.

또한 세 소리마디로 된 단어인 경우에는 거의 법칙적으로 가운데소리마디가 높아진다.

○ 잔고기, 강출기, 대성산, 삼천리

물론 세 소리마디로 된 단어가운데서도 앞 두 소리마디가 동시에 높아지는것(살바람, 타래옷)과 뒤 두 소리마디가 높아지는것(쇠바줄, 사팔눈)이 있다.

그러나 세 소리마디로 된 단어에서는 높이마루가 기본적으로 가운데소리마디에 오는것이 특징이다.

조선어단어마루문제와 관련하여 일부 학자들속에서는 조선어단어에도 세기마루가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이들도 조선어단어에서의 높이마루를 인정하면서도 세기마루가 있다고 한다. 이 주장에는 일정한 과학적오유가 내포되여있다.

그것은 우선 조선어소리마루의 류형에 대한 옳바른 리해가 부족한데서 오고있다. 조선어소리마루는 기본이 높이마루이다. 높이마루에는 길이가 어울릴뿐 세기와는 관계가 없다. 단어발음에서의 세기는 높이가 오는 소리마디에 세기가 덧붙지만 이것이 조선어소리마루의 구성요소로는 되지 않는다. 이때 나타나는 세기는

세기마루에서처럼 강하지 못하다. 세기는 곧 음압이기때문에 발음할 때 음압은 매개 모음에 다 나타난다. 그것이 얼마나 강한가 약한가 하는것인데 높이마루에서는 세기가 매우 약하다. 따라서 높이마루가 오는 단어에 세기마루가 있다는것은 과학적타당성이 없다.

그것은 또한 한 단어에 높이마루와 세기마루가 동시에 올수 없다는것이다.

거의 모든 단어에 높이마루가 있는데 여기에 또 세기마루가 있다면 한 단어에 서로 다른 류형의 두개 소리마루가 있다는 결론에 떨어진다. 소리마루에서 이런 현상은 있을수 없다. 더우기나 문장에서 매 단어의 첫 소리마디에 세기마루가 온다는것은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다.

실험결과에 의하면 우리 말에서 세기마루가 단어의 첫 소리마디에 오지 않을뿐만아니라 다른 소리마디에 세기가 와도 세기마루로 볼 정도가 되지 못한다. 조선어문장발음에서 률동이 존재하는것만큼 세기가 오는것만은 사실이나 그것이 높이마루와 별개로 존재하는것이 아니며 높이가 있는 소리마디에 세기가 덧붙어서 률동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한다.

소리마루의 역할은 어느 한 소리마디나 몇개 소리마디(높이마루인 경우)에 높이나 세기가 나타나 발음을 두드러지게 하는데 있다.

만약 하나의 단어에 어느 한 소리마디에는 세기가 오고 어느 한 소리마디에는 높이가 온다면 단어발음의 중심이 없고 발음의 통일성은 파괴되고말것이다.

조선어단어에 높이마루와 별개로 세기마루가 온다는 주장은 과학리론적으로 맞지 않으며 조선어소리마루의 특성에 대한 리해의 부족으로 온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조선어단어마루의 특징은 둘째로, 소리마루가 소리마디의 선률변화형식이 아니라 소리마디에 따르는 단계적인 높이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데 있다.

대비적으로 중어성조는 소리마디의 선률변화가 어떤 형식을 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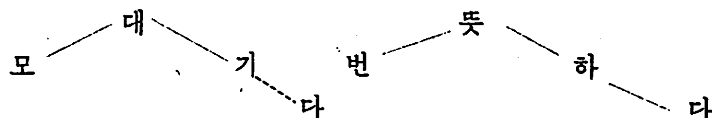
는가에 따라 음운론적기능을 수행한다. 그렇기때문에 중어에서는 같은 음운구성을 가진 단어라도 소리마루의 위치가 아니라 소리마디의 선률변화형식에 따라 단어들이 구별된다.

그러나 조선어단어마루는 마루가 있는 소리마디에서의 선률변화형식이 아니라 높이가 오는 소리마디는 다른 소리마디에 비하여 기음주파수가 높은것으로 하여 차이나며 그밖의 소리마디에 오는 주파수는 거의 대등한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높아지든가 낮아진다.

○ 모(120)대(140)기(125)다(115), 번(130)뜻(140)하(130)다(120)

이 두 단어에서 높이마루가 있는 소리마디는 《—대—》, 《—뜻—》이다.

이것을 높낮이곡선으로 표시한다면 다음과 같이 될것이다.



소리마루가 있는 소리마디는 다른 소리마디에 비하여 높고 그 나머지 소리마디는 높이가 같은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낮아졌다. 《모(120Hz)》와 《대(140Hz)》사이는 반음 3이고 《대》와 《기(125Hz)》사이는 반음 2, 《기》와 《다(115Hz)》사이는 반음 1이다. 《번뜻하다》에서도 《번(130Hz)》과 《뜻(140Hz)》사이는 반음 1, 《하(130Hz)》와 《다(120Hz)》사이는 반음 1이다.

사람이 소리의 높낮이차이를 최소한 가려 들을수 있는것이 음악에서 이야기되는 반음이다. 한옥타브에 반음이 12개 있는데 사람이 그 반음의 차이를 가려 듣는다.

두 단어에서 반음 3 또는 2, 1의 차이를 다 나타내는데 사람들은 반음 3은 더 말할것도 없고 2나 1도 가려 듣는다. 한 단어에 소리마디수가 많으면 높이의 차이가 더 나타날수 있다. 한 단어에 있는 소리마디수만큼 반음의 차이가 있다고 하여 그것이 다 소리마루조성에 의의가 있는것이 아니다. 조선사람들은 단어에서 높은소리와 보통소리, 낮은소리로 가르되 그 나머지 여러 단계의 소리를 가려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어에서의 반음의 차이가 음악에

서는 여러 단계로 갈라져 매개 소리의 높낮이를 구별하는데 의의를 가지지만 말소리에서는 높은소리, 보통소리, 낮은소리로 구분될뿐 나머지 높낮이차이의 소리들은 이 세 부류에 포함되기때문이다.

말소리도 음악적견지에서 청취한다면 12개 반음으로 가를수 있겠지만 음성지각에서는 이런 세분한 구분이 언어학적으로 하등의 의의를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말소리의 높낮이를 가르는데서도 철저히 언어적립장에 서는것이 중요하다.

또한 조선어단어를 발음할 때에 소리마디들사이의 높낮이차이가 그리 심하지 않은것이 특징이다. 일반회화어의 단어에서 소리마디들사이의 반음의 차이가 1~3이고 4이상 되는것이 극히 드물다. 소리마디들사이의 반음 1이 대부분이고 그다음 2 또는 3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조선어단어발음에서 높낮이차이가 그리 심하지 않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여기에 바로 조선어 단어발음이 유순하고 부드럽게 되는 중요한 근거가 있다.

조선어단어마루의 특징은 셋째로, 소리마루봉우리가 세기마루와는 다르다는데 있다.

세기마루에서는 단순단어인 경우에 한 단어에 봉우리가 하나이다. 세기마루에서는 단어의 어느 한 소리마디에만 세기가 강해지며 그 나머지소리마디들은 그에 상대하여 세기가 약하다. 따라서 단순단어인 경우에 한 단어에 소리마루봉우리가 하나이다.

그러나 높이마루인 조선어단어의 경우에는 세기마루의 경우와는 다르다. 높이마루에서는 하나의 단어에 같은 높이의 소리마디가 두개 이상 있을수 있다. 물론 두 소리마디단위에서 두 소리마디의 높이가 같다면 소리마루가 없는 단어로 되지만 세 소리마디이상의 단어에서는 마루가 있는 소리마디가 하나일 때도 있고 적지 않게는 두개, 세개 그 이상일 때가 많다.

※ 여기에서 높이가 같다는것은 절대적인 기음주파수의 동일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례컨대 120Hz와 115Hz사이는 반음이 되지 못하기때문에 5Hz라는 주파수차이가 있지만 소리의 높낮이차가 구별되지 않는다. 이때에는 두 소리가 같은 높이의 소리로

취급된다. 120Hz와 110Hz사이에는 반음이 1, 120Hz와 100Hz 사이는 반음이 3이기때문에 소리의 높낮이가 지각된다. 80Hz로부터 105Hz까지는 5Hz차이로서 반음이 되지만 110Hz이상부터는 10Hz차이가 되여야 반음으로 된다. 아무리 소리마디들사이의 주파수차이가 있더라도 반음이 되지 못하는 주파수차이는 같은 높이의 소리로 된다.

때문에 조선어단어마루가 하나의 봉우리로 되지 못하고 단어가운데가 높아지면서도 밋밋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례컨대 《땅덩어리》, 《피투성이》에서는 하나의 소리마디만이 높아져 다른 소리마디와의 높낮이에 의한 대응관계가 설정되지만 《아래마을》, 《가두배추》에서는 가운데 두 소리마디가 다 높아진다. 더우기나 《거무데데하다》, 《누르스름하다》에서는 가운데 세 소리마디가 같은 정도로 높아지고 《퍼리우리하다》, 《뽀유스름하다》에서는 첫 네개 소리마디가 다 같이 높아지고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조선어단어마루가 세기마루와는 물론 중어나 일어의 높이마루와 차이나는 점의 하나이다.

조선어단어마루에서는 소리마디와 소리마디사이의 높낮이차이가 심하지 않다는것과 높이에서도 하나의 소리마디만이 아니라 여러 소리마디가 동시에 높아지는 현상이 있다는것으로 하여 조선말의 발음이 유순하고 부드럽다.

조선어단어마루의 특징은 넷째로, 주로 어음론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데 있다.

소리마루가 음운론적인 기능을 하려면 같은 음운구성으로 이루어진 단어가 소리마루의 위치, 소리마루의 높낮이류형에 따라 단어의 어휘문법적의미가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조선어에서는 높이의 차이에 의하여 어휘문법적의미가 달라지는것은 없고 일부 단어들만이 길이의 차이에 의하여 단어가 구별될뿐이다. 이런 단어들마저도 그것이 합친말의 요소로 될 때에는 소리마루로서의 길이를 가지지 않는다.

조선어단어에서의 높낮이와 길고짧음은 단어의 어휘문법적의미

를 구별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것이 아니라 높이와 길이의 유기적인 결합에 의하여 발음의 음악적인 성질을 부여하는데 이바지한다.

조선어단어마루의 특징은 다섯째로, 높낮이마루인것으로 하여 문장속에서 억양의 영향을 많이 받는것이다.

문장의 억양은 단어마루와 밀접히 련계되여있다. 단어마루는 문장속에 들어가도 자기의 본질적속성은 변하지 말아야 한다. 세기마루에서는 문장속에 들어간 단어가 발음되여도 단어의 세기마루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조선어단어마루의 운률적요소가 기음의 높낮이인것으로 하여 문장억양에 의하여 심한 변화를 가져오는것이 특징이다. 억양에서 선률변화가 기본이고 조선어단어마루의 기본이 기음의 높낮이이기때문에 억양이나 단어마루의 운률적요소가 같다. 이런 관계로 하여 억양이 단어마루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조선어단어의 높낮이는 많은 경우 소리마디수와 관련되는데 조선어는 교착어인것으로 하여 사전적인 단어가 문장속에 들어가면서 토들이 첨부되여 단어의 길이가 길어지며 결과 마루가 있는 소리마디의 위치가 달라진다.

이러한 원인으로 하여 단어마루의 위치가 변화된다.

이와 같이 조선어단어의 소리마루는 세기마루와는 물론 다른 나라 말의 높이마루와도 다른 특성을 가진다.

이상에서 조선어음운론을 체계적으로 서술하였다. 물론 이것은 조선어음운론연구에서 초보적인 연구성과에 불과하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조선어음운론분야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보다 원만히 해결해나가야 할것이다.

조선어학전서 23

조선어음운론

집필 박사, 부교수 김성근
심사 원사, 교수, 박사 최정후, 박사, 부교수 권종성
편집 학사 최홍락 장정 김가성 교정 리영애

낸 곳 사회과학출판사
인쇄소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주체94(2005)년 2월 5일
발 행 주체94(2005)년 2월 15일

ㄱ—46523